

웃음만을 선물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은 웃음을 앞세워가지고 조선국민에게 무쌍한 광영이 되는 그 병역의 취지와 아울러 시국 극복의 신념을 전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 웃음이 선이 되고, 시국담이 후가 되나 실은 시국담이 주가 되고 웃음이 종이 된 것이다. 우리 일행의 사명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 선후와 주종의 순서로서 이루기로 하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인사 중에 “무슨 강연이든지 오늘 같이만 해 준다면 왜 참석치 않으며 왜 깨닫지 못하겠나” 하는 말을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며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 그 주고받는 말이 과연 대효과적이라 하던 이사장의 감상을 이서(裡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익일 오전 9시 20분에 다시 차실(車室)에 몸을 의뢰하고 동 10시 25분에 연천군에 도착하였다. 연천군은 고구려 때에 목공도현(木工道縣)이라 칭하던 지방이다. 어찌하여 목공도현이었을까?

〈출전 : 申鼎言, 『徵兵趣旨野談漫談行脚 ①~④』, 『매일신보』, 1943년 1월 11·12·16·17일〉

4) 돌연히 나타난 진객(珍客)(기사)

전남북, 충북 3개도의 순회공연을 마친 매신교화선전차대는 26일 충남 보령군 주포면의 공연을 마치고 설 사이도 없이 부여에 도착하였다. 본사 주최 부여 신공간 계주연성대회의 기분에 넘치는 부여 시가는 뜻하지 않은 이 진객을 맞이하여 인기는 백렬화되었다. 이날의 공연회장인 부여극장에는 초저녁부터 군내 각 읍 부락에서 모여든 1만여 명이 장을 둘러싸아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공연은 8시부터 시작되었는데 먼저 센다(千田) 부여지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 후 아사히(淺井) 부여군수의 인사가 있고 실연에 들어가 (중략) 특히 이날의 공연을 위하여 경성으로부터 신정언(申鼎言) 씨가 내려와 ‘삼만(三滿)정신’이란 야담으로 내선일체의 발상지인 부여 청중에게 내선일체의 참뜻을 체득케 하여 감명을 주었다. (중략) 일반에 더한층 큰 감명을 주어 감격에 사로잡힌 청중은 자정이 넘었는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출전 : 『突然히 나타난 珍客』, 『每日新報』, 1943년 4월 28일〉

5) 사천여 관중을 매료(기사)

3백만 도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매신교화선전차대의 경기도 순회 공연은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시흥군 과천면에서 첫 막을 열었다. 현대과학의 정수를 집중한 우리 전전차가 아직껏 문명의 □□을 못 받았던 산간벽촌에 찾아 나타나자 일반의 인기는 백렬화되었다. 이날 공연회장인 국민학교 □□□에는 해가 미쳐 산을 넘기전부터 군내 각 □□에서 모여든 4천여 관중이 문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치 □도□오어서 시흥군 초유의 일대 성사를 이루었었다. 먼저 ……(판독불가)…… 으로부터 인사가 있는 후 실연에 들어가 신정언의 □□□란 제목을 가진 야담이 시작되어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이어서 이화씨와 김봉양의 대화 만담은 온 장내를 웃음의 바다로 만들었다. 진지한 흥미와 포복할

웃음 속에서 나도 훌륭한 제국 군인이 되고 늠름한 황국皇國의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생각과 □□가 가슴 속에 설레었다. 그리고 영화에 들어가자 스크린에 나타나는 화면은 모두가 보는 자로 하여금 감동의 장면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다. 실연이 끝난 다음 강천(江川)면장으로부터 간곡한 □□가 있었고 계속해서 □□□□□□교장 선창으로 성수만세를 봉창하고 시종 대성황 중 밤 11시가 지나 경기순회 공연의 막을 내렸다.

〈출전 : 「四千餘觀衆을 魅了」, 『매일신보』, 1943년 5월 12일〉

6) 매신(每新) 교화선전대 함남 도처에서 호평(기사)

징병제 실시와 해군특별지원병제도 실시의 광영에 빛나는 조선의 산간벽지를 찾아 면도가 얇은 그들 대중에게 이 취지를 철저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흥대무번하옵신 성은에 역시 보답의 결의를 굳게 하고져 본사가 반도개병의 여 명을 선전하여 파견한 매신교화선전차대는 지금 염천하의 북선지방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함남지방의 순회를 원만히 마치고 다음 코스로 접어들게 되었다. 교화선전차대는 가는 곳마다 환호와 감격의 □□□을 일으켜 그 수확은 확연한 바가 있는데 함경남도의 순회를 마침에 당하여 세도(瀨戶) 함남지사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뜻을 엮은 편지를 본사 가나가와(金川) 사장에게 보내어 와 대원 활동을 한 층 더 감분케 하였다.

“이번에 귀사에서 주최한 징병제 및 해군특별지원병제도의 취지철저선전차대는 본도 관내의 벽지에 파견하여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바쁜 일정표를 가지고 순회하여 준데 깊이 감사합니다. (중략) 산간지대의 도민에게 성은 우무한□□ 감분 흥기될 결의를 깊게 하여 앞으로 본제도 운영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 준 것을 충심으로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8월 1일부터 실시될 징병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들어서 축하 축복하고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전차대 일행은 한명의 사고자도 없이 예정대로의 일정을 마치심으로 그 보고를 겸하여 감사의 뜻을 거듭 올립니다.

〈출전 : 「每新教化宣傳隊 咸南到處에서 好評」, 『매일신보』, 1943년 7월 31일〉

7) 청중책일(聽衆冊一) 일만을 돌파 벽촌에 계몽의 횃불(기사)

징병제 실시라는 광영의 날을 앞두고 그 참된 뜻과 대동아전쟁에 휩쓸린 우리의 사명을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와 오락시설이 없는 산간벽지의 대중에게 깊이 알리고자 지난 3월 1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첫 공연을 한 이래 2달 동안 전라남북, 충청남북 4도를 순회공연한 매신교화선전차가 7일 오후 3시경 미야마(三山□□) 대장을 비롯하여 일행 9명을 태우고 조금도 피로한 빛을 보이지 않고 원기왕성하게 일단 귀사하였다. 그 동안의 주파 거리는 실로 3천 킬로에 달하고 순회 공연 장소는 53개소에 청중은 무려

32만 명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매신교화선전차가 이른 곳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광적 환영으로 절찬을 보내어 와서 예기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에 대원 일동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일의 피로한 것도 있고 계몽 선전에 감투하고 앞으로 다시 경기도내 공연을 하러 귀사한 것이다. 선전차대는 경성에서 다음 날 9일에 다시 장도에 오를 터이며 앞으로 순회할 곳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을 필두로 경기도 일원을 순차로 공연한 다음 함경북도로 갈 터이다.

〈출전 : 「聽衆册一·一萬을 突破 僻村에 啓蒙의 炬火」, 『매일신보』, 1943년 5월 8일〉

13. 조선미술가협회

1) 미술도 전력증강에, ‘조선미협’ 보도, 생산에 중점 제작(기사)

조선에 있는 미술가 240명의 회원으로 조직된 조선미술가협회에서는 결전미술의 정수를 발휘하여 전시회 직역봉공에 매진하기 위하여 전부터 기구 개혁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21일 오후 부내 태평동 체신사업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조선군에서 나카가와(中川) 대위, 도우모토(堂本) 총독부 정보과장, 쓰다(津田) 총력연맹 선전부장을 비롯하여 협회 축하원 130 여 명이 출석하여 협의한 결과 종래의 이사에 새로이 간사장 1명, 간사 30명을 임명하고 협회의 사무국을 설치하여 회장에는 전 연맹문화부장 야나베 에이자부로(矢鍋永三郎) 씨가 추천되고 동시에 금년도 제1회 사업으로 총력연맹 후원으로 생산증강에 정진하고 있는 조선 내의 조선소, 광산, 수풍댐, 농촌목재□□장에 화가 5명을 파견하여 증산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총후의 자태를 150여 점의 작품으로 완성하여 5월 초순 미쓰코시(三越)백화점에서 전람회를 개최한다. 더욱 이외에 18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의 4항을 결정하여 미술을 통하여 전력증강에 매진하기로 되었다.

1. 반도인 작가에게 일본정신의 정수를 체득케 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한다.
2. 국경경비에 정진하고 있는 황군용사, 경관, 교원, 관리들을 위문하기 위해 만화가를 파견한다.
3. 반도총후미술전람회는 주로 보도미술, 생산미술에 중점을 두어 역작을 모집한다.
4. 회원의 시국인식 양양을 기하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강연회, 좌담회를 개최한다.

〈출전 : 「美術도 戰力增強에 ‘朝鮮美協’ 報道, 生産에 重點製作」, 『매일신보』, 1941년 2월 23일〉

14. 단광회

1) 신 양화(洋畵) 단체 단광회(丹光會) 탄생(기사)

조선 양화단의 중진인 문화부 감사요, 선전(鮮展) 참여(조선미술전람회 심사참여작가-역자)인 야마

다 신이치(山田新一) 씨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로 미술단체 단광회를 조직하고 오는 4월에 제1회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회원은 조선서 모두 중견작가로 활약할 뿐 아니라 내지의 화단에서도 활약하는 신진 기예 21명이 모였다. 그 씨명은 다음과 같다. 김인승(金仁承), 김만형(金晩炯), 손응성(孫應星), 심형구(沈亨求), 박영선(朴泳善), 이봉상(李鳳商)

(후략)

〈출전 : 「新洋畫團體 丹光會誕生」, 『매일신보』, 1943년 2월 3일〉

2) 결전미술의 정수, 금일 단광회전 개막, 수상자 발표(기사)

반도화단의 중진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김인승 씨 등 19명의 화가로 조직된 단광회에서는 결전미술의 정수를 발휘할 역작을 모아 2일부터 7일까지 부내 미스코시백화점 전람회장에서 제1회 전람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이에 앞선 1일 전람회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전람회 장에는 회원의 공동제작으로 징병제시행의 감격을 백호의 화폭에 옮긴 대작 「조선징병제시행」도 전람되는 것으로 일반에 크게 기대되고 있다. (후략)

〈출전 : 「決戰美術의 精粹, 今日丹光會展開幕, 受賞者發表」, 『매일신보』, 1943년 4월 2일〉

3) '조선징병제실시' 단광회전, 첫날부터 인기 백열(기사)

단광회 제1회 유화전람회는 2일부터 부내 미스코시백화점 4층 전람회장에서 개최되었다. 단광회 회원은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김인승 등 반도화단의 중진화가로 조직된 만큼 개장 시간부터 끊임없는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번 출품된 작품은 야마다씨의 「수음(樹陰)」, 단광회상을 받은 사쿠라다 씨의 「언덕이 있는 풍경」 등 총수 31점인데 그 중에도 1개월 전부터 전회원이 개병의 기쁨을 백호의 화폭에 실은 대작 「조선징병제시행」은 단연 인기를 모아 지원병의 행진, 쉰넌바리(千人針-역자)를 배경으로 쿠라시게(倉茂) 부장, 마쓰모토(松本) 해군대좌, 가이다(海田) 지원병 훈련소장, 하다(波田) 연맹총장, 고(高) 경기도 도지사, 조선의 이동치호(伊東致昊) 씨 등의 얼굴이 입소되는 반도청년에게 격려하는 구도를 전면에 그려 교묘한 몽타주로 징병의 기쁨을 나타낸 화상은 그 앞에 끊임없는 인파를 이루었다. 동 전람회는 7일까지 계속될 터이고 전람회가 끝나면 「조선징병제시행」은 군사령부에 헌납될 예정이다.

〈출전 : 「朝鮮徵兵制實施」 丹光會展, 初일부터 人氣白熱, 『매일신보』, 1943년 4월 3일〉

4) 징병제실시기념 단광회 합작화, 군에 헌납(기사)

단광회 회원 19명의 합작으로 된 「조선징병제실시기념」이라고 화제를 붙인 폭과 높이가 6척 되는 큰 화폭 1개를 14일 단광회 대표자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씨가 조선군 애국부를 찾아와 이하라(井原) 애국부장대리, 마츠지(厚地) 대좌를 거쳐 군에 헌납하였다. 이 그림은 작년 5월 조선에 육군징병제가 실시된다는 것이 발표되자 단광회에서는 이 광영의 제도를 기리기 위하고자 회원 19명 등이 힘을 합하여 나라에 봉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어 기쁨에 넘친 반도의 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밖에 여러 그림과 함께 지난 4월에 미쓰코시백화점에서 전람회까지 열어 일반에게 관람시킨 일이 있다.

〈출전 : 「徵兵制實施記念」 丹光會合作畫, 軍에 獻納, 『매일신보』, 1943년 6월 15일〉

15. 전쟁선전전람회

1) 총후미술전람회, 반도화단을 총동원(기사)

반도민중을 철저히 지도하여 이천사백만의 총력을 성전완수에 총동원시키고자 힘쓰고 있는 총독부 정보과에서는 조선미술가협회를 후원하여 '반도총후미술전람회'를 열고자 준비 중이다. 그 시기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의 6일간인데 이것은 총후반도의 생생한 봉공생활을 묘사한 미술품을 진열하여 민중의 시국인식을 계발 지도하기로 되는 것인데 장소는 미쓰코시(三越), 조지야(丁子屋) 양 백화점으로 될 예정이다.

〈출전 : 「銃後美術展覽會 半島畫壇을 總動員」, 『매일신보』, 1942년 9월 23일〉

2) 결전미술전람회 목록

회기 3월 10일~24일(15일간)

회장 총독부 미술관

주최 경성일보사

후원 조선군 보도부

조선총독부 정보과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미술가협회

양화부(洋畫部)

- | | |
|---------------------------------|------------------------------------|
| 1. 구호반(救護班) | (특선) 경성 조병덕(趙炳惠) |
| 2. 학원 즉 병사(學園即兵舎) | 대구 와타나베 요시오(渡邊義雄) |
| 3. 수송의 정비병(輸送の整備兵) | 경성 아오키 히데오(青木秀雄) |
| 4. 풍릉도 고지 점령(風陵渡高地占領) | (조선군 사령관상) 경성 가노 간라이(加納莞薈) |
| 5. 여공원(女工員) | 대구 우도 마사코(有働正子) |
| 6. 북쪽 방어(北の護り) | 경성 신키 마사노스케(新木正之介) |
| 7. 밀림의 척후병(密林の斥候兵) | 경성 오카지마 마사모토(岡島正元) |
| 8. 가마니 짜기(吠織り) | 평북 죽림□엽(竹林□燦, 다케바야시) |
| 9. 아가씨 산업전사(乙女産業戰士) | 경성 한홍택(韓弘澤) |
| 10. 중기관총(重機關銃) | 경성 하야시 도시오(林敏夫) |
| 11. 봉사 후(奉仕の後) | 경성 마쓰바라 겐조(松原健造) |
| 12. □□□□ | 경성 기무라(木村□□) |
| 13. 비행기와 □□병(飛行機と□□兵) | 경성 후지와라 슌이치(藤原恂一) |
| 14. 퇴비를 만들라(堆肥を作れ) | 경기 도요타(豊田□衍) |
| 15. 육박(肉薄) | 경성 고봉우경(高峰友慶, 다카미네) ⁶³⁾ |
| 16. 배선(配線) | (특선) 경성 다카하시 다케시(高橋武) |
| 17. 병사(兵士) | 경성 마쓰바라 겐조(松原健造) |
| 18. 출격하는 독수리(出撃する若鷲) | 경성 히라누마 에이지(平沼永次) |
| 19. 수류탄 던지는 병사(手榴彈投げる兵) | 경성 금본규평(金本奎平) |
| 20. 소년(少年) | 경성 박원충국(朴原忠國) ⁶⁴⁾ |
| 21. 병창□서(病窓□書) | 경성 사에키 노부코(佐伯ノブ子) |
| 22. 송탄유를 만드는 곳(松炭油を造る所) | 경기 마쓰바라 마사히코(松原正彦) |
| 23. 상재전장(常在戰場) | 경성 금본정강(金本正康, 가네모토 마사야스) |
| 24. 적전백미(敵前百米) | 성 무토 히로유키(武藤弘之) |
| 25. 감청대(監聽隊) | 경성 이노우에 히로시(井上傳) |
| 26. 조선소 풍경(造船所風景) | 신의주 마사키 스스무(正木進) |
| 27. 경보에 □□□(警報に□える) | 인천 양천□평(梁川□平) |
| 28. 학병이 나서는 날(學兵の出る日) | 경기 니시하라 히로토미(西原弘富) |
| 29. 흑연 갱도의 전사(黒鉛坑道の戰士) | 신의주 우치오 히데후미(内尾秀文) |
| 30. 사진도 가는 조선학도 출진(寫真も征く朝鮮學徒出陣) | (심사원) 경성 야마다 신이치(山田新一) |
| 31. 가자, 일억 환호의 날까지(やるぞ一億歡呼の日まで) | 신의주 우치오 히데후미(内尾秀文) |

63) 김우경(金友慶)의 창씨명.

64) 박충국(朴忠國)의 창씨명.

99. 싸우는 산업전사들(闘ふ産業戰士達)	경성 후지와라 순이치(藤原恂一)
100. 활공복 습작(滑空復習作)	경성 사토 데루오(佐藤照雄)
101. 봄날(春日)	경성 고마키 마사미(小牧正美)
102. 쓰러져도 쏜다(倒れても撃つ)	경성 가와하라 다카오(川原隆夫)
103. 신병에게 맡기다(神兵に寄す)	경성 이가국삼랑(李家國三郎)
104. □□□□당당한 위용(□□□□堂堂の威容)	경성 오야마(大山□□)
105. 전차병(戰車兵)	경성 기사다 구마오(岸田熊雄)
106. 경기화를 내뿜다(輕機火を吹く)	(심사원) 경성 호시노 쓰기히코(星野二彦)
107. 전쾌의 날을 기다리며(全快の日を待ちつつ)	경성 아이자와 노리코(相澤徳子)
108. 통신병(通信兵)	경성 무로 미쓰코(室満子)
109. 눈 속의 대기(雪中の待機)	경성 후지와라 순이치(藤原恂一)
110. 방독면(防毒面)	인천 홍원홍작(洪原弘作)
111. 시가전(市街戰)	경성 우에무라 아키오(上村明雄)
112. 추격(追撃)	경성 박영선(朴泳善)
113. 학병(學兵)	경성 하야카와(早川□)
114. 어린 충성(幼き忠誠)	(심사원) 경성 미키 히로시(三木弘)
115. 일하는 여성(働く女性)	경성 장본동률(張本東律, 하리모토) ⁶⁸⁾
116. 병사 두 명(兵二人)	경성 사에키 노부코(佐伯ノブ子)
117. 대상단의 태세(大上段の構)	(심사원) 경성 히요시 마모루(日吉守)
118. 전야(戰野)	(심사원) 경성 심형구(沈亨求)
119. 일하는 여공(働く女工)	경성 다카마쓰 히데오(高松秀雄)
120. 대장의 명령(隊長の命令)	경성 다카마쓰 히데오(高松秀雄)
121. 돌격(突撃)	경성 마쓰바라 히사오(松原壽夫)
122. 결전증산으로(決戦増産へ)	경성 평소형렬(平沼亨烈, 히라누마)
123. 철도 차단전(鐵道遮斷戰)	경성 야마자키 마사오(山崎正男)
124. 보병(歩兵)	경성 아사오카 간이치로(朝岡寛一郎)
125. 새벽의 첨병(曉の尖兵)	경성 이가국삼랑(李家國三郎)
126. 지하자원 개발(地下資源開發)	경성 야마자키 마사오(山崎正男)
127. 총후의 기도(銃後の祈り)	경성 정온녀(鄭溫女)
128. 결전의 여공원들(決戦の女工員達)	(특선) 평양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一彦)
129. 몸 던진 남자(捨身の男)	경성 박명철(朴明哲)
130. 와카와시(若鷺)	경성 綿□□史
131. 맥진(驀進)	경성 다카시마 이사오(高島功)

68) 장동률(張東律)의 창씨명.

조소부(彫塑部)

1. 공격(攻撃) 경성 이국전(李國銓)
2. 워싱턴으로 가자(ワシントンへ行くぞ) (총독부 정보과장상) 경성 호소카와 준(細川順)
3. 적전(敵前) 경성 호시노 시게미쓰(星野重光)
4. 묵두(黙禱) 경성 평소경기(平沼京基, 히라누마)
5. 성전(聖戰) (심사원) 경성 도바리 유키오(戶張幸男)
6. 결전(決戰) 경성 야마키 시게마스(山木重益)
7. 출진(出陣) 경성 금강남표(金江南杓)⁷⁰⁾
8. 근로(勤勞) 경성 사에키 데로카즈(佐伯輝一)
9. 육탄(肉彈) (심사원) 경성 도바리 유키오(戶張幸男)
10. 마검(磨劍) (심사원) 경성 도바리 유키오(戶張幸男)
11. 아버지의 영령에 맹세하다(父の英靈に誓ふ) (경성일보 사장상) 경성 이동효중(伊東孝重, 이토)⁷¹⁾
12. 바다 소년(海の少年) 경성 우메하라(梅原逢春)
13. 정찰(偵察) 경성 사에키 데로카즈(佐伯輝一)
14. 대동아 건설의 울림(大東亞建設の響) (심사원) 경성 금성경승(金城景承, 가네시로)⁷²⁾
15. 학병진발(學兵進發) (특선) 경성 사에키 데로카즈(佐伯輝一)
16. 바다의 사나운 독수리(海の荒鷲) 경성 히라네 가쓰오(平根勝彦)
17. 전우(戰友) (특선) 도쿄 조규봉(曹圭奉)
18. 대공(大空) 경성 관가재홍(管家在弘)
19. 옥쇄(玉碎) (특선) 경성 사나카(佐仲三森)
20. 전□(戰□) 경성 미야시게 교우이치(宮茂恭一)

일본화부(日本畫部)

1. 전쟁터의 형으로부터(戰地の兄より) 경주 박봉수(朴奉洙)
2. 적전 돌격 전(敵前突撃の前) 충남 금산화경(金山華慶)⁷³⁾
3. 진심의 착유(真心の搾乳) 경기 핫토리 슈산(服部壽山)
4.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 (경성일보 사장상) 경성 요시무라 도요코(吉村豊子)
5. 방독반(防毒班) (특선) 경성 이와미 시즈에(石見靜江)
6. □□에 도전하다(□に征む) 경성 이건영(李建英)
7. 탄광에서 싸우는 사람(炭鑛で戦ふ人) 경성 조복순(曹福淳)

70) 김남표(金南杓)의 창씨명.

71) 윤효중(尹孝重)의 창씨명.

72) 김경승(金景承)의 창씨명.

73) 김화경(金華慶)의 창씨명.

- | | |
|--------------------------|---------------------------------------|
| 8. 벌재(伐材) | 광주 정운면(鄭雲口) |
| 9. 파견(派遣) | 경성 연일홍거(延日弘巨) ⁷⁴⁾ |
| 10. 상재전장(常在戰場) | (특선) 경성 정종여(鄭鍾汝) |
| 11. 충후의 어린이(銃後の小供) | 충남 야스다 지카요시(安田近義) |
| 12. 전야의 여 명(戰野の黎明) | 경성 나가야마 가즈오(永山和男) |
| 13. 망원(望遠) | 경성 배렴(裴濂) |
| 14. 나라를 지키는 신(國を護る神) | 경성 마루야마 기사오(丸山雅生) |
| 15. 진격(進擊) | 경성 다키모토 사부로(龍本三郎) |
| 16. 훈련(訓練) | (심사원) 경성 이마다 게이이치로(今田慶一郎) |
| 17. 준비(用意) | 경성 송본상진(松本相辰, 마쓰모토) |
| 18. 초진(初陳) | (심사원) 경성 에구치 게이시로(江口敬四郎) |
| 19. 산의 결전장(山の決戰場) | 경성 가스하라(楠原元壽) |
| 20. 출동(出動) | 경성 안도 도시에(安藤敏枝) |
| 21. 적진육박(敵陣肉縛) | (조선군 보도부장상) 경성 김기창(金基昶) |
| 22. 자우(滋雨) | 전남 김정현(金正炫) |
| 23. 전차대(戰車隊) | (특선) 경성 이진영(李建英) |
| 24. 진심(まこころ) | 경성 이와미 시즈에(石見靜江) |
| 25. 항마(降魔) | 경성 장우성(張遇聖) |
| 26. 일억이여 이때까지다(一億よこの時迄だ) | 경성 김시중(金時鍾) |
| 27. 새벽(曉) | (심사원) 경성 이상범(李象範) |
| 28. 공장장(工作場) | (특선) 경성 목호일수(木戸一秀, 기도) ⁷⁵⁾ |
| 29. 전□□□□(戰□□□□) | 경성 이동수용(伊東壽容, 이토) |
| 30. 반도학도 부름반다(半島學徒召さる) | 경성 이데 긴지(井手金治) |
| 31. 생산증강(生産增強) | 충북 이경호(李景浩) |
| 32. 쳐부수다(撃ちて止まぬ) | 경성 이유태(李惟台) |

〈출전 : 결전미술전람회 목록(사진자료), 경성일보사, 1944년)〉

74) 정홍거(鄭弘巨)의 창씨명.

75) 박래현(朴來賢)의 창씨명.

Ⅲ. 문예계의 친일협력 논리와 선전

1. ‘국민문학’·‘국민문화’ 주창

1) 11월 중순 도쿄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한 조선 쪽의 발언집

(1) 이광수(香山光郎), ‘동아정신의 수립’에 관하여

대동아정신은 진리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며, 국제연맹이 만들어 내는 것 같은 인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대동아정신을 여기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동아정신은 가장 알기 쉽게 말하면, 그 기초를 이루고 진수를 이루는 것으로 자기를 버리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청명심(淸明心) - 어인자(御仁慈)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야말로 서양사상과 정반대의 사상으로, 가장 알맞은 예는 로마사상과 일본사상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사상은 자기를 추구하는 사상이므로 권리사상이 발달했으나, 일본정신에는 권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은 일본뿐만 아니라 널리 동아 여러 민족 간에 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구미사상이 옮겨 들어와서 많은 동아인은 이러한 조상이 전해준 귀중한 정신을 벗어 던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구미인의 이기주의사상을 배운 것입니다. 구미인은 동아인에게 그 이기주의를 심어 놓고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동아민족을 서로 반목시켜서 분리시키고, 그러는 사이에 그대로 어부지리를 쳤습니다. 이기주의는 단순히 동아에서는 진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세계의 어디에 가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참다운 도는 자기를 버리는 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의 인의사상은 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상은 서양사상이 풍미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이 되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 것입니다. 온 세계에 자비를 설파한 성자는 석가이며 공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를 정말로 떠나간 분은 천황 한분을 빼고는 달리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이 천황이 자비를 떠나가고 있는 그것에 힘을 바쳐서 익찬해 받드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인의 생활목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는 개인주의가 없다. 개인의 인생목표가 없다. 인생목표를 갖고 있는 분은 오직 천황 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석가의 공적(空寂)에 통하고, 공자의 인 사상의 극지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을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황께서는 자비를 떠나가는 것을 황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군께서는 황도, 우리들 신민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신도(臣道)인 것입니다. 자기를 바치며 자기를 버리는 이 정신이야말로 인류가 살아나가는 속에서 가장 품격이 높고, 또 가장 완전한 진리에 가까운 길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들의 목표, 일본인으로서의 우리들 목표는 미, 영과 같이 나라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인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목적 달성이 우리들의 목적이지만, 그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들 개인이 아니고 천황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천황을 익찬해 드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자기를 모두 바친다는 정신이야말로 대동아정신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회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국제예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적인 의례를 운운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 것입니다. (박수) 여기에 모여 있는 이들은 문학자인 것입니다. 양심에 살고 있는 문학자가 구구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아서 참다운 문학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저는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정신이 훌륭해도 이것을 공중에 현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정신으로 현현하는 데는 국토와 민중이 필요합니다. 이 국토는 즉 아시아이며, 그 민중은 즉 10억의 여러 민족이라고 여깁니다. 이 아시아의 국토를 확보하고, 10억의 민중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전쟁에 쳐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이나 만주국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아시아 여러 민족 분들도 우선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로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정신을 동아에 실현하고, 대단히 살기 좋은 극락과 같은 아시아를 건설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출전 : 香山光郎, 「東亞精神の樹立に就いて」, 『大東亞』 1943년 3월호, 48~51쪽)

(2) 유진오(俞鎮午), 대동아정신의 강화와 보급에 관하여

이제 여기에 우리가 대동아정신의 수립과 강화 및 보급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은 즉 지금까지 대동아정신이 서양의 유물적인 정신에 의해서 흐려졌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우리는 그와 같이 흐려졌던 대동아정신의 흐름을 말끔히 닦아내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정신의 흐름을 닦아낼 것인가, 그것은 아까부터 여러분의 의견 개진이 있는 바와 같이 대동아의 문화를 선양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 편에 있어서는 장여(長與)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동양의 고전을 연구하고, 동양고유의 정신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한 편에 있어서는 이 동양의 정신을 현대에 살려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미, 영의 식민지에 대한 우민(愚民)정책 등을 없애나가며, 동아 10억의 민중에게 문화를 철저히 보급시키고 동시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팔굉일우의 일본의 조국(肇國)정신을 10억의 민중에게 관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일본어의 보급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박수) 적어도 대동아건설에 있어서는 일본어가 국제어로서 말하여지며, 일본문학이 모범으로 각 나라의 민족에게 연구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박수) 일본정신의 현현의 산 실례로서는 '반도'¹⁾의 문화향상의 현 실정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30년 전에 반도의 민중 대부분은 문맹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교육제도의 급격한 확장과 동시에, 이제야 가까운 장래에 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보는 단계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어 즉 일본어 해득자의 수를 말씀드리면 전인구의 1할 5푼까지가 이미

1) 조선.

일본어를 해독하고, 취학연령 이상에 대해서 보면 6할 5푼에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박수) 더욱이 반도의 전통적 정신, 전통적인 문화의 아름다움을 양양한 것은 실지로는 ‘내지’의 선각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도문화는 급격하게 융성해져서 1944년도의 징병제도로써 막바지 그 완성에 들어가자 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아까 격렬한 신념을 피력하신 향산(香山) 선생의 확신은 그러한 일본 정신의 반도에 있어서 강화보급의 30년 간의 결정(結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도의 살아 있는 예는 그대로는 가지 않겠지만, 동아정신의 강화보급에 대해서 살아 있는 참고가 될 것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수)

〈출전 : 俞鎮午, 「大東亞精神の強化普及」に就いて 『大東亞』, 1943년 3월호, 51~53쪽〉

(3) 박영희(芳村香道), ‘문학에 의한 대동아전 완수방법’에 관하여

어제부터 성전 목적 완수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성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으나, 이러한 정열 아래에 이미 우리들의 혼과 혼은 서로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사실 만으로도 대동아의 새로운 힘으로 영, 미의 사상을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웅대한 대동아문화공영 권으로 존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협력과 이해와 정열 아래에 사상과 문화는 혼연동화(渾然同化)되어 새로운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기적인 감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것에 의하여 대동아전의 목적완수를 위하여 문학적인 협력은 더욱 더 강력하게 하고자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남방 작가를 수시로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일본의 진상과 일본정신에 닿게 하며, 문학을 통해서 일본정신을 전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하여 대동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용화가 이루어져서 대동아의 목적완성이 완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출전 : 芳村香道, 「文學による大東亞戰完遊の方法」に就いて, 『大東亞』 1943년 3월호, 54쪽〉

2) 문화로 맺는 대동아, 각광받는 반도대표 결정

날로 처절가열의 양상을 깊이 하는 결전은 오늘 이 순간에도 눈초리를 치켜세우고 동포들이 웃으며 죽고자 혈인(血刃)을 휘두르고 총검을 쥐며 속적 미국과 영국군에 돌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함성은 후방의 궤전을 두들기고 있는 것 같으며 이제야말로 문화인도 “쏘고야 말겠다.”는 열성을 붓에 담아서 대동아건설에 정신(挺身)하고자 일본을 중심으로 만주, 몽고, 중국, 태국, 버마, 인도차이나 등의 문화자가

2) 일본.

한 곳에 모여 공영권 내의 결전태세를 강화하고 문화적인 협력의지를 굳혀서 이겨내기 위한 결의와 실천방책을 흥금을 열어서 검토함과 동시에 ‘내지’³⁾ 각지를 시찰하고 대동아의 맹주인 일본의 참모습을 보고 대동아문화인의 정신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2회 대동아결전문학자대회는 오는 25일부터 10일간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으나, ‘반도’⁴⁾를 대표하여 출석하는 문학자는 총독부의 의향에 따라서 조선문인보국회와 협의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전형 중인 바, 11일 쓰다 가타시(津田剛), 유진오, 유치진, 최재서, 목양(牧洋)⁵⁾, 금촌용제(金村龍濟)⁶⁾의 6씨로 결정, 싸우는 문화조선의 결의표명자로서 대회에 보내기로 되었다.

황도문화 건설로

총련선전부장 쓰다 가타시(津田剛)

대동아의 새로운 문화, 문학의 존재에 대하여 전 회보다 더 깊이 파헤치는 논의가 진행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동아공영권은 황도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황도문화가 어떠한 모양을 갖고 공영권의 각지에서 발현되어 갈 것인가가 근본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우 조선에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참고가 되도록 하며, 또 황도문화의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것이다. 조선문학도 황도문화의 선에 따라서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므로 그 실정을 대동아 각 영역에 전하여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자 생각한다.

문학전쟁을 위하여

금촌용제(金村龍濟)⁷⁾ 씨의 이야기

이번에는 이름부터 “대동아문학결전대회”로 되어 있다. 대동아의 중심인 도쿄 도에서 각국으로부터 원래(遠來)의 문학친우들이 방위설비의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하고 결의하는 것은 창조적 사상전의 일대장관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일이나, 저는 28년 전에 한번 갔을 뿐 12년 간 살아온 도쿄에 6년 만에 가는 것이나 무장된 도쿄 그 자체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대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전의 선배와 친구들과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이야기할 것이고 커다란 포부를 갖고 전의를 새롭게 했으면 하는 것이며, 책임 있는 일을 약속하면서 책임 있는 일을 초래했으면 한다. 첫째는 문학에 있어서 일체의 적성(敵性) 가치관을 박멸하고 일본정신을 중핵으로 한 신동아문학의 건설인 것이다. 둘째는 우리는 일본대표이나 조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선의 황도문학 수립을 위하여 공부해 왔으면 한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깊이 배우는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싶은 것이다. 언어가 불통인 각국대표로부터는 눈알 속의 것을 응시하여 정의(情誼)를 깊게 했으면 한다. 문학전쟁에서 잠자코 죽도록 행하기 위하여 수업을 쌓고 돌아온다면 저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일본.

4) 조선.

5)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6)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7)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일본의 승리

목양(牧洋)⁸⁾ 씨 이야기

이번 대회는 대동아전쟁 결전의 양상을 반영하여 당연히 그러한 마음가짐이 모든 대표에게 요청되고 있으므로 우리 조선에서 국민문학운동의 제일선에 서는 자의 출석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다른 동지와 함께 용감하게 이 대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워서 장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대동아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라고 하는 평소의 신념을 피력하고 일본정신을 대동아문학의 정신으로 삼을 것을 기회가 있으면 제창하고자 생각한다.

목숨을 바친다

최재서(崔載瑞) 씨 답

드디어 영광의 징병제가 '반도'⁹⁾에 실시하게 되어, 반도의 젊은이는 다 함께 대군(大君)의 어전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이러한 각오는 우리 문화인의 각오이기도 한 것이다. 대동아문화의 융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도 다한 것이 아니며, 이 각오마저도 대동아 각 지역의 문학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출전 : 「文化で結ぶ大東亞-晴れの半島代表決る」, 『京城日報』, 1943년 8월 12일〉

3) 제2회 대동아문학자결전회의(1943.8.25~27)

(1) 최재서, 결전 조선의 급전환 - 징병제의 시행과 문학활동

최재서 씨(조선) 아시다시피 조선에서도 이번 8월 1일부터 징병제 및 해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어서, '반도'¹⁰⁾ 청년도 대동아전쟁의 일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은 일본제국의 일부이며 모든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장정을 일선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매우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방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자칫하면 전쟁을 방관하는 것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다만 한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통마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염두에 둔다면 작년 5월 8일 징병제 개정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온 반도를 뒤덮은 바 감격의 폭풍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암운을 꿰뚫고 찬연한 태양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와 같은 청신함이라고 말할까요, 상쾌함이라고 말할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병마의 대권은 천황폐하가 통솔하시는 것으로, 병역

8) 이석훈(李石薰)의 창씨명.

9) 조선.

10) 조선.

은 일본국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짊어지게 되어 빛나는 황군의 일원으로서 참가가 허락된 것은 오로지 일시동인 어심의 발로로서, 내선일체의 대이상은 이것으로써 구체적인 표현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획기적인 제도가 문화, 특히 문학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없을 것이며 조선문학은 '내지'¹¹⁾의 신체제운동 이래, 즉 1939년 가을 이래 의식적으로 또 급속도로 전환의 혁신을 단행해서 오늘날의 국민문학운동으로까지 전개된 것입니다. 그 도중에 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전환점을 찾아 낸 것입니다. 즉 1941년 12월 8일, 선전(宣戰)의 대조(大詔)를 봉대(奉戴)했을 때가 그 첫째의 전환점이며, 1942년 5월 8일 징병제 실시의 발표를 들었을 때가 그 둘째 전환점입니다. 비교적 유럽 문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조선문학이 대동아전쟁 발발과 동시에 자유주의문학과 결별을 결의한 것이나 또 이윽고 일본적인 세계관에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로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작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양하겠으나, 확실히 이때부터 조선문학은 전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덧붙여 심각한 영향을 조선문학에 준 것은 무어라고 해도 징병제의 실시입니다. 그 첫째 영향은 국어문학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문학은 지금까지 언문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언문문학은 194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언문문학이 하루아침에 국어문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시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곤란을 극복해 왔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그다지 확실한 형태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과거 작가의 세계관, 인생관에 철저한 변화를 주었다는 뜻에서, 첫째의 그것보다 더할망정 뒤떨어지지 않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의 영향이라는 것은 저는 조국관념의 파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지식계급은 상당히 긴 기간에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철저한 시간인식 같은 것은 아니며 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수레의 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배 밑바닥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정열로써 전인격적인 전진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징병제도가 실시되어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써 국토를 방위한다는 것이 결코 관념이나 이치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학자들의 가슴 속에 차분하게 조국관념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그러한 문학자들이 조국관념을 포착했다는 것은 장래 조선문학이 크게 발전할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기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조선 문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과 흔들림이 없는 신념의 기대하는 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금일 이후 조선의 중심적인 작가는 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모처럼의 재능을 불후에 맡긴다는 것도 없으며, 그 정력을 분산했기 때문에 끝내 아무 것도 해 낼 수 없다는, 종래의 슬퍼해야 할 현상은 이후 단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징병제가 뜻하는 바는 반도 2천 7백만 명이 내지동포 7천만을 도와서 성전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전개해 나가고 있는 국민문학이라는 것은 조선의 중심작가와 내지의 작가들이 같은 이상과 목표 아래에 대동아건설에 매진

11) 일본.

해 나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는 조선인만을 상대로 하는 좁은 문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2천 7백만의 동포를 뛰어 넘어서서, 1억 국민 나아가서 아시아민족 10억의 문학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두는 바입니다.

〈출전 : 崔載瑞, 「決戰朝鮮の急轉換—徵兵制の施行と文學活動」, 『文學報國』 제3호, 日本文學報國會 편, 1943년 9월 10일〉

(2) 유진오, 거대한 응화 - 결전문학의 이념 확립

유진오 씨(조선) 저는 사실은 금년으로 두 번째 이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만 1년 만에 '내지'¹²⁾에 와서 몸이 저리도록 느끼고 있는 것은 작년과 금년으로서는 모든 것이 크게 변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戰局)이 마침내 결전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만, 결전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결코 일선의 전투에서 얻는 것만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의 모든 것에서 결전의 긴장감을 차분히 느끼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저는 만주국, 중화민국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미영 격멸의 결전태세는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동아시아에서 이미 확립된 것을 알았으나, 그러한 결전태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인 것이며, 정신을 가다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우리는 미영의 문학자, 사상가들이 몇 백 년의 오랜 동안에 걸쳐 그들의 정신생활의 근본으로 해 온 바의 "자신(我)"과 싸우며, 이것을 완전히 불식해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받들어 모시는 정신, 커다란 '화(和)'의 정신,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일본에서 가장 순정(純正)한 모양으로 유지하며, 최고도로까지 발전을 이루어 나간 동양 본래의 도의 정신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되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미영 격멸을 위하여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자의 임무는 이미 불타고 있는 이러한 정신을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북돋워 나가는 것입니다. 편협한 개인주의의 미영문학을 격멸하고 웅대하고 장려한 동양의 오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하면서도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강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나 전쟁을 떠나서 문학도, 문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영문학자들은 정치와 관계없는 문학, 문화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현혹되게 한 것이나, 그것은 잘못이며 위장이라는 것이 전쟁이 결전단계에 돌입해 가면서 드디어 노골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지 않고 무슨 문화, 무슨 문학이 있겠습니까. 이제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문학자는 그가 갖는 모든 것을 통틀어 이 결전에 이기는 쪽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결전문학의 목표는 바로 이 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쟁에, 이것이 결전문학의 이념인 것입니다.

12) 일본.

조선은 옛날부터 대륙의 문화를 그 자체 안에 흡수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내지에 전달하는 말하자면 다리 역할을 해 온 것이나 이제는 거꾸로 황국일본의 일익으로서 일본정신, 일본문화를 아시아의 전 지역에 전달하는 사명의 일단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매우 흔쾌하게, 또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에 대한 최후의 확신을 준 것은 이번 8월부터 드디어 조선에 시행하게 된 징병제도입니다. 징병제도에 의하여 조선의 젊은 청년들은 황군의 일원으로서 결전과 일본국방의 일단을 짊어져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래 조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지부가 찍히게 된 것입니다.

‘반도’¹³⁾ 2천5백만 동포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과 영광을 자각하여, 흥분과 감격의 소용돌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조선의 결전태세도 마지막 마무리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의 문학자들도 그러한 자각 아래에 일본문학의 일익으로서 결전문학 추진에 정신(挺身)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전 : 俞鎮午, 「大いなる融和—決戰文學の理念確立」, 『文學報國』 제3호, 日本文學報國會 편, 1943년 9월 10일〉

(3) 김용제(金村龍濟), 황민생활의 강화

금촌용제¹⁴⁾ 씨(조선) 저는 일본문학의 일익으로서 조선의 국민문학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 10월에 국민문학 충실을 목적으로 조선문학협회라는 것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문제인데 1941년이 되면서 종래의 조선의 문예잡지가 통합되어서, 순전하게 국어에 의한 문학잡지가 발간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 해 온 평론가로서는 본 대회에 참석한 최재서 군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평론에 「전환기의 조선문학」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으로 조선의 최근 문학을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평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에 있는 작가로서는 현재 결전하에 있는 일본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민문학의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9월 중에 5, 6명의 조선작가가 군(軍) 방면으로 견학할 예정임으로 그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출전 : 金村龍濟, 「皇民生活の強化—國民運動に湧く朝鮮文壇」, 『文學報國』 제3호, 日本文學報國會 편, 1943년 9월 10일〉

13) 조선.

14) 김용제(金龍濟)의 창씨명.

4) 김용제(金龍濟, 金村龍濟)

(1) 조선문화운동의 당면 임무 - 그 이론·구성·실천에 관한 각서

1. 문화 활동의 중요성

문화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나는 그것의 논의 취향을 이것저것 든 뒤에 그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믿는 사항을 당면하고 있는 조선문화운동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가 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따름이다.

문화가 정치를 리드하는가, 또는 정치가 문화를 리드하는가 — 그와 같은 전제로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의 정치사상이나 문화문제에서는 인연이 적은 공론이다. 왜냐 하면 정치와 문화는 어느 시대에서도 결코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며, 항상 동일한 사조(思潮) 아래에서 건전한 발달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도 문화의 일부이지만 정치는 하나의 권력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문화는 하나의 여론성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한 것이 항상 좋은 지도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만, 모든 문화나 정치사상의 발달사를 보면 어떤 때에는 이른바 르네상스적이며 “문예사조”적인 것이 정치사상을 리드한 때도 있었으며, 그와 반대로 ‘지나’¹⁵⁾ 역사학의 관념처럼 정치사상의 필요에 따라서 문화이념을 리드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완전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높은 단계에서는 정치와 문화는 근본사상을 같은 것으로 꽃피우게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일본문화의 발휘와 건설은 문화 자체의 국가적인 자각인 탓도 있지만 어느 쪽이 먼저인가 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치적인 요구로부터 동기를 부여 받아 온 것처럼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며 그렇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강력한 국가적인 문화가 요구해 온 것이다.

그것은 결코 문화가 정치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도 아니며, 단지 정치에의 ‘앞잡이’에서도 아닌 것이다. 정치와 문화의 기능 역할은 여러 가지이나 그 국가적인 이념이나 애국적인 목적의식에는 티끌만큼의 차이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국가를 위하여 올바른 정치어로, 문화가 그것에 올바른 공헌을 하는 것은 문화의 자랑이기도 하며, 조금도 예종(隸從)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가 높은 사상성으로부터 정치이념에의 시사(示唆)가 되며 올바른 비판을 협력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며, 정치가 문화운동을 국가적으로 지도하고 동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정치이념이나 문화사상을 확립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이며,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해야 할 것이다.

‘내지’¹⁶⁾에서는 이미 사변 이전부터 문화인 사이에 시국인식을 갖고 국민문화운동을 실천 해 왔던 것이나, 슬픈 일이지만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극히 최근까지 문화인이 아무리 다른 면에서는 국민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자신의 기능이며 무기인 문화문제를 가지고 시국에 대응

15) 중국.

16) 일본.

하는 운동은 실제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것이 황군위문에 문사(文士)를 파견한다는 행사를 계기로 문단의 전체적인 기운(氣運)이 시국적으로 협력하는 동향(動向)으로 가고 있으며, 이 방면의 문예활동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기뻐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문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극, 영화, 미술, 음악과 같은 모든 예술부문이 참으로 예술적인 양심에서 국가사회에 공헌하고자 하여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은 참으로 조선문화 사상에 획기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화 활동의 중요성이 오늘날의 사상·감상을 지도, 교화하는 점에서 얼마나 큰 뜻을 갖는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른바 문예정책이나 문화·예술의 기획이 중앙의 각 관계당국에서 원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국가적인 보조책까지 실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이며, 그 효과란 예상 이상의 수확이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은 사상문제를 단순한 이론 투쟁으로 해야 할 시대는 아니며, 그것이 곧바로 국가적인 사업의 실천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그 때문에 사상인·문화인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이며, 일반 민중에게 애국적인 사상·감정을 심어야 할 것이다.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 보고, 어떤 좋지 않는 사상에 대한 좋은 사상으로서 싸우는 것은 물론 해야 할 일이나, 그 때문에 역시 문화적인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한 효과적인 일인 것이다.

문화 활동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서, 하나는 사상의 이론적인 지도이며, 하나는 그 사상의 근본을 이론한다고 보이는 감정을 정확하고 양양해 감으로써 사상을 인간적인 것으로까지 파악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정서교육에는 대상이 무한히 많은 “계몽해야 할 민중”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문화인은 사상적인 지도와 함께 직접 민중이 즐기면서 이끌리는 예술적인 기능으로써 그들에게 지도와 계몽을 해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오늘날 문화운동의 새로운 임무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인의 용감한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문화통제의 참다운 뜻

오늘날에는 모든 부문에서 국가적인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 “통제”라는 관념의 참뜻을 이해한 뒤에 “문화통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통제”란 근본적으로 “강제”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이념에 대한 “구성”이며 “조직”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는 한은 참으로 좋은 뜻의 “통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통제”정신은 보다 나은 “창조”에 대한 전제인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요구성이나 주관적(통제되는 자체) 자발성 등으로 완전히 통일된 국가적인 높은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강력한 행위의 세계이며 또한 이상과 희망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통제정신은 본질적으로 강제관념과는 틀린 것이다. 아무리 악한 통제의 경우를 가정해도 그것은 좋은 강제보다는 친애적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국가의지인 이상 그 국민은 그것에 자발적인 협력을 한 뒤에 자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은 국가의 운명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국가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장 큰 의무이며 자랑이다.

이러한 경우 나는 “문화통제”의 참뜻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통제, 혹은 실시하고자 하는 문화통제는 단순히 나치스의 모방이 아니며, 우리 국정(國情)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나, 적어도 문화인의 명예를 걸고 문화통제 등 당국의 신세를 지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인 이상, 그를 위한 구성이나 실천 같은 것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아노 수리나 조정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건설적인 하모니를 노래 불러야 할 때인 것이다. 위대한 베토벤적인 기쁜 노작(勞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조선에서 일부 문화인은 내선일체라는 것을 참담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입이나 붓으로는 자타가 공히 “통제”화 되고 있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문화인이 침묵하는 것은 문화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국가사상이나 내선일체운동에 대한 소극적인 백안시(白眼視)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에 관한 통제정책은 오늘날의 조선에서는 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오늘날에는 약간의 회색분자가 신경과민이 되어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것은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완곡한 표현으로 자신까지 기만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 묵수(默守)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문학·예술의 퇴폐적인(잘해서 예술지상주의)의 묘혈(墓穴)에 전락하고 있는 꼴인 것이다.

“문화통제는 문화인의 손으로”

라는 것이 참으로 실행된다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원고검열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극적인 통제는 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통제는 하나의 창조를 위한 전제이며, 새로운 문화운동의 구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쓰인”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쓰고자 하는 - 또는 하고자 하는 문화운동에 대한 지도적이고 협력적인 일을 뜻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는 지도적인 과제인 것이다.

3. 언론기관에 대한 요망

조선의 문화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부문이 있으나, 나는 여기에서 그 가운데 언론기관만을 문제 삼으려 생각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과 잡지이나, 특히 편집자의 국민문화 상의 편집 방침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조선 글에 의한 언론기관은 그 편집방침에서 현저하게 국민문화의 여론을 환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는 하나 기뻐할 현상이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현상은 이상적이며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각사의 옥상에는 “내선일체”와 함께 “보도보국”의 슬로건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아직 “문장(文章)보국”의 주관적인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느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보도망을 보면 이것은 통신의 근원이 기업적으로 완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도 같은 재료를 같은 문장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은 보도보국의 뜻에서 어느 사도 거의 같은 것이다.

신문기관은 물론 보도가 첫째 사명인 줄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조선의 신문역할은 단

순한 보국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건설이나 계몽교화의 사명을 겸하여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조선 언론기관이 걸어 온 역사를 보면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문 잡지의 제1의적인 편집방침은 “문장보국”에 의한 국민문화의 건설, 국민교화의 실천을 자발적인 양심으로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몹시 유감스럽게도 신문의 학예란이나 문학잡지 등의 예를 인용하며, 그 편집방침이나 편집자에게 자각을 촉구하고자 생각하는 것이다.

현영섭(玄永燮) 씨도 그의 저작 「신생 조선의 출발」 속에서, 조선신문의 학예란에 “애국적인” 문학예술에 관한 문장은 거의 한 자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쓰인 문장이다. 그러나 그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맞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과거의 학예란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등의 문예논문으로 전부 메워졌었다는 사실이다. 또는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문예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발표해 온 것도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떨까? 그들 중 어떤 필자는 지금 침묵을 지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열권 안에서” 회색적인 완곡한 표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요즘 와서는 학예란은 완전히 저널리한 색채도, 문화적인 뜻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왔다. 그러한 것은 그들이 국민문화나 새로운 건설적인 저널리즘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었기 때문일까. 제1감도 제6감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일까. 굳이 말한다면 -백안시 때문일까, 무관심 때문일까? 나는 다만 그들 편집자나 그 편집방침에 대해서 맹성을 촉구하는 이상의 결론은 사양하고자 한다.

신문 학예란은 모든 의미에서, 모든 독자에 의해서 완전히 흥미도 자극도 없는 사문(死文)의 난으로 변하고 말은 현상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문제로서도 자살적인 행위가 아닐까? 시험 삼아서 매일 학예란을 보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대체로 현실적인 문화·문학·예술의 문제와는 훨씬 인연이 없는 죽은 문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과거의 쟁쟁한 사람들 이름은 가끔밖에 볼 수가 없으며, 그것도 똑같은 자리를 메우는 식인 신변적인 “수필” 뿐이다. 그 외의 톱 논문은 완전히 뜻이 통하지 않는 나쁜 글과 진부하기 짝이 없는 “교단 노트”의 나열이다. 그들 필자의 이름은 적어도 “문화인”으로서는 모르는 사람들뿐이며, 그 문장이란 무미건조한 것이며, 그 내용이란 비현실적인 관념의 유희인 것이다. 그것은 거의 오늘날의 문화문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잡 글뿐이다.

내 솔직한 의견으로서 편집자의 고심에 “동정”하는 것이나, 과거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문장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화문제를 “경원(敬遠)”하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골동품이라고도 할 수 없는 “하등(下等)품” 문장을 무명의 낡은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그 때문에 독자와 문화인 사이에서 학예란에 대한 흥미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난은 돌아보지도 않게 되어 버린 것이다. 적어도 학예란을 읽기 위하여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던 독자는 누구나 모두 내지신문을 구독하도록 된 것이다.

다음에는 잡지에 관한 것, 특히 문학잡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김문집(金文輯) 씨의 공개장에 의하면 (경성일보의 학예란) 그가 “내선일체”의 문예관을 발표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상적인 분자의 잔류(殘留)나 편집자 등으로부터 원고를 보이콧 당하여 생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을 호소하며 대단히 흥분한 문장을 쓰고 있다. 또 최근에는 나의 친구인 어떤 사람이 어떤 대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잡지에, 그 잡지사의 기자와 이야기가 정리된 원고에 관한 일이지만, 주임격의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내선일체쟁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정없이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도 듣고 있다. 그것을 만약에 공개적인 문제로 삼을 경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문화적인 문제가 되는데, 문화인은 대체로 너무나도 신사적이며, 문화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이것은 중대한 성질의 일인 것이다.

시험 삼아 문학잡지의 몇 가지 차례를 보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시국에 관한 문예물 - 국민적인 문예물은 이상할 만큼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하나도 없다는 풍경이다. 이것은 내지의 문단이나 문예잡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현상이다. 그렇다면 현재 그와 같은 문예물을 쓰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편집자의 주문에 응하여 기꺼이 쓰는 사람이 그다지 없느냐고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문제는 편집방침이나 편집자의 양심이 의심을 받을 이야기뿐인 것이다. 어떤 문예잡지에서는 새로운 국민적인 아이디어 작품이 중요한 작품으로서 취급되지 않고 있거나, 또 어떤 잡지에서는 극히 “체면”치레와 같이, 내지 작가의 “전선문학”이 잘게 쪼개져서 1, 2쪽 게재되거나 하고 있으나, 그것을 전 페이지에서 본다면 1 퍼센트 쯤 될까 말까 정도인 것이다. 이것은 제1 원작자에 대한 모욕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 이것은 한 잡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검열만 통과한다면 무엇이랄도 좋다고 하기보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검열을 무기삼아서 에로티시즘이나 회색의 자유주의에 성벽을 쌓고 새로운 국민적인 문예 발표를 보이콧하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편집자는 그 잡지를 한 개인의 취미나 한 개인의 문예관만으로, 자신의 주관에 맞는 것만을 게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은 그것이 전부 시국적인 기사로 채워지는 성질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문화의 새로운 조류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고 하는 충고만으로 나는 그 이상의 정치적인 의견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으나, 아무튼 국민적인 문화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4. 문화 분야의 새로운 진용

모든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사상·문화건설자는 그 시대의 선구자이며, 그 지도적인 역할을 갖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로망티시즘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모든 고투(苦闘)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커다란 국민문화 - 동야건설의 신문화 창조는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화적인 양심과 사상적인 신념에서 그것을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곧바로 실천행위를 통하여 구체화의 길로 매진하지 않으면 문화적인 정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문화운동이 나쁜 뜻으로 정치적인 공식주의에 의하여 자살(自殺)당했다는 두 가지 전철(前轍)은 밟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문화와를 분리하지 말고, 문화예술의 기능을 갖고 보다 좋게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방법이나 조직론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떤 방관적인 문화인은 말했다 - 문화인은 시국에 대해서 사상과 행위는 따로 행하는 것이라고 -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론과 실천은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라고 말한 뜻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행위로서 국민적인 헌금이나 다른 것은 해도 그 사상을 갖는 문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아가

기 싫다는 뜻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화인과는 문화적인 피투성이의 투쟁을 사양치 않으며 그것을 피할 수는 필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내선일체로 진지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일본정신의 진수를 사상적으로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전 일본국가의 행복과 번영에 도움이 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전 조선의 민중의 희망과 행복을 지도하는 문화적인 임무이며 나아가서는 전 동양의 평화와 전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하는 위대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맨티스트이다. 그 건설적인 로맨티시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어디든 발판이 되는 대륙의 객관 정세에 순응하고, 앞장서는 참다운 리얼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다음으로 오늘날의 조선 문화인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행동에 출발하고 있는가를 숫자적으로 들어서 독자에게 소개하고, 나아가서 그들 사람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한다. 다음에 든 이름으로 알 수 있다시피 그들은 조선문단·논단·극단·화단·영화계·음악계에 서 우수한 지도자급이며, 그 중심적인 현역 사람들이다.

문단 - 이광수(李光洙), 박영희(朴英熙), 김기진(金基鎭), 김동환(金東煥), 이기영(李箕永), 백철(白鐵), 김억(金億), 김동인(金東仁), 박완희(朴完熙), 송영(宋影), 윤기정(尹基鼎), 김문집(金文輯), 이동규(李東珪), 임학수(林學洙), 윤규섭(尹圭涉), 정비석(鄭飛石), 장혁주(張赫宙), 김용제(金龍濟) 등.

논단 - 장덕수(張德秀), 현영섭(玄永燮), 김한경(金漢卿), 인정식(印貞植), 유억겸(俞億兼), 이흥근(李弘根), 최현배(崔鉉培) 등.

극단 - 안기석(安基錫), 김승구(金承久), 이화삼(李化三), 박학(朴學), 최병한(崔丙漢), 이규희(李圭熹) 등.

화단 - 구본웅(具本雄), 채남인(蔡南仁), 변동욱(卞東煜), 한상건(韓相建) 등.

영화계 - 나웅(羅雄), 주인규(朱仁圭), 서광제(徐光霽), 최승희(崔承喜)(무용과 영화).

음악계 - 현제명(玄濟明), 김관(金管), 김재훈(金載勳), 조영은(曹永恩), 홍영후(洪永厚), 김영길(金永吉), 영전현이랑(永田鉉二郎)¹⁷⁾ 등.

이상의 사람들은 현재 나의 기억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활동무대를 찾고 있다. 여기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적으로 하나의 조직적인 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날에는 조선의 전 문화운동을 완전히 리드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고 있다.

5. 문화간담회의 제안

내지의 중앙문단·논단에서는 이미 전부터 문화운동이 조직적으로 실천되어 온 것은 앞에서도 말한 적이 있다.

모든 운동이 그 운동의 성질에 적합한 조직을 갖는 것은 필요하며 그러한 계획적인 조직 활동이 아

17) 김영길의 창씨명인 나카타 겐지로의 바른 표기는 '永田鉉次郎'이다.

니면 그것은 정력의 분산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나 효과성도 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에는 앞에 든 사람들도 그 사상적인 욕망은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할 기회나 기관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소극적인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

나는 여기에서 조직론까지 나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소론(小論)을 하나의 제안으로서 보다 현명한 검토를 한 뒤 보다 좋은 조직론이 태어날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정연(整然)한 조직론은 보류해 두고 그 앞에 먼저 문화인 동지가 문화운동에 관해서 서로가 의사를 교환하는 적당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미로, 가령 문화 간담회 비슷한 친밀감을 길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도쿄 같은데서는 그러한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문화단체가 문화협회와 같은 것으로 하나의 조직단체의 명칭이 되어 명실 공히 조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이 그대로 문화단체의 명칭으로서 장차 태어날 것인지 어떤지는 별도로 하고, 나는 보다 더 가벼운 의미로 그러한 조직 활동의 준비로 생각해 본다.

오늘날의 문화운동은 본질적으로 문화주의적인 문화단체만의 운동일 수는 없다. 그와 동시에 어떤 형태를 가진다고 해도, 문화문제는 문화인의 손으로만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그 후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당한 원조가 모든 의미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와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나 간접적으로는 참다운 관민일치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와 같은 정신적인 유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조직적인 방법론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런데 문화간담회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것이 간담 또는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으로서는 목적이 있는 문화이념인 이상 그것은 단순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에게 당면한 문화문제를 어떻게 실천화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기술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와 같은 “간담 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각각의 단체나 개인들이 그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도적인 협의기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간담회에는 적당한 형태로 문화문제에 통하는 당국의 요소와 직접 문화 활동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구성되고 그들의 의사를 각자 독자적인 단체로 전달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각각의 분야에는 즉 문예 간담회라거나 극단 간담회라거나 기타 문화적 단위의 간담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화간담회는 총괄적인 상부구성이며, 그 아래에 각 문화적인 독자적인 간담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중앙에는 이미 하나하나의 문화단체가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 문화 전반에 관한 상부적인 “문화 간담회”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는 결성이 안 되고 있다. 일본문화협회 등의 조직은 많이 있으나 앞과 같은 의미로서의 조직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 영역이 좁은 조선에서는 곧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또한 지금이야말로 숙성하고 있는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과거 좌익문화운동을 할 때는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의 모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구성요소에 학무국 언저리의 참가라는 것이며, 활동대상이 전 국가적인 문화건설과 전 국민 대중의 계몽운동이다.

되돌아보면 이와 같은 조직적인 운동이 아직 시기상조일 것인가, 어떤가 하는 실제문제이지만, 내가

보는 소견으로서는 너무나 늦었다는 원망은 있어도 조금도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 삼아 지원병제도의 중대 문제를 보라. 그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확실히 시기상조론도 있었음에 틀림 없으나, 막상 해 보니까 오히려 늦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오늘날은 모든 뜻에서 건설의 시대이며 계획의 시대이다. 건설적인 계획에는 언제나 용기와 영단이 필요하다. 통속적으로 “걱정하기보다 낡는 것이 빠르다”는 말이 있으나, 오늘날의 정치가나 문화인은 건설적인 용기와 추진력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이 제안이 결코 시기상조도 아니며 초조한 것도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쇠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문화 활동에의 관심이 불타고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도대체 어느 시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불충분한 소론에 대해서 현명한 검토를 아낌없이 해 줄 것을 모든 문화인이나 문화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또 하나는 논의하기 위한 논의나 개인적인 영웅심으로, 논박하기 위한 논박을 일체 그만 두고 어떻게 하면 당면하는 조선문화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끝)

〈출전 : 金龍齋, 「朝鮮文化運動の當面の任務—その理論・構成・實踐に關する覺書—」, 『東洋之光』 1939년 6월호, 76~85쪽〉

5) 김문집(金文輯)

(1) 문화표현의 국어적 추세

최근 조선어 잡지로부터 평론을 하나 써 달라는 부탁을 두세 번 받은 적이 있다. 아직 한 번도 그의 의뢰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의 태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주문이라고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드디어 올 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언젠가는 말을 것이라고는 1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언어전환으로의 놀라운 과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의 이 문화사적 필연성을 실천적으로 인식한 최초의 사람, 이를테면 그 이니셔티브를 잡은 사람이 이 잡지의 주간이다. 좋고 나쁜 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그가 시대의 백지적(白紙的) 순정 촬영자이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래할 문화의 촉각체로서의 저널리즘 본래의 챔피언이라는 점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문화의 시대적 긍정자인 것이다. 주관으로 객관을 규정하려는 돈키호테의 기쁨도 없을 뿐더러 객관으로 주관을 변명하려는 햄릿의 슬픔도 없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두에 실을 원고이니 가능하면 뼈대가 있는 일종의 시대적 문제를 다룬 확실한 것이면 좋겠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해두자.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참으로 한심하다. 왓, 익명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사람은 의외로 소심하다. 이 소심함이 모처럼의 그의 선천적 총명함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 자리에서 걱정했을 정도였다. 약한 자는 대개 잘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서툴다. 그는 그야말로 시대를 느끼기는 하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한, 지금 현재 그에겐 배짱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노고가 부족하다. 아니면 나 자신의 종래의 조선어에 대한 사회적 명성—그것은 저녁 무렵의 생쥐 꼬리 정도의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을 고려한 노파심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뭔가 부족한 느낌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권두 논문에 대한 주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톱에 실리는 것이니 격식을 갖추어 써 달라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옛 관습(舊套)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격식을 갖춘 논문 중에서 내실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듯이, 이른바 권두 논문 중에 재미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재미있다는 것은 읽은 뒤 몸에 착 달라붙는, 이를테면 그런 느낌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쾌감의 높이, 혹은 깊이가 그 문장 내지는 논문의 가치임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그 가치를 감상자들은 매력이라고 한다. 글의 목적이 그 자체의 매력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실크햇트(silk hat)에 연미복을 입고 치장을 한 괴뢰(傀儡)가 밤늦도록 기다리는 아내의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격식 높은 문장에 작용은 커녕 기분이고 뭐고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권두 논문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써왔다. 특히 신문에 쓰는 논평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톱기사에 실린 나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정형적인 괴뢰 풍정(風情)에는 적어도 흥미를 느낄 수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꼭두각시인형(木偶) 주위의 공기에 참을 수 없었던 슬픈 이야기이지만, 조선에는 아직 본격적인 인텔리겐치아로 조직된 교양사회가 없다. 별례를 씹은 것 같은, 그 내실은 독도 약도 되지 않는다. 뜻도 모를 이상한 술어(怪術語)를 일견 정연하게 늘어놓으면 그것으로 평론가가 되고 학자가 되고 일류 인텔리겐치아가 된다는 것이 이 도시의 풍속인데, 논쟁자의 무지도 문제겠지만 우선 독자의 교양이 참으로 슬프다고 말하는 것 외에 달리 한탄할 길이 없다. 교양이란 물론 주입식 고등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의 향수상(享受相)을 가리킨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비판력이자 감상력이다.

조선에는 아직 이렇다 할 정론가(政論家)도 없을뿐더러 문명비평가도 없는데도, 이상하게도 문예평론가라고 자칭하는 부류는 많이 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拙者 역시 아무래도 거기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지만 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정계도 교양사회도 없는 대신 문단이라는 오두막집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오두막집이 또 가관이다. 본격적인 교양사회가 없는 곳에 문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시골 동네의 잡화점이나 만물점 같이 이 오두막집에는 갖가지 이색적인 교양의 대의원들이 전 조선에서 파견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가 재미있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골치 아프게도 문단에서 그들은 가장 역겨운 인종에 속하는데, 대학에서 노트만 작성하고 있던 시골 서생들만 우글우글 모여 있다 보니 그들이 문학을 알 리가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생적으로 음험한 근성을 드러내어 무슨 그룹, 무슨 파라며 서로 불쌍사납게 눈을 흘기면서 세력다툼의 문단정치를 하고 있는 살풍경.

게다가 이런 풍경의 중심인물이 편집자라고 하니 얘기가 슬슬 신화적으로 되어 간다. 대체 편집자란 무엇이더냐! 말할 것도 없이 독자의 대면자이다.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적 저널 기관 안에서 그는 물론 독자의 기계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봉건적 유몽(留蒙)시대에서는 그는 물론 교사의 앞선인이 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선은 어느 시대에 속할까? 그 어느 시대도 아니고, 게다가 두 시대가 모두 교차하는 과도기적 제3의 신시대이다. 아마 오늘날과 같이 편집자가 보람을 느끼는 시대도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들 대부분이 불행히도 문학이라는 당치도 않은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조선 특유의 사정으로 인해, 주제도 모르는 신사로 둔갑해 유유히 문단계를 걷고 있는 시골뜨기가 이 얼마나 많은 말이나.

성인이 되지 않은 문단극장에서 편집자는 무대 뒤에서 익살꾼이 되어야 한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 재능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편집자인 이상 양쪽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대에 충실하고 문단에 공평하고 독자에 친절해야 하는 것은 바로 편집자의 지상명령이다. 그도 인간인 이상 이른바 죽이 잘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친소(親疎)의 구별은 자연히 생기게 마련이고, 이는 어떤 사회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편집자인 그에게는 이런 개인적 사정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천하의 헌법이다.

요컨대 조선 문단은 자기 자신의 부덕으로 인해 지금 내부에서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외과적 병세로 인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문단의 육체일진데, 어째서 제군들은 그런 꼴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인가. 자폭하는 것이라면 나 역시 한 몸이니 동병상련인 셈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조(李朝) 후예의 미풍인 것으로 보이는 당파, 음모, 시기와 질투 따위라고 한다면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게도 욕심이 있다. 설령 일시적이긴 하지만 전혀 치료할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 그 처방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벗어라!”라는 것이다. 당파적 무장, 민족적 외투, 먼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벗어던져라. 꾸밈없이. 순진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렇다, 오직 알몸만이 강하다는 공간, 실력만이 효과가 있는 시간, 그러한 시공간이라는 이원적 세계에 개성이 개입함으로써 일원화되었을 때, 그때 경성에는 백 개의 문단이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백 개의 숨길이 허공에서 합쳐지는 곳, 거기에 예상치도 못한 조선 문단이 부상할 것이다. 루소의 자연이 낡았다면 좀 더 새롭게 들리는 희랍의 고대를 빌려 말하자. “너는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돌아갔다. 그렇다면 언어표현의 국어적 변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간단하다. 가야금이나 장구를 연주하며 춘향가나 흥타령을 노래하는 것만이 조선인의 면목은 아닐 것이다. 피아노도 좋고 바이올린도 좋고, 〈아베마리아〉나 〈리골레토〉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어만이 조선 문인의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영어나 불어도 물론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는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연한 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역사는 적극적이다. 흥하는 것도 적극적이고 망하는 것도 적극적이다. 게다가 민중은 정직하다. 망하러는! 조선어 문화를 슬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흥하려고 하는 이 땅의 일문판(和文版) 문화에 기쁨에 찬 수희(隨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다. 하물며 우리 자신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균으로 내부에서 그 문화체(조선어)의 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상으로 나는 주로 문단을 대상으로 하여 논했는데, 문단이란 그 민족의 문화를 고도로 상징하는 문화사회이다. 또 하나 사족(蛇足)을 덧붙인다면, 장래에는 물론이지만 현재도 한 달에 잡지 1권 정도

를 구매할 수 있는 조선인은 안타깝게도 조선문보다 국문이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때마침—보신 바와 같은 시세(時勢)문화의 국어적 표현은 이미 결정된 운명으로 보인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아무래도 유카타(浴衣) 차림으로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되고 만 사실은 근래에 들어 격식을 갖춘 담화에 지쳤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설마 이런 한담을 권두에 게재하는 실수는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실례를 무릅쓰고 이대로 지면을 채우는 용도로 쓰기를 바라며 보내기로 한다.

〈출전 : 金文輯, 「文化表現の國語的趨勢—或日の馬鹿話—」,
『靑色紙』 제2권, 제6집, 1939년 9월, 26~29쪽〉

6) 김동인(金東仁)

(1) 국민문학과 제재(題材)

선전미(宣傳味)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이라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바의 선전력을 국민 계몽의 편으로 돌려서 국민으로 하여금 현하 시국을 이해케 하며 나아가서는 시국에 ㄹ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것이 시국하의 문학이 가져야 할 임무인 것은 거듭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문학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재는 물론 부지기수다. 그런 가운데서 그날 제재가 되었던 중요한 하나는

‘조선사회에는 부분을 제하고 군인생활이 없다. 현재 전쟁 중에 있고 또한 전쟁의 처리로서 신질서를 세우려는 소설 제재 중 군인생활이라는 것을 제외하자면 매우 ㄹㄹ하다.’는 문제가 나왔다.

이것을 다시 해설하자면 ‘현하의 우리나라는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쟁의 영향이 안 미친 데가 없다. 전쟁이라 하는 것과 군사행동이라 하는 것은 거대한 현실이다. 그러나 전쟁에 직접 참여치 못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소설 상의 인물로 하여금 당자(當者)는 현역 군인이요 우인(友人)은 제대 군인, 누이는 전사자의 미망인, 처남은 ㄹㄹ 상인(商人) 등등이라 하는 사회를 제재 삼을 수가 없다. 현하 시국에서 평화인만을 골라서 등장시키는 소설을 제재로 하여야겠으니 그 범위가 국한되어 매우 답답하다. 제재에 국한이 있다 하는 것은 그다지 큰 국한이 아니라도 답답한데 현하 사회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전쟁하는 사람’을 뽑자니 이것은 ㄹ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다.

〈출전 : 金東仁, 「國民文學과 題材」, 『매일신보』, 1941년 12월 27일〉

7) 김종한(金鐘漢)

(1) 단가문외관(短歌門外觀)

나는 단가(短歌)를 좋아한다. 외우(畏友) 이석훈(李石薰) 씨는 하이쿠(俳句)쪽을 좋아하는 듯하며, 분명히 대용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으나, 문외한(門外漢)으로서의 취미로서는 그래도 좋을 것이다.

나는 단가가 좋은 것이다. 두들겨 맞아도, 채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튼 좋은 것이다. 나와 같이 서투른 시를 쓰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쨌든 정열의 객관적인 파악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좋아하는 날이 오면 단가 그 자체도 행복하다기보다 오히려 폐가 될 때가 많을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단가가 좋은 것이다. 하이쿠라는 시형(詩型)은 575로 독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친해질 수 없다. 멀리에서 작가가 독자에 냉소를 던진다는 느낌의 시형이다. 물론 하이쿠도 문학인 이상 냉소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있을 까닭은 없다. 결국 시형이 차가운 것일 것이다.

그것에 비하면 단가는 친절하다.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먼 길에 연인이 온다면 아카시(明石)의 문에서 야마토(大和)섬이 보인다는 것과 같다. 이래도 모르겠느냐, 57577, 이래도 말이야, 고하는 것과 같은 친절한 시형인 것이다. 청탁(淸濁)을 아우른 넉넉함이 넘치고 있다. 혁신비평가 오오코시 토오요(大串兎代夫) 같은 이가 뽑내고 있다. 대동아건설에 필요한 일본민족의 친화성이나 포용력이 있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모자란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모자란다¹⁸⁾고 하는 것은, 오랜 동안 우리들이 상실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풍속이 아니었을까.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 미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사기(古事記)·만요(萬葉)·고금(古今)·신고금(新古今)으로부터 도쿠가와(徳川)시대를 거쳐 메이지의 단가혁신운동에 이르며, 더욱이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라는 무섭게 여겨지는 선생이 나타나서 철학의 칸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나는 만요가 좋다. 시키(子規)가 향아리에 꽃는 등(藤)꽃송이 짧으면 타타미(畳)위에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이쿠에서 깨달은 사생적인 수법 안에 만요의 유동감을 살려 나가고자 한 것처럼 얼마나 재빠르게 하고 있어서 근대적인 것이나, 만요 인(人)과 비교하면, 어쩐지 허리둘레가 작다는 느낌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근대는 종언(終焉)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락)

〈출전 : 金鐘漢 「短歌門外觀」, 『綠旗』 1942년 4월호, 89~90쪽〉

18) 주제의 구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은연중에 그것을 풍기는 기법.

(2) 시집 『어머니의 노래』의 ‘맺는 말’

대(竹)로 엮은 커다란 갓을 쓰고, 프란시스 잼을 올릴 것 같은 당나귀에 걸터 앉아서 연중(年中) 끊임 없이 제자 집을 역방(歷訪)하고 있었다. 저 유명한 떠돌이 시인 김삿갓의 아류(亞流)였던 것 같았다. 가끔 귀향하면 우뢰와 같은 불평을 남발하고 있었다. 내 외할아버지는 지방에서는 한학자로서 시인으로 통하고 있었다. 자주 말세야, 말세야 하는 말을 애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말세에는 사쿠라 투성이인가. 이것은 잇차(一茶)의 구절이나, 내가 잇차의 혈액적인 것을 느끼는 것은 그의 속에 내 외조부를 찾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호는 한서(閑西)였었다. 그렇게 말하면 북조선의 기온에는 어딘가 신슈(信州)에 닮은 점이 있으며, 나의 집도 잘게 가른 논(타고토노 츠키 : 田毎の月) 가운데 남아 빠진 것이었다.

내 생가는 농사꾼을 하고 있었으나, 6살 될 때 나는 백부 집에 양자로 갔다. 본가에 상속해야 할 남자가 없을 때는 작은 집의 장남이 양자로 가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다. 의사였던 양부는 엄격한 이성(理性)인이었으나 양모는 아이가 없는 중년부인이면서 편집광(偏執狂)적인 애정의 소유자였다. 그때쯤부터 생모와 양모 사이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애정의 쟁탈전이 펼쳐졌다. 한편에서는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자기아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두 사람의 어머니를 가진, 비교적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성인이 되었다.

어머니의 애정이라는 것은 조국애(祖國愛)와 통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훗날 나는 시골 중학을 나와서 상경한 것이지만, 관부연락선 안에서 나는 정치적으로도 자신이 양자인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뒤틀림은 조선에 징병제도 실시가 결정되고 일본이 확고한 나의 조국이 된 작년 5월 8일에 비로소 양해한 것이었다. 만요(萬葉)에 이런 노래가 있다. 젓을 먹여 준(다라치네 : 垂乳根 : 어머니, 부모) 어머니에게 안녕을 하면 아무래도 너도 나도 일이 성사될 것이다.

그런데 도쿄에서 나는 자주 강의를 들으려고 나가지 않는 대학생이 되거나, 어떤 잡지 기자였거나 했다.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의 초기 단편과 류큐(琉球) 민예와 유지마 텐진(湯島天神)의 비둘기를 좋아했다. 전쟁이 일어난 뒤부터는 그러한 잘디잔 취미는 날아가 버렸으나 지금도 나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의 난숙기(爛熟期)로 세련되지 않는 나 같은 것은 물구나무서기를 해도, 그런 시는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었다. 할 수 없이 혼자 몰래 조선말의 시를 쓰고서는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시제가 무엇이 되든지 모티브는 항상 영원한 어머니에의 향수였다. 조선시단의 제1인자이었던 정지용 사백(詞伯)이 추천해 주었으므로 이태준 씨가 주재하고 있었던 『문장』에 상당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6편을 골라서 번역한 것이 (타라치네의 노래)인 것이다. 친구가 읽어보고 “역시 원작 쪽이 아름답네요”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아버지는 40의 젊음으로 타계했기 때문에 중학을 갓 나온 나는 한 집안을 관리하면서 시골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가정을 단념하고 상경한 나의 기분에는 아마도 무엇인가 고향에

없는 것을 희구해 마지않는 치열(熾烈)함이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예술이나 과학은 초국경적인 것이라고 취급했던 시대였으므로, 그러는 가운데에 고향을 찾고자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여인들의 의상이나 고층건물이 촌놈인 나를 무아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차차 익숙해지니까, 도쿄이나 근대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느꼈다. 그때쯤부터 나는 지방주의의 건설자, 마우리스 바레스¹⁹⁾ 등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國男) 씨에 경복(敬服)하고, 후쿠시 고지로(福土幸次郎) 씨의 품행을 지켜보았다. 독서도 프랑스 작가로부터 러시아나 북유럽의 것으로 이행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나도 여러 가지 조금은 생각하는 청년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고향에 돌아갔다. 오래간만에 흰 머리카락이 늘어난 어머니 곁에서 『전쟁과 평화』를 되읽었다. 모리 오가이(森鷗外)를 모범으로 한 2, 3편의 소설도 시작(試作)해 보았다. 어머니의 애정도 나이에서 오는 침착성이 작용하여 나는 평화스러웠다.

결국 내가 죽을 장소는 경성이 될 것이다. 현재 통합의 결과 남겨진 조선 유일의 문예지잡지 “국민문학”의 편집자인 것이다. 이 시집도 그 회사의 호의에 의하여 간행해주는 것이기는 하나, 하찮은 것이다. 자신의 천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물론 좋은 문학의 이해자가 되고 좋은 편집자가 되도록 장래의 일터를 찾아내고자 생각하고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나 저 분신(分身)의 나는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인 것 같고, 한때 “신(新)지방주의”다 하는 것 등, 말하자면 마우리스 바레스를 조금 아는 척하는 지정학(地政學)의 정신을 가미한 문화이론을 발표하여 젊은 사람들로 부터 박수를 받거나, 중년의 사람들로 부터는 백안시당할 일도 있다. 그것은 치졸(稚拙)한 나의 시와 함께 나의 청춘을 기념할지도 모른다. 솔직한 이야기, 30이 넘어서 아직 시에만 매달리고 있는 풍경을 나는 그다지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꽤 많은 시인들을 애독해 왔다고 생각하나, 30이나 되려고 하는 내가 지금도 아직 읽는 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만요(萬葉)와 릴케쯤밖에 아니다.

그런데 나루카미노 우타(천둥의 노래)에 모은 7편의 시는 그것을 쓰고 있을 쯤의 “새로운 사시(史詩)의 창조”라는 시론을 되풀이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상쾌한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시인들은 인간을, 특별히 영웅을 노래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란 영웅이 부정되는 시대이며, 근대시란 시의 위대함을 멸시당하는 시사(詩史)였던 것이다. 대동아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리면서, 나는 묘한 것을 생각했다. 옛날 시인들처럼 영웅을 노래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무명의 영웅인 경우도 있다. 때로는 집단인 경우도 있다. 아무튼 히로이즘을 갖고 있지 않는 소재에는 흥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지(一枝)에 대해서”에서는 내선일체에 헌신하는 한 사람의 문화인의, 운명의 인과가 아름답고 슬픔을 비유하려고 했다. “합창에 대해서”에서는 대동아건설에 참여하는 조선인의 풍모와 감격을 벽화(壁畫)하고자 했다. “풍속”을 쓴 동기는 경성의 거리에서 묵도(默禱)하는 집단의 영웅적인 장엄함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징병제도 실시가 발표된 5월 8일에는 “유년(幼年)”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12월 8일을 다시 맞이하면서 “대기(待機)”를 사시(史詩) 앓고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무엇을 팔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작시(作詩)의 태도는 하나의 정리된 주장이나 작품행동으로서는 내지에서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범되는 것이 없어서 외로워 견딜 수가

19) 모리스 바레스, Maurice Barrès, 1862~1923, 프랑스의 국수주의적 작가.

없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일부러 내지에서 와서 조선의 새로운 영웅들을 노래를 해줄 것 같은 호사가(好事家)인 시인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툰 채로 작은 포부를 갖고 노래해 가면 조금은 나라를 위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적인 이상이나 의욕이라는 것에서 주로 시적으로 느낌을 받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니며, 그것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국민 된 “인간”으로서의 생명력과 진실의 아름다움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희구해 마지않는 인간들이 국민으로서의 생명력과 진실은 영원에 이어지는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꽤나 원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나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침착성이 생겨서 보다 더 내면적으로 “일본”을 파악하고 싶어졌다. 어쨌든 조선이나 조선인이라는 것도 꽤나 변화해 온 것 같다. 역사물을 쓰고 있던 만년의 스트린드베르그가 “역사는 신의(神意)다”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김종한(金鐘漢)

〈출전 : 金鐘漢 「あとがき」, 『たらちねのうた』(詩集), 人文社, 1943년 7월, 40~46쪽〉

8) 박영희(朴英熙, 芳村香道)

(1) 감격(수필)

박영희(朴英熙 조선문인협회 간사)

우리나라의 현대를 일컬어서 저는 곧바로 과격시대라고 부르고 싶다. 이것은 요즘 저의 감상의 전부인 것이다. 그러나 전혀 감격을 모르는 시대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시대도 있었던 것이다.

종교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은 신에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나, 천지만물 또는 인간 동지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감격도 감사도 전연 모르는 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에는 감격할 일이 있어도 그것이 감격으로 내비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태양이 따뜻한 광선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자연법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대지(大地)가 우리들에게 곡식을 영글게 해주는 것은 우리들의 노동의 결과인 것이다. 심한 가뭄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비는 아무것도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며, 땅에 감사할 일도 아니라는 사상인 것이다.

사람들은 유물적 과학만능주의를 제창하고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이며, 이러한 과학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즉 신이라고 믿었으나, 이러한 사상의 발전 결과는 종교를 무시하고 신의 존재를 타파하여, 인간의 정신세계를 어둡게 만들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위대해지면 아무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사물이 다만 평범해서 감격

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덕관념이 일변한 것이다. 위대한 인간은 아무 것도 구속당할 필요가 없으며, 또 아무 것에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으로 말하자면 영웅주의, 유물주의의 혼합형인 것이다.

충효라거나 신의라고 하는 것은 봉건사회의 도덕이며 현대인의 생활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만약에 무엇에 감격하고 감사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음이 심한 것이며, 비과학적이며, 또 몽유병자라고 비난을 했다. 그러한 사상은 서양의 유물주의가 들어 온 뒤의 일로 정말 인간이 생각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저는 가장 혈기왕성한 시대를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며, 또 거기에서 저의 정신적 양식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구하면 구할수록 저는 악착같은 현실에 부딪힐 뿐으로서 한 번도 감격이라거나 감사함을 느끼지 않았다. 느끼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자랑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감격이거나 감사를 대신하여 사람은 사람과 다투고, 아우는 형을 원망하며, 처는 남편과 헤어지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나무라고, 사람들은 사회를 비난하고, 인민은 국가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 식자들은 스스로 민중의 선두에 서서 그것을 부르짖으며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흐려진 밤하늘에서 금성을 찾을 수가 없듯이 그러한 사회에서는 감격이라거나 감사 같은 것을 찾아 낼 수는 물론 없다. 감격이 없는 사회에 신은 없으며, 신이 없는 사회에 감사도 없는 것이다. 신이 없는 사회에는 악마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들은 매일 감격 속에서 살고 있다. 또 사람들은 감격할 줄을 알게 되도록 된 것이다. 저는 요즘 너무나도 많이 감격해야 할 일을 목도(目睹)하고 또 경험했던 것이었다. 단체에서, 길거리에서, 학교 등에서 보는 것이 모두 감격이다. 저는 이 감격 속에 하루의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를 잊고 있는 것이다.

이 감격이라는 것은 저 혼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제가 보는 바로서는 상인도, 관리도, 검사도, 경찰관도, 사상가도, 학자도, 예술가도 …… 모두 감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를 일컬어서 감격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사변 이후 국민은 먼저 황군에 감사하고 또 그 고생에 감격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충의를 다 할 것을 자각하고 있다. 작년에 저도 전지(戰地) 위문에 가서 군인들의 고생을 보고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후방을 굳게 지키고, 일선에는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보낸다. 군인들은 국민의 이러한 정성에 또한 감격하는 것이다.

감격하면 반듯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감사하면 반듯이 물심양면의 어느 쪽인가에 표현 되는 것이다. 감격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너도나도 모두 행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감격의 파도에 메어지는 것이다. 사회전체가 감격하고 국가전체가 감격 속에 있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또 자신의 행동이 남을 감격시키는 것이다.

저는 두 개의 시국단체에 관여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상단체로, 다른 하나는 문학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단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세계 모두 감격스럽게 보인다.

감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훌륭하게 해 내고나면 보는 사람들은 감격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훌륭하게 생명을 받쳐서 국가를 위해서 함으로써, 너도나도 하면서 모여드는 것을 볼 때, 누구라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때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지금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제 각각의 입장에서 보국을 맹세하고 있다. 즉 현대는 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하는 시대여서 시대 그 자체가 이미 감격인 것이다.

개인주의, 공리주의, 유물주의를 뛰어 넘어서 넓은 정신적 영역에서 충효와 정렬(貞烈)과 신의의 새로운 신조가 과학과 함께 인간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데에 우선 감격하고 있는 것이다.

〈출전 : 朴英熙 「感激」(隨筆), 『京城日報』, 1940년 1월 1일〉

(2) 신체제와 문학

조선문인협회 간사 방촌향도(芳村香道, 朴英熙)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부문에서 신체제 아래에 재출발을 단행하고 있다. 정치, 경제, 철학사상이 그렇고 또 문예도 그렇다.

성전하에서 신체제는 물론 구체제의 것과는 정반대인 것인 동시에 보다 고도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해서 고도문학으로 할 수 있는가.

문학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치는 일시적이며 정략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술가가 인간적이고 진리라는 것, 내적인 것, 영원성이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고금을 통하여 변함이 없으나, 오랫동안 발전해 온 문학사를 열어 보면, 정치적인 대 이상과 문학적 대 이상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서는 문예사상이 국민 또는 민족사상을 지도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는 정치적 대변혁을 일으킨 일마저 있었다.

문예를 오로지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예의 참다운 가치를 알 수 없겠지만 문예는 각 시대에 따라 그 주체에 대한 가치표준의 차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하나의 사상을 정치는 정책으로 나타내고, 철학은 방법론 중에 그 특색을 나타내나, 문예는 형태 속에 사상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각 시대에 따라 집단적 사상, 사회적 사상, 국민적 사상, 개인주의 사상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단계는 바로 국민사상의 재건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중의 뜻에서

타당하다. 하나는 난숙기를 통과하고 있는 개인주의 문학의 막힘을 시정하고, 둘째는 우리나라 성전완수로 국민적 또는 사상적인 참가이다. 문예와 정치를 구별하는 것은 언제나 정치가와 문예가와의 인적 관계에서 나오는 자존심과 우월감의 차이에서 원인하는 것으로, 결코 국민의 대 이상과 새로운 세기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성전은 대동아건설을 뜻하며 신체제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민적인 통제를 한층 공고하게 하도록 해야 할 조직적인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이것은 한 정치가의 정책도 아니며, 한 정당의 정강도 아니다. 전 국민이 바라고 있는 대 이상과 그 실천의 구체화이며, 이런 뜻으로 문예가는 신체제에 앞서면 앞섰지 뒤가 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반도에서 부르짖고 있는 국민문학론, 전쟁문학론, 내선일체 문학론의 대두, 조선문인협회의 결성 등에, 즉 신체제 하의 문예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이상과 여기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사상을 형태 속에 구현해야 할 문예의 임무는 신체제 하에 더 중대하며, 또 현재 문학은 국민사상을 더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구체제 하에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회의(懷疑)주의 등 일체의 불건전한 사상으로부터 먼저 문학자는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문학자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명제이다.

〈출전 : 芳村香道, 「新體制と文學」, 『綠旗』 1940년 10월호, 23~24쪽〉

(3) 다가서는 혼과 혼

만주국, 중화민국, 몽강(蒙疆)의 문학자 및 우리 일본의 문학자들은 자신의 문학을 성전 목적 완수를 위하여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열렬한 의견을 피력했으나 이러한 정열 속에 이미 우리의 혼과 혼이 서로 다가서서 함께 뚫고 일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동아의 새로운 힘이 되어 미국과 영국적인 사상을 쫓아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웅대한 대동아문예부흥운동의 강한 첫걸음이 발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협력과 이해와 정열 속에 사상과 문화는 혼연히 융합되어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을 통하여 대동아전쟁의 목적 완수는 더욱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주국, 중화민국, 몽강의 문학자와 우리들 일본문학자들 사이에 맺어지는 굳은 약속은 세계적인 감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러한 감격을 영원히 기억에 남김으로써 대동아전의 목적 완수를 위한 문화적인 협력을 더욱 더 강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러한 감격과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일본정신을 우리 것만으로 하지 않고 동아 10억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는 만주국, 중화민국, 몽강 등의 작가 여러분의 붓으로, 흑

은 남방작가들의 붓에 의하여, 10억의 민중에게 참다운 일본을 이해시킴으로써 대동아의 대중으로 하여금 대동아전 목적 완수에 마음으로부터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먼저 남방 작가들을 수시로 우리나라에 초대해서 일본의 참다운 모습과 기품이 높은 일본정신에 닿게 하고, 돌아가서는 각각 문학을 통하여 일본정신을 널리 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동아 10억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다면, 대동아전의 목적의 일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출전 : 芳村香道 「相寄る魂と魂」, 『京城日報』, 1942년 11월 13일〉

(4) 국어에 대한 애정 - 황민 완성

어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그 의사를 자신의 국어로 발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본능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인 반도인이 '국어'²⁰⁾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우며 필연적인 것이다.

이제 반도의 2천 4백만 동포는 황민으로서의 영광을 입고 있으나 완전한 국어의 이해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적인 감정과 생활기초가 완성하는 것이다. 국어에 대한 애착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말과 문장은 감정을 조직하고 정서를 같은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단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한 뜻으로 반도인의 황민화는 역사적으로 철학적인 방법도 좋으나, 그것보다 현재의 국민적인 생활의 한 가운데서, 황민적인 감정과 정서의 조직화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인의 황민화는 피동적이 아니며,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에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위대한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위대한 사랑이 구해지는 것이다.

반도인들이 국어로 말하고, 국어로 의사발표를 하는 것은 황민화への 노력이며, 그에 대한 동경과 애정의 나타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노력함으로써 비로소 그 참다운 맛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론만으로 그 가치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조선문인협회의 문학부의 각 부회에서 반도작가들은 장래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국어로 발표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은 반도작가들의 국어에 대한 애정이며, 황민으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의 국민문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반도작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 책무가 크다고 생각한다. 묵묵히 실천하는 사이에 반도의 국민문학의 기초는 더욱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출전 : 芳村香道 「國語への愛情-皇民への完成」, 『京城日報』, 1942년 11월 25일〉

20) 일본어.

9) 백철(白鐵)

(1) 동아의 신문화와 ‘협동’에의 의지

1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조선 문화인으로서 사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조선문단인 중에서 누구보다 먼저 이번 사변을 문화논문의 테마로 살려보고자 시도하거나, 또 그 시론을 두세 개 발표한 사실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변²¹⁾이 일어난 당초에 일부러 지나의 지도를 한 장 책상 위에 준비해 두고 사변이 나날이 진전하며, 지리적으로 확장돼 갈 때마다 지도 위에 그만큼의 것을 붉은 선으로 표시하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동아의 신국면을 끊임없이 생각해 간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지나사변을 신문이나 뉴스로 받아서 지도 위에 정리해 가는 중에 처음에는 자신 스스로가 숙달한 견해를 갖고 사변을 정리하거나, 한 걸음 나아가서 사변의 전도를 예상해 보기도 했으나, 사변이 점차 확대되어 내 시야를 뛰어 넘게 되니까, 벌써 자신의 견해로서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만주사변 같은 것을 보아온 나로서는 마치 사변이 지역적으로 만주사변 정도까지 진행되었을 때까지는, 앞에 겪은 경험으로 지금의 사변을 정리할 수 있었으나, 그것이 만주사변보다 2배도 3배도 진척되고, 그 위에 국제적인 복잡한 관계가 미묘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전혀 예상이 되지 않고 완전히 처치 곤란해서 당혹함을 느끼는 꼴이 된 것이다.

마침 이것은 사변이 대단한 확대를 보이면서 한 쪽으로는 건설이 주창되는 시기이므로 건설을 하는 것 즉 파괴와 점령 뒤에 그것을 새로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확대되어서 점령을 한 채로 방치한 것으로 도대체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 것인가, 건설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도무지 예상을 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재료가 너무 많고 너무 풍부해서 처리에 곤란과 당혹함을 느낀 것으로 그 때문에 사변은 일시적으로 위기로 변해서 내 눈에 비쳐 온 것이다.

사변의 처리가 한 때 하나의 위기로서 비쳐왔다는 것은 다만 나와 같은 정치의 메커니즘(기술)을 전연 이해 못하고 있는 문화인만이 느끼는 당혹함인가 하고 생각하면 결코 그런 것 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것으로서 전 국민을 당혹시켰다는 하는 증거에는 이번에 일어난 유럽 전란이 하나의 신평(神風)으로서 국민의 눈에 비친 그 심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신평은 최근 시정 향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하나의 유행어이나, 이 신평의 의미는 동아의 시국이 중대한 난국에 빠져버린 마침 그때 거기에 잘 맞게 유럽대전이 발발해 주었으므로 하루아침에 동아는 밝은 전개를 해준 것이 다만 현상이 아니고 올바른 신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다. 어디 한번 이래서 한숨을 놓았다! 라고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심이 이러한 신평을 주창하는 국민의 마음에 잠재하고

21) 중일전쟁.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변처리는 한 때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일반에게 옮겨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변처리는 이 신평에 의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신평과 사변처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유럽대전과 같은 외적 원인에서 사변처리 과제가 두어지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2

사변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눈에 불투명하게 보여서 위기로 비쳐 왔던 것은 사변처리, 동아건설을 눈앞에 두면서 그 건설을 내용적으로 지탱해 나가는 확고한 원동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원동력으로서의 결코 신평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 위에 근거를 가지는 원리적이고 사상적인 것이다.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변처리의 구체적인 길도 불투명하게 비친 것이며 내가 한 때 사변에의 관심을 단념하고 당혹을 느꼈던 것도 그만큼의 확실한 원리적인 것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재료에 처치 곤란을 느끼고 다만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사변은 저절로 자신의 위기시대를 지나 어느 사이에 확실한 원리적인 것을 갖고 충실한 것으로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동아의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이며, 그 새로운 질서는 동아협동체의 이론을 내용으로 한다. 동아의 신질서란 사변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언젠가 모르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말에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왔으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신질서라고 하는 말의 탄생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지금의 지나사변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면, 이 신질서라는 말은 그 전기가 겨우 끝나고 후기가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환기에 태어난 말이었던 것이다. 즉 이것으로 사변의 파괴적인 시기는 일단락을 알리고 이제부터는 건설기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시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모멘트에서 탄생한 말이었다. 이것은 하나의 몇 떨어진 추억이다.

1938년 10월 26일의 무한(武漢)공략을 완성하고 제국정부는 지나사변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의 획기적인 성명을 내외에 표명한 것이다. 그것이 11월 3일의 제국정부의 일중사변 처리에 관한 선명(宣明)이었으며, 또 유명한 고노에(近衛)성명이기도 한 것이다.

동아의 새로운 질서란 이 역사적인 성명을 할 때에 탄생한 말인 것이다. 즉 그 말이 유래하는 뜻은 지나사변은 결코 근대에 이루어진 식민지 획득의 침략행위는 아닌 것이다. 이번 사변은 영토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며 현상으로 볼 때 전화(戰火)의 교점은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취한 수단이었으며, 제국 측의 진의는 동아에 새로운 질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요지를 발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질서의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 그때의 성명 속에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었다. 고노에 수상의 담화와 같이, “제국이 지나에 바라는 것은 이 동아의 신질서 건설 임무를 분담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제국은 지나국민이 우리의 진의를 잘 이해함으로써 제국의 협력에 따를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또 제국정부의 성명에 있다시피 “지나의 동우구안(同憂具眼)의 인사들과 제휴하여 동아신질서의 건설로 향해서 매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성명은 나중에 그

대로 효과를 내어서 실제적으로 건설 작업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지나 측의 '동우 구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한 왕조명(汪兆銘) 등의 화평구국(和平救國)의 운동과 상호제휴로 동아 신질서를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 미묘한 정치적인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감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여기에서 매우 흥미를 갖는 것은 이 성명을 계기로 동아 협동체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근간이 태어나고, 그것을 계기로 오늘날에는 도쿄 방면의 문화 인들에 의하여 대단한 열의로 '협동'에로의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 고노에 수상의 성명이 문화인들에게 대단한 지지를 받고, 또 수많은 동아협동체론이나 협동에의 추구가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보아 온 것과 같다. 지금 동아협동체론은 하나의 새로운 사상으로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실은 이 협동체론은 상당히 구체적인 입장까지 들어가서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이 원래 그대로이며, 일본이 원래대로 있어서는 동아협동체라고 하는 전체가 형성될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전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변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본도 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미키 기요시(三木清) 씨는 왕조명에게 공개장을 쓰고 있으며, 또 한걸음 나아가서는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사상체까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동아협동체론이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사상적인 관념에 숙성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읽어 온 동아신체제론에서는 아직 이것이라고 할 만한 체계적인 사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이 협동체론에 대해서 무엇인가 통일된 견해를 전개해 볼 자신도 없다.

그래서 내가 '협동'에의 의지를 이 글의 제목으로 고른 것은 앞에서 양해 받은 것처럼 사상적인 논제에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단순한 감상문을 쓰고 있는 심정이다. 그렇게 말하면 위정자나 사상가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내가 '협동'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시인의 감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협동을 현실적인 체계로서 추구하기보다도 협동을 꿈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것이다.

지나사변, 그것이 어떤 오해에 따르든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교전을 해 온 양국이 그 오해도 풀리고 서로 깊이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 접근하여 제휴하며, 동아에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풍경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 하고 나는 생각 해 본다. 그 순간 '협동'에 의하여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의 동아가 아름다운 평화스러운 천국으로 비쳐 오는 것도 요즘 내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꿈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협동을 생각할 때 나는 '협동'에 대해 일종의 향수와 같은 그리움을 느낀다. 사상가들이 설파하는 바에 의하면 이 협동론이야말로 유럽에서 전해 내려 온 것이 아니며 동양에서 비로소 태어난 사상의 새싹이라고 하나, 향수 속에 생각해 보면 '협동'은 나에게 옛날부터 접해 온 친숙함을 느끼게 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협동'에 대해서 감상적인 심정이면서도 무엇인가 사상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감상에 젖은 뒤부터이다.

협동은 사상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저 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연계와 경제적인 결합과 신문화의 창조'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 중에서 마지막의 '신문화의 창조'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문화적인 것으로서 ‘협동’의 사상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튼 이 ‘협동’으로부터 일부러 정치와 경제를 배제하고 문화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협동’은 처음부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협동의 필요와 요구가 더하여 제창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사상이라면 그것은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원리로서 정치에 작용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런 의미로 협동은 당연히 정치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와 떨어져서 문화주의적으로 발전하는 한 동아의 신질서의 실제적인 실현을 생각하는 것으로, 또 그러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사상은 공중에 뜬 죽은 관념 외는 없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협동’은 무엇보다도 통일적인 사상이다. 마치 오늘날 신동아의 과제가 통일인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협동’이 통일적인 사상이라고 해도 ‘협동’이 언제나 ‘통일’의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항상 특수한 것으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이 ‘협동’을 문화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문화인의 입장에서 문화의 영역으로 ‘협동’을 특수한 것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협동’을 참다운 사상으로서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도 특수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포착하여 적용하며 그 사상성을 증명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그 점에 있어서도 먼저 문화부문에서부터 ‘협동’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사변 하에서 가장 요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오늘날 동아건설의 중대한 과제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치가 사변의 수단이 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건설에는 문화가 주된 수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다. 오늘날의 신동아건설을 위해서 일지(日支) 양국의 협동이 시급을 요할 때 성명에 나와 있는 제국정부의 참뜻을 상대방 지나민중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정치나 전쟁의 수단으로는 곤란하며, 문화의 힘, 그 동화력, 감화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제부터 오는 동아의 새로운 ‘협동’ 사상은 새로운 휴머니즘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동아의 신질서를 협동의 사상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아의 인류적인 공존의 이상으로부터이며 협동은 하나의 휴머니즘이며 인도주의적인 이상주의 사상인 것이다.

나는 재작년 말 어떤 문예논문에서 이번 사변을 제목으로 등장한 전쟁문학을 접하면서 알게 된 휴머니즘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제부터의 전쟁문학은 휴머니즘일 것이며, 그 휴머니즘은 문단 주조(主潮)가 될 것임을 강조한 일이 있으나, 지금도 전쟁문학을 새로운 동아문화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부터 전쟁문학이란 다만 이쪽의 독자를 민중적인 감정으로 흥분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되도록이면 그러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것은 배제하고 하나의 동아민족 전체의 협동적이고 인정적인 것을 포착하여 드러내며 상대인 중국의 독자들도 공감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학 그 휴머니즘을 주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휴머니즘은 ‘협동’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동아의 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신문화의 창조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협동'에의 의지가 문화인들에게 상당히 전면적으로 움직여 온 때 우연히 내가 이러한 제목으로 감상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앞에서 생각해 온 바대로 '협동'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온 휴머니즘을 내용으로 하는 한은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로써 그 '협동'에의 시대적인 의지에 참가하고자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필자는 문예평론가, 국민신보편집위원)

〈출전 : 白鐵, 「東亞の新文化と'協同'への意志」, 『總動員』 1940년 2월호, 86~91쪽〉

10) 유진오(俞鎮午)

(1) 시국과 문화인의 임무

1

시국의 진전에 따라서 내선일체의 표어는 이제야 단순한 이상이나 표어라는 영역을 뛰어 넘어 실현을 향한 착실한 큰 걸음을 내딛고 나간 것처럼 느낀다. 원래 이 문제는 크게는 제국 전반의 방향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작게는 조선 2천 3백만 민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그 실현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의견의 상이나 도중에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여 과제의 실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요청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이러한 시국에 대해서는 우리들 문화인의 임무가 있는데, 문화인은 먼저 첫째로 국민이며, 둘째로 문화인이라고 하는 이중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임무도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인은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먼저 첫 번째 국민이므로 시국에 대해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내고, 황군장병의 봉송영(奉送迎)에 참가하고, 또 생활 및 정신을 바짝 조임으로써 후방을 지키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는 등 모두 이러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문화인도 일반 국민도 하등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문화인은 단순한 국민이 아니며, 또 문화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적인 책무를 다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문화를 통하여 시국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마치 경제인이 경제를 통하여 시국에 참가하는 것처럼 문화인은 그 무기이며 독특한 기능인 문화적인 능력으로써 시국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시국에 직접 참가 - 직접 정치행동에 의한 참가를 강조하는 나머지 문화인의 문화적인 활동을 자칫하면 우원시(迂遠視)하고자 하는 풍조가 없지도 않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세상만사 모두 목

적을 달성함으로써 비로소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므로 문화인이 문화부문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적인 책무를 다한다는 것과 문화적인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립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양립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우리들 조선 문화인은 넓은 뜻의 시국이라는 것 외에 나아가서 내선일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도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선일체는 내체(內體 일본)와 무차별 평등 일체화를 중국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조선인의 국민적인 자각과 문화적인 교양을 내지인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승고한 이상으로서 조선 민중이 일치하여 이것에 찬동하고 있는 현상은 극히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 문화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책무는 무엇일까. 먼저 첫째로 국민적인 자각의 강화문제로 문화인도 또 이것을 위하여 당연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원래 이 문제는 문화영역에 속한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와 편달에 그치지 않고 먼저 그 유래를 면밀하게 조사 연구한 후에 적절하고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문화인이라고 할지라도 팔을 끼고 방관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문화인이 그 문화인으로서의 본령(本領)을 발휘하면서 내선일체의 대 과제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그 둘째 요청, 즉 조선인의 문화적인 교양수준을 끌어올리는 사업에 있어서이다.

실제로 우리 조선인은 종래에 이 점에 관하여 그다지 무관심하였다. 병합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어쨌든 우선 문화에서 글자 그대로 내지에 추종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학자든 문사든, 관리든 그들의 교양은 특수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내지의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교양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졸렬한 것이었다. 갑자기 조선인은 조선인이라는 핸디캡 위에 특수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내선일체의 표어가 조선인에게 미치는 핸디캡을 철폐하고 문화적인 교양의 향상을 요구 해 온 것은 조선인에 대한 적절한 일대 경중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나는 국민적인 자각과 문화적인 교양에서 이미 내지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한 조선인은 추호도 내지인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을 이제 이 이상 말해야 할 논제는 아닌 것이다.

실제문제로 보아도 조선의 무학이나 문맹한 대중의 현상을 하루라도 빨리 향상시키지 않으면, 내선일체의 대업은 머지않아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학이나 문맹인 한은 국민적인 자각의 강화달성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계급의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므로, 하루아침에 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무학인 대중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며 짧은 시일 동안에 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말함으로써 조선 문화인의 당면한 과제도 스스로 명백해졌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의 문화인은 한 편에서는 조선 문화의 최첨단을 내지문화와 마찬가지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정신(挺

身)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계몽을 위하여 힘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원래 대중계몽이라는 대 사업은 문화인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국의 교육보급정책과 아울러 비로소 효과를 바랄 수 있는 있는 것으로 이미 당국에서는 이것을 위하여 상당히 강력한 계획도 끝냈으며, 그 실현을 시작했으므로 문화인도 또 그러한 당국의 정책을 때로 돕고 때로는 이끌어감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문맹타파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대단히 간단하나마 시국에 대한 문화인의 임무로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대체로 쓴 것이다. 요는 문화인은 국민의 일원이며 또한 문화인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시국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필자는 보성전문학교교수, 조선문인협회간사)

〈출전 : 俞鎮午, 「時局と文化人の任務」, 『總動員』 1940년 2월호 79~81쪽〉

(2) 대동아정신의 기초

일본(조선)대표 유진오(俞鎮午)

근대전쟁은 무력전이며 경제전이고 정치전인 동시에 문화전, 사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무도 의의가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것들에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은 참으로 문화전이며 사상전이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황군의 빛나는 전과와 활발히 수행해 나가고 있을 경제전이나 정치전에 비교해서 문화전이나 사상전에서는 약간 뒤쳐진 느낌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이유에서였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배려가 치우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대동아정신의 진수가 천명되고, 그 강화 및 보급방도가 논의되며 이에 대한 대동아 여러 지역 문학자의 적극적인 참가 맹세는 대동아전 필승을 위한 태세가 마지막 정비를 끝냈다는 의미로서 참으로 의의가 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면 안다”는 말이 있으나, 정략적인 회합에서조차 사람과 사람사이의 혹은 국가와 국가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가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문학은 속이지 않는 영혼의 표현이며, 숨겨진 감정의 표현이다. 따라서 문학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성실함을 생명으로 한다. 대동아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교환(交驩)하며 흥금을 털어놓고 서로 이야기하며, 마침내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느끼고 있는 것이 이미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아낸 이번 대회는 동아의 사상적, 문화적인 전개를 책동하고 있는 적에 대한 강렬한 폭탄이었다. 이러한 커다란 충격 앞에 적국 미영은 모골이 울연(慄然)하여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영의 앞잡이가 되어 쓸데없이 항일에 광분하고 있는 중경(重慶)은 내심으로는 창피해서 깊이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적인 국가다운 대임을 맡게 된 것은 결코 대동아전쟁 또는 지나사변에 즈음

하여 새롭게 된 사실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나라 중에 서양문화의 장점을 재빨리 들여 온 것은 바로 일본이었으며, 동양정신의 진수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오늘날 정력을 다해 타락하고 있는 서양문화를 뒤집어 엮는 저력을 축적해 온 것도 일본이다. 아름다운 일본의 풍물 중에 건강하게 축적해 온 아름다운 동양적인 도의정신은 이제야 대동아 10억의 민중 위에 빛을 밝히려 하고 있다. 이제야 우리들은 동양의 존귀함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일본정신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동양적인 도덕이며, 세계적으로 으뜸인 까닭을 선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동아에는 빛나는 태양의 승천이 이미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필자·조선문인협회간사장, 보성전문학교 법과과장)

〈출전 : 俞鎮午, 「大東亞精神の基調」, 『讀賣報知』(요미우리호치신문), 1942년 11월 6일)〉

(3) 문화 또한 전쟁과 함께

지난 1년간의 문화계를 되돌아보고 우선 나의 머리에 떠 오른 일은 문화가 전쟁과 운명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이치가 아닌 실감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먼저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현 단계에서는 솔직히 문화라는 것이 매우 영향력이 미미하게 되었다는 두 가지이다.

문화가 한 나라의 흥망과 운명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이미 누구라도 완전히 아는 일이나, 이제까지는 그 사실이 뜻밖에도 다른 물건처럼 포착되어 온 것은 아닐까, “전쟁에는 졌어도 문화적으로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에 드러난 이원적인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국가총력전이며 따라서 전쟁에 지는 것은 단순히 무력적인 패배라거나 일부 지도층의 몰락이거나 하는 지극히 간단히 끝나는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님이 이미 명백해진 현재에는 그렇게 안이한 사고방식은 벌써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 지는 국가나 민족은 글자 그대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라는 비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전에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거대한 영향에 대해서 운운했으나 이번 전쟁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고 또한 인간생활상에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아니 이미 불러일으켜 나가고 있다. 거기에다가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이라거나 문화적이라고 하는 국부적인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인간의 모습 그 자체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시기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전쟁의 한 곳에 집중되어 직접적으로 전력의 증강에 도움이 되는 이외의 모든 것이 제2의적 지위로 회부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원래부터 그것은 문화의 중요한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문화의 퇴색을 애석해하는 자의 심정도 아니다. 문화는 의심할 것 없이 인간정신의 가장 존귀해야 할 산물이며, 인간생활의 귀추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무력, 정치력, 경제력과 같이 직접 적의 전력을 좌절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난 여름 대동아문화자대회의 분과회의 석상에서 어떤 귀환 작가가 “백만 권의 셰익스피어 전집이 도쿄의 하늘로부터 비가 되어서 내려와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적의 한 방의 폭탄이 떨어져 오면 큰일이다”라고 노호(怒號)한 것은 결코 문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의 외침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것은 스스로 문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말로서는 일단 자기모순의 여운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또 문화면 부진의 책임을 다른 것에 전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요컨대 문화는 말이며 옷이다. 핵심은 적을 넘어뜨리는 한 동작일 뿐, 다른 것은 모두 그에 이르기 위한 준비이며 보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재의 결전 단계에서 문화의 부진 또한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은 결코 문화 일에 관계하고 있는 자의 무위무책(無爲無策)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며 1억 국민을 빠짐없이 전투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 문화 일에 관계하고 있는 자도 또 그가 갖고 있는 전부를 통틀어서 이 전쟁에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누구의 머리에도 떠올리는 것은 이른바 문화의 전사로서 문화인이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닥 실천적인 임무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지난 1년간의 조선 문화계도 능력에 맞는 일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월의 조선문인보국회의 성립, 몇 차례에 걸친 문화인의 보도연습 참가, 대동아문학자대회와 만주예문(藝文)연맹에 대표과견, 12월 12일의 조선신궁대전(大前)의 결의선양대회, 기타 츠지(辻) 시전(詩展), 문학전(文學展) 등등 세어 보면 응분의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총력연맹의 주선으로 내지의 유력 작가나 편집자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초빙한 것은 훗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의 조선에 대한 무이해가 조선의 진로를 막는 장애가 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문학에 비해서는 연극은 영화의 공급원 등의 외부적인 원인도 있어서, 전쟁전보다 오히려 왕성한 것 같은 현상을 보였다. 이전에는 오락물로 혜택 받지 못했던 농산어촌까지 연극을 가져간 이동극단원의 고생은 고맙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총독상을 내건 제2회 연극경연대회는 참가극단의 숫자와 마음의 준비가 작년보다도 한 층 약진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작년대회에서 모처럼 갖고 있었던 기대 -이전의 연극과 신파가 서로 가까워지며 하나의 새로운 국민극의 방향을 만들려고 보인 노력이 또다시 저속과 편승의 방향으로 무너져 가는 듯한 인상을 나는 품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이러한 걱정이 한 때의 기우에 끝나면 다행이다.

영화는 “젊은 모습”을 보았던 것뿐이어서 일반적인 것은 말할 수 없으나, 이러한 영화에 의해서 비로소 조선영화가 내지의 각 도시에서 일제히 상영되는 기회도 열렸다고 하니까 이 이후는 더욱 한층 분기해도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이나 기술이 불충분한 곳에서는 시나리오의 선택이 점점 중요한 뜻을 가지리라고 생각한다.



하나하나의 작가나 작품의 내용에 들어가서 감상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대동아결전의 해를 맞이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야말로 이 위대한 전쟁의 교훈을 마음에 아로

새기고 몸소 참다운 문화전사로서의 자각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여름의 대동아문 학자대회에서 저는 결전문학의 이념은 작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전쟁에 바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친구로부터 “그러면 작가는 포스터만 쓰고 있으면 되느냐”하는 반문을 받았다. 그렇다, 필요하다면 작가는 포스터의 문안에 그의 전 지능을 기울여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말이 선전가의 그것과 다른 까닭은 작가는 인간의 혼을 배경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정신의 귀추를 응시하고 그 궁극의 비밀을 포착하지 않을 수 없는 충동에 쫓겨서 평소 피투성이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작가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떨쳐내면서 엄숙하고 준열한 시련 속의 이번 대 전쟁은 작가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번 전쟁으로 비로소 몸도 혼도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을 품게 되는 자는 반드시 저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더 진지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 경건한 태도로 이번 전쟁에 자신을 바쳐야 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끝)

〈출전 : 俞鎮午, 「文化亦戰爭と共に」, 『朝日新聞』(아사히신문) 中鮮版 1943년 12월 28일〉

11) 윤두헌(尹斗憲, 平沼文甫)

(1) 쳐들어가는 마음가짐

승전보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환희하고 흥분하였다. 환희와 흥분이 겹침에 따라 자신감이 도를 넘어 방심하기 쉽다. 우리는 지금 약간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가 뭐라 해도 전쟁의 첫 번째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이긴 뒤 어떻게 한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운운하는 것은 기회주의자의 안일한 태도이다. 싸움은 너희들이 하라, 하지만 전리품 분배에는 나도 참가하겠다는 교활한 방식이다. 싸움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평상시에 필요한 그것의 수천 배, 수만 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생활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一戰) 없이는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시작된 전쟁이고, 패할 경우 맛보게 될 비참함을 알고 있기에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 이겨야 한다. 패하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이겨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내주더라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그 누구도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닌 자가 없다. 이겨서 누구나가 누리게 될 영예는 패하면 누구나 맛보게 될 고통과 동등하다.

싸움이 시작된 지 1년간 모든 이가 해온 일은 무엇 하나 적을 향해 발사된 탄환과 화살이 아닌 것이 없었다. 백성이 흘리는 땀 한 방울, 노동자가 들어 올리는 해머, 문사가 쓰는 한 줄의 문장 등등, 이 모든 것이 행위자 자신이 의식하든 않든 간에 모두 전쟁이라는 커다란 일에 전 국민의 노동이 도움이 된

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직역(職域)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선의 일부임을 알고 있기에, 나는 커다란 책임과 동시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승전보를 들을 때마다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글을 쓰고 있다. 글은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된다. 전쟁 승리는 국가이상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 국가이상의 실현은 세계사의 창조에 도움이 된다.

열심히 나 자신의 일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 적진으로 쳐들어가는 마음가짐으로 글을 쓰고 싶다.

〈출전 : 平沼文甫, 「斬込も氣特」, 『京城日報』, 1942년 12월 15일〉

(2) 언어의 문제

오늘날 언어에 대한 문제는 문학용어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조선어를 국어로 바꾸기 위한 여러 방법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적으로 오랜 시간과 생활을 통해 특징지어진 언어라는 사실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 관리는 가능한가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란 것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 사실은 인간의 의식적 지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언어는 사상 감정의 하나의 표징이고 사상은 생활 사실의 하나의 표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들의 사상이나 감정을 규정하고, 어떻게 사상을 하고 감정을 갖느냐가 그들의 용어를 규정한다. 따라서 사상은 생활 내용의 질서이고 언어는 사상의 부첩(符牒)이다. 그리고 문자는 언어의 부첩이다.

어떤 식으로 조선어를 버리고 국어를 습득하여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개인의 기술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까닭에 익숙한 조선어를 버리고 국어를 사용할 마음이 생겼는가 하는 점이다.

언어는 그것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정적 요소가 늘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물의 한 명사인 ‘말(馬)’이라는 말에는 우리 선조들이 그 동물과 관계를 맺고 생활한 감정이 녹아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우리 언어를 영어 ‘horse’로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영국인은 자신들이 느끼는 말(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세계어로서 성립할 수 있을 법한 에스페란토가 세계어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언어의 습득이 기술적으로 문제시되는 것도 이차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인 것은 역시 생활문제이다. 생활을 국민적으로 함으로써 사상은 국민적으로 하고, 사상은 국민적으로 함으로써 언어는 국어로 완전히 들어갈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동력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다.

〈출전 : 平沼文甫, 「言葉の問題」, 『國民文學』 제3권 제2호, 1943년 2월, 25~26쪽〉

(3) 추진이나 편승이나

영똥한 얘기지만 인간은 어째서 문학이라는 것을 가져야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모방하는 본능과 모방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에서 예술이 탄생한 것일까? 페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기표현욕이……, 혹은 흡인본능이……, 또는 유희충동이 인간에게 문학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이런 쓸데없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학설에서 무슨 말을 하든, 교리가 무엇을 강요 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쨌거나 인간은 우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강하고 올바르게 아름답게……. “넘어지고는 일어나고, 쓰러지고는 일어서 칠전팔기하면서, 눈은 언제나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내일은 또 오늘의 연속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는 ‘그 이전의 상태’의 연속이고, ‘바람직한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의 연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제가 어두웠다고 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일이나 오늘이 힘들다는 이유로 내일을 체념하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계속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편해질 것이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장래에는 행복해질 것이다. 인간이 맞볼 수 있는 제아무리 크고 깊은 슬픔도 기쁨도, 그것이 인간 삶의 욕구를 동기로 하지 않는 것은 없고 삶의 영역을 넘어서는 적이 없다. 자살조차 인간이 하는 삶의 욕구의 한 표현형식이 아니던가.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욱 좋게 하자.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욱 좋게 하자.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아름답고 올바르게 살아가자. 이것이 인간이 그의 생활에서 여러 다른 부분과 동시에 문학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가 아닐까. 무병장생하려는 욕망이 의학이나 그 기초과학을 발달시키고 자연을 정복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는 의욕이 응용과학과 더불어 자연과학을 발달시킨 것처럼 서로 사이 좋게 살아가려는 충동이 윤리를 만들고, 더 올바르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성실한 충동이 예술을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살아가는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윤리적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세계에서 가능한 한 공통적인 성질을 추출하고 가능한 한 일반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종교적인 방법은 인간에게 가능한 한 인간적인 것을 많이 버림으로써 신성에 다가서게 하려고 했으며, 예술은 인간성을 토대로 특수한 본질인 진(眞)에 철저히 임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진선미의 상태로 끌어올리려 한다.

윤리는 조성(組成)을 위해 형상의 세계에서 형상이 지닌 의미를 추출한다. 예술은 형상을 그대로의 형태로 받아들여 원래 형태보다 통일적이고 더욱 완전한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진실은 편견적이지 않다는 데 있고, 예술의 진실은 부자연스럽지 않은 충실한 박진력에 있다.

한 명의 작가가 당연한 것을 당연한 논리로 썼다고 해도 그것이 만약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작품 속에 나오는 사건은 어찌 할 도리가 없는 필연성에 내몰린 사건일 필요가 있으며, 인물은 칼에 베이면 피가 쏟아질 것 같은 풍부한 육성의 울림이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예술은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과 사건을 날조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성의

본질에 철저히 파고들으로써 그 안에 스며든 이상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형상의 세계는 예술의 소재이긴 하나 정확히 그리기만 하면 그대로 작품이 되는 것 같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는 역사의 필연적인 주류에 합류하는 것, 결국에는 합류할 터인 본질적인 것도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에 있는 가상(假相)도 서로 뒤섞여 들어가 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본질적인 사건 전형적인 성격으로서 볼 것인가.

무사심(無私心)이나 주관 몰각(主觀沒却)이라는 것이 감동을 동기로 하고 상상을 수단으로 하는 창작 행위에 가능한 일일까.

상상력은 오인(誤認)의 주인이라며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정이나 증오는 재판의 국면을 바꾸어 놓는다. 또한 거액의 돈을 미리 받은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을 이 얼마나 사실보다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던 말인가. 그의 대답한 몸짓이 그 외관에 속은 재판관들에게 그 사건을 이 얼마나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여줄 수 있던 말인가.

상상은 공상적 평가에 의해 작은 사물을 확대하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한다. 또한 오만함으로 위대한 것을 축소하여 자신의 척도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상상이다.

지난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의 스파이 미스 캠벨을 처형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잔혹행위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프랑스가 독일의 스파이 미스 마타하리를 처분한 것은 연합군 첩보조직의 공적으로 칭송받았다.

애기가 다소 산만해졌는데, 위와 같은 이야기—문학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 인생의 이상적 표상이긴 하지만 형상의 진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는 것, 형상은 작가의 주관에 따라 다른 가치로 평가되는 것—로 오늘날의 조선문학이 당면한 문제 중 몇 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확실한 주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작가의 움직임에 종합해서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오늘날 조선문학의 움직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학은 속성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고고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예술의 신성함으로 보는 경향.

둘째, 위의 첫 번째 명목 뒤에 숨어서 시대의 움직임에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일부 사람들의 허점을 파고들려는 경향.

셋째, 문학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성에 있고 새로운 현실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경향.

문학이 속성을 초월하고 작가의 주관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즉 문학은 시대나 사회, 민족, 국가가 규정하는 가치관을 직접 반영한다는 점은 위에서 얘기한 것으로 충분하리라 본다. 그리고 부정적 경향에 대해서는 발전 혹은 소멸의 운명이 그 자신의 내부에 있다.

세 번째 경향은 편승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으나 편승으로 볼 것인지, 추진력으로 볼 것인지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경우가 많다. 정치권력과 보조가 일치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편승으로 보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의 추진력으로 볼 수도 있다. 예술은 시대의 선구자라며 거들먹거리는 주제에 어째서 능동적인 사

고는 하지 못하고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것일까. 능동적 추진으로 보는 대신 수동적 편승으로 보는 것은 이의 노예근성을 드러냄이 아닐까.

예술의 과제는 언제나 부여받은 역사 현실과의 싸우는 일이다. 하나의 혼으로 두 개의 상이한 현실을 살아가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의 현실의 주역이 그대로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의 주역이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자아 재건을 위해, 혹은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편승으로 볼 수 있겠는가.

맑고 더러운 것(淸濁)을 함께 마시고도 깨끗해지려는 넓은 배짱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모두 혼탁한데 나 홀로 맑고, 중인들이 모두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 있으니,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舉世皆濁 我獨淸, 衆人皆醉 我獨醒, 滄浪之水淸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 可以濯吾足)”라는 삼려대부(三閭大夫)의 흥내를 낼 여유가 없었다. 옛 감정의 반추를 하는 것도, 습관적 사고방식으로 비애를 향락할 여유도 없다. 눈앞에 나타난 현실 속에 살아갈 길을 생각하고 주어진 인생을 소재로 광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고고하면서 독선적인 삼려대부나 도연명 흥내를 낼 수는 없다. 빠져리게 느끼고 가슴 깊이 새길 정도로 현실의 끝자락 아슬아슬한 곳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고할 수밖에 없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다.

새로운 문학이론이 제창된 이래 오늘날까지 편승으로 비치든 뭐라 말하든 간에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해왔다. 앞으로 여전히 해결하고 발견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뺏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발은 지면에 닿아 있다. 손을 바꾸고 도구를 바꾸면서 우리들의 현실적 싸움은 앞으로 더욱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서 신창조 활동은 힘차게 전개될 것이다.

오늘날까지의 싸움에서 얻은 것은 새로운 이념이고 잃어버린 것은 예술성이다. 국민문학의 이론이 개념적으로 흐르고, 작품이 육성의 울림을 상실한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작품이 육성의 울림을 되찾는 일보다는 작품 이전의 문제가 더욱 절실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대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현실의 움직임에는 등을 돌리고 감정의 반추를 즐기는 사람들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더 많이 애처로울 정도의 절실함을 느낀다.

국민문학의 제1단계는 작가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끝났다. 제2단계는 무엇으로 시작될까. 비평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의 객관적 필연성을 규명한다.

창작은 획득한 가치관에 기초하여 앞으로 나아가면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한다.

〈출전 : 平沼文甫, 「推進方便乗か」, 『國民文學』 제3권 제6호, 1943년 6월 98~101쪽〉

(4) 사상적 전진 - 국민문학에서 신민문학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상태만큼 중대한 것은 없고 영원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 반성도 변뇌도 없이 자신의 경향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 또 영원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한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조차 결국에는 모두 그들 자신의 상태와 영원과의 관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영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부류이다.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긴 하지만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부류이다. 발견도 하지 못하고 추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한 부류이다. 영원의 본원(진리)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대 불행자이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해버릴 테니…….

우리는 동료들 중에서 이미 수천 명의 학도들을 전쟁터에 보냈다. 올해부터는 그것보다 더 많은 형제를 전쟁터에 보내도록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도 전쟁터에 나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전쟁터에 나간 수천 명의 학도들, 그들은 최대 행복자일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이 짊어진 임무 — 그들 자신은 전쟁에 나서는 의의를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최대 행복자이다. 행여,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반대이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임무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임무를 기꺼이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각과 각오가 있을까.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는 있어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원인이야 어쨌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불쾌한 사실을 목격하고 또 맞닥뜨리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불쾌감이 우리의 영원과 결부되는 데 방해가 되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상적 최고 목표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다.

내선일체, 도의조선, 황민화라며 우리가 거의 매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지상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국민임을 자랑으로 여기기 전에 천황의 신민임을 명예로 여긴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할 경우가 있더라도 천황의 대어심이나 일본의 건국 이상과 전통은 믿는다. 그래야만 비로소 만만치 않은 현실에 설령 불쾌감과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폐하의 신민이 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 흔히 있는 사실을 상대하기 전에 신민으로서 일본의 장점과 존엄을 믿고 그 상징으로서의 천황에게 복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1+1=2, 이러한 데모크라시적 연계에 의한 국민이라는 애매한 말로, 오늘날까지 조선의 사상은 너와 나의 현금주의적인 상거래와 같은 관계를 지표로 삼고 있었다는 데서 전진이 늦어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의 사상 지표는 구상을 한 결과 맺어진 과실이 아니라 비원(悲願)과 통곡과 자기편달을 통해 도달한 근원인 것이다. 일본과 손을 잡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장점을 동경해서 뛰어드는 것이다. 일본적 장점 안에 인류의 영원과 인생의 진선미의 절대성을 발견하는 데서 우리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은 눈앞의 현상만으로 확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영원한 미래로서 신앙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민족적 불행은 구원받고 개인적 불행은 기쁨이 될 것이다.



부정을 보고 분개는 하지만 정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기쁨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더라도 그들에게 희망의 내일은 신앙의 근원이며 약속된 미래는 힘의 원천이다. 오늘날 여유가 없는 생활을 아득바득 살아가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곤고와 간난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끔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오늘날 이처럼 만만치 않은 생활이 내일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하고 죽을 수 없다. 제 아무리 장대하고 찬란한 인간적 기구와 질서도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역사상에 나타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개인의 행위를 영원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의식하고, 자기 개인의 행위를 참된 것(眞)으로 하고 싶다고 염원하는 성실한 영혼이 참된 것을 발견하는 방법, 참된 것을 확증하는 기준이 언제나 그를 참된 것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하게 되려는 염원은 심정적 윤리의 동기밖에 되지 않는다.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리가 요구하는 것은 격률(格率)과 심정의 일치이다.

그런 윤리가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반으로 삼는 것은 개인 행위의 동기가 되는 심정의 본체 곧 인간성이며, 결과는 일정한 조건하에 놓인 인간 상호간의 상관관계의 단면구조이다. 그 체계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선악 표준으로서의 원칙은 언제나 인간의 두뇌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단면구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길이는 잊은 횡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멀게는 그리스에서부터 르네상스 이후의 서양 근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거기서 받는 인상은 훌륭한 단면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연장(延長)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연장을 바탕으로 발전방법을 도출해내는 데서 끝난 헤겔에서조차 안티테제의 법칙은 사실 속에서의 발견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의 관념적 편성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적 기반을 생(生)에 둔 딜타이 역시 그에게 생이란 수직선으로 앞뒤를 싹둑 잘라버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온갖 사상(事象)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도출해낸 법칙이 아니라 자연히 생성되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역사를 만드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역사이다. 역사의 흐름은 모든 인간을 싣고 간다. 원하는 자는 흐름에 실려서, 원치 않는 자는 끌고서…….

단면도에 정신을 빼앗겨 역사의 길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시기의 단면구조만을 생각하는 것

은 진정으로 민족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법칙을 머리로 생각하려는 자는 평생 미아로 죽게 될 것이다. 체계란 인간의 머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실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진眞은 한정된 한 시기의 인간 생활을 통리(統理)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영원을 통괄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실생활보다 높은 곳에 매일의 실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실천요향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상적 편력이라는 여정에서 찾고 있던 것은 그러한 것이다. 찾고자 했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던 우리 뒤에는 회의와 배신과 자학과 암울한 자취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였다. 일본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1944년간이나 걸려 기독교의 하나님(god)이 실현할 수 없었던 천국을 또는 불교의 극락세계를 3천년의 역사 속에 실현하고 있다. 전 세계의 사상가, 철학자가 생각한 이상세계를 일본 속에서 발견하였다.

우리는 동거하고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상대의 특징을 미점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두뇌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 인간의 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일본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일본적 장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반도 사상의 제2의 지표이다.

신성한 임무를 발견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대 기쁨이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미련은 없다. 살고 싶다는 염원은 죽을 장소를 찾아서 죽고 싶다는 비원인 것이다. 죽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자연에 끌려 죽을 때 통곡이 나온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공동생활 속의 개인의 삶(生)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헤쳐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존을 받들고 정의(情義)로 맺어진 가족적 공동생활 속의 개인의 삶은 어떻게 하면 지존을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많이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하는 염원으로 향하게 된다.

공동체의 의식이 강하면 부분의식이 강화되고 부분의식이 강화되면 거기서 봉사정신이 생겨나고 초분(草莽)의 뜻이 싹트기 시작한다.

진정한 일본인이 된다는 것은 신민으로서의 임무에 죽을 수 있음을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화는 신민문화이 되어야 하고 신민문화는 신민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봉사의 비원, 초분의 통곡, 이것이 신민문화의 정신이어야 한다.

〈출전 : 平沼文甫, 「思想的前進—國民文學から臣民文學へ」,
『國民文學』 제4권 제5호, 1944년 5월, 8~13쪽〉

(5) 새로운 인간과 윤리

신인간 형성의 기연(機緣)

문학과 인간=예술의 공덕은 감상자로 하여금 기꺼이 작자의 의견에 행복하게 하고 깊은 감화로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 그럴 경우 철학자, 도덕가가 사용하는 수단은 잘 갖추어진 사물의 이치인 반면 예술가는 형상으로 사유하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육성으로 감상자를 매료시키고, 공감으로 작자 자신이 살고 있는 감정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예술은 인간의 공통감정을 이용한 고마운 마법이다.

인간의 절실한 이 감정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예술의 필연적 운명으로서 문학이란 인간과 씨름을 하는 일이다. 인류가 생활 속에 문학을 갖게 된 이래 땀 흘려 이룩해낸 수많은 작품들이 아무리 사상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있고 기술적으로 매우 다채롭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인간심장의 기록이 아닌 것이 없다. 어떤 이는 높은 이상의 세계로 인간을 끌어올리고자 음모를 꾸미고, 어떤 이는 꿈꾸는 진선미의 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적 인간과 인간관계를 증오하고, 어떤 이는 시종일관 현실세계 속에서 가장 진선미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인간형을 발견하려고 한다. 또 어떤 이는 시종일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토대로 그 상호관계의 아름다운 상태를 탐구하려고 한다.

인간의 생활양식의 변천을 반영한 문학사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학적 방법도 그 의욕은 모두 인간의 진에 다가서고 선을 나타내며 미를 창조하는 데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서조차 그것은 인간에서 출발하고 인간에서 끝난다.

역사와 인간=역사적 이념의 진위는 그것이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강권(強權)과 들뜬 관념적 호령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인간들 위에 강제가 통하겠지만, 그 결과는 늘 그 강권의 이완과 더불어 관념적 호령도 통하지 않게 되고 아래로부터의 반발 감정으로 인해 반동이 일어나 강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역사인 동시에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다. 아울러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은 머리의 인간이 아니라 심장의 인간, 가슴(腹)의 인간이다.

우리는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독립국을 탄생시켰지만, 앞으로 만주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어떨지, 즉 저 새로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느냐는 새로운 만주국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만주국이 그곳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탄생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 바뀔 수 없는 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신생 중국, 버마, 필리핀에도 적용된다. 정치적 필요에 따른 제도나 조직이 높은 정신과 결부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 발로이자 실현수단이 되길 바란다.

예술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현실적 정치적 필요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높은 정신으로서 정치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은 추수(追隨)하는 인간이 아니라 높은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 현실을 추진시키려는 인간이다. 강제된 추수에서는 크고 넓은 문화는 탄생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념은 반드시 그것이 스며들어갈 만한 마음의 여지를 갖고 있다. 그 이념이 제시되었을 때 울면서 달려드는 요소가 군중들 속에 있어야 한다. 그 힘이 자라나 마침내 그 이념을 지탱하고 역사의 형태를 바꾸어간다.



문학의 커다란 근본과제로 제시된 조선의 역사 개조의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길에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쳐 최후이자 유일한 길로 조선이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근대사는 정신적 지주가 없는 역사였다. 거기서 더욱 높은 것을 구축하기 위한 아름다운 협동적 의욕의 표현을 잃어내려 하는 것은 영원히 이를 수 없는 우리 독자의 슬픈 염원에 지나지 않는다. 민중의 의욕과 노력은 종(縱)으로 늘어날 수도, 횡(橫)으로 퍼질 수도 없었다. 영원을 믿을 수도 희망을 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다. 그것은 청조가 무너진 뒤의 중국 역사를 길게 연장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거기서는 불신과 찰나주의와 이기주의의 암흑의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였다. 거기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자인 미국 선교사들이 학교, 유치원, 병원과 함께 등 뒤에 교회를 짊어지고 건너왔다. 현실세계에서 영원과 빛을 잃은 조선 민중이 사후세계에 꿈을 품게 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허겁지겁 달라붙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 결과 농민들 속에 희미하게 그림자를 남기고 있던 이조(李朝) 이전의 민간신앙의 흔적도 기독교는 소멸시키고 말았다. 이처럼 기독교는 민중에 침투한 동시에 민족적 감정과 결부됨으로써 지도자 사회 또한 집어삼키고 말았다. 거기에 이번에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며 또 다른 바람(마르크시즘 - 역자)이 북방에서 불어오자 기독교 교리와 함께 건너온 과학적 지식이 종교 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북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들였다. 마지막에 붉은 썰물이 빠져나갔을 때 조선의 사상은 회색도 아닌 짙은 흑색으로 급변하였다.

거기에 조선민족의 역사적 본원이 아마토(大和)민족과 같은 계열이라는 점이나 근대주의의 퇴조에서 다른 개인주의의 청산과 종합적 실재로의 의욕은 일본 안의 장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불신앙, 배신, 망은, 태만, 그 밖의 조선인에게 붙여진 형용사는 불쾌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를 절망케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역사가 작용한 상처이며,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하나의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절망과 통곡=조선의 역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에게 계속 배신을 당해왔다. 기독교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붉은 썰물 또한 물러갔을 때, 조선에는 어두운 절망이 찾아왔다.

우리는 결코 불신심한 민족이 아니었다. 잃어버리고는 슬퍼하고 배신당하고는 울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새롭게 계속 찾고자 노력한 최근까지 일부 민심을 현혹시킨 『정감록』을 보라. 그것은 흑세무민의 미신이라기보다 절망한 조선민중의 절실한 애원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굶주린 자는 미식을 꿈꾸고, 목마른 자는 맑고 시원한 샘물을 마음에 그린다. 모든 실체가 없는 것은 물에 빠지는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림자라도 쫓아가게 마련이다.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통곡할 수 있는 자는 결국에는 반드시 신을 발견한다. 그에게는 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실한 회의(懷疑)는 신념의 근원인 것처럼 강한 부정은 긍정의 어머니이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자의 눈물은 신을 기다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애절한 호소의 목소리이다.

눈물은 우는 자의 마음을 씻어내고 정화하고 신성하게 한다. 뱃속에서 목소리를 쥐어짜내 통곡하고, 그 뒤 신을 만났을 때 비로소 황송하고 고마움에 머리를 숙이고 합장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조선에 있어서 애국의 지정(至情)과 초분의 적성은 절망과 통곡을 거친 자에게만 순수함이 허용된다. 여기에 개조되는 조선의 역사를 짊어질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하는 하나의 기연(機緣)이 있다.

어머니와 아내는 출정한 아들, 전사한 남편의 무운과 명복을 기원하는 데서 다시 태어나고 변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낡은 것의 통곡을 계기로 한 씻어내기²²⁾에 의한 기연 외에 또 하나 조선에서의 새로운 인간형성의 기연이 있다.

구세대가 눈물로서 씻어내야 할 때, 신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본인으로서 자랄 수 있다. 내일은 외적을 막는 방패(醜の御楯(시코노 미타테))²²⁾로서 싸움에 나서기 위해 불철주야 맹훈련을 하고 있는 특훈, 훈육 생도들이나 국민학교에서 일본 남자의 교육을 받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년항공병을 지원하는 아동들은 더 순수하게 새로운 조선인이다. 그들이 조선을 짊어질 때 조선은 그 모습을 바꿀 것이다.

과정의 윤리=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조선인이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구세대가 대부분의 실권을 쥐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지배권이 호령을 외치고 있지만, 낡은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 가정에서도 아들의 소년항공병 지원을 반대하는 할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위력을 발휘한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과정적 윤리가 형성된다. 공적인 윤리와 숨어 있는 윤리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순과 어정쩡한 인간의 자기분열이라는 이중생활로 인해 윤리적 혼란이 표리일체를 이루며 존재한다.

과정적 윤리 형성의 또 하나의 원인은 앞에 나선 인간의 자기청산이 철저하지 못한 데에도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통곡 속에 들어가는 대신, 이전에 몸²³⁾에 익히고 있던 것을 유지할 필요에서 질질 끌려들어간 인간형도 있다. 여기서는 새로운 측면이 표면에 드러나고 낡은 측면이 이면으로 숨는다.

이러한 이중생활의 사회에서는 약으로 삼고 싶어도 활력을 찾아볼 수 없다. 간혹 있는 것은 허세이다. 이 무렵의 문학에 생기가 없는 것도 이 과정적 윤리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인간의 생성률이 낡은 인간의 감소율과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과정적 윤리가 새로운 윤리로 바뀌어 젊음과 발랄함이 문운(文運)에 넘치게 된다.

새로운 인간과 윤리

복종하는 인간=근대인의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나치게 발달한 개인(個)의식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강렬한 개인의식은 자신이 꿈꿀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상태를 자신의 개아(個我)에 관한 범위 안에서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개체가 받은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 개체로서 장생·불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정된 인생에서 모든 진선미를 실현하려는 욕심을 낸다. 때문에 그의 세계관은 단면적으로 정돈되지만 그 대신 깊이를 갖지 못한다. 세세하지만 그 대신 깊이와 높이를 결여하고 있다. 개체 생명의 단절은 영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찰나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정성은 무용지물이 된다. 근대주의의 이런 영향은 조선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영원을 손에 넣고 미래를 믿는 자에게는 한정된 개체의 생명이 계속되는 순간과 그 개체의 가치는 영원과 전체의 한 세포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개(個)를 연장하는 길은 개체 속에 진선미를 실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영원의 생명체 속에 몰입함으로써 실현하려고 한다. 초분의 뜻은 개체로서는 빛나지 않겠지만 큰 자아 속에서 영생한다. 정성도 커다란 자아의 생명체 속에서 유효하

22) 무사가 자신을 비하해서 일컫는 말인데, 천황의 방패가 되어 외적을 막는 자를 일컫는 관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 찰나와 국한된 개아에서는 허위가 정성보다 편리하다. 정성의 효과는 거짓의 그것만큼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인간이 태어나고 신의와 사랑의 윤리가 생긴다.

이러한 미래 인간의 가치 평정의 기준을 정의하면, 지상에 복종하는 인간이라는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저렇게 해야 한다는 데서 들어가는 것은 아직 과정적인 것이다. 의식하지 않고도 생활의 모든 것이 복종하는 것이며,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을 느끼게 되어야 한다. “놀고먹어서는 높은 신 분께 송구스럽다”는 생각으로 아등바등 일하는 농민은 일견 그들의 이상이 지면에서 1척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창백한 얼굴을 하고 밤낮으로 이상론을 외치는 지식인에 비해 높은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작가와 인간=새로운 인간형을 발견하던 새로운 윤리를 탐구하던,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작가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단한 관심과 추구의 감각은 그의 생명이다. 귀족사회의 인간에게 미래의 인간을 발견할 수 없었던 투르게네프는 농민의 아들이자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바자로프에게 미래성을 발견하지 못하자 솔로민이라는 인간에게 미래를 보려고 하였다. 죄와 벌에 대한 윤리적 과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신의 세계에서 해결의 길을 발견하였다. 장소도 다르고 최후의 길도 우리와 다르지만 인간과 윤리와 씨름한 그들의 태도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높은 것을 붙잡고, 높은 것이 없다면 깨끗한 감각을 가져라.

〈출전 : 平沼文甫, 「新しき人間と倫理」, 『國民文學』 제4권 제5호, 1944년 5월, 28~33쪽〉

(6) 피안(彼岸)의 경종이 아니다

최근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적 미국인의 잔학성을 폭로하는 기사가 오랫동안 연재되어 적개심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는데, 그 기사가 그 자체로 문화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향간에 문화인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그 기사가 문화적이지 아니라는 측의 주장은 문화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데 그 기능이 있고 저급한 수단이 아니라는 데 반해, 그것을 문화로 보는 측에서는 문화는 생활 현실의 필요가 낳는 것이고 본질이라 해서 그 이외에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양쪽 주장 모두 수궁이 가는 점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주장에 있는 것처럼 문화를 저급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체의 위엄을 유지하고 따라서 그 특유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수한 기능이라 하면 문화는 넓이보다 깊이를 가지려고 한다. 폭보다는 심도와 고도를 요구한다. 정치와 같이 아무리 많은 인간을 일정한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느냐는 것으로 성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장과 심도와 고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성과를 논해야 한다.

두 번째 주장인 문화는 인간 생활의 현실적 필요에서 태어난다는 주장도 올바른 것으로, 목숨을 버리고 문화를 지킨다는 인간은 20세기 초기의 관념 유희자나 취할 법한 태도이다. 국가의 요청은 그 자

체가 생활 현실의 필요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은 모두 옳은데, 그런 정당한 주장이 최근 어째서 나오게 되었을까. 인간은 모하게도 당연한 것에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당연함에서 조금 탈선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연함의 본질을 서로 논하는 것 같다. 이 경우에도 두 주장의 동기를 생각하면 그 자체가 오늘날의 문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그 자체 하나의 역사의 요체, 생활의 꽃술(蕊)이다. 평소에는 요체나 꽃술이 역사가 되는 데까지는 확산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화는 문화로서 유용하였고, 생활 현실은 생활 현실로서 큰 탈선은 없었다. 하지만 총동원에서는 심도나 고도보다 확산이 더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나의 손가락이라도 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가 싸움 속에서 지녀야 할 기능은 가능한 한 많은 민심을 전쟁 목적에 동원하는 데 있다. 연맹의 문화과 등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관이나 그 시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문화의 가치는 계몽력과 선전력으로 결정된다.

경성일보, 매일신보에 연재된 적의 잔학성을 폭로한 기사도 이러한 견해에서 본다면 문화가 아니라 고도 문화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화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 그 기사에 문화성을 부여하려는 것도 쓸데없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속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번개가 배꼽 흠쳐간다'는 거짓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칙명 봉공을 위해 전열에 서는 국민도 있겠지만, 미국 놈들을 증오해서 전열에 가담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복종하지 않아서 공격하든 증오해서 공격하든 간에 공격에는 변함이 없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모두 옳다고 본다. 하나는 문화 본질에 대한 향수에서, 다른 하나는 눈앞에 있는 필요에서 나온 심리작용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나는 양쪽 주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적이 오가사와라(小笠原)에 쳐들어오고 적기가 기타큐슈(北九州)를 연일 폭격하더라도 문화본질론으로 허비할 시간이 있을까. 전황의 핍박이나 사이판의 비보가 우리로 하여금 문화본질론으로 다룰 여유를 주지 않는다. 문화 목적이 국가 목적 안에 용해되어 들어간 것은 벌써 오래 전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문화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본체에 침투하려는 위협을 제거하는 일이다. 문화의 뿌리가 끊어질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문화에는 여전히 사이판의 비보가 닿지 않는 부분이 많다. 아니, 들어도 피안의 경종이라며 잘못 생각하는 지대(地帶)가 많다.

위기는 발밑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펜은 검이 되어야 한다.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

(조선문인보국회 제공)

〈출전 : 平沼文甫, 「特輯 敵國降伏—彼岸の警鐘ではない」, 『文化朝鮮』 제6권 제4호, 1944년 12월 25일〉

12) 이광수(李光洙, 香山光郎)

(1) 조선문화의 장래

반도문화의 분류

단순히 조선문화라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멀리 단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삼국시대·고려시대·이조시대 등으로 나뉘고 또 이조시대에서도 초기와 말기는 전혀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문화의 분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때로는 한나라나 수·당, 혹은 원·명·청의 중국문화나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 주체적인 것을 적출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조선문화의 분류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완전히 미개발인 채로 남아 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조선문화사로서는 가벼이 단정을 내리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집 담당자로부터 조선문화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나로서는 먼저 조선문화의 분류에 대하여 미숙하지만 내 소신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내 생각으로는 문헌으로 남아 있는 조선사의 신빙성이 매우 박약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조선문화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하고 싶다. 조선의 역사로서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이 『삼국사기』인데, 이것은 그 저자인 김부식의 중국 숭배사상의 한 방편으로서 작성된 것이고 당시까지 전해진 비기(秘記)·고기(古記)·비지(秘誌) 등은 물론이고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조차 때로는 묵살하고 때로는 개작하고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왜곡된 사실이나 해설만을 전했으며, 다른 사료는 재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은폐하고 말았다. 이 소논문에서 김부식의 사론(史論)을 비평할 여유는 없지만, 신라 등의 왕이 연호를 사용한 일이나 짐(朕)이라 칭하고 붕(崩)이라 한 일조차 이를 예법에 어긋난다며 중국의 제후들의 예를 따라 과인(寡人)이라든가 홍(薨)이라는 글자로 고치고 연호 등은 완전히 삭제해서 중국의 연호를 대입한 예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문화의 연원이자 중심인 고신도(古神道)에 대해서는, 이는 선왕(그에 따르면 요·순·문·무왕 등을 의미한다)의 도(道)가 아니라며 묵살하고 배척했고, 그 뒤 정몽주의 척불(斥佛)·배선(排仙)을 거쳐 이조의 성종·중종 시대에 이르러 중국 숭배사상은 절정에 달하면서 모든 고조선적인 것을 배척하고 완전히 중국을 모방하려고 했다. 그 뒤 조광조 등은 수천 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제천의식까지 제후의 도가 아니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청하였고, 당시의 이른바 유림들은 환호하며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결국 영구히 이를 단절하는 데 성공했다.

이 제천의식이야말로 조선문화의 심연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인의 신앙·정치·사회·인생관은 모두 이 근본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저 조선의 건국신화인 삼신(三神)전설, 신인하강(神人下降)전설·승천(昇天)전설 등은 바로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우주의 주재자인 '환인'의 아들 환웅, 환웅의 아들 왕검이 태백산의 단목(檀木) 아래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만들고 신시에서 360조의 율령을 정하면

서 지상의 국가가 성립되었고, 이를 다 마치자 왕검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이 왕검을 중국의 사적(史籍)에는 선인왕검(仙人王儉)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 선(仙)이라는 말은 중국의 선이라는 말과 결코 같은 뜻이 아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왕검의 도를 국선도(國仙道)라 칭하여 중국의 선과 구별한 것이다.

국선도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에도 공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천’의식은 삼국의 사기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8월에서 10월에 걸쳐 거행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재료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도 남아 있다.

국선도는 조선의 고신도인데, 이는 물론 한자로 나타난 호칭이고 원래 조선어로 어떻게 불리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단 국선도 신앙의 본존이 ‘하나님’이고 인간세상의 신으로서의 본존이 검님·왕검·서낭님(仙王)·대신(大神)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여러 기록이나 오늘날까지의 민속에 남아 있는 언어 등에서 추측할 수 있다.

신라사에는 “왕신궁(王神宮)에 가시다”라는 조항이 제3대왕의 기록 이래로 곳곳에 나타난다. 게다가 그 신궁은 시조묘(始祖廟)보다 상위에 있었다. 신궁·시조묘·산천신기(山川神祇)라는 세 종류의 제사는 매년 일정한 시기(신라에서는 8월 15일, 고구려에서는 10월, 삼한시대에도 10월)를 정해 국왕이 직접 거행하였고, 그 시기에는 남녀와 문무의 다양한 경기나 대중적인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로서의 제례인데, 민간에는 부락마다 당(堂) 또는 신사(神祠)라 불리는 사당이 있었고, 특히 수도의 진산(鎭山)이나 남산에는 대규모로 건립되었고 명산에도 국선의 신령한 장소가 없는 곳이 없었다. 이러한 사당이 관령으로 폐지된 것은 이조 성종·중종 때였다. 이른바 음사폐지(淫祠廢止)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선도는 제사만이 아니다. 신라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종교·정치·무술·예술의 수련을 포함한 것으로, 유명한 국선 밑에는 수천 명의 문하생들이 있어서, 일종의 종교적 단체를 형성했으며, 그 문하생들은 스승인 국선도장에서 종교적·정치적·무술적·예술적 수련을 했다. 17세가 되면 졸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선도장이야말로 국민교육의 연충(淵叢)이었다.

최치원이 난랑비(鸞郎碑)에 이 국선도의 요령을 기록하고 있다. “오동유도호왈국선(吾東有道號曰國仙)”이라는 서문을 시작으로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의, 도교의 깨끗함도 겸비한 신대(神代)로부터 내려오는 도가 있어서 훌륭한 문신도 무장도 여기서 나왔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 ‘오동(吾東)’이란 반도를 가리킨다. 최치원은 신라인으로 당나라에서 문장으로 이름을 알린, 이를테면 당나라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선 난랑의 비문에 이와 같이 국선도를 높이 평가한 것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 이 국선도의 윤리적 내용으로서 5개조의 이른바 세속오교(世俗五敎)라는 것이 신라의 명승의 말로서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다. 즉,

- 1) 사군이충(事君以忠)
- 2) 사친이효(事親以孝)
- 3) 교우이신(交友以信)

- 4) 임전무퇴(臨戰無退)
- 5) 살생유택(殺生有擇)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세속오교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국선열전(國仙列傳)』을 읽어보면 국선 곧 화랑도가 어떻게 이러한 5개조를 실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관창랑(官倡郎)·사다함(斯多含) 등은 그 좋은 예이다.

나는 신라사(주로 『삼국유사』·『삼국사기』를 가리킨다)에 기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자료만을 보더라도 국선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천지의 창조자이자 주재자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인간세계를 다스리기 위해 그의 아들 검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검님이 인간으로 나타나 왕이 되었으며 숨어서는 신이 된 것을 믿고, 이처럼 신을 경외하고 신의 현대신(現大身)인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일반 동포와는 신의로 교제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일단 완급이 있으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 가능한 살아 있는 것들을 자비롭게 대해 이를 살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충·효·신·용(勇)·인이라는 다섯 가지 덕은 신에 대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왕은 신의 현대신으로서 충성을 다한다는 정신은 신라 천년 일계(一系)식의 왕통을 유지함으로써 단련되어 왔다. 고구려나 백제도 그러했다. 고려의 왕건이나 이조의 태조가 이른바 역성혁명을 감행한 것은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왕건은 고구려의 왕통의 후계자임을 자임하고 이태조는 신라의 후계자임을 자임했다.

국선의 수련방법에 대해서도 역사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대략 추측해볼 수 있다. 즉 17세까지는 스승의 도장에서 철저히 훈육을 받고 그래서 한 명의 당당한 화랑이 되면 대부분은 명산에 유랑을 떠나거나 선왕(仙王)의 신령한 장소(오늘날 조선 사찰에 산신당으로서 대응전보다 더 높은 곳에 모시고 있는 것이 그 유적인데, 산신당이란 엉터리 한문식 표현이다)에서 기도의 영성(靈性) 단련을 쌓거나 혹은 담력과 무술을 연마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예술적 정조를 함양했다. 금강산·태백산·지리산 등은 가장 유명한 신성한 장소로, 지금도 영랑(永郎) 등의 전통이 남아 있을 정도다. 금강산은 불교가 개발한 명산이 아니다. 국선의 신성한 장소에 불교의 절이 세워진 것으로 이를테면 신불융화(神佛融和)였다. 저 유명한 이차돈이 신라의 법흥왕 때에 불교를 위해 순교한 것은 실로 신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불충돌(仙佛衝突)로 희생된 것으로, 이차돈의 비장한 죽음은 신불의 융화를 가져온 것이었다.

화랑(국선과 거의 동의어이다)과 노래는 큰 관련이 있다. 신라에서 노래는 신성한 것으로, 병란이 있든가 가뭄이나 역병이 유행했을 때에는 노래를 만들어 신에게 바치고, 음악이나 춤으로 신을 위로하거나 했다. 만파식적(萬波息笛)이나 처용무(處容舞)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신라사 곳곳에 그런 것이 적혀 있다. 금곡(琴曲)의 발달이나 오늘날 아악으로 남아 있는 신라악도 국선도의 유물이며, 진성여왕 시대의 칙선가집삼대집(勅選歌集三代集)이라는 것도 화랑의 노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노래, 이른바 향가(鄕歌)로서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것이 26편 가량 있다. 이는 주로 불공덕(佛功德)을 찬미하는 노래인데, 이는 곧 노래가 원신(元神)에게 바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선의 전기가 신라사에 열전으로서 남아 있는데, 이를 읽어봐도 국선도의 내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신을 믿고 경외하며 충효를 본으로 삼고, 신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고(사다

함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창량의 경우), 아울러 자비심과 예술적 여유를 갖고 세상으로부터 '풍월도(風月徒)'라든가 '백운향도(白雲香徒)'라고 불렸을 정도의 기품과 유양(悠揚)함을 갖추고 있던 풍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 중에 만약 이왕가(李王家)의 아악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때의 심경이야말로 국선도인의 심경이었으리라. 실로 고조선의 정신을 가장 완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은 조선음악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고조선의 이런 기분은 오늘날 조선인들 속에도 종종 엿볼 수 있다.

이 국선도의 신앙적인 부분은 700년 동안 특히 이조 중종 이래 400여 년간 박해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단군숭배의 종교 형태를 취하거나, 때로는 선왕이나 타이캄(タイカム)이나 산신숭배의 민간신앙 형태를 취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주재)숭배의 정신은 지금도 조선인 전체의 영혼에 스며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술적인 부분은 노래나 무용으로 미미하게나마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 윤리적 부분인 충효 관념도 중국식 충효의 덕목으로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전통적 관념을 잃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벗겨내도 벗겨지지 않고,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조선인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조선문화의 본류가 아니겠는가. (이상은 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지만, 고구려도 백제도 또 고려왕조도 국선도에 관한 한 공통적이다.)

조선문화의 장래

만약 국선도가 조선문화의 본류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선문화는 어떤 방향을 취할까?

이상으로 조선문화의 본류가 얼마나 일본문화의 본류와 유사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유사하다기보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는 역사가의 연구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오늘날의 조선과 오늘날의 일본의 차이는 주로 조선의 중국화에서 오는 것이고, 그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으리라 본다.

즉 정신상·문화상의 내선일체(內鮮一體)는 조선 측에서 보면 결국 일종의 복고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때 입고 있던 중국옷을 벗어던지고 선조대의 원래 복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을 경외하는 것도 그렇고 충효 중심의 도덕 역시 그러하며 인정·풍속의 주된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요약하자면 조선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천년 전의 조선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로 엄청난 재료가 있지만 이미 내게 주어진 베이스는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 오늘날의 조선문화 속에는 자연소멸의 과정을 밟는 것도 있을 것이다. 혹은 강제적으로 소멸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화된 부분이나 내선일체에 지장이 되는 부분, 또는 오늘날의 시세와 맞지 않는 부분 등이리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민문화에 흡수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다. 혹은 조선만의 지방문화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 조선이 지닌 언어나 문학이나 풍습은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문화 속에는 앞으로 더욱 빛나서 단지 전(前) 일본의 문화에 광채를 더할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에 공헌해야 할 것도 있으리라. 이는 국선도의 진수에서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보는 바에 따르면 조선문화는 일본문화와 융합하기 위해, 이제야 비로소 오랜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 그 사명을 발휘하고 찬란한 광채를 발할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만약 조선문화와 일본문화가 질적으로 서로 배치하고 괴리했다고 한다면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실로 큰 비극이었음에 분명하다.

가만히 자신의 선조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은 보는 일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행히 역사나 민속은 일본과 조선의 문화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완전하게 설명해준다. 이는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출전 : 李光洙 「朝鮮文化の將來」, 『總動員』 제2권 제1호, 1940년 1월, 38~44쪽〉

(2) 내선청년에게 보낸다

香山광랑(香山光郎)

청년들이여. 자네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진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가? 내선일체가 우리 제국에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가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일본 내지의 청년제군들 중에는 '무슨 조선 따위가라며 하찮게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반도 청년제군들 중에는 '뭘 대로 되겠지'라며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사람은 없을까. 만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왜냐하면 내선일체는 바로 아시아 신질서의 기점이기 때문이다. 내선일체의 결실 없이 아시아 민족들의 융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방의 견지에서 보건대 내선일체는 그야말로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이 폐하의 군인으로서 국방선상에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제국의 견고한 기초는 태산반석(泰山磐石) 위에 놓이게 된다. 일본과 조선의 청년제군들은 이 점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먼저 조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 자네들의 일생—가령 앞으로 약 30년간—은 내선일체의 사업을 위해 바쳐야 한다. 자네들의 일생은 다른 모든 개인들을 위한, 또는 가족들을 위한 이익이나 향락이나 권리나 요구 등을 없애고 오로지 내선일체에 대한 봉사를 통해 제군들의 일생을 채워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완전한 내선일체의 업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 모든 희생을 바치는 각오를 해야 한다. 내선일체를 완수하고 반도 민중들로 하여금 대대로 황국신민으로서의 광영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에 제군들의 일생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청년 제군들의 신성한 의무인 동시에 위로는 성명(聖明)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자손들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까닭이라 믿는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반도 청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본 내지 측의 청년들과 흐트러짐 없이 박자를 맞추므로써 비로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그야말로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이, 악기와 연주자와 같이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내선일체는 두 민족의 역사적 숙명이고 메이지대제(明治大帝)의 유모(遺謨)이며, 금상 천황폐하께서는 반드시 이 홍업(鴻業)을 완수하시려는 대어심(大御心)으로 보인다. 조선인의 교육에서의 차별 철폐

가 그러하고, 특별 지원병제도가 그러하며, 씨(氏)제도의 창정(創定)이 그러하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반도의 적자(赤子)를 완전히 황민화(皇民化)하시려는 고마운 대어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내지인에게도 ‘반도인(半島人)’²³⁾에게도 동시에 나아가고 움직여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성심성의 노력을 명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만일 일본과 조선의 청년들의 무자각·태만에 의해 이러한 존엄한 황유(皇猷)에 익찬(翼贊)의 정성을 결여하고 내선일체의 성과를 한 세대 지연시키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자(臣子)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운의 진전과 두 민족의 행복이 그만큼 저해되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그렇다면 청년 제군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총명한 제군들은 내선일체라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황모(皇謨)를 인식함으로써 각자 맡아야 할 역할을 자각하리라 믿는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천황을 위한, 나라를 위한, 동포를 위한, 자손을 위한, 그리고 또 아시아를 위한 일체의 의무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군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것인데, 예컨대 두세 가지 구체적인 순서를 언급하도록 하자.

일본 내지의 청년들이여, 자네들은 먼저 조선 및 조선인을 알라. 조선에 관한 서적을 읽고 조선인 친구를 만들도록 하라. 많은 친구가 생기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한 사람의 친구라도 좋다. 그 한 명의 조선인 친구의 마음을 알고 동시에 자네들의 마음을 그 한 명의 조선인에게 털어놓아서 알도록 하라. 조선인의 청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얼마간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다른 역사와 풍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고 오해하기 쉬운 점도 있으며, 종종 불쾌한 감정을 동반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사귀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아, 그랬구나. 알고 보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형제였구나”라며 분명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한 친구가 한 명 생기면 내선일체의 강한 줄이 한 가닥 생기는 셈이고, 이러한 줄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수천, 수만 개의 이러한 줄을 통해 신경과 혈액이 서로 통하고, 마침내 일본·조선의 일역의 동포가 일심일체(一心一體)로 뭉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접촉과 결합이야말로 내선일체의 기초 공사이고, 동시에 주된 공사이며, 또 마무리 공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 없이 백 번의 선전도 외침도 결국 공염불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반도 측의 청년으로서의 자신의 황민화적 개조에 조력해야 한다. 열심히 일본정신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어²⁴⁾를 완전히 학습해서 진정한 모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사참배, 기타 예절에 익숙해지도록 습득하고 몸도 마음도 순수한 일본인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매일 시시각각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신을 완전하고 모범적인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이므로 그것을 할 수 없을 리는 없을 것이다. 반도 청년들이여, 자네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다. 천황을 위한 최대의 의무인 동시에 2,400만 조선 동포와 만대의 자손들을 위한 신성한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조선 청년들이여. 자네들은 특별 지원병에 나서라. 지원병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라는

23) 조선인.

24) 일본어.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병약하다는 것뿐이다. 그 이외의 사정은 결코 사정이 아니다. 따라서 병약한 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특별지원병에 지원하라. 조선의 장정들이 전부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날이야말로 조선에 황민화 완수의 영광이 찾아온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원병 의무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자네는 방호단원으로서 혹은 애국반원으로서, 그 어떠한 직업을 불문하고 그 직무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충을 들고 전선에 섰다는 각오로 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자네들 자신과 자네들의 집과 자네들의 동포에 행복과 광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

청년들이여. 제국의 전도는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일본은 바야흐로 세계의 지도자라는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다. 제군들의 땀과 피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빛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 이처럼 희망으로 빛나는 성대(聖代)에 태어난다는 것은 좀처럼 없는 일이다. 일본과 조선의 청년들이여,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제군들의 인생의 봄을 축복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옛 이름은 이광수)

〈출전 : 香山光郎, 「內鮮青年に奇す」, 『總動員』 제2권 제9호, 1940년 9월, 58~60쪽〉

(3) 창씨와 나

내가 향산(香山)이라고 씨(氏)를 창설함에 대하여 혹은 대면하여서 혹은 서간으로 내 창씨의 동기를 묻는 이가 있다. 대다수는 나의 '향산'이라는 창씨에 대하여 비난하지만 또 그 중에는 찬성하는 이도 있고 창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도 있었다. 오늘 내가 받은 익명인의 편지에는 나의 창씨를 강하게 비난하고 그 동기와 이유를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반드시 이 익명인의 서간에 응함만이 아니나 이 때를 당하여 나의 태도에 대하여 일언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한다.

창씨의 동기

내가 '향산'이라고 씨(氏)를 창설하고 '광랑(光郎)'이라고 일본적인 명으로 개(改)한 동기는 황송한 말 씀이나 천황어명과 독법을 같이 하는 씨명을 가지자는 것이다. 나는 깊이깊이 내 자손과 조선민족의 장래를 고려한 끝에 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굳은 신념에 도달한 까닭이다.

나는 천황의 신민이다.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 이광수라는 씨명으로도 천황의 신민이 못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향산광랑이 조금 더 천황의 신민답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내선일체

내선일체를 국가가 조선인에게 허(許)하였다. 이에 내선일체 운동을 할 자는 기실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될 것밖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차별의 제거를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할 것밖에 더 중대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또 있는가. 성명을 세자 고치는 것도 노력 중의 하나라면 아낄 것이 무엇인가. 기쁘게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러한 신념으로 '향산'이라는 씨를 창설하였다.

편의

앞으로 점점 우리 조선인의 씨명이 국어로 불려질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그러할 때에 이광수 보다 향산광랑이 훨씬 편할 것이다. 또 만주나 동경, 오사카 등에 사는 동포로는 일본식의 씨명을 가지는 것이 실생활 상에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이다.

결심

우리의 재래의 씨명은 지나를 숭배하던 선조의 유물이다. 영랑(永郎), 술랑(述郎), 관창랑(官昌郎), 초랑(初郎), 소회(所回(巖)), 이종(伊宗), 거칠부(居柒夫), 흑치(黑齒) 이런 것이 고대 우리 선조의 이름이었다. 서라벌, 달구벌, 제차파의(齊次巴衣), 흘골, 엇내 이런 것이 옛날의 지명이었다. 그러한 지명과 인명을 지나식으로 통일한 것은 불과 670년래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지나인과 혼동되는 성명을 가짐보다도 일본인과 혼동되는 씨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일본인이 되는 결심으로 씨(氏)를 '향산'이라고 하고 명(名)을 '광랑'이라고 하였다. 내 처자도 모조리 일본식 명으로 고쳤다. 이것은 충성의 일단으로 자신하는 까닭이다.

정치적 영향

금년 8월 10일까지 조선인이 창씨의 기한이 끝난다. 그 날의 결과는 정치적 영향에 큰 관계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즉 일본식 씨(氏)를 조선인 전부가 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 2,400만이 진실로 황민화할 각오에 철저하였다는 중대한 추리자료가 될 것이다. 만일 그와 반하여 일본식 씨(氏)를 창설한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하면 그것은 불행한 편의 추리자료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국가가 조선인을 신임하고 아니함이 조선 자신의 행복행에 크게 관계가 있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적인 씨(氏)를 창설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운동이라고 나는 믿는다.

〈출전 : 李光洙 「創氏와 나」, 『매일신보』, 1940년 2월 20일〉

13) 이무영(李無影)

(1) '국어보급은 강제가 아니라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문 : '국어'²⁵⁾보급은 강제가 아니고 애정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귀 의견은 어떤가.

답 : 부끄러운 일이나 내가 우리 조선의 장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나사변 이후의 일이다. 물론 조선의 행복, 조선인의 행복을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나사변

25) 일본어.

발발을 계기로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며 조선의 행복인가를 골돌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조선인은 좋은 황민으로서 살아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이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의 역사적인 일대 계기가 필요했다. 대동아전쟁이 잘 그 역할을 다해 준 것이다.

어려운 것은 나도 알지 못하지만, 또한 할 수 있는 몸도 아니기 때문에 국어보급에 의하여 적어도 조선인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 이 실천에 의하여 자신이 행복하게 되며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고 알면 이제 주저할 턱이 없다. 똑 바로 쟁취한 이념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밖에 더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잊혀져가던 외마디 국어일지라도 써 보기로 한 것이다.

문 : 당신의 국어창작의 역사와 현재 부산일보에 집필 중인 장편소설에 대한 마음가짐.

답 : 국어창작에 뜻을 두고 참으로 낙담했다. 쓰면 쓸 수 없지도 않다, 그리 간단하게 생각은 안 했으나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어휘이다. 문학은 무어라고 해도 말에 의하여 가치가 주어지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소설이 되면 지금까지의 외마디 국어실력으로서는 어쩐지 할 수 없다고 손가락을 내 던진 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시도로 모도로(지리멸렬한 모양)라고 하는 종류의 용어를 생각하고, 두세 번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시도로 모도로가, 모로도 시로도가 되며, 모도로 시로도가 되며, 그것이 또 어느 쪽도 올바른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어느 쪽도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전연 모르게 되어 버린다. 특히 나와 같이 주로 농민으로부터 취재하는 작가가 농사꾼의 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노트도 해 보았으나 어느 지방의 사투리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가게 되고, 요 즘은 그만 두게 되었다. 농사꾼의 말이 통일되지 않는 한 나는 이제 농사꾼 상대의 소설은 그만 두기로 하고 있다.

문 : 귀하의 국어공부는 어떤 과정을 밟아 왔는가.

답 : 나는 충북의 시골구석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지금의 강습소 같은 곳에서 등사판의 맹자를 옆구리에 끼고 학교에 갔었다. 그 무렵의 학생은 변발(辮髮)에 갓을 쓰고, 나와 같은 반에도 나만큼의 아이를 가진 애비가 몇 사람이나 있을 정도이니 국어를 말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2학년 때부터인가, 모리(森)친이라는 내지인의 선생에게서 겨우 외마디 국어를 깨쳤으나, 중학교 사립이었으므로 국어를 습득할 기회는 끝내 얻지 못했다. 중학교도 야간을 이용해서 내지인의 가정을 상대로 매약, 청소, 석탄 등의 행상 같은 것을 해서, 학비를 벌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국어습득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에게 문학용어를 조금은 쓸 수 있게 한 것은 역시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선생이었다. 나는 중학을 4년에서 그만 두고 소년시대의 3년 간을 선생의 댁에서 살며 문학서에도 친숙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동경을 도우료라고 발음하거나 잔념(殘念)을 산넌이라고 말하거나 하면 마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여 꽤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으나, 지금 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때부터 15, 16년 간 나는 쇼핑이나 전화번호를 부를 정도의 국어밖에 쓰지 못하고 살아 온 것이다.

그것은 중학교의 국어독본밖에 읽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오로지 소년시대의 기억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 : 국어창작을 일반화함으로써 조선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답 : 창작이 국어로 되면 조선문학은 망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으나,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언어의 세력은 정치에 의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벌써 오늘날의 일본어는 일본만의 국어가 아니며, 동아 10억의 국어가 되고자 하고 있다. 종래 반도만의 좁은 지역만의 조선어로 쓰이고, 그 지역에 삶을 갖는 자만으로 친숙해 진 조선문학은 이후 내지는 물론 멀리 지나, 남방방면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문학은 이제부터 커다랗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전 : 李無影, 「問 國語普及は強制からでなく, 愛情から出發されるべきだと思ふが, 御意見如何」, 『國民文學』 1943년 1월호, 53~54쪽〉

(2) 결전문학 수립을 위해

조선에서

국가존망의 결전단계에 직면하여 우리 문학자가 한 국민으로서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내외를 막론하고 대단히 격렬하게 논의되게 된 것은 그 시비는 어쨌든 문학의 전쟁에 대한 기여라는 위대함이 입증되었다는 하나의 현상이며, 우리 문학자로서도 크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논의를 대별해 보면 대체로 두 가지의 경향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문학의 서재농성에 대한 국외자로부터의 비난과 또 하나는 문학의 서재농성이 반드시 전쟁으로부터의 이반이 아니라고 하는 일파가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쟁이 그러한 것처럼 문학에 대한 이러한 논쟁에도 쌍방 모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갱이 한 톨의 생산이 결전의 자웅을 결정짓고자 하는 이 찰나에 안일한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갖고 노는 것은 무슨 일이나고 몰아세우는 국외자의 첩언(贅言)에도 일 리가 있다면, 노무봉사만이 전쟁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문학자의 변론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쪽에 편을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치는 어쨌든 저는 후자를 지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학자로서의 아전인수는 절대로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자이기 이전에 한 국민입니다. 한 우국의 국민으로서 문학자의 국민적인 의무는 좋은 문학제작 이외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자도 충용한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해머를 쥐는 것도 곡괭이를 내려치는 것도,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결단코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문학자가 문학을 버리고 경작이나 기계제작에 종사한다는 것은 전쟁 수행상 빠져서는 안 될 위대한 이과학자로 하여금 경작에 종사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더 애국적인 좋은 문학자에 의하여 제작된 위대한 문학작품은 한 자 한 구절이 포탄이며, 전선장병이 목이 타도록 후방의 국민에게 요청하고 있는 비행기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탄환이야말로 끝

이 없으며, 비행기 또한 영원불락의 위대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전력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국민의 저력은 위대한 문학이 그 원천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 무한한 저력의 원천인 문학자를 한 농부나 공원처럼 만드는 것은 모두 도로 자갈로 보석을 사용하는 오류에 비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문학자는 물론 저처럼 무능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애국심과 최고의 예술가적 기술과 양심, 여기에 강력한 지도력—이 삼자를 갖춘 문학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떤지 전력증강을 위한 생산전에 기여해야 할 이 결전하에서 문학자로서 서재의 한가로운 사람이 된 것 것처럼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문학자의 노무기피가는 아니고, 생산전의 적극적 헌신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들 우수한 문학자로서 결전하의 각 생산부분에 계속 투입되고, 그들에게도 생산수량 전임제라고 할까,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가 요청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생산시킨다는 안인 것입니다.

이 문학자의 생산책임제는 단순히 문학자의 노력공출만이 아니라 일본문학에로의 새로운 비약이고, 용지가 충족된다면 문학자의 생활 확보도 된다고 하는 바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내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채용되는 경우 당국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용지를 출판사가 아니라 문학자 자신에게 용지사용권을 주는 것도 문학자를 격려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전 : 李無影, 「決戰文學樹立の爲めに」, 『文學報國』, 1944년 8월 1일〉

14) 이석훈(李石薰, 牧洋)

(1) 반도의 신문화라고 하는 것

목양(牧洋)

교양, 기술

반도의 신문화 내지 신문화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한창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신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다.

저번에도 경일(京日)학예부장 데라다(寺田) 씨의 친절로 내지로부터 만주여행의 도중에 경성에 들린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씨와 만찬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 유아사 씨의 희망은 우리들 반도의 젊은이들이 반도신문화라고 하는데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들려달라는 것이었다. 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도신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야말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면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처럼의 유아사 씨의 기대를 유야무야(有耶無耶)하게 한 것 같은 사정이었

으나,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견(定見)을 갖는 반도의 젊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교과서처럼 하고 있는 도쿄의 일류잡지를 보아도 별다르게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선내의 출판물을 이것저것 뒤져보았으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정으로 외치는 소리만 큰 반면에 구체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닌지, 또는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되고 있지 않는지, 혹은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으면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으므로 저는 조금은 실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본지로부터 갑자기 그러한 것을 쓰라고 해서 저는 어쩐지 진퇴양난의 외판 골목에 쫓겨 버린 것 같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력저력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있는 것으로서 자아류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내던져 버리기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그 민족의 개성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얼핏 영원한 고유인 것 같이 보이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는 힘을 가지며, 끊임없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해 가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하여 퇴폐하고 또 건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라는 뜻이 영어의 컬처(culture)라거나 독일어의 쿨투어(Kultur)이라든지, 교양이라거나 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시피, 무지한 자에서 교양이 있는 자가 되며 야성의 것을 인위(기술)적으로 생활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고, 기술을 한 몸에 터득하는 것 등은 틀림없이 하나의 문화이며, 그러한 것이 퇴적해서 하나의 민족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문화의 개성이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가까운 과거에 크리스티교의 전파와 함께 조선도 서구적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미국적인 문화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었던 것이나, 오늘날에는 그 좋은 영향보다도 나쁜 쪽이 훨씬 눈에 띄는 것에 반성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일대 전환기와 더불어 그것도 필연적으로 전환을 할 수 없이 해야 하게 된 것이 흔히 논의되고 있다.

모더니즘

그런데 낡은 문화로부터 새로운 문화로 이행할 때에 거기에는 모더니즘이 유행되는 것은 필연의 추세이다. 한 때 문학이나 회화상에도 모더니즘의 문제가 시끄럽게 논의된 일이 있으며, 특히 새로운 풍속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도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경솔한 것이라고 비난 받은 적이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어떤 생물학자는 일본의 모더니즘의 범람은 오히려 민족의 활기 있는 생존력의 출현으로서 통째로 배격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튼 새로운 문화흡수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세례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다만 문제는 서양의 근대문화가 대단히 물질적으로 숙성해서 퇴폐적인 것을 무비판적으로 채택하는 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반도에서도 모더니즘은 내지를 거쳐서 왕성하게 들어 온 것이다. 그것이 예술상에도 풍속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정도는 내지에 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구적, 일본적

그렇다면 반도의 신문화는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역시 큰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결국 이것은 현실로서 우리가 서구적이 되려고 해도 커다란 힘 - 정치력 기타- 이 일본적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서구적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일본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논할 수 없으나, 한 마디로 접으면 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주의적이며 서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화해 버리고자 하는 일본문화를 더욱 더 내 것으로 함으로써, 우리들은 세계일류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다.

즉 이제부터의 반도신문화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상,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유문화는 물론 서구적인 새로운 근대 일본문화마저도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반도의 신문화라는 것은 결국 일본문화화인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일본문화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예를 들면 다도(茶道)에 관하여 보아도 반도사람들의 가정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며, 이러한 한 가지만 보아도 일본문화를 흡수하는데 대하여 얼마나 반도사람들은 무관심이며, 냉담한 것인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물론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생활적인 능력 같은 것도 커다란 원인으로서 통째로 배타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무튼 반도의 신문화의 목표는 확실해도, 매우 요원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은 사소한 예이지만, 두 개의 민족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일체화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후진자(後進者)는 선진민족의 문화를 먼저 비근한 것부터 생활화하는 것이 새문화로 향한 발족이며, 보다 고도의 문화는 아직도 앞에 있는 그것이다.

마감이 가까워서 대단히 거친 것이 되었으나, 평소의 생각을 재주를 부리지 않고 숨김없이 말해 본 것이다.

〈출전 : 牧洋, 「半島の新文化といふこと」, 『綠旗』 1941년 11월호, 35~37쪽〉

(2) 문예총후운동 강연회를 듣다

목양(牧洋)

도쿄의 문인들에 의한 문예총후운동의 경성 강연회를 들었다. 강사는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카와카미 테츠타로우(河上徹太郎),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니이 이타루(新居格) 등의 여러분으로 그들이 일본문단의 중견으로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 만큼 과연 부민관도 정각이 되기 전에 이미 만원이라고 하는 대성황이었다. 청중은 학생을 비롯하여 인텔리가 태반이며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왔던 것은 「방랑기」,나 「성빈(聖貧)의 서(書)」의 작가 하야시의 영향일 것일까. 그들의 장거(壯舉)에 경의를 표해 둔다.



먼저 고바야시 히데오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력을 집중해서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무엇이 무엇인지 도통 모를 정도로 빠른 상태였던 것이다. 말이 빠른 그는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5분도 되지 않았는데 품 안으로부터 회중시계를 끄집어내어 한사코 보는 것이었다. 하나의 제스처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급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고바야시라고 하는 사람이 흥분하고 있는 탓인가,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 없었다.

먼저 그는 문화라는 뜻부터 설명했다. 외국어를 끌고 왔다. 문화(culture)도 문명(civilization)도 같은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같으면 왜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으며,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나는 문화란 물질적인 면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문명이란 시빌, (Civil) 즉 “시민”에서 온 만큼 시민적인 관계 즉 정신적인 면을 뜻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는 더욱 말한다. 문화, 문화라고 너무나도 문화라는 말을 지나치게 써서 드디어는 문화팬티라고 하는 데까지 쓰이고 있는 상태이다. 화폐도 팽창하면 인플레이를 일으킨다. 바야흐로 말의 인플레이인 것이다. 그래서 문화까지가 가치가 내려간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상가나 문학자의 역할인 것이다.— 암암리에 그는 최근 외치는 소리뿐으로 알맹이가 뒤따르지 않는 문화의 외침을 비꼬았다.

문명이라는 것에 관련하여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론”을 제안해 왔으며, 문명개화주의에 탐닉하지 않는 높은(?) 정신을 격찬했다. 그리고 명치시대의 학자들에 호쾌한 실증적 정신, 규명의 정신이 풍부했다고 하며 학문은 동시에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규명의 정신은 과학정신인 것이다. 그것이 명치시대 이래 차차 약화해서 즉 실증적 정신, 규명의 정신이 희박하게 되어서 선진국 서구의 사상 같은 것을 통째로 삼키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저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도 대단히 애매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문화라는 것은 정치력으로서는 갑자기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 한사람이 반성하며 내부로부터 개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력으로는 문화를 어찌할 수가(급하게는) 없는 것일까? 나는 그의 말에 의문을 품는다. 논의보다 증거다! 나치스 독일을 보라. 파쇼 이태리를 보라. 고바야시는 지금 일본의 새로운 정치에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물론 필자로서 오늘날 멋진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적어도 그러한 시도만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신체제가 강한 구호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독일이나 이태리나 러시아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지라도 천천히 변화해 가는 것,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가려고 하는 것만은 부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요는 그는 아직 자유주의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치를 부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태도에 진지한 맛이 모자랐던 것은 유감이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카와카미 카츠테로우, “개체와 전체”라는 제목으로 지껄었다. 이 사람도 상당한 빠른 조(調)로서 자주 걸렸다. 고바야시가 작은 체구로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덩수룩하고 아무튼 문인연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기름을 바른 머리카락을 깨끗이 가르마를 가르고 키도 훤히하게 크고 모던 신사처럼 하고 있어서 평론가라고 하기보다는 은행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국달성에만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야 세계를 통하여 인류의 운명이 그러한 것들의 결산기에 봉착하고 있다. 원래 개인주의는 휴머니즘으로 15, 6세기에 걸쳐서 저 르네상스의 꽃을 피게 한 것이다. 그 영향이 19세기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르네상스란 신이 전지전능한 것이라는 사상을 타파하여 신의 위치를 인간이 가로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세 서구문명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개인)의 정신은 자연법칙과 같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정신이다.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지배한다. 서양문명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지배라는 것이다. 뉴턴은 지구의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서부터라는 것, 자연의 지배는 한층 더 박차가 가해졌다. 그러나 동양인은 자연에 대하여 일종의 두려움을 간직하거나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미하는 생각을 품고, 자연지배에는 서양 사람들보다 한 걸음 뒤쳐졌다.

17세기에 들어와서 아담 스미스가 나타나 개인능력을 존중하는 부(富)의 경제학을 주창했다. 이것의 배경이 된 것은 콜럼버스 이래의 식민지 획득이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경쟁적으로 해외에 식민지를 확장하여 원료를 획득하고, 본국의 부를 팽창시켰다. 그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세계의 식민지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토지를 갖는 자와 갖지 않는 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밸런스 오브 파워 ……그것의 불균형에서 전쟁은 일어난다.

개인주의는 경제면만이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최고 발전은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칸트 및 괴테, 베토벤의 세 사람에게 의하여 대표되는 휴머니즘의 종극(終極)인 것이다. 괴테문학이나 베토벤의 음악에는 인간의 모든 성격이 하나로 조화되고 있다. 괴테는 르네상스가 1천 년 전의 희랍문명을 동경하는 것처럼 르네상스를 동경한 것이다.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에 걸쳐서 휴머니즘은 차차로 쇠퇴해 갔다.

이번 제2차 세계대전은 제1차 대전처럼 자연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휴머니즘의 분열을 자각하는 데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리하여 휴머니즘 -개인주의 문명은 아무래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다음에 와야 할 것은 당연히 전체주의인 것이다. 우리들은 실천적으로 이것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메이지유신사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멋진 책임감이 넘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두 책임으로써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황파(近皇派)조차도 반드시 오고야 말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역력히 보면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과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지 어떤지는 신이 아닌 몸이 알 턱이 없었다.

다만 강한 이상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인한 정열이 있었다. 만인지상에 대한 충성이 있었다 — 라고는 카와카미는 말하지 않았으나 덧붙여서 써 둔다.

우리는 메이지유신에서 크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는 저절로 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전체에 귀속시키는 전체주의의 시대인 것이다.

정당이 타락한 것은 이상을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다.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 카와카미가 이야기한 요점인 것이다. 그는 소림보다는 얼마간 진지한 맛이 있었다는 것을 평가하나, 칸트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인지 “여러분도 칸트의 이름만은 알고 있겠지만 운운”이라고 했음으로 내 뒤에 앉았던 청년이 “헛! 건방지다!”하며 화내고 있었다. 그가 정말 “건방”진지 어떤지는 사귀어보지 않았으므로 속단하는 것은 삼가 하겠지만, 아무튼 시골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시골사람 취급을 당해도 할 수 없지만 물론 좋은 기분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하야시 후미코가 귀여운 일본 옷의 헐렁헐렁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참 동안 박수가 그치지 않았다. 역시 여류작가는 덕을 본다고 생각했다. 생각한 것보다 키가 크지 않았다. 또 생각보다 여자다웠다, 라고 하는 것은 「방랑기」 등에서 어떤지 거친 인상이 내 머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양 손을 얹은 여학생처럼 모으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무엇부터 이야기 할 것인지 재미있게 보고 있으니 뭐야, 경성의 인상을 교토에 비유해서 말하기에 웃음보가 터져버렸다. 간지러웠던 것이다. 우리 반도 사람들은 일본사람으로부터 칭찬 받으면 어떤지 간지러워하는 버릇이 있다. 정말로 믿지 않는 것이다. 나쁜 버릇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는 듣고 싶지 않다. 아무튼 곤란한 심리상태인 것이다. 교토라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언제나 동경하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천하의 경승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성을 교토와 같네요, 라고 당하면 어떤지 우습게 되고 마는 것이다.

연제(演題)는 “총후부인문제”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적이었다. 단편적이지만 약점을 찌르는 촌철(寸鐵)의 역할은 있었다. 여학교 교육이 20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학교육은 먼저 주부로부터, 이른바 쉬운 “애정의 과학”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요즘 젊은 여성은 엄청나게 거칠어지고 있다. 전차 안에서도 자주 목격하는 일인데, 손 위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인 관념이라는 것이 거의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딱딱하며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교양이 없으면 바보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요즘 여자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편견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나, 여자는 역시 깨끗해야 한다. 여자가 더러운 세계는 상상만 해도 힘이 빠진다. — 라고 해서 여자가 사치로 흐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깨끗해지는 데에는 애정으로써, 또한 애정을 가지고 따뜻함을 가지고 주위를 감싸 안아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녀는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양자강 양 기슭에 종군했을 때의 이야기 하며,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출정군인에 대하여 총후의 기분을 전해 달라는 일, 꽃이나 차나, 요리는 형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 생활의 실정에

맞추어 창의가 있는 연구를 할 것을 주장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자는 대학을 나와도 70엔 남짓 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여학교에서 가르치면 백 엔이나 그 이상을 표준으로 한 것뿐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들이 아프게 느끼며 또한 가려운 듯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나이 이타루 선생이 50을 넘은 뚱뚱하고 큰 키를 끌고 계속 유머를 연발하여 기분이 쉼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은 어떤 의미로 기뻐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애처로웠다. 이는 조로증(早老症)에 걸리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크게 자극하고 반성시킨 점이 기뻐으나 적어도 나이 이타루 선생이라는 분이 “호화생활분석”이라는 제목을 걸고, 여자의 사치를 놀리는 다만 그것뿐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을 한 시간 가깝게 지껄이고 물러난다는 것은 무슨 일이나 화내고 싶을 정도로 처량했던 것이었다.

전체를 통하여 일본문학을 대표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열과 진지한 맛이 모자랐고 거기다가 시국인식이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깊었다.

〈출전 : 牧洋, 「文藝統後運動講演會をまき」, 『綠旗』 1941년 12월호, 98~101쪽〉

(3) 국민문학의 제문제

목양(牧洋)

국민문학의 모습

국민문학의 문제에 대한 조선문단의 태도는 아직도 많이 회의적인 것 같으나 이러한 현상은 조선작가들의 불성실함에 모든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그 얼마간의 책임은 내지문단의 국민문학론에도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민족의 전통이라거나, 민족생활이라거나, 전승적(傳承的) 국민성 같은 것을 기초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국수주의적이며 편협한 것인가의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논리적 경향은 나치스 류의 오히려 배타적인 순수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것을 반도문단에 끼워 맞출 때는 조선민족주의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어서 국민문학과는 엉뚱한 문학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와 같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극력 주장할 때는 우리들 진보적인 작가들의 입장으로서 조금은 의견이 상충됨을 느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참다운 일본적인 국민문학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내지문단의 국민문학론을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도 너무나도 신경질적인 조선의 일반 작가들의 회의가 숨어 있게 되는 것으로 우리들로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 넘은 대승적인 “국민”이라고 하는 사상에 서서 국민문학론답게 하고 싶으며, 다만 그렇게 이론화시킬 뿐만 아니라 작품적인 실천에 이러한 것을 읊고 싶은 것이다.

구차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날 동아공영권 속에는 여러 민족이 포괄되고, 그들의 맹주는 어디까

지나 “1 억의 일본인”이며 야마토(大和)민족만이 이러한 영예를 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의 사람들은 먼저 그러한 자각과 긍지를 국민적인 의무 수행으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성이 문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면, 이러한 웅대한 구상이 하나의 새로운 문학적 발상이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가 희구하는 국민문학은 내선일체를 뒷받침함으로써 진정으로 1억 일본인을 위한 국민적인 문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1억 일본인을 위한 문학이란 일본국민이라는 것의 행복감, 일본국민으로서의 도덕감, 일본국민으로서의 감동을 주는 문학이며, 홀로 야마토 민족만을 위한 문학, 조선인이 아니면 모르는 것 같은 정서의 문학이 되어서는 진정으로 국민문학의 이름에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조선)의 전통적인 특수성은 국민문학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은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일지 모르나 우리의 전통적인 특수성이 진정으로 국민적인 것에 플러스되는 것이라면 크게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편협한 민족적인 것으로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하학적, 공식적인 비례문제는 아니며 반도에서 자란 우리들의 개성이 일본마음의 파악 내지는 일본정신의 세례를 통하여 이색적인 국민문학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같은 내지인이라도 동북 사람과 규슈 사람과의 사이에 성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지인과 반도인으로서의 같은 “일본국민”이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조시대의 그림을 보면 일종의 시정(市井)적인 पै기가 풍부해서 대륙적인 영향이 매우 소박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일본그림의 섬세하고 또한 온화한 조화와는 특이한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문학에 있어서도 반도가 가지는 대륙성이 일본 고래의 섬세하고 우아한 것과 융합될 때에 매우 이색적이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극히 일부의 예에 지나지 않으나 아무튼 우리가 희구하는 국민문학의 본연의 모습은 먼저 대체로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적인 것의 일면(一面)

국민문학에서 일본적인 것 내지는 일본마음의 파악이라는 것은 우리들(반도인 작가)의 당면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문학과 함께 영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적이라는 것 혹은 일본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에 국한된 매우 작은 것, 매우 편협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공영권 내의 여러 민족에 공감되어,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에 의하여 공명되는 바의 높은 것, 뛰어난 것, 큰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통해서 볼 경우 일본적이라는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표출되는 것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만요슈(萬葉集)』의 어느 곳에 “말하지 않는다”라거나, 혹은 “언령(言靈)이 물리치는” 라는 말이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많지 않는 것이며, 필요한 이외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노우(能)”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지만 예를 들어 그 노우에서 움직임이 없는 동작으로 인하여 오히려 함축이 있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 같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문학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령이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말에 생명이 깃들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나, 옛날부터 일본어라

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으로 일본적인 문학이라는 것은 하찮은 것이 없으며 말이 많지 않은 간명(簡明) 직절(直截)하며 또한 풍부한 내용을 가질 만큼 뛰어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단가(短歌)나 하이쿠(俳句)처럼 세계에서 가장 짧은 형식의 문학의 존재이유와 일본적인 것의 대표적 문학의 장르로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현대일본문학에는 서구문학의 영향으로 그 체질마저도 비일본적인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국민문학이 새삼스럽게 제창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현대일본문학 자체의 약점에 대한 반성도 있음으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복고주의나 동시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참다운 일본적이며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거의 이해할 수가 있다. 가령 만약에 우리들이 일본적인 것의 파악 때문에 현대일본문학만을 거울로 삼는다면 우리의 그 의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한 현 실정 속에서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 문학이 가장 일본적 전통에 서는 문학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저 “말하지 않는다”, “언령이 물리치는”과 같은 수법과 그것의 완벽한 작품구성의 탓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브루노·타우트²⁶⁾도 일본적인 것은 간소미(簡素美)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간소미야말로 구미의 진정하게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모던(현대적)하다고 부르는 것이다.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참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학의 진보향상이 모던에 있다고 한다면 일본적인 것은 참으로 참신성과 진보성과를 그 자체 속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본연의 희구이며 또한 세계인류가 공감하는 시원(始原)적이며 또한 중국적인 것이다.

그와 같이 일본적인 것의 일면에는 간명 직절, 또는 간소미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간소미는 밝고 맑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반면에 복잡하고 어두운 것은 비 일본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적인 모럴은 어떤가? 한 마디로 말한다면 만인지상 한분으로 귀일하여 받드는 것이다, 대의에 순절하는 정신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은 원래부터 비 일본적이었으며 의에 화를 내며 정에 우는 마음, 그것이 일본적인 모럴의 뿌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내지에서는 의리 인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일본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상은 극히 일본적인 일면을 문학을 통하여 생각한데 지나지 않으나 전 항목과 아울러 우리들이 이제부터 국민문학을 창조하고자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대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또 다른 기회에 국민문학은 로망주의의 문학이 되어야 할 것과 기타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생각한다.

〈출전 : 牧洋, 「國民文學の諸問題」, 『綠旗』 1942년 4월호, 62~65쪽〉

(4) 사상전과 선전전

목양(牧洋)

근대전이 궤도에 오르면 사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력의 승리가 참다운 최후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는 이러한 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저

26) Bruno Taut, 1880~1938 독일의 건축가.

루덴도르프²⁷⁾ 장군도 그의 자서전 속에 “세계대전에 독일이 진 것은 나 자신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사회주의자의 우민(愚民)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후의 사회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반전사상으로 드디어 무력의 승리를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동아전쟁은 원래 발단에서부터 피아(彼我)간에 세계관의 다툼 즉 신질서와 구질서의 사상적인 싸움이다. 인도차이나의 석유가 필요해서, 말레이의 고무를 얻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동아시아의 천지에서 내쫓기 위하는 것만으로, 이 전쟁은 일단 화살을 쏘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1억 국민의 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미국과 영국을 철저히 쫓아내고 또한 전 아시아 민중에 침투한 미국과 영국의 사상마저도 최후의 한 방울까지도 맑게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과묵한 탓인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애국적인 일본인이 미국과 영국인이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것처럼 열렬하고 또한 조직적으로 일본정신을 찬미하고 또한 이것을 사상전으로까지 전개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우수한 학자나 문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고 민주주의의 찬미와 선전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영향은 참으로 크고 무지한 대중조차 민주주의 옹호를 위하여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데 이르게 된 것이다.

동아공영권에는 많은 민족이 포괄되어 있으나, 이러한 이민족으로 하여금 일본을 참다운 맹주로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선무공작에 머물지 말고 사상적으로 깊이 들어갈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선전전은 사상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물론 중요하나, 그것이 진실을 뒷받침으로 수반하지 않는 한은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수조차 있는 것이다. 영구적인 진실의 선전공작, 이것이 사상전이며 특히 우리들 문필에 관계하는 자들의 책임은 크다고 통감하는 바이다.

(필자는 조선문인협회 상임간사)

〈출전 : 牧洋, 「思想戰と宣傳戰」, 『京城日報』, 1942년 9월 19일〉

(5) ‘국어보급은 강제가 아니라 애정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

문 : 국어²⁸⁾보급은 강제가 아니고, 애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다고 생각하나 귀 의견은 어떤가.

답 : 민중의 자각이 없을 때는 갑자기 정치적인 경향이 농후해지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보급 및 언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부문을 통하여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지금은 특수 사정에 있으며, 국어보급운동이라는 것도 자연히 하나의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민중은 일단 경계한다. 따라서 거기에 정치적인 경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경향에는 반드시 반동을 수반함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국어보급운동이 역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인 고려 문제가 일어나나 이상에서 말할

27)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Ludendorff) 1865~1937 독일의 군인. ‘총력전’ 이론의 개발자.

28) 일본어.

것처럼 초기에는 할 수 없는 일로 국어보급은 오늘날에 와서는 민중이 솔선해서 해야 할 하나의 커다란 문화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치에 의지하거나 통째로 맡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 : 당신의 국어창작의 역사와 현재의 장편 집필의 마음가짐.

답 : 조선말에 의한 대중계몽은 물론 크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중계몽을 위한 조선어의 사용은 자칫하면 국어보급과 상반되고 모순을 가져오기 쉽다. 그것의 미묘한 경계선을 지도자는 확실하게 알고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어보급이라고 하는데 대중계몽을 저해하거나 혹은 대중계몽이라는 명목 아래 국어보급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이 된다. 이 둘 중의 어느 것이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나는 국어보급이 미치게 됨으로써 대중계몽을 한다고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계몽도 좋으나, 이 계몽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국어보급이라는 것이 더욱 더 목적에 도달하는 첩경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끈질긴 것 같지만 오늘날의 대중계몽은 황민화라는 한 마디에 끝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스스로 명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어보급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대중계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문 : 가정이나 거리에서 지식인의 국어 상용은 아직 멀었다는 느낌이 있으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 그렇다. 완전히 동감이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보다 더 연구해야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나, 전체를 통하여 더 통일적이고 기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문 : 국어창작에서 가장 고심한 점.

답 : 지금 현재 그저 무난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유진오 씨의 뽀내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는 국어문장은 훌륭한 것이다. 정인택 씨의 국어구사력은 어떤 점에서 내지인을 능가하고 있으나, 너무 잘 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걸릴 정도다. 일반적으로 조선작가가 국어로 쓸 경우는 어휘를 있는 것만큼 충동원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다. 보다 더 순진하고 간결하게 쓰도록 노력하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지의 일류 작가에 미칠 것에 의심할 바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방언, 하나의 지방문학으로서 이른바 조선식의 국어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어떤 종류의 미국문학이, 예를 들면 미국방언으로 쓰거나, 또 같은 미국이라도 서부나 남부의 독특한 방언으로 쓰는 것처럼. 그러나 내 생각으로서는 우리도 “올바른 표준어의 일본문”을 체득하지 않으면 일류문학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탁점(濁点)의 사용방법이 대단히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이다. 테니오와(テニヲハ)²⁹⁾의 사용법도 아직 불충분하다. 이러한 것은 조그만 노력과 공부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다만 오늘날 우리는 서투리도 국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서투른 국어라고 하여 신경을 쓰거나 또 비웃는 다든지 하고 있어서는 언제까지나 숙달되지 않는다.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학문보다도 용기이며, 기백이 필요한 것이다.

문 : 국어에 애정을 갖게 하는 것은 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가.

29) 일본의 토씨를 말함.

답 : 국어에 대한 애정이나 동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문학적으로 좋은 읽을거리를 어릴 적부터 많이 읽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맛이 없는 요리를 무리하게 먹게 하기보다도 맛이 있는 것이라면 먹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라 하는 이치와 거의 같은 것이다. 국어에 매력을 느끼지 않으며 무리하는 것은 노력은 많고 효과가 적게 될 것이다. 중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무엇인지 아직도 한문 냄새가 많은 듯하다. 한문 냄새가 안 나는 참답게 아름다운 “일본어”로 쓰인 문학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튼 어릴 때부터 조금쯤은 정도가 높아도 향내 높은 일본어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실정을 보면 소학교 하급 때부터 자국의 일류작가, 시인의 작품에 익숙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소학생들에게 그러한 작품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명문에 친숙케 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어에 대한 매력이나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의 편찬 담당자는 자신의 취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기호에 타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서만큼 해마다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쩐지 10년이 하루처럼 낡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악의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출전 : 牧洋, 「問 國語普及は強制からでなく, 愛情から出發されるべきだと思ふが 御意見如何」, 『國民文學』, 1943년 1월호, 58~60쪽〉

15) 정비석(鄭飛石)

(1) 작가의 입장에서

국민문학이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확실히 1940년의 후반기였다고 생각한다.

도쿄 문단에서는 한 때는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이것이라고 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아무야하는 가운데에 지금은 벌써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과 반대로 조선문단에서는 이제 겨우 국민문학의 논의가 열을 올리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생각될 것이다.

조선문단이 도쿄 문단보다 그 만큼 뒤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며, 또 조선문학에는 국민적인 의식을 특히 양양시킬 필요가 있는 것도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국민문학이란 어떠한 문학을 뜻하는 것인가, 나는 긴요한 그 점을 완전히 모른다. 지난겨울 나는 한 차례 국민문학에 대한 논문을 섭렵해 보았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게 되었다. 그러한 논지로 밀고 나간다면 아마도 논자 자신마저도 확실하게 모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도 없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의 논조는 국수문학처럼 해석되고, 또 어떤 논자는 국민 대중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학을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서는 성실하게 그것을 읽고 있었던 자가 바보스러워지며, 여우에게 홀리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각각의 논자의 결론이 다음과 같은 한 점에 귀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했다. 즉 “일본은

지금 나라를 통틀어 대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하는 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문학도 그것 때문에 무기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일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문학이 단순한 국수문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췌언(贅言)을 할 것까지 없다. 팔굉일우의 고매한 사상을 가지고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위대한 이념과 국수문학과는 너무나 거리가 동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문학이 국민 대중을 즐겁게 하는 비속한 문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간 편을 들어보아도 국민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학적인 감상이나, 문학적인 교양정도가 낮음으로 그 대중이 즐기기 위해서는 문학은 일부러 높은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것이 국민문학이라면 국민문학의 퇴화 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양자의 어느 쪽도 아니라고 하면, 국민문학이란 어떤 것일까.

국민문학이란 일본이라는 나라의 오늘날의 역사적인 사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깊어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적인 책무를 생활을 통하여 깨우침으로써 국민적인 의의를 양양시키는 문학이라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즉 국민의 정신적인 훈련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무의식 생활을 의식화시키고, 나아가서 국가적인 이념을 명확하게 체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활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을 썼으나, 전쟁발발 이래 국민생활에 대 변조(變調)를 가져오게 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그 생활을 창작 위에 형상화함으로써 국민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부분을 각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시시각각으로 보도되는 전과에 대해 국민적인 감격을 역사적으로 그 뜻을 새기는 것도 그 임무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문화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제 또 하나는 문학자는 어디까지나 문학자이다 라는 두 가지이다. 전자에 대해서 미키 기요시(三木清)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화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문화인으로서의 특색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취지는 모두가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각자가 각각의 일터에서 개인적인 완성을 게을리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내가 또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문학자는 어디까지나 문학자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문학의 취지에 반대하기는커녕 가장 국민문학적인 주장이라야 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괴테의 말을 상기하고자 한다. “도대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거나 행위라거나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시인이 해로운 편견과 싸우며, 편협한 관점을 제외하고, 국민정신을 계발하며, 그 취미를 정화하고,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고상하게 하기 위하여 평생 노력한다고 하면, 이 이상으로 애국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괴테는 말하고 있다.

문학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그 질이 변해 가는 바의 가변적인 일면을 갖는 동시에 또 시간과 공간을 훨씬 뛰어 넘은 어떤 절대불변적인 일면마저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문학이 문학다운 까닭은 참으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결코 예술지상주의자의 설(說)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다.

문학자는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에 의하여 독자와 함께 진실을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학이 보고문이나 평론과 구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고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일어난 대로 기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 사건을 문학화하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를 극명하게 묘사함으로써, 자연과 거기에 은폐되고 있는 사상(事象)을 떠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양성하는 바의 구체적인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학은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생활과 유리해서는 한 줄도 쓸 수 없다. 작가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덧붙여 말해 두지만, 지난번에 매신(每新)지상에서 목양 씨가 우리도 전쟁문학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지나친 말이라고 나에게는 느껴졌다. 상상을 힘차게 작용하는 것이 작가이므로 전쟁물이라도 1, 2편 쓸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머리만으로 쓴 작품이 진실성을 갖고 독자에게 육박해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에서는 지극히 의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생활이라도 심리적인 추리라거나 기타 독서, 재료로부터 종합해서 어느 정도까지 묘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바로 전쟁문학이 되면 좀처럼 상상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우리 평소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격심한 생명의 연소(燃燒)이므로 우리 상상의 의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옆길로 빗나갔지만, 최근 평론가들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우리는 국민문학을 제창하고 있는데 너희들 작가는 국민문학에 걸맞은 변변한 작품하나 쓰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주 작가를 나무라기만 하지만, 그것은 작가의 직무를 모르는 말이다.

평론가의 일이라는 것은 손에 지휘봉을 가지고 지도 위에서 이제부터 가야 할 방향이나 길 순서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작가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길을 밟아나가는 것과 같으므로,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에 작품이 손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수리(受理)하는 것은 물론 평론가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을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수리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정리하여 올바른 답안을 안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게 되며, 회임에서 출산까지에는 아무래도 10개월을 요하는 데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전연 다른 환경과 만났을 때에는 마치 갑자기 어둠 속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것처럼 한 동안 눈을 주위에 익숙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또 이제까지 몸에 눌러 붙어 있던 낡은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낡은 것의 향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작가에 있어서는 커다란 고투이다.

새로운 사실을 증석에서 문학화하고자 하는 의욕은 문학자로서 하나의 정열이다. 그것은 존귀한 정열에는 틀림없지만, 정열에 쫓겨서 경솔한 일을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새롭게 사실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충실한 작가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제재(題材)의 문제이나, 국민문학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시국적인 것을 취급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설도 있으나 국민문학을 그렇게 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국체이념이 시국적인 사상(事象)에만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국민생활은 어느 시대에 도 시대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므로, 어떤 모양으로든 시대의 색채가 우리 생활에 배어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상 다반사에서도 올바른 눈으로 취급하면 그것은 훌륭한 국민문학이 될 것이다. 국민문학은 지금까지의 취재범위를 포기하기는커녕 넓은 범위에 새로운 생활까지를 포함해 나가는 문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문학은 통일성 위에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나,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개성을 무시할 것 같이 해서 안 된다. 개성이 없는 문학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사유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름다운 희생정신이다. 개인으로서 희생정신이 빠져 있는 것이 위대한 정신을 잃어지고 그의 완수를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멸사봉공의 정신과 자신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충실한 개체의 총화의식을 뜻하는 것이므로, 개인을 파 내려가면, 궁극에는 전체에 통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작품의 명랑화, 건설화에도 언급하려고 했으나 주어진 매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붓을 놓으나, 어찌 되었든 작가는 작가로서의 자기직무에 충실하면 그것에 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출전 : 鄭飛石, 「作家の立場から」, 『國民文學』 1942년 4월호, 55~60쪽〉

16) 정인섭(鄭寅燮, 東原寅燮)

(1) 국책문학의 수립

모든 것이 국책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시대상이다. 정신과 물질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국책에 유효한 것만 존속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존재이유를 인정치 않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국책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내가 여기서 감히 국책문학이란 신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문학 가운데도 특히 시급하고도 일종의 정책적인 문학만을 의미한 까닭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문학이라고 말하면 그 가운데는 전통적인 순수문학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개성문학(個性文學)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그리는 역사문학도 있을 것이요, 또는 습구적(習口的)인 국민성을 표시하는 일반문학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습구적인 방면 또는 복고적인 방면을 제하고 현하 국책에 필요한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방면만을 추려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여기서 내가 말하는 국책문학이란 말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하 국책이란 것은 무엇이나? 간단히 말하면 “고도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 신체제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책문학이란 것은 신체제의 실천명목을 문학적으로 제조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대략 다음의 여러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 생산문학 이것은 생산구역을 위한 문학이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개지 공한지를 활용하는 일종의 개척문학을 의미한다.

2. 계몽문학 이것은 공익 우선을 목표로 하여 개인주의적 정신을 청산시키는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경제관념을 수정시키려는 문학을 의미한다.

3. 충후문학 이것은 직역봉공을 위한 문학이니 상호부조하고 직무충실을 위한 미담을 그리자는 것이니 대부분 실화를 토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4. 전승문학 이것은 멸사봉공의 전사적 생활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니 전쟁문학 가운데도 필승을 위한 보고 혹은 이념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5. 흥아문학 이것은 황도정신의 고양을 위한 것이니 내선일체를 위한 문학과 만주, 중국, 남양 등지에 생태실천적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학이다.

이상과 같은 문학은 그 목적에 있어서 실리적인 것은 사실이다. 재래의 탐미적인 문학은 시급한 국책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하히 실리적인 문학일지라도 그것이 예술적 창조인 이상에는 미적으로도 형식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적 완성이란 것을 무제한하게 승인할 수는 없다.

무릇 국책문학은 그 목적이 실리적이어야 하는 만큼 그 내용이 평이 간명하게 □□되어야 하므로 □□ 용만(元漫) □□ 상징 우울 퇴폐 고□(高口) 등을 배격하게 되므로 그 표현양식이란 것은 어디까지든지 간명□□한 문체를 요할 것이다. 이것은 어느 □까지 '리얼리즘'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조무미하게 된다든지 평범 담담하여 아무런 감격도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목적인 진취적 적극성에 어그러지므로 여기에 비로소 적당한 낭만적인 일면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묘사만을 위주로 하는 간명□□한 리얼리즘으로 대하고 동시에 이념을 고취하는 데는 감흥적인 로맨틱한 낭만성을 주입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책문학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의 교착 혹은 개재 혹은 조화의 특질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언하면 표현의 일원성보다도 다원성을 의미하는 바이니 극단의 예에 이르러서는 시 가운데도 소설적 산문 또는 극적 대화도 가입시킬 수 있고 소설 가운데 평론적 또는 희곡적 장면을 넣을 수도 있고 …… 기타 문학의 각 형태가 필요에 의해서는 서로 종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시작해 봄도 문학사 자체로 보아서 하나의 모험일 것이나 어떤 새로운 창조도 됨직하다. 국책은 왕왕 모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상은 국책문학에 대한 극히 간단한 시험적인 소묘에 불과하다.

〈출전 : 鄭寅燮, 「國策文學의 樹立」, 『매일신보』, 1941년 1월 1일〉

17) 정인택(鄭人澤)

(1) 작가의 마음가짐 · 기타

S 군!

지난번 내 편지로 군은 조금은 화가 났던 모양이나, 화를 냈다는 것은 틀림없이 자네가 졌다고 하는

것이다. 즉 내가 말한 것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자네는 멋지게 자네 약점을 찔렀다는 것이다. 화를 내어 주어서 고맙다.

싫은 소리부터 먼저 늘어놔서 미안하게 생각하나, 이것은 태생적인 나의 나쁜 버릇으로 흘러들기 바란다. 그런데 저번의 계속을 조금 더 이야기 해 보지 않겠는가. 끈질긴 놈이라고 그렇게 찌푸린 얼굴을 할 것은 없지 않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만큼 절실한 문제는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해결하지 않으면 수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자네도 충분히 납득하리라고 생각한다.

S 군!

그런데 또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네마저도 그렇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고 있으리라고 하는 안이한 기분에서 뜻밖에 우리는 마음에 느슨함을 가져와서 상식적이라거나, 속론이라거나 추종이라고 한꺼번에 함부로 악다구니하며, 한 번도 되돌아보지는 않았던 것은 아닐까. 잘못된 출발이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속론적이고 상식적인 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상식적인”이라는 말도 자네는 대단한 이유도 없이 싫어하고 있는 모양이나, 나는 역시 상식적인 것이 가장 참에 가까운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불혹”이라는 말도 바꾸어 말하면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절대라거나, 정도(正道)라거나, 만약에 그러한 요괴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나는 그 존재를 믿고 싶다고 생각하며, 그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식적인 길이야 말로 그것에 통하는 큰 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곧바로 이 길을 뚫고 나가기만 하면, 만유의 실체를 잡을 수가 있으므로 이 길은 험하고, 멀고, 구절양장인 것이다. 우리는 빠짐없이 자신을 버리는 각오로 몸을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선의 용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필사의 각오와 기백이 없으면 할 수 없다. 피하고 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奇)를 자랑하거나 특별히 이설(異說)을 세워보거나 하는 것은 영리한 척 교활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뒤틀린 자다, 청개구리다. 그리고 비겁자이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올바른 것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값싼 것에 붙으며, 나태한 태도다. 정면으로부터 정식으로 시합하는 의지와 마음가짐이 모자라는 것이다. 그중에 어느 것도 아니라면 무능자라는 비방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이것을 자인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또 말하겠지만……)

S 군!

부정도 사악도 반드시 안이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나아가서 형극의 길을 택하며, 결눈질도 하지 않고 폭 빠져보지 않겠는가.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것을 그만 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확실히 대지를 밟고 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아를 확실히 확립하고 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학자는 철저하게 자각자인 동시에 철저하게 무자각자라고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불명예스러운 무자각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황민적인 자각(친숙하기 쉽고 알기 쉬우므로 “국민적인 자각”이라고 바꾸어 놓기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작가는 작가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인간이기 이전에 국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문학에(예술에)

앞서는 것은 생활이며, 생활에 앞서는 것은 국가(조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술의 이름으로 눈가림을 당한, 마치 말이었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시야는 사각(死角)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위에 우리의 문학이 높이 솟아있는 거목이라면 체면이 설 것이다.

S 군!

우리의 갈 길은 바로 물살이 빠른 얇은 물이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익사할 것인지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에 달려 있다. 어떤가, 자네는 멋지게 뚫고나가 볼 자신이 있는가?

자네는 가슴을 두들기고 있다고 호언장담할 것이 틀림없다. 허세를 펴는 것은 그만두기 바란다. 보라! 자네가 노를 갖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지 않는가. 자네가 갖고 있는 배는 지나치게 화사하다. 자네의 내심으로는 꼭 난파하는 것을 예상하고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지 모른다. 자네는 모선에 옮겨 타고 싶지 않은가.

모선은 국민적인 자각으로 굳힌 튼튼한 그 자체이다. 어느 정도의 바위 모서리쯤은 곧바로 날려버릴 것이다. 벌벌 떨며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초조함도 필요 없다. 국민의 신념이란 이러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발판이다. 문학자의 신념도 물론 이러한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지문단의 모모 선배는 문학 활동의 의욕이나 방향이 시국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설파했다. 그리하여 편승을 모멸했다. 그의 티끌만큼도 동요하지 않는 것, 바로 거인의 기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환경이 다르다. 전통도 역시 결코 마찬가지로 아니다.

후지무라(藤村)라도, 아키나시(秋成)도, 내려와서는 리이치(利一), 야스나리(康成)³⁰⁾이라도, 그 외형에 있어서 다분히 구미문학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기(記紀), 만요, 또는 엽은(葉隱) 등을 일관하는 일본적인 조류의 범위 밖으로 벗어난 일은 이전에 없었다. 그 조류를 계승하는 방법이 오가이(鷗外)³¹⁾, 소세키(漱石)³²⁾ 만큼 현저하지 않고, 또한 왕성하게 외래사상이나 구미정신을 밀수입은 하고 있었으나, 항상 뿌리에 가로놓여 기간이 되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서도 일본적인 것으로, 국민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숙명적인 것이기도 했다. 린타로우(麟太郎), 후미오(文雄), 순(順)마저 이 숙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끝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자아나 그들의 문학은 의도하지 않고도 항상 국민적인 것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만 파 내려가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저절로 국가가 요구하는 선을 따라서 살아나간다. 더욱이 읽는 자에게 국민적인 자각을 촉구한다.

S 군!

우리는 우리들의 궁극의 목표를 이러한 생리적인 문제에까지 높여두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것을 향하여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식이 거기까지 승화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문학에 국민적인 자각이 짜 넣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문학을 부르짖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30)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31) 모리 오가이(森鷗外).

32)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학일지라도 국민의 행복이나 전진을 위하여 도움이 안 되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 존재를 누구든지 기탄없이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 것이다. 왜냐 하면 국민의 행복이나 전진에 도움되는 문학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문학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대함을 가진 문학이 있으므로서 비로소 국민전체의 애송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국민은 위대한 문학을 낳을 수가 있을 것이며, 가질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S 군!

누구나도 마음가짐을 하고 있을 속론적인 감상을 길게 지껓여 미안하다. 그러나 이것은 속론(俗論)이기는 해도 우론(愚論)은 아닌 것이다. 심사(深思)는 해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무튼 매우 걸핍기로 수습이 안 되는 소식이 되어 버렸으나,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논하지 못했던 문제는 각각 이후의 문학 활동에서 추구하며, 답해 나가기로 하자. 총론 제1과는 이것으로 끝낸다. 아마도 자네에게는 이의가 없을 줄 생각한다.

〈출전 : 鄭人澤, 「作家の心構へ・その他」, 『國民文學』 1942년 4월호, 51~54쪽〉

18) 조우식(趙宇植, 白川榮二)

(1) 역사의 자각과 함께

싸우는 민족의 숭고한 외침은 심오한 역사의 흐름에 진폭되고, 현실의 모든 생활을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의 지준(指準)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에 내포된 민족의 전통정신이 가장 아름답고 또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외침이 형성하는 시대성은 항상 젊은 민족의 장정(壯丁)에 의해서 회전하는 것이며, 나아갈 국가의 목표는 새로운 혈액의 약동과 전통정신의 개화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신(捨身)의 마음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일본민족의 정당한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마음의 전통은 유구한 3천년 동안 영위되어 온 것이며, 이것은 또한 되풀이되고, 다음 대의 청춘은 여기에 기초하여 성장하고, 출정병(征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정감의 습성은 모든 자손의 마음에 새겨지고 정의되고 역사는 진화해 왔다. 이러한 역사성 속에 싸우는 민족의 자식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신세대의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제시된 것인지는 전혀 알 수도 없지만, 나는 20대의 시대인으로서 입장을 언명하고 싶다. 언젠가 도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만일 이것이 20대에 의해 행해진 숙제라고 한다면 30대의 선배는 구세대로서 결론지어질까. 일찍 늙는 반도 문단의 현상에서 다시금 숙명적으로 이같은 신세대의 말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퍼해야 할 일인가.

앞서 국민문학 11월호에 데라모토 기이치(寺本喜一) 씨의 시단의 일 년을 서술한 문장 속에 이러한 의미의 것이 있었다. "향후 청산되어야 할 모더니즘의 신진 조우식이 나왔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떠나

신세대의 문제로 서술하고 싶다. 모더니즘에 대한 견해의 착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의 시대적 움직임은 어떤 형태에 의해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바 자신이 시대정신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섭리되고, 소화되어야 하며, 청산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모더니즘은 오늘날 찬양되어야 할 것도 아니지만, 또한 반드시 없어질 필요는 없다. 이것은 분명 내포된 민족정신으로 구투적(舊套的)인 복귀를 의미함에 틀림없다.

우리들의 정신은 조국 일본의 아들로서의 것이며,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문제는 근대문화의 결함을 일소 내지는 건전한 일본문화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점에 우리들 세대의 생명이 놓인 것이다. 모더니즘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일본주의 문화를 기르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요컨대 외래적인 아름다움을 혈액적인 아름다움으로 흡수하는 것을 과도(過渡)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전환할 때의 현상으로서서는 어쩔 수 없다. 비평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좀 더 엄밀한 비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물론 그것도 건전한 일본문화의 건설을 요망하는 목소리의 여운이라는 사실에 나는 안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건전한 일본문화의 건설은 얼마나 가능할까, 이는 국가의 역사에 대한 충실한 추종밖에 없다. 전통 정신의 자각 및 충성의 맹세는 유구한 전통의 역사성을 가지는 국체의 진실한 생명의 문화를 문학하는 마음에서 행해야 할 것이다. 국체에 대한 충성과 정열의 사신이 행할 문학의 정열이야말로 새롭고 건전한 일본문화 건설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학하는 자가 국가에 바치는 근본정신의 정열은 새로운 일본문화의 세계성의 나타남이다. 준엄한 멸사의 정신에 의해서 생겨난다. 장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일본정신의 명확한 파악은 지금까지 세례 받아 온 서양적인 근대주의 내지는 개인주의적인 사상의 완전한 탈피, 섭리에 강력하게 의의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 '신세대'가 이른바 선배 제씨가 갖고 온 옛 세대를 향한 맹세,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문학 창조로의 길은 전통정신에 살아가는 국체의 발현이다.

애기를 더 나아가면, 일본 역사로의 자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의 건설에 놓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유구한 역사의 정신과 사상의 상실에서는 아무것도 그 의의를 가질 수 없다. 오늘날 바닥을 흐르는 근본적인 정신과 사상의 주체에서 완전히 파악한 형태가 없다면, 이미 거기에는 진실한 역사 위에 놓인 문학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자각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급한 일이고, 현대 반도의 시단에 가치를 주어야만 하는 진실한 마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근본정신의 문제는 그 밖의 기술 문제와도 서로 관련되고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시 하에서 우리들 신세대의 자각은 또한 평시의 경우에도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싸우는 민족으로서 총후 저편의 생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들은 희열을 가지며, 역사 속에 바라고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아닐까.

싸우는 민족의 자식은 싸우는 엄격한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들 영원한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신세대의 말'로 성립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문제는 우리들의 자각이 멸사의 정신에 근본성이 놓여야만 한다고 한다면 내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출전 : 趙宇植 「歴史の自覺と共に」, 『東洋之光』 1943년 1월호, 57~59쪽〉

(2) 사랑과 기도의 노래

영원한 향수를 내포하고 생활하는 것…….

이것은 존엄한 예술정신의 구원(久遠)의 심화이며, 존재이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정신을 일관하며 우리들은 고심하고, 모방하고, 어떤 날은 깊은 사고의 골짜기에 묵묵히 생각에 잠겼으며, 어떤 날은 방일(放逸)과 허망(虛妄) 속에 살았고, 윤리에의 불합리를 초극하며, 개성을 빛내며, 이 규칙을 지켜야 했고, 슬퍼하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아름다운 정신은 이미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경박한 기교뿐입니다. 진부한 작가 개인의 도취로 일관하고 사념이 없는 작품 행동은 단순한 주의주장의 표현에 따라서 진리의 모독을 계속했고, 독자의 눈을 빼앗았으며, 자신을 속이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예술한다는 이의 가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순된 발달일까요?

지금이야말로 국가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유례가 없는 혁혁한 승전은 새로이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다가올 시대를 위해 건설에 앞장서서 몸을 던져야 할 사람은 누구 일까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전체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사소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참가이고, 봉사이고, 찬미이고, 자기 몸을 던지는 일(捨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겸양이 상실된 것일까요. 겸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노쇠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을 떠난 정신의 교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오인된 외래문화의 질서 없는 섭취의 소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엄한 비판정신의 몰각이며, 단순한 흥미로의 모방이 생리적 계통을 무시하고 생활한 외피적 정신의 장식에서 내면의 공허함을 억눌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 본연의 예지는 정신에서 내면의 길이고 자비와 영고(榮高)의 소박한 것이며, 선(禪)에서 말하는 ‘공’ 과 ‘무’의 영원한 동양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일체의 사물에 집착이 없는 마음이며, 하나의 물건도 소유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편안함, 밝음입니다.

이것은 간소함 속의 위대한 힘, 부족함 속에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정신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추구되는 것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방종한 고답성에서 표면적으로 초래된 예술 행동의 결과는 하나의 시대에 대한 허망한 선량이고, — ‘자아’에로의 열락(悅樂)에 의한 딜레탄티즘(dilettantism)³³⁾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동아전쟁에 의해 필연적으로 부여된 예술로의 책무는 국가로의 몰아된 예술 정신이고, 새로운 건설상에 나타난 미의 지도 정신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목적을 자기에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만에 의한 외래문화의 방일한 개념을 탈피하고, 자기 열락의 위만적(僞瞞的)인 주지성(主知性)을

33) 아마추어적 예술 취미, 도락주의.

벗어나 위대한 국가이념에 협력한다고 하는 자각과 전통에로의 애정과 겸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술에 살아있는 정신'이 아니라 견실한 생활 지반에 구축된 국가를 위한 예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한 길은 과거의 청산이고, 인간으로서의 자애의 마음인 것입니다. 더 반복하면 국민의 예술이고, 국가를 위한 정신문화의 한 측면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도 비하된 작품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술이 갖는 고귀한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를 깊이 파고들어 가면서, 국민의 미의식과 새로운 국민의 서정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하면 지금까지와는 커다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도성이라는 것, 지역성이라는 것이 새롭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지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학을 문화성에서 생각하고자 할 때 모든 문화현상은 우선 그 기저(基底), 구조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각각 스스로에게 고유의 '시간성'과 '지역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의 신질서 건설의 싸움이 가장 절정일 때 그 일익(一翼)을 맡아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학이 요청하는 자주성은 무엇에 의해서 얻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들은 종래의 세계사적인 '때(時)'에 뒤처졌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몰려드는 외래문화의 섭취에 뜻밖에도 놀라야 할 결과와 시간성에 편입(偏執)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자기로의 길과 지역성으로의 바른 자각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것이 거기에서 산출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그리고 고유한 모체를 뜻합니다.

본래 사람들은 문학 등을 생각할 경우 '중앙'의 문단을 가지고만 생각해 왔지만, 문학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 문학도 '지역성'으로서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자주성 확립의 견지에서 보면 지방 지역성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방'이라는 말은 반문화적인 뭉뚱어마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문명이라는 즉 문화라고 하는 그런 중앙문화적인 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며, 본래의 문화개념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명이란 분명히 인류문화의 필요한 일면입니다만, —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기적(無機的)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기적 기능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문화라는 것은 다분히 통계적인 '평등하게 나눈 양'으로 나타나고, 지방 문화는 비통계적인 '평등하게 나눈 질'로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앙문화에서 생각할 문화의 입장은 양에서의 문화를 생각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에서 생각할 입장은 질에서 문화를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외래문화의 이입을 계기로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는 중앙문화만을 가지고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문명개화의 슬로건에서 진보한 도쿄 문화의 필연으로 양의 문화로 시종했습니다. 이 경우 양이 없는 지방문화는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제까지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치열하게 반성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만 취해진 자기를 망각하고 있는 경향에 대한 자각이고, 더욱 높은 의미에서의 질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더욱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방 문화의 문제가 말하여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써온 것은 ‘개(個)’와 ‘집(集)’이 개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의 완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할 내적인 ‘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탁 털어놓고 얘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겸양이라는 내면을 일관하는 정신을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시에서의 기도란 신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신들이란 3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일관해 오는 신을 말하는 것이고, 조상을 위해서 청순한 피를 바친 산화한 우리들 선조들의 예지의 혼이고, 건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썩지 않는 늠름한 정신력과 민족의 관례를 수호하는 용사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귀일된 충용의 방인(防人)들³⁴⁾이 나랏님을 향해 무궁히 멸사하는 신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감정은 겸양이라는 것과 결부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쓴 것같이 요즘처럼 겸양이 결여되어 있는 시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드물게 보는 현실의 엄격함이 내재되어 있던 인간의 허망을 노골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정’의 고향을 갖지 않은 인간의 공허함을 새삼스레 말씀드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안전한 생명과 항상 끝없는 향수와 자존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앞에 생사를 드러낸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가장 존엄하고 고고한 또 하나의 생명을 향해…… 살아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바치는 마음은 무척이나 자신을 풍부한 생활로 이끄는 것이고, 격한 현실 속에 꽃피우는 숭고한 서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분기(分岐)된 한 점으로 죽었던 스테판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조국을 가진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그는 조국이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치열한 천부적 자의식이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입장에서 우리들이 전장을 생각할 때

순수한 충후의 자녀들이 무심하게 써서 바친 동화가 어떻게 무절제해진 용사의 감정을 향수에 취하게 하고 용기를 줄까요?

또는 아직 보지 못한 처녀들이, 어머니가, 성심을 다해서 살아있는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고, 글을 지은 천 명 정도의 서정이 의식적으로 쓰인 우리들 문학하는 사람의 위문의 글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줄까요? 이것은 근로하는 와중에 나타나는 것이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나는 각설(却說)하지만 아시헤이(葦平)의 『보리와 병사(麥と兵隊)』가 그렇게도 엄격하게 현상을 묘사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영원성을 초래하지 못하고 사라졌는가 하는 것과 같이 기도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신을 역사적인 견지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원하는 예지와 기도의 정신을 표상한 것

34) 일본어로 사키모리. 옛날에 간토(關東)지방에서 파견되어 츠쿠시(筑紫)·이키(壱岐)·쓰시마(對馬) 등의 요지를 수비하던 병사(3년마다 교대되었음).

으로 용안사(龍安寺)에 그려진 소박한 정원이고, 계리궁(桂利宮)에 있었던 차실(茶室)의 정신이며, 비석(飛石)의 정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때’를 벗어난 겸양이 있습니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내면에 이루어진 사고와 ‘사신(捨身)’의 위대한 신념입니다. 이 경우 우리들은 셋슈(雪舟)³⁵⁾나 리큐(利休)³⁶⁾의 예술 정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친근한 것으로 고려자기에 나타난 미의 영원성과 내포된 겸양입니다. 이것은 헤세(Hesse)의 작품의 경우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글을 쓰는 나는 얼마나 현실의 미에 대해서 또는 인간성에 대해서 천박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낭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의 경우 우리들은 단지 구호뿐인 국민 시로의 개념적인 외침보다도 국민의 명목을 교묘히 빌려 자기도취의 몽매한 현해보고와 유사한, 단지 써서 나열한 시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의 생각을 진행시키면 “오늘날의 문학 중에서 가장 결여된 것은 분명히 사랑의 정신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은 정사이고, 사랑이 아니었다. 육욕이며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날 문학의 타락은 유물주의에 대해서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고, 그들의 얕은 필연론에 대해서 새로운 불가지론으로서의 우연론을 준 것이다. 현실주의에 대해서 영원론을 주장하고, 개인주의에 대해서 전체주의를 말하고, 모든 혈통을 잃은 문학이었다.” [나카가와 요이치(中河與一)]라고 말했으며, 로젠베르는 “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몽상가를 가장 위대한 실재가(實際家)로 존경해야 하는 시대이며, 조형(造型)에로의 열정, 성스러운 것으로의 동경, 만상(萬象)의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는 철학자의 꿈, 정치가의 꿈, 거기에 모든 정신력을 집중해 마침내 빛나는 창조가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낭만이 내포하는 위대한 정신은 너무나 건조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 끝없는 사랑과 지도의 정신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지도정신이라는 것에 따라 새로이 이것에 부여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행해져야 할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조금 논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쓰면 병참기로서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는 곳의 특수한 지역성입니다. 이것은 지도성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내선일체라는 실천이론의 바탕으로 행해지고 의식되어 온 이 문제는 이 차이를 탈피한 사상 내지는 정치성의 국제로 귀일한 것입니다. 창씨제도와 징병령의 발령에 의해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본질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구호로 시종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황도정신의 파악과 신민으로서 실무의 중요함입니다. 그러나 또 남겨진 문제는 언어의 차이이고, 국가이념에 대한 구투 사상의 탈피입니다. 이것은 종래 인텔리 사이에는 상당히 만연했던 유물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이 황도정신으로의 복귀하는 것이며, 자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는 것은 근로정신 위에 세워진 생활태도이고 예술정신의 시대적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격렬한 탈피작용의 후에 남는 것은 얼마나 그 지역성을 문학으로 나타내어 국민으로 하여금 지도하느냐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호흡의 서정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반도에서 행해져야 할 봉공의 정신이 어떤 방법과 형태로 표상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하루 이들의 과제는 아닙니다만 우선 여기에 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의

35) 셋슈(1420~1506) : 무로마치(室町) 후기의 화가 스님. 셋슈 도요(雪舟 等楊).

36) 리큐(1522~1591) : 아즈치(安土)·모모야마(桃山) 시대의 차인(茶人). 센리큐(千利休)라고도 함.

규명이 가장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생활에 요망되는 바의 서정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는 기도와 사랑이 내포된 겸양의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시를 쓰는 것의 가장 친근한 문제로서의 기술상에서의 국민시의 시형이라는 것에 대해 약간 생각을 진행시키며, 이 줄고를 마치고 싶다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시를 일관하는 중심사상은 근본적인 고대신지(古代神誌)의 피를 이어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대의 과학정신을 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인(神人)’의 사상을 가지며, 원시로 돌아가는 감정에는 개인주의적인 근대 시민 생활에 대한 실망입니다. 오오에 미츠오(大江滿雄) 씨는 시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민 시로서의 성격은 3천년의 역사를 일시에 감동하는 것에 있다. 그 감동 없이는 국민 시라고 할 수 없다. 국민 시는 그런 의미에서 원류인 『고사기』 정신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유시의 형식과 용어에 반발해 신정형(新定型)의 창조를 요망하고 있지만 국가 시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중의 저속한 면에 영합한 유행가나 고우타(小唄)³⁷⁾의 계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메이지(明治) 시의 아름다움은 유럽과의 접촉의 아름다움이지만, 오늘날 국민 시형으로 강조되고 있는 사토 이치에이(佐藤一英) 씨의 ‘연(聯)’ 형식의 가능성, 그 객관성은 개인이나 개별, 특수를 부정하고 정신적 협동성을 중시하고 있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가장 뛰어난 높은 시인과 낮은 시인이 협동제작을 한다는 것이 되지만, ‘재미없는 시구는 사라져 간다.’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토 씨의 ‘연’의 시학은 사상적으로는 처음이 있어도 마지막이 없는 일행(一行)은 그 자체로서 독립할 수 없지만 성립미를 갖고 있다. ‘연’은 ‘두운(頭韻)’을 붙이는(흉운(胸韻)과 미운(尾韻)을 단 것도 있다) 시로 12음 1행 ‘5 7, 7 5, 4 4 4, 3 3 3 3’이라는 식으로 음의 질서를 가지며, 그 1행이 반복한 4행의 시이지만,

종이 올리지만 산은 잠들고
신이 오셨지만 야마토(大和) 부근
말없이 여덟 겹 벚꽃이 지고
두메산골(한 구석)에 내버려 둘 수 없어라

[대화로(大和路)]

이처럼 두운, 흉운, 미운을 붙이는 ‘연’은 신선한 창조로 가득 찬 시형은 아니지만, 나는, ‘연의 사고’ 그 자체에 ‘신인’과 ‘기계’를 연결하는 시적 모멘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는 순수한 언어의 표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의 시법이 갖는 첫째 음에 약속된 가네(鐘), 가미(神), 가타루(말하다), 가타호토리(두메산골, 한 구석)처럼, ‘가(か)’ 음의 반복이 지속하는 점에는 작자에 따라서는 발상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마음에도 없는 것을 쓴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테의 ‘최초에 다른 것보다 먼저 ‘신(神)’이 되었다?’고 하는 사고는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대답의 형태였던 말이, 그와 같이 묻는 말이, 무언가, 하는 의문을 풀는 것으로 ‘물음’이

37) 에도시대 말기에 유행한 속곡(俗曲)의 총칭.

대답이고, ‘답’을 묻는 세계는 시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증명된다. 단테는 인간의 말이 모태인 자연에로의 변화를 나타냈지만, 일본어의 ‘가미(神)’는 ‘위(上)’ ‘물다(嘯)’ ‘거울(鏡)’ ‘혁견(赫見)’ ‘외경(畏敬)’ ‘은자(隱者)’ 등의 뜻과 같다고 생각하고, ‘양신(陽身)’에 통한다고 생각해도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적(聯的) 발상에는 위험한 것은 없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은 실제로는 없다. 이미 개성미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라도 좋고, 시구의 객관미만이 문제가 된다. 아무튼 ‘연’의 국민시로서의 가치 평가는 가볍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연’ 형식에 국어를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 바르게 한다고 하는 것, 일상국어를 아름답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타가와 후유키코(北川冬彦)³⁸⁾ 등이 4행시 또는 12행시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시적 사고를 갖게 되는 사상이고, 지금은 국민시형으로서의 정형은 ‘연’ 이상의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연’은 원칙적으로 12음 1행시이지만, 나는 청년들이 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12음으로 제한받지 말고, 예를 들면 축음(促音)이나 장음 따위의 음수량(音數量)에 대해서 신축성을 가졌으면 한다. 글자가 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연’은 국민의 시로서 국민이 쓰고 국민이 추진할 때 아름답고 높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랜 인용을 시도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날 반도의 국민시를 쓰는 시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개로 하고, 우리들이 항상 잊기 쉬운 것으로 시형에 대해서 대충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것으로 우선 즐기고이지만 나의 국민 시에 대한 사소하나마 어리석은 생각을 말해 보았다.

지금 우리들은 전쟁이 갖는 위대한 서사시적인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고사기』가 갖는 국민시적 요인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우리들이 체험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천재가 낳아야 할 공상적 구성으로는 만들 수 없는 바, 장대하고 엄숙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국민 시의 문제를 밝히는 일이며, 우리들 시인 등은 사랑과 기도가 있는 노래가 곁양의 생활과 더불어 존재해야 하며, 이 시련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쁨을 생각할 때 마땅히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바쳐서 조국을 위해서, 국민시의 용장하고 승고한 노래는 불리어야 한다.

2602(1942년).5.12. - 섬에서 -

〈출전 : 趙宇植 「愛と祈りの歌」, 『朝光』 1943년 2월호, 92~98쪽〉

19) 주영섭(朱永涉)

(1) 시의 원주

시의 문제는 오래된 것이면서도 언제나 새롭다. 그것은 언제나 오늘의 명제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뛰어난 철인, 문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금 여기

38) 기타가와 후유키코(1900~1990) : 일본의 시인으로 사행시 쓰기를 주장했으며, 초현실주의를 추진하여 현대시의 선두에 선 사람이다.

에서 그러한 것들을 논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서 부연된 오늘날의 시의 모습을 규명하는 일은 결코 무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시의 요청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시의 욕구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파도를 타서 여러 옛 시인들이 부활하고 수많은 신인들이 배출되어왔다. 그로 인해 시의 제작은 일반적으로 활발해졌지만,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도할 만한 논리가 부족하다.

시인이 사색과 탐구를 떠나 매일의 신문지에 의해 시의 도인(導因)을 부여받고 시의 주제를 제공받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오늘날의 시인에게 그런 여유는 없고, 운전기와 같이 돌고 프로펠러와 같이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시가 일시적으로 유행한다 해도 그것은 결국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시의 독자는 점차 일부는 유행가로 일부는 고전으로 떠날 것이다.

시는 영혼의 연소이며 축적된 이념의 발로이다. 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성장하고 폭발하는 것이다. 시는 자연 현상 혹은 사회 현상의 직접적인 반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는 시인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수이다.

격렬한 전투가 각지에서 전개되고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단에도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한다. 시에 대해서 무언가를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요청을 바람직하다.

근대시의 최후를 장식한 상징파 내지 초현실주의의 시는 시를 한정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시인과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또한 사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해, 감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근대시의 최고봉인 폴 발레리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내 시는 사람들이 읽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박사도 이해하지 못한다

〔「바람의 신(風神)」의 한 구절, 호리구치 다이가쿠(堀口大學) 번역〕

그 시와 동시에 근대시는 끝났다. 개인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시는 다시 만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시는 다시 만인에 의해 불리고 만인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하이쿠(俳句)가 만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만인에 의해 감상되면서도 여전히 바쇼(芭蕉)³⁹⁾와 같은 하이쿠의 성인(佛聖)이 있는 것처럼, 시는 만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만인에 의해 불리면서도 여전히 뛰어난 몇 명의 시인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경향으로서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 대중이 노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난 몇 명'이 없다.

현대시는 급사도 학자도 똑같이 시를 감상하고 동시에 그 건설에는 발레리보다 위대한 시인이 탄생해야 한다.

시대는 활발한 행동과 심각한 사색을 요구한다. 총을 잡는 시인은 사선을 넘어 생명의 심오한 묘리에 철저할 때, 자연히 시심(詩心)으로 오입(悟入)할 것이다. 총후(銃後)의 시인은 격렬한 시대의 흐름에

39)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1644~1694). 에도(江戸) 전기의 하이쿠 시인(俳人).

서도 여전히 사색하고 탐구하는 데서 커다란 시가(詩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전쟁시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생활 속에서 태어난 시가 전쟁시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시의 순수성에 미련을 두는 시인은 전쟁시라는 것을 멀리하기 십상이지만, 격렬한 현실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노래하지 못하는 시인은 자연히 현실에서 유리되고 말 것이다.

위대한 싸움 속에 시인이 갈고닦은 펜을 들고 참가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시의 순수성이 남겠는가.

역사가 살아서 흐르는 것처럼 예술의 역사 또한 전통의 흐름을 타고 간다. 전쟁 후의 예술이 오늘날의 예술과는 종류를 달리하는 예술일 수는 없다. 예술의 세계에 돌연변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신의 순수성은 도리어 오늘날의 시를 지키고 시를 키워내는 시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남아 훗날까지 남을 것이다.

오늘날의 전쟁시가 신문 제목의 나열 같이 되는 것도 한심하지만, 저 위대한 전쟁을 크게 노래하는 시인이 없는 것 또한 슬픈 일이다.

심각한 사색이란 은둔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약동하는 현실에 살고 현실의 격류 속에 사상하는 것이다. 심각한 소박과 통한다. 심각한 사색에서 탄생한 독선적인 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색에서 탄생한 소박한 만인을 위한 시를 바라는 것이다.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시는 그런 경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시인에게 뛰어난 시를 생산하는 일은 훌륭한 행동이다. 오늘날의 시인 대부분이 잡지기자이자 회사의 중역이자 사무원이자 상인이자 교원인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옛날에는 시인이 한 사람의 사회인 될 수도 없는 시대가 있었다. 도리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 시대도 있었다. 오늘날 시는 시인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시에 나타난 시인의 인격을 보고 시에 숨어 있는 시의 진실성, 낭만성에 감동하는 것이다.

시인은 말을 사랑한다. 자신의 무기를 사랑하지 않는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

시인은 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어가 지닌 어감을 사랑하고 말의 연계에서 탄생하는 리듬을 사랑하고 말에 내재하는 생명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많은 시각기를 쓴 시인들, 문자의 교묘한 나열과 그 연상을 업으로 삼은 시인들의 시는 이제 퇴색하기 시작했다.

시는 노래하는 것이자 듣는 것이다.

기록은 암송의 수단이고 인쇄는 종종 보존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 낭독이 반드시 최상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평탄한 낭독방식으로는 시가 지닌 여운을 죽일 우려가 있다. 현대 시인은 더 과학적으로 시의 낭독법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웅변가의 성실함과 연기자의 정열로…….

최근 시의 경향으로서 전쟁시와 함께 향토시가 새로이 대두하고 있다.

전쟁시의 공리성을 논하고 향토시의 도피성을 논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 다 시대가 낳은 현대시의 특성이다.

전쟁시와 향토시는 약동과 북고를 의미한다.

대동아의 건설이 오래고 깊고 현명한 동양정신을 떠나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대동아의 비약을 위

해서는 풍부한 정신적 근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오늘날의 시인이 향토에서 구하고 역사에서 구하고 신화에서 구하는 것은 정당한 자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전쟁의 웅장한 외침, 시가 없는 정치 표어의 나열이 시로서 무익한 것처럼, 단순한 복고취미로 전락한 향토시는 무익하고 위험하다.

먼저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시인이 쓴 것은 시여야 한다. 그것이 시인의 국민적 이념을 담은 시, 이상의 날개를 단 시일 때 비로소 국민시라는 것이 탄생할 것이다.

근래 시를 국민시, 애국시, 전쟁시 등으로 분류하고 시인까지 그 중 하나의 범주에 넣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 현대시는 그 성격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현대시는 새로운 세계관 아래 화려하고 유현(幽玄)한 날개를 펼치며 탄생할 것이다. 현대시는 다시 시가 지닌 세 가지 요소—서정시, 서사시, 극시를 회복할 것이다. 근대의 산문정신은 시를 산문시로 퇴화시켰다. 현대인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현대의 서정시, 서사시, 극시의 문제—이는 물론 별도의 과제이다.

오늘날 격렬한 현실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것이 깊어지고 동양 고유이 정신인 물심일려(物心一如)의 세계로 환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 정신 옹호 기운이 팽배하게 일어나 미요시 다쓰지(三好達治)의 시집이 대중소설과 마찬가지로 판매부수를 자랑하고,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만엽집(萬葉集)』을 읽는다는 것은 시의 문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강력한 문화는 이런 일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강한 문화, 힘 있는 문화는 반드시 이긴다. 오늘날에는 신화의 시대이다.

현대 시인은 신들을 노래하고 영웅을 노래하고 현대의 신화를 낳아야 한다.

꿈이 없는 시인이 현대의 신화를 노래할 수는 없다. 오늘날 착실히 실현되고 있는 국가 탄생의 신화를 시인은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저 위대한 감명은 10년 뒤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는 것일까.

건실한 시인이여 문몽(文夢)을 가져라. 날개를 가져라. 위대한 날에 위대한 구상으로 위대한 시를 지으라.

오랜 동양정신은 지층 깊숙이 흐르고 있다. 고원한 건국의 이상국은 도도히 대양을 뺏어나간다. 깊이 지층을 파라, 넓게 날개를 펼쳐라.

〈출전 : 朱永涉, 『詩の圓周』, 『國民文學』 1943년 11월호, 20~23쪽〉

20) 주요한(朱耀翰, 松村絃一)

(1)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시부(詩部)회장 송촌굉일(松村絃一)⁴⁰⁾

태양과 같이 확고한 사실 - 그것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40)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이러한 신념에서 흘러나오는 문학 - 그것이 즉 결전문학이겠지요.

조선문인보국회의 출발점은 만인에게 창명(彰明)한 것입니다. 문인들의 결의, 대중의 기대, 나라의 요청 모두 함께 한 곳의 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대는 기로나 방향할 여지가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경제도 문화도 백병전(白兵戰)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맞습니다. 찌르지 않으면 찢립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 뿐인 것입니다. 시인도 백성들도 병사도 학도도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영구가치인가, 평화가 영구가치일 것인가 - 그러한 일은 지금 논의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가한 논의는 다음 세대에게 남겨 줍시다.

돌격의 나팔을 울리는 나팔수가 적탄에 맞으면서 대지를 피로 물들이고 아직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나팔을 불어대는 것처럼 우리는 임무를 짊어지고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전에 상아탑에 들어앉았던 사람들도, 또 감상의 달콤함에 도취되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연히 일어서서 적기(敵機)의 프로펠러를 손으로 잡는 용기를 떨쳐 일어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작가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 역량을 증거를 세워서 그들의 후속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는 기교의 밀림에 방황하며, 난삽(難澁)함을 위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시인이 검을 붓 대신에 바꾸어 쥐고 전쟁을 위해 그 천분(天分)과 정열과 자긍심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수의 희롱물이었던 시는 이제 대중이 감동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전선에서, 일터에서 시는 읽혀지고 낭독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해서, 쉽고 또한 무한한 깊이를 가지는 말은 시인의 손으로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한 문학, 늠름한 문학, 가장 대중의 심리를 울릴 수 있는 문학은 시의 영역에서 널리 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얼핏 보면 좁은 선로(線路)야말로 결전문학이 나아가야 할 선로이며, 이것이 또한 국민문학, 일본의 동방예술이 통과해야 할 재생의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서 결전문학이 국어문학으로의 용감한 돌진이 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몽선전의 도구로서의 조선 글의 효용에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히 시를 쓰는 자로서 국어를 완전히 쓰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도 일단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있어야 할 시 문학이 기교의 시가 아니고 혼이 있는 시라는 것은 다행한 것입니다. 먼저 그 혼에 산다면 주저함이 없이 국어표현으로 돌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곤란한 돌격의 길을 타개하는 것은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는 올바른 많은 신인을 기대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순서에 따라서 올바른 국어교육을 받은 청년 중에서 비범한 재능과 순수한 충의(忠義)의 혼의 운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이며 바람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출전 : 松村紘一, 「勝たねはならぬ」, 『國民文學』 1943년 6월호, 44~45쪽〉

21) 최재서(崔載瑞)

(1) 사상전의 침범

평론수필부 회장 최재서(崔載瑞)

우리 평론·수필부회원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상전의 침범이라는 자각과 기백을 가져주기 바란다. 결전문학을 확립하는 데 우리 부회가 깊어져야 할 사명은 여기에 있으며, 또 이것 이외는 없는 것이다.

이념세계 속에서 추상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평론의 임무로 생각하며, 국책에 대하여 아무런 시비도 논하지 않으려는 평론가의 낡아빠진 생각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싸우고 있다는 이러한 엄숙한 현실을 떠나서는, 결국 우리들이 이 전쟁에 결정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떠나서는, 우리 문학자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이념의 세계도 보편적인 진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책에 대해서 시비를 논하는 것이 평론가의 임무인 것만은 아니다. 국책의 진의를 국민대중 사이에 침투 이해시키고, 그들의 총력을 국가목적에 집결시키는 것이 새로운 평론가의 임무인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평론가의 직역봉공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한번 더 반성을 했으면 한다. 이러한 총력전 시대에 있어서, 또한 전쟁이 점차 장기전의 양상을 보여 가는 단계에서, 평론가는 자신의 직역에서 침착하게 참다운 결실이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희망은 성실한 평론가라면 누구라도 일단은 생각하는 바이겠지만, 그것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엉뚱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도대체 그 직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평론가가(이것은 평론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정한 직역이 오늘날의 전쟁을 초월하여 곧바로 내일의 신질서로 통하는 것이 된다면, 그들의 직역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오늘날 신질서론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 쪽의 공허한 전후경영론(前後經營論)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또 국민 대중에게 전쟁 목적을 철저히 주입하기 위해서도 크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국의 문학자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쟁이 제거된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죄악이다.

오늘날 전쟁하지 않는 민족은, 장차 몰락의 운명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싸우지 않는 국민이 장차 신질서의 잔치에 참여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는가. 문학의 유구성을 주창하고 비평의 보편성을 입에 담고 있는 많은 신질서론자가 이러한 오류와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다면 다행인 것이다.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길 것인가. 거기에서 각자의 직역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결전문학이란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문학자가 만나는 하나의 전쟁터인 것이다.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적진에 전단을 뿌리는 일이나, 스파이행동을 하는 것만을 사상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공할 만큼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 하겠다. 전의에서, 전쟁 목적에서, 더욱이 세계관에서, 우리는 언제나 적보다도 한 걸음 높은 경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사상전의 그러한 일면을 생각할 때, 적은 밖에서보다 오히려 안에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 신변에서 사상전이 치러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인가.

사상전은 반드시 평론가만이 짊어져야 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평론가는 그 성질상 사상전의 침병이 어야 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문인보국회의 결성을 맞이하여 소감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이다.

〈출전 : 崔載瑞, 「思想戰の尖兵」, 『國民文學』 1943년 6월호, 43~44쪽〉

(2) 조선문단의 혁신(권두언)

조선문단은 이제야 오랜 동안의 모색과 준수(浚巡)의 틀을 깨고 혁신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정당한 변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분기하는 데에 혁신이 태어난다. 혁신이 없이 어떻게 이 다난한 시국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문단이 가장 뒤쳐져버렸다. 그러함에도 그것은 반드시 문단인이 시국에 대하여 무관심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문인 특유의 사색과 반성이 격류 같은 시대의 변천에 대하여 조금씩 발을 멈춘 것에 기인(基因)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확인했을 것이다 - 역사적인 전환의 의의, 세계의 운명, 황국의 사명, 나아가서는 조선문학의 앞길에서. 이제는 단행과 비약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혁신을 잡아채는 것이다.

조선문학은 총력운동에서 꼭 뜻이 있는 활동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의 사색과 반성은 결코 쓸데없는 것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사색과 반성은 양심의 작용이다. 이제야 국민운동에서 양심이 구슬처럼 빛날 때이다. 맑은 마음과 애오라지 열정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싶다. 다소의 곤란이나 희생은 오히려 보다 한 층 높은 궤기를 추구할 박차는 되어도 결코 좌절의 장애는 안 되는 것이다. 조선문단은 그 명예를 걸고서도 이것을 극복할 것임에 틀림없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쾌하고 싶다. 축축한 혹은 별별 떨어던 지금까지의 지식인의 표정을 버리고 신념에 차고 의욕에 불타는 지식인이 되고 싶다. 그리하여 갓 태어난 애기 같은 눈으로써 열려가는 동아의 천지를 바라보자.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커다란 사업이 있으며, 우리의 천분(天分)을 뻗쳐야 할 넓은 천지가 있지 않는가. 2천 4백만 대신에 1억 아니 7억의 동양민족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또한 쓸 때가 현실로 닥아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조선문학은 진보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아무튼 1940년간에 조선문학을 여기까지 가져온 것이다. 누가 그 진보적인 공적을 부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문제는 과연 오늘날 조선문학이 진보 편인가 할 때 아니라는 것이다. 어제까지의 진보주의적인 영예를 그대로 오늘날도 진보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잘못 보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몸을 그르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달리하고 어떻게 진보를 바랄 것인가. 진보주의란 역사의 움직임에 의식화하고 나

아가서 그것을 향하여 인간생활의 영위를 촉진한다는 말에 불과하다. 어제의 진보주의자가 반드시 오늘날의 진보주의자가 아닌 것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힘이다. 이 역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본지 『국민문학』은 조선문단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새로운 의도와 구상 아래에 태어났다. 새로운 구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중대한 기로에 선 조선문학 속에 국민적인 정열을 불어넣음으로서 재출발시키는 것, 둘째로 자칫하면 매몰될 것 같은 예술적인 가치를 국민적인 양심에서 수호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란노도의 시대에 항상 변함없는 진보의 편이 될 것.

요컨대 『국민문학』은 국민과 예술과 진보에 헌상하는 것이다. 이 영예로운 약진시대에서 본지는 미력하나마 국민과 문학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출전 : 崔載瑞, 「朝鮮文壇の革新」(卷頭言), 『國民文學』 창간호, 1941년 11월호, 2~3쪽〉

(3) 새로운 결의

주간(主幹)

대동아전쟁 1주년을 되돌아보고

오는 12월 8일은 외람되게도 선전의 대조를 받자옴고 미영격멸의 불 뚜껑을 열고부터 만 1년을 맞이하는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이다. 그 사이에 황군은 능위 아래에 용전분투하여 멋진 초인적인 활약으로 동아에서 적의 거점을 완전히 복멸(覆滅)하며 제국 절대불패의 태세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군은 여유자작한 병력의 일부를 할애하여 저 멀리 대서양에 진출해 맹방 독일해군과 협동작전 아래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국민 모두가 개전 전에 이러한 전과를 잘 예상하고, 오늘날의 감격을 전망했을 것인가. 우리 국민은 지금 새삼스럽게 국민 우리들의 감격을 새로이 함과 동시에 방가(邦家)로 하여금 오늘날의 영광을 가져 온 황군장병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치는 바이다.

되돌아보면 이 일년간은 세계사를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해로서 옛날의 10년, 아니 백년에도 상당하는 그야말로 수확이 좋은 풍성한 해였다. 그것이 대외적으로 특히 동아 여러 민족에게 준 영향은 참으로 경천동지한 것이었다고 본다면, 대내적으로 국민생활의 여러 부문에 미친 영향도 역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정치, 경제, 산업,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 일체의 부문을 통틀어서 구체제를 파기하고 애오라지 성전완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나간 1년간의 발자취이다. 그간에 조선의 문화계, 특히 문학계는 어떠한 발자취를 더듬어서 현재 어떠한 지점에 도달했나를 되돌아보는 것도 대체로 뜻있는 일일 것이다.

조선의 문학계가 미영적인 사상과 완전한 결별을 가져오게 한 것은 누가 무어라고 말해도 여기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첫째 항목이다. 신체제 이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배격을 국민사상운동의 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의 문학계에서 자주 이 항목이 취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결국 미영의 세계제패를 옹호하는 사상적인 무

기라고 하는 투철한 인식하에 철저하게 이 사상과 싸운다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다. 생각하건대 이러한 사상이 세계문학의 이름에 숨어서 널리 전 세계의 지식인에게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문학과는 국경을 넘어서 국민성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학으로서, 그러한 문학을 태어나게 하고 또한 지지하는 바의 사상은 즉 자유주의, 개인주의이라고 하는 인식 아래에 미영과 전쟁을 하고 있어도 무슨 사상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방만한 생각이 아직도 불식되고 있지 않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동아전쟁 1년은 이러한 점에서 지식인에게 맹성을 촉구하고, 그 사유를 굳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미영적인 사상이 문학세계로부터 일소됨과 동시에 황국의 전통과 이상에 따르는 일반적인 세계관의 수립이 강하게 외쳐진 것은 역시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문학보급회가 이 항목을 당면사업으로 취급하게 된 관계도 있거니와 종래에는 아무튼 국문학자나 일본정신연구가 등, 그 길의 사람들에게 맡기기 쉬웠던 이 문제가 일본문학자 전체의 사명으로서 부하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태가 드디어 궤도를 타기 시작한 것 같아 충심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멀리 전선을 떠나고 있던 문학자도 직접 성전과 결부되는 인연이 열려서 문학자 자신에게 사는 보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은 말하기는 쉬워드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일본역사나 전통에 대하여 깊은 이해도 필요할 것이며, 오늘날의 시국에 대처하는 문인 각자의 연성은 더욱 더 필요할 것이며, 또 급격하게 변천하는 세계정세를 기민하게 포착해야 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문제는 다가오는 1년도, 그다음 해도, 또다시 또 그다음 해도, 아니 한 평생 일본문학자의 변하지 않는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동아전쟁 1년을 되돌아보는 이때를 맞이하여 징병제 실시 발표의 감격을 추회(追懷)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뜻 깊은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계는 어떠한 감격과 결의를 가지고 그 발표를 맞이했는가? 그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선문단이 피투성이의 고투를 거쳐서 국어문학으로 비약하게 된 한 가지만 지적하면 충분할 것이다. 반도의 작가나 시인이 일본작가나 시인과 같은 국어를 가지고 같은 시대를 살아나가고자 하는 고민, 원래 그것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마치 아침 해를 덮어 가리는 암운과 같이, 그것을 여기에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뜻이 없는 것은 아닐 게다.

이제야 반도는 국어전해운동으로 매진해 가고 있다. 순정(純正)한 국어보급과 발전은 황국에 삶을 향유하는 문학자의 스스로의 사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도 땅에 이 사명을 다하는 문인은 커다란 각오와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상 2, 3가지 점을 들어서 대동아전쟁 1년을 회고함과 동시에 성전완수를 향하여 우리 문학자의 결의를 피력하는 바이다.

〈출전 : 崔載瑞 「新しき決意」, 『國民文學』 1942년 12월호, 2~5쪽〉

2. '국민연극' · 영화신체제 주창

1) 김정혁(金正革)

(1) 조선영화 진흥의 목표 - 진실한 영화정신의 수립을 위하여

1

이즈음, 영화진흥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에서나 당국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음을 견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영화창생 30년이래 처음되는 일로 곤궁과 고적 속에 성장하여온 우리영화계를 위하여 자못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서 생각하여 보면 거기에는 같은 영화진흥이라고 하면서도 논의하는 사람들의 의도하는 바는 필히 동일치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극단의 실용주의 따위를 비롯하여 한편으로는, 문화적, 내지는 조선영화의 예술정신 등을 중요시 하는 사람도 있으며 다시 이 양자 간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만 영화의 상품적 이윤가치만을 주안하고 영화진흥을 말하는, 잠음적 존재도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는 일층 진격(眞擊)한 토구(討究)와 고려 밑에 영화진흥의 진의를 오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 영화진흥을 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혀 실용주의적 견지에 입각되어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급작히 오늘날과 같이 영화진흥의 논의가 높아진 유래로서 지나사변을 통한 국민정신의 작흥이라던가, 나아가서는 국가의 의도하는 지도정신의 선양 등에 영화가 가진 위력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을 일반내지 당국자에게 자극하였음에 있다.

그러나 비록, 전자와 같은 유래로서 영화진흥이 제창되었다고는 할 망정, 한갓 실용주의에서보다 거기에는 만년의 대계적인 큰 의도가 필요하다.

여오하란 오인의 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일용품이 되기 전에 문화, 나아가서는 예술작품 되는 것으로, 그 생명이 출발되는 까닭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영화진흥제창의 유래로 비록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새로 제정 공포한 최초의 문화입법, 영화법 제1조에,

“본법은 국민문화의 진전에 자(資)하기 위하여 영화의 질적 향상을 축(促)하며 영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백히 설명하였다. 그렇다고 시방, 이 실용주의적 진흥책을 금일에 있어서 결코 오류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어찌 그러하냐 하면 민중과 함께 그 민중의 지지라든가 그 보급화 속에 참으로 실용화가 구현되지 않는 한 영화가—진실한 진흥이 절대로 불가능한 까닭이다.

다만 그 고구하는 태도가 출발점에서부터 협착(狹着)되지 말고 이단, 삼단의 원대한 정신적인 방향을 주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소위, 상품화의 이윤목표에만 급급하는 자가 불행히 현재 영화진흥책을 논의하는 사람들 중

에 합당하고 가담하였다고 하면 크게 경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자유 작업 상태에서 허가제도(영화령 제2조. “영화의 제작, 또는 영화의 배급의 업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명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대신(主務大臣)(조선총독)의 허가를 수(受)할 사(事), 전항에 규정한바 영화제작업 및 영화배급업의 범위는 칙령(조선총독령)으로서 차를 정함”가 시행됨으로서 급기야 일종의 이권시하는 사업으로서 일조에 투자 혹은 가입하여 헛되이 관청 어용영화의 청부를 교묘히 견(見)양 한다던가 시국을 빙자하는 금간판적(金看板的) 비양심적 제작태도로서 영리만을 추종하려는 경향, 총력을 필요로 하는 금일, 이와 같은 생각이 되는대로 통용되지 못할 것은 물론이지만 점차, 협정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면 조선영화는 어떤 표준 밑에 성장될 것인가? 그 해답의 한 방법으로 언간, 당국의 알선으로 결성된 조선영화인협회의 강령을 인용하자. “본 협회는 일본영화의 일익으로서 조선영화예술의 향상발달을 위하여 조선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나아가서 내선일체의 실(實)을 발휘할 것을 기함”이라고 하였다.

즉 일본 영화의 일익으로서 조선문화와 내선일체를 근본목표로 삼는 바가 조선영화의 존립가치 혹은 진로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근본목표 밑에 조선 영화 사업은 전항에서 술한 바와 같이 근간, 근 당국이 주최한 2, 3차의 업자초대간담회를 비롯하여 총독부당국 총력연맹 등과의 연락 등 조선영화의 진흥을 위하여 부절히 여차 회합이 거듭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조선영화를 진흥시키려고 하는 의사로서 만주국과 같은 강력통제 혹은 일층 직접적인 조장(助長) 방침 등이 열심히 토구되는 모양이나 지금까지는 하등의 이렇다 할 효력있는 표현이 없다.

조선영화사업진흥에 과연, 통제가 필요한가, 또는 당국에 바라는 조장이란, 어느 정도이며, 나아가서는 어느 한도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이 가능, 불가능의 초점을 포착하기 위하여, 오인은 간단한 조선영화계의 현황을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1) 조선에 있어서의 영화제작사업은 십수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조선인 팬만을 대상하는 유치한 작품 뿐만을 제출하여 그 업태는 진흥되지 않았고 극히 지둔(遲鈍)한 연명만을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겨우 최근에 이르러서, 내지, 만주 등에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제작 기술도 점차 향상하는 동시에 기업적 형태를 정돈하려고 한다.

현하, 그 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로서, 조선영화주식회사, 고려영화사, 조선문화영화협회, 예술사(藝術社), 명보영화사(明寶映畫社), 영공상회(映工商會), 한양영화사, 조선구귀영화사(朝鮮九貴映畫社), 동아영화제작소 등 9개 제작소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제작은 기획, 촬영, 현상, 소부, 녹음, 편집의 각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완성 되는 것인데, 전기 업자중 불완전하나마 그 설비를 갖고 있는 국체로는 조선영화주식회사 뿐으로, 그 밖에 고려영화사, 조선문화영화협회 등은 아직도 설비 반도(半途)에 있다.

그러므로 실제의 제작 본수(本數)로도 1939년의 11본, 70여 권, 지난 1940년도 중에는 겨우 4본밖에

없었다. 다시 조선영화 창생 이래의 제작 본수를 따진다고 하면 200여 본이 되는 셈이다.

이외에 1939년 중에 수입 공개될 외국영화의 총 본수가 409본으로 같은 해 수입된 영화의 약 3할에 상당하다. 물론 이 다수의 작품들은 각기 조선대리점 혹은 지사, 배급소 등이, 설치되어 전조선 각 관에 배급되는 것으로 직영봉절관(直營封切館) 등은 1개소도 없는 형편이지만 내지 영화회사로서 작금, 도호회사가 경성에 약초동보(若草東寶), 평양에 대중극장, 그 외 인천 청진(淸津) 등지에 동종의 공동경영체의 반(半) 직영관을 획득한 것은 조선에 있어서 영화기업의 새로운 경향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조선영화의 기업적 발전에 확고한 우라가끼를 세우지 못하는 점은 상설관의 적은 데 있다고 보게 된다.

(2) 1939년 말 현재, 조선 내 그 상설관수는 겨우 108관뿐이라면 얼마나 유치한 상태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1관당 인구에 나타난 영화관 분포상황을 보면 함경북도의 71,682인의 최소와 충청북도의 452,642인의 최대와의 사이에 몇 단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조선 평균은 1관당 인구 209,571인으로 이것을 내지의 1관당 인구 약 4만에 비하면 그 차는 한심한 바가 있다.

다시 이상의 관계를 탄 측면으로 관찰하여 영화관이 기설된 부읍면과 아직 설치되지 못한 부읍면과를 대차하면 부는 전부 기설(既設)되고 있지만 읍(邑)에는 기설 45, 미설(未設) 28, 면(面) 기설 2, 미설 2,271이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그 발전 여지가 또한 상당히 약속되고 있음도 추측되는 터이며 실제로 년 3, 4관까지는 증가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대체 이 108관에 입장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느냐. 1938년도 통계에 의하면 13,996,760인으로 산(算)되는데 년년히 약 2백만 인의 증가를 볼 수 있으며 이외에 가설 흥행장 유료무료의 관람인원을 합치면 같은 1938년 중에 있어서 1천 6백만 인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3) 이 수익으로는 입장료 총액은 3,765,639원으로 이 또한 수년 증가되는 형편이다.

3

이상, 현금조선영화계의 전면을 회고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영화는 아직도 유치하다. 그러나 이 유치한 상태는 그 자체로도 년년히 성장되어 어느 정도 지지(遲遲)는 할망정 연장되어 왔다. 여기서 다행히 일본 영화의 일익으로서 조선영화의 발전의 노정은 우에서도 말한대로 건실한 명일이 열리려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에 있어서 오래 기다리며 고초 받는 시간 보담도 당장 임박된 내일의 전야가 괴롭듯이 조선영화계는 확실히 임박된 내일 때문에 공전의 불안과 초조가 큰 모양이다.

여기 가두에서와 휴게실에는 반드시 이 불안에 찬 흥분들이 충만 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간혹 질식하리만치 염증적인 테마(테마)도 있으나 진실되게 조선영화의 장래를 염려하는 자도 있어 아무튼 경하로운 일이다. 그러면 그 조선 영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거기에는 지금 항간에는 유전되는 통제기업으로의 전향, 혹은 완전한 기구를 완비한 기업체의 출현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본다.

첫째, 통제기구설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와 실제로 당국의 적극적인 내조가 있어서만이 비로소 성취될 성질의 것이다.

즉, 이태리, 독일국 등의 영화국책을 수입한 만주국의 국책회사를 다시 이입하려는 설인 같다.

그러나 얼른 가장 이상적인 듯한 통제회사라도 현금의 만주영화협회 창립 이래 3, 4년의 업적을 살펴보면 이 역시 여러 가지 점으로 일장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대저, 문화, 예술에의 통제란 그리 쉽사리 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여기에서 잠시 영화통제와 정치적인 기초적 의의를 생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국가로서 예술, 그 자체의 질에 관여하여 지도할 자유라던가 능력 혹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금일, 어떤 국가가 이것을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 나라의 예술을 타락에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자유방임의 사회에 있어서 예술은 그 자유방임 때문에 그 표준을 저하시켜버렸다는 것은 또한 씻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술에 대한 국가정책의 국한성에 대하여는 엄격하여야 하면서도 관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 국한의 한계라는 근본원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예술 정책은 국민적 예술 그것의 질에 우려하는 이 보다 예술의 향상에 자(資)할 것 또한 그 저하를 재래(齎來)치 않을 한도의 조장(助長)이 소용할 것이다.

통제! 영화통제는 이러한 본질을 두고 그 출발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록 그 통제의 의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얼른 그 길에는 엄청난 자본적인 난관이 개재되어 있다. 즉, 기존회사들의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조영(朝映)회사의 30만 원설, 고려의 20여 만 원설, 기타, 문화협회나 영공상회 등 각기 10여 만 원 이상의 현물소유를 비롯하여 유명무실타고는 하지만 그 외 수 단체의 처결방법도 그리 용이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도 상술한 여러 단체를 합동시켜 즉시, 완전한 기구로서 완비할 수 있느냐 하면 얼마의 기계부분품 이외로 스튜디오들은 전혀 신설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짐작할 때 이 협동통제설은 그리 손쉽게 실현되리라고는 단언치 못할 것이다.

숫자적으로 조선영화는 년년히 성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재량하고 가꾸어 나갈 도리 때문에 통제시비도 시끄러운 듯 하다. 그것마자 풍설 속에서 용이치 않음을 느끼게 됨이라.

그리하여 오인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진흥책 목표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영화인의 정신적인 재교양! 다시 말하면 영화인은 단지 재래의 무교양한 사람들 그 야만적 습성을 직장에 충만시켜 영화가 과연 문화적 일이며 예술인가를 회응케하는 …… 그러한 악분위기를 하루바삐 숙청할 것이며 진실로 문화적 정신을 준비한 사람들과 교대하여야 할 것. 영화란 되는대로 돌려서 엮어서 만들어내어 얼마의 입장료만 받고 대중에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자기의 정열을 끌고 나아가서는 무한대한 야심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둘째로는 현금 기존회사 각자의 시방! 일보 비약을 꾀하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비약'. 물론, 이 말은 첫째에서 말한 재래의 그 인물들 분위기 속에서는 도로무공(徒勞無功)일 것이나 자신 있는 진영 밑에서 영화령 시행을 계기하여 뛰어보라는 것이다. 움직이는 단체가 제1이오 금일 조선업계의 패자가 되리라는 것쯤은 명약관화다.

규모를 세우고 진실한 문화인이 모인 가운데 이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없다. 그 채로 두어도

전진하는 께다. 많은 자본을 필요하는 것 보담 지금까지의 그 기구와 설비를 휴식시키지 말 것이며 활발하게 유통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배급부 내의 개혁과 연구다. 조선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재고하고 있는 문제 일 것이지만 특히 새로운 체제에 순응시킬 우수한 배급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108관이란 미약한 상설관으로는 도저히 조선영화가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아 이 사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상설관의 배가운동도 고이치 않거니와 그 지방 관주들로 하여 제작자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방법, 함께 키우고 함께 부조하는 연결성 구성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세 항목을 위선 조선영화의 진흥목표로 하여 신교양의 정신 밑에 일원된 단합적 재출발을 꾀하는 것이 당면한 신체제의 길이라고 생각하므로 감히 제의하는 바이다.

(12월 13일)

〈출전 : 金正革, 「朝鮮映畫振興의 目標－眞實한 映畫精神의 樹立을 위하여－」, 『三千里』 제13권 1호, 1941년 1월호, 160~165쪽〉

2) 서광제(徐光燾)

(1) 조선영화계의 신질서 - '영화령'과 '영화인협회' 조직에 대하여

「나그네」 이전의 조선영화계 즉 다시 말하면 무성영화제작에서 발성영화제작이라는 혁명적인 조선영화계에 기술적전환기를 거쳐 오늘의 조선영화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가지 의미로써 구세대를 벗어나고 조선영화계의 신질서를 위하여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다닥드리고 있는 것이다.

지나사변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신법령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변혁을 주고 있거니와 일국이 전시체제에 있으면서 문화를 유지해 나가려면 거기에 적절한 현실적인 법안이 생길 것은 사실이다.

활동사진이 우리 인류사회에 나타나기는 1895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완전하다고 할 만한 것이 발명이 되고 그것이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모든 전통의 예술을 누르고 활동사진이 영화예술이 되어 그것이 토-키-가되고 전체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닥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위정자들이 그냥 영화를 순수예술로 두어버리기에는 영화가 타고난 천품이나 매력 그것보다는 벌써 관중이 영화에서 받은 자극과 교양의 문제가 민중의 지도계급에 있는 위정자로 하여금 나 영화를 그냥 두지 않게 하였다.

금추 10월을 기하여 일본에서는 '영화법'이 실시되고 이와 거의 동시에 조선에서도 이에 준한 '영화령'이 실시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또는 역사적인 모든 계단을 밟아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선영화계는 가장 수공업적인 조직제도 갖지 못했고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이었던 생산조합 같은 것도 갖지 못했었

다. 물론 정치적 특수사정이라는 것이 있었다하더라도 과거의 우리의 문화사회를 돌이켜 볼 때 너무나 조선영화계라는 것은 무질서하였으며 영화의 기술이나 예술적 가치 그것보다도 자체의 교양 문제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영화가 절대적인 메카니즘의 지배를 받아야 그의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아무런 계승을 받지 못했고 현실적인 어떠한 뚜렷한 사실조차 갖지 못했다.

영화는 기업이라야 살려나갈 수 있고 토-키-에서는 절대적 기술과 시스템을 필요로 할 제 한 개의 완전한 기업적인 조직체로 된 영화제작소 한 개를 갖지 못했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에는 소규모나마 완전한 촬영소는커녕 현대의 완전한 현대적인 '카메라'조차 갖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 밑에서 조선영화라는 것이 연명을 할 만큼 제작은 되어 나오나 확고한 제작사회가 없었던 만큼 수공업적인 영화인의 회합체라던지 일보 나아가 영화인자체의 옹호나 영화예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직체 같은 것은 도저히 영화를 '업'으로 하여 의식주를 보장할 수 없던 조선영화계에서 경제적 또는 문화적 조직체의 출현이라는 것은 너무나 실천성이 박약하였다.

과거의 조선영화인의 회합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사회주의운동 전성시대에 카프의 영화부라는 것이 있었으나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당시의 '서울키노'를 백으로 한 신흥영화예술가동맹과 시나리오 작가협회 등도 조금도 영화인 합체를 위한 활동은 없었다. 오히려 그 보다 먼저 조선영화예술협회에서 '영화인회'를 조직했을 때가 다수문단인을 모아 소위 그때의 지식층을 영화계에 끌어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 있을 것이다.

금일까지의 조선영화계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일 먼저 무성영화의 초창기적, 제2는 「나그네」 이후 조선영화가 토-키-로 전환되면서 영화의 기업을 부르던 시대, 제3은 존귀한 인명을 많이 희생시켜가면서 신동아건설하에 있는 전시체제하의 금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세대에 속한 조선영화계로서 우리가 여기서 시야비야 논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만 우리는 일척의 문화인으로써 새로운 제너레이션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화문화를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중대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지껏 조선영화가 생산되어 나왔으면서도 과거 십여 년 동안에 영화감독협회나 배우조합이 나가 없었던 것을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견고한 자본조직의 영화제작사회가 한군데도 없었던 것에 크게 기인되어 시나리오 연구기관이나 감독이나 배우협회 같은 것도 경제적 또는 상품적 경쟁을 하는 대립사회가 없었던 거기에 영화기술의 연구나 영화예술의 향상이나 영화인 자신의 보장같은 것도 할만한 단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조선에서 문학예술이 모든 예술보다 앞선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작가협회나 문단인구약부 같은 것도 없고 카프 이후 문필가협회 조직조차 유야무야 중에 없어지고 말았다.

조선에서 문화예술 운동중 에서 그래도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문잡지 등의 문단인의 활동인데 더구나 요사이 단행본의 공세와 순문학잡지 기타 취미 잡지 등이 왕년에 비하여 극히 왕성하다고 볼 수 있는 데도 문단인의 단순한 친목관계 하나 갖지 못한 조선의 문단인을 볼 때 오히려 '조선영화인협회'의 조직이 조선영화계에서 늦은 감이 있다하더라도 조선합체의 문화인가운데에서 이러한 집단을 먼저 가졌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다.

우리문단에서 ‘모랄’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있었으나 지금 세대의 ‘모랄’이라는 것은 구세대의 모든 ‘모랄’을 비판극복하고 새로운 세대의 ‘모랄’을 수립하는 데 있다하면 과거조선영화인의 교양문제 같은 것도 새로운 제네레이션에 다닥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한 문화인의 응도와 아량으로써 비판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명일의 ‘모랄’을 가질만한 교양을 쌓기에 노력한다하면 우리들은 가장 새로운 세대의 문화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 조직체로써 ‘조선영화인협회’라는 것을 1939년 8월 12일에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직체가 순수한 영화인 자체의 손으로 조직 못된 것은 모든 영화인 자신이 부끄러워하여야 할 바이나 시국이 시국이요 시기가 또한 10월의 ‘영화령’을 앞둔 만큼 당국의 지도와 원조 밑에서 조직된 데에 대하여 오히려 개인영웅시대에 있던 조선영화계에 집단적 우위성을 보여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일부 향간에서는 ‘조선영화인협회’가 순전한 관료적 조직이라고 말하나 그것은 한 개의 편견이며 ‘조선영화인협회’가 조직되기는 경성일보 기자로 있던 니시키 모토사라(西木元貞) 씨가 총독부 촉탁으로 들어가게 되어 10월의 실시될 ‘영화령’의 준비일을 보게 되었는데 씨가 신문기자 생활시에 연예면을 맡아보았던 관계로 조선영화인과의 지인이 많아 영화령이 실시가 되면 영화인의 등록 기타 여러 가지 당국과 협조해야할 바도 있고 영화인 자신도 문화향상이나 영화인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니 처음에는 단기 친목관계라도 좋으니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꼭 유리할 것이라는 전언에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이러한 회합을 가지려고 하던 십여 영화인이 발기인이 되어 수차회합을 하고 규약을 작성하고 당국의 양해를 얻은 후 8월 12일 오후 7시 경성호텔에서 총독부 측에서 시미즈(清水) 이사관으로 비롯하여 이케다(池田), 김(金) 양씨의 검열관, 그리고 니시키(西木) 촉탁 합석하여 영화인 30여 명이 모여 규약통과와 역원 선정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크게 감격되게 생각하는 바는 일본과 같이 미리 이러한 단체가 있었더라면 ‘영화령’ 실시에 앞서서도 당국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할 바도 있고 또한 우리들이 요구 내지 제안할 바 있었겠으나 전혀 조선영화계에 아무런 단체가 없어 감독이나 배우를 장차 등록시키는데로 어디다 대고 물어볼 수도 없는 조선영화계현상에서 비록 전체적인 조선영화인의 창의의 힘이 못되고 당국의 조력하에 결성되었다면 오히려 그 출발을 부끄러이 생각하고 앞으로의 ‘조선영화인협회’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를 모든 조선영화인이 진지한 응도로 구명해나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영화인협회’의 성질 즉 규약의 검토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원선정에 있어 어린애 장난모양으로 “누구는 이사요 평의 원인데 나는 어째서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소” 라는 세 살 먹은 어린애의 샘을 가지고 더구나 이번 협회조직에 많은 조력을 아끼지 않는 당국에 가서 구두 혹은 서신으로 또는 전화로 그 비열하고 야비하고 정말 교양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은 ‘조선영화인협회’ 조직의 크나큰 오점을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영화인협회’가 조직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조직체가 된 것이 아니요 우선 10월의 실시될 ‘영화령’을 앞두고 외곽단체로써 조직시키고 ‘영화령’ 실시 후 곧 10월 중순 경에 정식으로 협회의 총회를 열기로 규약에 제정되었으니 그때에 역원개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며 미비된 세칙 같은 것도 서로 토의하여 얼마든지 고치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8월 12일에 협회가 조직되고 10월 총회를 하기 전까지의 역원 여러분의 총회 준비에 여러 가지

의 일을 해 주는 데는 모든 조선영화인이 감사의 의를 표할 것이며 진심으로 자기네의 회합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좀 더 아량과 척도가 여러 방향으로 있을 줄 안다.

‘조선영화협회’는 어디까지든지 조선영화인의 것이다. 한 두 사람의 관리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국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협회의 규약이 명백한 바와 같이 모든 일이 이사회, 평의원회, 총회에도 이분지일의 찬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야 타력이나 관력을 의지하지 말고 조선영화인 자신이 일해 나갈 자신이 없을까? 그렇다면 참으로 비통할 현상이다. 나는 협회의 규약과 성질과 운용에 대해서 모름지기 모든 영화인의 정당한 발언이 있을 것을 굳게 믿는다.

내지에서 영화법이 금춘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영화인간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시켰고 신문잡지를 통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일개인의 영화인의 입과 붓으로써는 도저히 안될 일이니 그들은 여러 가지의 뚜렷한 사회적 조직체를 갖고 있었던 까닭으로 3월에 통과된 법안이 내무 문부 양성에서 신중히 토의를 거듭하고 민간의 양해를 얻어가면서 법령의 작성 중에 있으나 돌이켜 보건대 조선의 영화인은 ‘영화령’의 실시라는 것이 남의 집안일 같이 여기고 있는 이 현상에서 비록 당국의 지도에서 협회가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제집안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진지한 활동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영화령’이 10월에 실시된대도 현재의 영화계를 기준으로 한 것임으로 지금보다 훌륭한 영화가 나온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지금보다 월등 못한 영화가 나오리라는 것도 아니다.

통제정치 하에 너무나 민중과 민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작을 당국이 민간과 협조해 나가는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 낙관 비관이라는 것이 있을리 없으며 오히려 군소난립의 무질서한 조선영화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데 큰 효과가 있을 줄 안다.

일본의 ‘영화법’ 초안을 보더라도 그전에 없던 감독배우의 등록과 시나리오의 사전검열과 문화영화의 다량제작이 우리들이 주목해 보는 바나 등록제나 사전검열 같은 것은 오히려 조선에서는 있어야 좋을 바니 ‘영화령’의 실시와 적용에 대하여 ‘조선영화인협회’라는 것이 존재하여 있는 것이 당국으로나 또는 영화인 자신이나 펍이나 유효한 기관이 될 것이다.

사실 노골적으로 말하면 10여 년 동안 아무 회합을 갖지 못한 조선영화인이 당국의 힘을 빌었기에 그나마도 조직이 된 것이라면 잠정적으로 금년 10월 총회까지의 한 두 사람의 관리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총회 때에 전부 개선할 것이니 그것을 거리낄 바도 없고 요는 제 집안을 제가하느냐 아니하느냐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다.

8월 25일 ‘전일본영화인연맹’ 평의원 야기 호타로(八木保太郎) 씨와 본 협회 평의원회와의 여러 가지 간담이 있었는데 물론 감독협회나 작가협회 등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조직하여 일본의 각 단체와 유기적 연락을 갖는 것보다 ‘조선영화인협회’가 전일화의 내지시장개척문제라든지 또는 협동정신에 의한 문화적 역할의 달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조선영화인은 거리낌 없이 일본영화계와 호흡을 같이 하여 가장 문화적으로 진취적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전일본영화인연맹’이 조직되는데도 그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2년 5월에 교토에서 처음으로 ‘일본카메라맨협회’가 조직되었고 그 다음 1936년 5월에 ‘일본감독협회’의 설립, 다음해 1937년 6월 ‘일본영화작가협회’, 1939년 4월에 ‘일본영화배우협회’, ‘일본영화미술감독협회’, ‘일본영화조감독협회’ 등이 조직되어

가지고 1939년 4월 11일 '전일본영화인평의원회'가 성립되어 가지고 이래 수개 개월 동안 영화인 자체의 웅보운동 한 결과 금년 7월 28일 평의원회를 해소하고 이상 모든 협회가 단합이 되어 '전일본영화인연맹'이 조직된 것을 보더라도 한 두 사람이나 1, 2년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8월 12일 조직된 '조선영화인협회'는 비록 만추의 감은 있으나 그 협회 안에 감독부 연예부 기술부 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우리들은 너무나 큰일을 삼시간에 해 놓은 것과 같은 감이 생긴다. '조선영화인협회'는 아주 작은 유아이다. 이 유아를 길러서 소아를 만들고 성인을 만들기까지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영화인 각 개인의 그 책임이 너무나 큰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회를 잘 운용하고 못하는데 조선영화의 앞날의 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 두어야 한다.

기관지의 발행, 영화제 혹은 실연, 공개상영, 기타 여러가지의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이 협회의 성질을 구명해가지고 참으로 조선영화계를 위한 모체를 만들기에 사리사욕과 시기질투심을 버리고 새로운 세대의 교양 있는 문화인이 되어주기 바라는 바이다.

8월 17일 밤.

(출전 : 徐光霽, 「朝鮮映畫界의 新秩序 - '映畫令'과 '映畫人協會' 組織에 對하여」, 『朝光』 제49호, 1939년 10월, 312~317쪽)

(2) 신체제와 영화

정치의 최후로써의 수단이 전쟁이라면, 전시(戰時) 가운데의 모든 문화라는 강렬한 정치체제하에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더 이 오랫동안 자유주의적인 풍조에 젖은 일본문화에 가져온 바 변혁이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일본문화사 상에 획기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조선영화계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의 미로 검토를 해서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를 명백히 해놓고 따라서 조선영화의 생장 꺾 나갈 길을 찾아 놓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영화인의 중대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이다. 오늘날 시국에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위정자를 꺾정하므로써 내지의 '영화법'의 뒤를 이어 조선에도 직시'영화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니 여기서 나머지 문제 되는 것은 꺾자가 생각한 '영화령'의 진의와 일반 영화인의 금후의 제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영화주식회사가 어떻게 되고 고려영화가 어떻게 되고 문화영화협회 영공(映工) 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몇 해 전 조선영화에서 떠들음 문제요 조영(朝映)이 망하거나 또는 지금의 설비에 더 충분히 하여 완전한 촬영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꺾될것 없고 고려가 촬영소 없는 간판만 남던 또는 촬영소를 또 지은들 또한 문제 될 바 아니요 문화·영공 등이 망하던 그때로 있던 조금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신체제에 즉, 응하여 조선에도 영화제작회사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각 제작업자가 깨달은 바가 있다

면 구태의연한 금일의 영상으로 조선영화계를 내어버려둘 이치는 없다.

이□□적이요 자유주의적인 생산체제에 있던 각 대소의 영화제작소가 총합함으로써 조선영화계의 신체제의 의미는 살아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문화로써 국가에 협력하겠다는 굳은 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판은 목수라는 자가 대패하나만 가진 놈이 있고 톱만 가진 놈이 있고 끌만 가진 놈이 있다면 셋이 다 완전한 목수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삼자가 연장을 한데 모으고 모자라는 것은 사드리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세 사람이 다 완전한 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오늘의 조선영화계가 그러하다. 세월이 그 전 같으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그냥 두었음는지 모르나 제 손을 가지고도 제 맘대로 벼를 베지 못하고 제 돈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이 된 이때에 서투른 목수, 온종일 연장만 다루듯이 촬영소를 짓겠소, 영화를 1년에 몇 개씩 만들겠소 하고 신문사 연예부 기사나 매수해가지고 신문에 헛 선전을 한들 누가 뛰어와서 같이 일하자고 돈 내놓을 자도 없고 그렇다고 조선영화계가 살아있다고 볼 자도 없다. 민간에서 조선영화계라는 것을 새로운 체제로 끌고 나가려면 대소를 물론하고 전체가 합동이 되어 한 개의 커다란 사회를 조직하는데 있고 위정자가 조선영화의 존재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영화령'의 공포의 성과를 벌려면 기백만원(幾百萬圓)의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영화회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바가 많으나 단지 나로서 바라는 바는 '만영(滿映)'의 오늘의 현상을 본다면 반관반민의 회사보다도 현재의 산재해 있는 각 영화 제작소가 한 뭉치가 되는 것이 조선영화를 위하여 줄 바가 많다고 본다.

국민생활재건에 있어 지도와 신종의 2대원리가 있다하면 국민생활의 건전한 발원(發源)을 위한 계획은 절대로 민중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

그러함에는 당국자로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을 철저한 지도방법을 세울 것이며 국민에게 대해서 건전하고 돈이 적게 드는 문화와 오락을 줄만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이 물질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인간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상하를 물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간이 전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간이 전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일반 국민이 갖게 된다면 금일의 비상시국이나 신체제운동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체제라는 것을 일종의 유행어로 알아서는 큰일이다. '신체제에로랙손'이라는 그러한 불건전한 광고를 하고 극장에서 '자쓰'를 하게 허가해주는 취체당국(取締當局)도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며 심지어 '신체제컱차점(新體制喫茶店)', '신체제흥행(新體制興行)'이란 도무지 무엇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선영화계의 신체제가 오늘날 우리들이 과거에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조선영화의 근본문제로 거기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외국영화의 상영금지 같은 것은 현재의 '영화령'으로써는 대장성(大藏省)에서 양화의 수입허가를 일부 용서해주는 한 급작히 시행 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화금지의 동□가 당국에서 발의되지 않고 상설관 측의 사욕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불순해진다.

국민생활 재건에 따라 학생생도들의 극장출입이 금지된 모양인데 출입금지를 시키는 근본적인 정신

문제는 좋으나 그 대신 그들을 포용해 줄 건전한 오락기관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일본인으로써 어떻게 신체제가 생겨날 것인가에 관심을 안 두는 자 누구냐? 더욱이 정치에 관여한자, 문화예술에 관여한자, 상업에 관여한 자 등등, 그러면 신체제라는 것이 생겨날 적에 지금부터는 구체제로는 모든 국민이 살아나갈 수 없으므로 신체제를 만들어 거기에 협력하여 잘 살아나가는 것이라면 다른 것은 여기 말할 바 없고 조선 영화계라는 것이 구태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소학생에게 물어보아도 명백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9월18일) 조선영화계는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는 줄도 모르고 한두 군데서 가장 수공업적 또는 가장 비문화적 시설과 비문화적인 집단에서 소위 조선영화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를 명백히 세운다면 '다이야로-그'의 문제에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아직도 조선영화계에 신체제의 출발의 준비가 없는 데에서 오히려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하게 되는 바니 조선에도 영화제작자들이 있다면 좀 더 양심과 인격과 사욕을 버리고 새 형태의 조선 영화계를 만들 것이며 영화예술가 역시 타산지화로 알아서는 조선영화는 암로(暗路)로 들어갈 뿐이다.

새로운 신념아래서 능동적이며 세대의 눈 밝은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활동과 제작자들의 신체제의 완전한 이해와 확고한 목표와 새로운 활동의 시작이 없이는 조선영화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들이 거부하고 마는 것이다.

〈출전 : 徐光燾, 『新體制와 映畫』, 『人文評論』 제13호, 1940년 11월, 23~26쪽〉

3) 안석주(安碩柱, 安田榮)

(1) 조선영화의 갈 길 -영화와 신체제

안석영(安夕影)⁴¹⁾

1. 제작기구에 있어서

들에 잡초와 같이 자라나 조선영화, 그것이 소위 전업형태(全業形態)의 세례를 받았다하더라도 조선영화의 전업형태란 또한 잡초와 같다.

잡초에서 꽃이 피고 그 씨(종자)가 또한 잡초 위에 뿌러지니 더욱 잡초는 혼란할 뿐이다.

이런 말이 너무도 과도한 신경질적이라거나 일종 야유하는 말이라고 하기 쉬우나 잡초를 잡초로 보는 것이 큰 죄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생활이 너무도 개념적으로 나타난 영화. 이 영화전업이란 것도 조선에서는 너무도 개념적인 데서 출발하였다.

영화전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난(多難)한 것이라고 하면 그저 단순히 전업이라는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돈 몇 푼만 손에 쥐고 나서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 우선 주책이었으므로 생각이면 된다.

41) 안석주의 필명.

이것이 오늘의 혼란케 된 단서도 된다. 조선의 영화 전업가는 설계가 없는 집을 지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들어있는 초가, 와가(瓦家)들이 그렇듯이 더욱이나 그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을 그들은 이것을 평범이 생각한대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느 때 이 지방의 소위 유지신사들이 간판만 붙여놓고 기업을 토하듯이 그 관습을 이 평범치 않은 사업에 있어서도 역연히 그 잔재를 드러냈다.

오히려 집을 짓고 일용가구를 들여앉히고 사람이 든 뒤에 문패가 필요치 않았던가.

모순을 앞세우고 시작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고민한다. 이 고민 앞에는 전 영화인은 무료로 지냈을 뿐이다. 이것은 영화기술자들이 영화 기술 이외에 전업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개인 '프로덕션' 시대에 체험한 것이요. 또 그래서 안 되는 시대가 온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기업가들이 무능한 자기로 돌아갔어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능히 연구해내 온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내어버리지 않았음을 영식(映息)할 날이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범한 인간일 것이다.

때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또 역사는 뒤로 다시 물러갈 수도 없다. 조선영화는 발달해야만 하고 또 향상해야만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임이 어제까지도 구태에 속해야만 할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런 반성이 있었으면 신 태세에 가담해야만 될 것이다.

영화령에 제시한 것 영화인협회의 결성, 이래서 주로 금일의 국가신체제에 있어서 또는 현하(現下) 비상시국과 영화와의 관련성이 강의의 중심이 된 조선총독부후원 조선영화인협회 주최의 영화문화강습회 개최 또한 이 영화인협회가 국력총연맹에 의존하여야 할 것 등, 이미 조선영화계에 신체제가 온 것을 다시 여기서 중언할 필요가 없다.

또는 명년 1월 말까지에 영화인이 등록이 되고 그들에게 기능증명서가 배부될 것이다. 제작자허가는 명년 칠월 말로 박두(迫頭)하였다.

여기에 조선영화인은 근일 새로 결성된 제작자협회를 주목하고 또한 기대하는 바나 여기서 신념을 거두어갈 때는 그 분들이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탈각(脫却)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였을 것이요 정말 신체제하에 한 개의 견고한 덩어리가 생기기만을 위주해서 그 대사업이 축성되도록 간접으로라도 힘쓸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미 더 나아갈 수 없이 추진력을 상실한 바에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라도 이 시대에 부합되는 강력한 존재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제작자협회의 모씨와의 사담에서 구시한 바이나 그분들의 근일의 동향을 주목할 만하며 바라건대 제작자협회가 솔선하여 대세에 순응하는 행동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 기획에 있어서

내지의 영화계에 있어서도 금일의 내지영화계의 혼돈에서 이 전획이 성히 논의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영화제작의 근본문제에 있어서 이 기획, 기획자가 중대시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바 더구나 조선의

영화계에 있어서는 전획부문의 큰 결합이 지적이 안 될 수 없다.

수편의 영화가 신 전획 하에 제작이 되어 이것이 국책적인 면에서 또는 조선영화의 질적 개양에 있어서 일예(一例)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것이 확호(確乎)한 전획의 소산이라 할 수가 없고 단지 관념적인데서 또는 공리적인데서 출발한 바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대의 문화부문에 있어서도 가장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영화가 개인적인 야망에서 제작된다면 처음의 그 의도가 대서특서(大書特書)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선영화의 새로운 궤도를 부설(敷設)한 것이 아닌 바는 거기에 어느 부분의 불건강한 개소(個所)가 보인 것이요 그것이 국책에 단응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도 거기에 기획적인데서, 새로운 의지가 보인다면 그것은 조선영화의 새로운 전획의 발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이 대의를 위한 발족이라면 조선영화에 있어서 보담 국민문화에 있어서 이바지함이 있을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조선영화계에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였다.

이것이 조선영화의 빈곤을 가져왔다. 그것은 영화계가 근 20년의 과거를 가지고도 시나리오에 있어서 태작일관(駄作一貫)임을 보고 증좌(證左)되는 바로 이것은 영화계의 주요 인물들이 너무도 문화영성(領城)에 있어서 거리가 먼 까닭이요 두뇌를 새 것으로 바꿀 줄 모르는 고집 결국 이것은 둔감에 지내지 못하는 소치(所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조력자! 이것은 더욱이 영화부문에 있어서 불가결할 큰 힘이다. 외부의 자극이 그곳의 문화에 어떠한 큰 변동을 주는 것인가를 보고 온 바에야 어째서 외부의 조력을 구하지 않았는가.

조단, 화단, 악단 이것의 조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영화의 영양부족이 지금도 뚜렷하거나와 그 보담도 더구나 이 시대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교섭이 적었던 조선영화계가 외부의 조력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 시대정신을 파악한 영화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비상시 국가의 문화로써 어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 영화문화강습회가 다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하며 거기서 제(諸) 씨의 강의에서 조선영화가 무엇을 섭취해야하고 또는 외부와의 접촉을 빈번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알았을 것이다.

내지 영화계에서도 전일에 모든 영화제작의 권한이 영화감독에게 있어 전획제작이 독선적인 데서 진행되어 그것이 결합이 결국 외국의 '푸로듀서'제(制)를 가져온 것이나 여기에도 외부와의 조력이라는 것은 대중 잡지의 통속소설에서 전획의 본영으로 삼아온 것 또는 고정된 기획부의 침체가 국가신체제에 부딪혀 아연히 혼미하게 된 것이다.

이래서 지금에 국민문화로써의 영화의 신기획이 주창되는 이때에 반드시 여기에 보조를 같이해야 하는 조선영화는 또한 새로운 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현금(現今) 조선영화계 내부에서는 이 전획이 급속히는 설수 없음에 이제 조선영화계는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조력자들을 각 방면에서 초빙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영화가 가져야만 하는 일본정신 양양(昂揚)로 칼 칼과 또는 문맹을 위한 계몽, 생활향상(개선) 기타의 특징, 조선영화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매력, 이것을 기획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반드시 외부의 조력이 없이는 안 될 것임으로 여기에는 적재인 인물들은 적소에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 여기에는 그런 인물들을 누가 선택하겠느냐 하는 때는 또한 그런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 그들은 잘 구사할 수 있는 중심인물도 필요할 것이나 이 점은 지금의 제작자 중에도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3. 조선영화인협회

1940년의 기원절(紀元節)에 창립이 되어 1주년을 바라보는 영화인협회는 창립당시에 100명 내외의 회원이 200명을 초과하였고 안전진웅(安全辰雄)⁴²⁾ 씨를 이사장으로 활발한 기세로 운전되고 있다.

회원에는 오랫동안 영화를 전문으로 한 사람 무대와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 신진(新進)등으로 이들이 등록 이후에도 협회의 지도 밑에서 활동할 것이요 협회는 장차 공인단체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운전될 것이다.

안중화 씨가 매일신보에 「신체제와 영화」의 소론(所論)에 있어서 ‘황국신민’⁴³⁾으로 이 시국에 대처할 것도 영화인이겠지만 다시 말하면 강습회에서 향산광랑(香山光郎, 카야마 미즈로)⁴⁴⁾씨의 강의에서와 같이 영화인도 카메라를 銃口(총구)으로 출정한 군사이요 조선영화는 병참기지의 영화로써 차 중대한 역할이 있음으로 오로지, 협회의 존재는 영화인으로 하여금 그런 의지의 훈련도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등록 이후의 협회의 모든 사업은 문화영성에 있어서 광범위의 활동이 요구될 것이니 우선 내지의 대일본영화인협회와의 연락도 재의(再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인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오직 전진이 있을 뿐이다.

4. 신인 양성기관 문제

조선영화계가 구체제에서 신체제로의 발족이 있고자 하면 재래영화인들의 정신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새로 지식의 만양(滿養)이 요구되지만 이 신체제의 조선영화의 추진력은 신인에게 더 요망된다. 경영으로부터 어디까지 그런 신인의 등용이 필요하고 또한 이 구인과 신인의 합양, 또는 교체가 조선영화의 신생로(新生路)를 개척하는 것이요 장족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에 신인을 대량으로 등용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문이나 여기에는 영화인협회의 사명의 하나가 생각된다. 지금에 사무소 하나도 갖지 않은 협회가 이 거대한 사업을 간수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이것은 협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니 과거에 군소제작소에서 양성했다는 (불가피의 사정도 있으나) 신인들은 등용이라는 것보담도 이 길에서 실망을 주고 큰 발전을 못한 남녀들이 있다. 이것은 소질 문제도 있으려니와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협회 내에 신인양성부를 설치해야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여기에는 당국의 절대(絶大)한 원조가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결과는 재래영화인으로 하여금 지도자적 인물로 양성될 것이요 새로운 질서 밑에서 양성되는 신인들은 실사회(영화계에서)에 나아가서 진실된 사역자(使役者)가 될수 있을 것이며 조선영화는 오직 새로운 영화로 다름질 할 것이다.

42) 안중화(安鍾和).

43)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

44) 이광수(李光洙).

이런 계획 밑에서 하루바삐 신인의 양성과 신인의 등용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구인이나 신인이나 그 기능, 그 천분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 기획자들의 역량과 과단성(果斷性)이 필요하다.
 ‘후미니지루’하는 재래의 그 습성을 그 극도의 개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5. 조선영화의 배급로

과거 조선영화 역시 상품화를 생각할 때에 도처에서 하(下) 환영(歡迎)을 당하는 광경을 보았는 바 조선영화에 대한 인식보담도 그 상품의 가치의 저급한데도 원인이 있을것ियो. 그 영화가 내용이 가진 비보편성이 검토되었을 것이며 또는 상사거래(商事去來)에 민접(敏接)치 못한 까닭도 있을 것이나 이제 조선영화가 1단계를 올라서 그것이 흥행권내(賑)에 떠러진다면 역시 조선영화가 천대를 받기는 종전에서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내지나 외국의 우수한 영화가 조선의 배급소에 떠러저도 배급자와 흥행자문의 ‘가게 히끼’로 내지의 영화팬 보담 1,2년의 차이를 두고 보게 되는 그런 불순한 공기가 지금은 시대의 인식으로 개선이 되었다. 하드래도 조선영화의 배급로 그 보담도 경성중심의 푸린트 요금 문제로 어찌 될지 모름으로 내지와 같이 제작자가 직영하는 흥행권을 가졌으면 모르되 편집 살림을 하게 되는 조선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역시 신태세의 배급방법을 갖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배급제도 통제가 되리라 함으로 이에 기대가 크거니와 조선영화에 있어서는 조선 내에서는 특별취급을 해야하겠고 내지와 만주(滿洲), 북지(北支), 중지(中支)등, 배급로가 크게 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는 그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하겠지만 배급 당사자들도 이에 큰 수조(援助)가 있지 않으면 도저히 조선영화는 발전향상 할 수 없고 조선영화가 가진 사명을 달하기에 용이(容易)치 않을 것이다. 이 점에는 제작자와 배급자와 흥행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조속히 그 복음(福音)을 영화계에 보내주기를 바란다.

당국의 알선으로 제작자들에게 소요(所要)의 필름이 배급되게 되었음으로 조선에서 1년에 극영화(劇映畫), 20여 편 문화영화, 기타 다량으로 폭주(瀑注)하게 되는 때 이 영화들의 소화문제(消化問題)를 생각 하니 할수 없다.

그런 고로 영화를 만들어 놓고도 이 처치가 곤란하게 되거나 않을까. 어린애 낳기 전에 포대기 걱정 같은 사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이 방면의 인사(人士)가 타개책(打開策)을 강구하겠음으로 이에 중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끝으로 - 조선영화의 신체제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문화인으로서 다 - 생각하고 있을 것이나 이 출문(拙文)이 사의(私意)에서 쓴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조선영화가 확실히 찬연(燦然)한 명일(明日)을 갖기 위해서 이 방면의 인사들의 일이 속히 매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일문(一文)이 헛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12월 3일)

〈출전 : 安夕影, 『朝鮮映畫의 갈 길 - 映畫와 新體制』, 『朝光』 제63호, 1941년 1월, 276~281쪽〉

4) 오정민(吳禎民)

(1) 극작가의 희망

신화에 대하여

국민연극이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반도에서도 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에, 진정 신시대적인 국민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근래의 극작가는 그 작품에 본래의 의욕을 드러내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증거로서 1942년도 후반기에 개최된 제1회 연극경연대회에 참가한 5개 작품 〈산돼지(猪)〉, 〈대추나무(棗の木)〉, 〈행복의 계시(幸福の啓示)〉, 〈빙화(氷花)〉, 〈산풍(山風)〉은 특필할 만한 수확이었다. 하지만 그 작품들을 통해 느낀 점은 일단은 작가가 국민연극으로서 개념은 파악하고 있고 작품 형상에서도 과거의 자유주의 시대의 수법에서 탈피해 시국이 요청하는 사유의 건강성은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정신으로서의 높이라든가 작중인물의 성격 파악의 깊이에 있어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작가가 신시대에 대처해야 할 생활이념으로서의 명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관념적 경향이 작품으로서의 기백을 약화시키고 있는 듯했다.

전시하의 반도적 현실은 일본 내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죽느냐 사느냐의 양자택일적인 긴박감에서 오는 생명의 내연성에 있어서 어정쩡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태도도 적극적인 주동성을 발휘하기까지의 자각이 부족하다.

일본 내지에서는 전쟁터에, 충후(銃後) 생활에 무수한 신화가 탄생하고 있다. 신화란 가공의 황당무계한 현상이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양류의 영웅적 행동과도 다르다.

그것은 인간 속에 명(明)·정(淨)·직(直)의 '진실성'—즉 일본의 고대로부터 국민의 혈액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신화정신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 신화정신을 신성(神性)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 전쟁터에서의 용사의 행동은 물론, 충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도, 비유하자면 아침햇살에 비친 이슬 같은 감격적이고 경건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신성을 오득(悟得)하는 창조정신이 부단히 발휘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그 어디에서도 소박한 행동으로서 현현될 것이다.

반도의 극작가는 일본 내지에서의 이러한 현실과의 대비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언젠가 우리 주위에도 전쟁이 직접적인 것으로서 실감될 때가 올 것이다. 먼저 극작가 자신이 신념에 철저히 입각해 내면으로부터의 각성을 하는 동시에, 위에서 거론한 신화정신을 체득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반도적 분위기에 청신한 돌풍(squall)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나는 '반도인의 황민화(皇民化)라는 것에 대해 극중 인물의 연설이나 설교를 통해 그 개념을 납득시키기보다 어떻게 하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호소하고 흔들어 깨워 일본적인 신화정신을 오득시킬 것이냐에 극작가들이 뜻을 두기를 바란다.

이는 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선 풍토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내지는 변화무쌍한 지형을 갖고 있고 수려한 산과 맑은 물이 흐르고 먼지가 쌓이지 않는 풍부한 우량을 갖고 있으며, 자칫 지각을 뚫고 솟구치려는 용암과 열탕은 인간생활

에 결벽과 시련과 긴장을 가져다주고 있다. 생성 발전하는 생명의 원동력은 이런 풍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풍토와 신화는 일본정신의 모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반도의 지질은 낡았고 잠자고 있다. 기후를 보더라도 혹한과 작열, 서리와 가뭄이 상존한다. 게다가 이조 오백년의 비정(非政)의 반동으로서 광신에 가까운 구화만능(歐化萬能)이 있었다. 그 결과가 문화속인(文化俗人)으로서의 지식층과 퇴영과 사대사상을 이어온 일반층이 신성과는 거리가 먼 추종적인 통속권에 먼지로 뒤범벅인 된 생활에 허덕이고 있다. 게다가 윤리적으로는 폐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신화를 이러한 현실 속에 부활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징병제 실시를 눈앞에 두고 우리 신변에도 수많은 출정용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과 더불어있다. 반도의 극작가는 그것을 단순한 흥분이나 영웅적인 허영으로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겸허한 '진실성'—즉 신화성으로까지 높인 것으로서 표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신화에 대해서는 문예(文藝)와 관련시켜 다른 기회에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할 생각이므로 이상의 범위에서 그치기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반도 혹은 중국, 만주, 몽고의 대륙에 원시종교로서 태양숭배의 기풍이 고대에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 태양숭배의 원시감정을 현대의 반도에 부활시키는 것은 어떨까.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떠오르는 해를 대했을 때의 장엄하고 청신한 감정, 그 감정을 가슴속에 명기하고 하루의 생활신조로 삼는다. 그런 매일을 반복한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에 환희와 희망과 기백을 품게 한다. 물론 이는 시국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전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극작가는 극중 인물을 통해 위와 같은 신화성 혹은 태양숭배의 기풍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무대 분위기로서 극의 흐름으로서도 더욱 청신한 활달함을 현현하기를 바란다.

윤리에 대하여

반도의 현 상황을 윤리적인 견지에서 고찰하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나만의 견해는 아닐 것이다. 이조의 인습에게 개화로, 개화에서 황민화로 비약하는 방식에 일부 선도자들의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관념성이 눈에 띈다. 그 밖에는 대개 추종이나 완미(頑迷)를 들고 왔다. 이는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

이조 문화는 유교로 대표된다. 찬란함이 극에 달한 전대의 불교문화는 위정자의 손에 의해 뿌리에서부터 불식되었고 유교가 정치의 도구로 채용되었다. 승려를 거지와 마찬가지로 보고 유교는 인간생활의 규범인 윤리의 성전(聖典)이 되어 인간성은 형식적이고 쇠말적(鎖末的)으로 극도의 구속을 강요받았다.

이율곡, 이퇴계라는 석유(碩儒)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 사상은 당시의 지식층인 유생들에 의해 아카데미적인 것으로 변했고, 유교의 근본정신은 민간에 보급되기 전에 “의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알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식의 예측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그 실례를 내가 하나하나 지적할 것도 없이 형식적이고 쇠말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유교정신이 윤리를 규정하는 성전으로서 적용되었고, 기타 노장철학은 도교적 미신으로서, 주역은 점술·무술 예언으로서 우매한 서민층에게 만연해 있었다. 당시의 윤리적 상황은 극작가들도 기억에 새로울 테니 생략하겠지만, 요컨대 그 풍조를 보자면 극단적인 문약과 퇴영과 사대주의와 당파싸움 등 중세기적인

암흑과 우매함 속에서 쇠국된 상태였다.

고려의 불교문화에서 이조의 유교문화로의 전환방식에 이미 이러한 극단성이 있다. 이조시대에는 불교적인 것은 철저하게 배격 당했다. 전대 문화의 비판·초극에서 오는 새로운 발족이 아니라 무자비한 유린이다. 계승이 아니라 파손이다.

그것이 이조에서 개화로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근대 서구과학이 장족의 진보·발전을 이루면서 그 우수한 무력성으로 봉건적인 것, 미개적인 것으로의 침식을 기도하고 있을 때,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 대한 관심에서 눈을 감으려는 보수에 대한 반동으로서 서구의 문명개화 사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복음이었다. 이로써 인습을 고수하는 구파와 전통에 반역하는 신파 사이에 격렬한 상극이 전개되었다. 유교가, 불교가, 노장철학이 낡은 것으로서 폐기되고 맹목적인 자아의 해방과 서양 예찬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날 보는 것 같은 풍조의 피폐이다.

생활 목표의 불안정에서 오는 지조의 경박성. 비굴하고 허식적이고 현세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공리 본위의 통속성.

“적절히 피하는” 것이 처세술에 능한 것으로서 존경을 받고 “좋은 사람”이 바보의 또다른 이름으로서, 결벽이 고집스럽다며 경멸당하고 있다. 이조말의 시인 김삿갓(金笠)이 그 천의무봉(天衣無縫)한 성정으로 인해 당시의 문화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뢰가 가는 말에는 꾸밈이 없고, 꾸밈이 있는 말에는 믿음이 없다. 선한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반도적 분위기에서는 이런 평범한 진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생마(生馬)의 눈을 뽑을 법한 속물들이 번식하고 있다. 멍청하게도 본심을 털어놓는 일이라도 생기면 상대의 간계에 놀아나 엄청난 실책을 초래하게 된다. 일부에는 이런 악질 인간도 있지만 대개는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다.

탁하고 둔한 타성의 통속권 내에서 간나가라(惟神)⁴⁵⁾의 대도인 명·정·직의 ‘진실성’으로까지 비약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작가가 이러한 현실에 자기혐오를 느끼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작가적인 냉정함을 갖고 왕성한 비판정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반도인’의 황민화는 외면적인 위장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자각 없이는 성취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황도정신(皇道精神)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술상의 침이나 뜸과 같이, 경험과 직관만으로 완성한 명도(名刀) 마사무네(正宗)⁴⁶⁾의 단야법과 같이 동양인에게만 부여된 투철한 식물성적 직관으로 우주의 현의(玄義)에까지 육박함으로써 자연과 인생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생활 이념을 파악해야 한다.

오늘날 근대의 서구주의는 이미 비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극작가는 동서사상의 본질적 차이를 규명하는 동시에 이를 윤리적으로 고찰하고 반도적 현 상황을 되돌아 볼 때,

45) 신(神), 신의 뜻.

46)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도공(刀工) 오카자키고로 마사무네(岡崎五郎正宗). 또는 그가 만든 칼. 일본의 대표적인 명검.

크게 분기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질의 만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서양적인 행복의 관념은 너무나 천박하지 않은가.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심을 시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죽하다는 것을 모른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멈추는 것을 모른다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불후의 만족이다.”

잡초는 잡초 나름의 꽃을 피운다. 비옥한 밭의 여왕처럼 뽑내는 달리아지만 꽃은 아니다. 비록 산속 바위틈에서 자라지만 진달래는 꽃이 있다. 불평이 없다. 환경을 받아들이고 환경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와 같이 자연은 인생의 위대한 교사이기도 하다. 극작가는 인간과 대립하고 인생에서 유리되는 자연으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조화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극에서 다루길 바란다.

인위와 허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속성(俗性)을 폭로하라. 과거 진리의 사도인 지성인, 『인형의 집』의 노라적인 각성에서 인습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터인 신여성의 작년의 동요는 무엇이었나. 연애관, 결혼관, 부도(婦道), 예도(藝道), 농민도(農民道)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 부부, 봉우와 사제의 관계, 기술자 정신, 과학자 정신, 직역(職域) 정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범위가 넓다. 국민연극이라고 해서 생활 장면만 취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자연과 인생, 인간과 생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반도적 윤리의 폐허 현상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심을 갖고, 새로운 생활이념을 목표로 왕성한 의욕을 갖고 신념에 철저히 입각한 인생을 개척하도록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신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극작가의 사명이 참으로 중하고도 크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전 : 吳禎民, 「劇作家への希望」, 『國民文學』 제3권 2호, 1943년 2월, 44~48쪽〉

5) 유치진(柳致眞)

(1) 국민연극 수립에 대한 제언

우리는 세계의 일등국 국민으로 자처하지만 아직껏 하나의 국립극장을 가지지 못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라.

생각컨대 이 나라에 있어서 종래의 정치란 결코 예술과 동반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와 예술은 대면적(對面的)으로 서로 대립해 있으면서 정치는 정치, 예술은 예술대로 각각 제대로의 세계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치가 예술을 위하여 기껏 힘을 빌려주는 것이란 예술의 ‘취체(取締)’에 불과하였다. 취체란 어디까지든지 취체다. 결코 전적으로 예술의 보호를 의미함이 아니다.

종래에 이와같이 정치가 예술을 죄수 대접을 해왔음을 누구나 부정 못할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건박했다. 우리는 유사 이래의 커다란 국민적인 과제에 부딪혔다.

즉 동아공영권(東亞共榮圈) 확립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총동원의 정신이 발동되자 예술도 전면 일선에 등장하여 정치의 신체제에 익찬(翼贊)하게 되었다.

여기에 비로소 정치와 예술의 굳은 악수가 교환되고 정치는 예술로 하여금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예술은 정치를 위하여 예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예술은 '취체'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정치의 손발이 되어 정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예술과 정치는 이신동체(二身同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나치스 독일의 연극 권위자 게르라하 베르나우는 연극은 정치를 시화(詩化)하는 자라고 하였다.

나치스에 있어서의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을 살리려는 정치다. 그 국민의 이념은 스스로 정치의 방향과 일치한다. 즉 국민의 이념을 그린 연극은 스스로 정치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찌 연극은 정치를 시화(詩化)한다는 단언(斷言)이 안 들어맞을 수 있으랴.

나치스에 있어서 예술이 물샴틈 없는 국가적인 보호를 받음은 이당연(理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주지 하에서 최근 일본도 각종 예술의 보호와 작진(作振)을 위한 구체적 법안이 그 방면의 권위자와 정치가의 손으로 빚어지며 있더니, 거반(去般)에 일본 최초의 문화법령으로 영화령(映畫令)이 발표되고, 금반(今般)에는 연극령이 내무성에서 초안해서 이번 의회에 내놓게 되었다.

물론 이 연극령은 의회에 통과되겠고 불원한 장래에는 연극은 법령으로써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국가 상부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운이 돌자 전자(前者)에 조직된 '조선영화인협회(朝鮮映畫人協會)'의 예(例)를 좇아 연극종업자와 당국은 금반에 '조선연극협회(朝鮮演劇協會)'를 조직했다. 연극협회는 연극통제를 위한 관민의 협의기관이다.

통제란, 특히 신체제 하에 있어서의 연극 통제란 결코 예술의 속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자세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예술의 새로운 발전이면 어디로 향한 발전일까. 그 방향은 두말할 것 없이 신체제하에 있어서의 국민이 향할 바 이념의 길이다.

그러므로 그 이념을 밝히고 그 이념의 건전한 발전을 도(圖)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이념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요즘 향간에는 신체제 하의 연극이라면 무대에 나와서 국기나 내두르고 군가나 합창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기실은 그들이 무대에서 국기를 내두르는 것은 그들이 상연하는 퇴폐적인 상연물의 내숙(內宿)을 '캄프라쥬'하기 위해서다. 국기만 내두르고 군가만 부르면 타락한 연극이라도 상연 할 수 있다면 이는 진실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 현상은 오히려 국민의 악감을 사고 드디어 국민문화의 저하를 초래할 뿐일 것이다.

오인(吾人)은 신체제 하에 있어서의 국민의 건전한 오락으로써, 혹은 국민교화기관으로써 국민의 발발한 이념을 담을 수 있는 국민연극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장차 연극의 내용은 물론이요 그 내용을 담는 형식과 연극을 국민에게 배급하는 방식까지도 새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는 예술의 근본적 창조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두뇌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

나 이만한 각오로써 근본적 공작을 피하지 않으면 연극은 결코 국민을 '리이드'하지 못할 것이요, 머지 않은 장래에 연극은 멀리 시대적 파도에 밀려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신체제 하의 국민연극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이냐? 이 설계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상황이 쓸 지면도 없고 내 자신도 충분한 연구가 없으니 다음 기회에 미루어 상시(詳示)해 보겠다.

〈출전 : 柳致鎭 「國民演劇樹立에 對한 提言」, 『매일신보』, 1941년 1월 3일〉

6) 이서구(李瑞求, 牧山瑞求)

(1) 금후의 국민극

조선연극협회장 목산서구(牧山瑞求)⁴⁷⁾

국민예술의 수립은 고도국방국가건설이란 대 목표 아래 물심양면의 재출발을 절규하여 마지않는 이때 가장 절실히 고려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연극부문에서도 대동단결하여 국민극의 새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반도(半島)에 있어서 연극행동은 그 어느 예술 부문보다 가장 활발해 왔다 그런 만큼 더욱 절실히 그 개체(改體)가 필요했고 재출착(再出着)이 논의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본다

있어서도 그만 없어서도 그만이라면 이 국가 다사다난한 때에 중언부언(重言復言)할 여지도 없이 목살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잘해왔든 못해왔든 천명에 가까운 극단인들이 2천여의 극단을 걸고 13도 방방곡곡이 두루 돌며 연일 수야 적으면 50~100 많으면 1천여의 관중에게 연극을 보이고 있는 이상 그네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다. 만일에 그들이 그릇된 연극을 한다면 국가에 미치는 손실은 실로 클 것이요 그 대신 각자가 충분한 자각과 결의를 가지고 국방태세 하에 있어서 국민극에 불타는 열의를 품고 나선다면 그 이바지하는 공헌도 또한 위대하리라고 본다.

여기에 비로소 극단인들의 분기(奮起)를 보게 된 것이니 조선연극협회의 결성이 그것이요 국민별(別)의 제창(提唱)이 그것이요 1극단 단위의 □극단조직이 그것이며 구체제 □본의 □□ 불량배우의 □리가 곧 그것이며 성적종지 못한 극단의 폐합(廢合)이 또한 여기에 기인하여 장차 결행될 문제이다

이리하여 반도극단에는,

1. 건실한 경영자
2. 건전명량한 각본
3. 자기의 사명을 인식한 극단인이 삼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극단의 신체제 극단인의 재출발국민극의 창조가 싹을 트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다.

종래 극단인의 대다수는 이렇다는 자각이 없이 그저 손님을 잘 올리고 잘 웃기면 입장권이 많이 팔

47) 이서구(李瑞求)의 창씨명.

리거나 인기가 높아지거나 하는 생각만으로 지내왔다 그러므로 그네의 행동함에 있어 좀처럼 높은 예술의 향기나 맵시 있는 문화인의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다

그 중에서 좀 더 양심 있는 극을 세상에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진 극단인도 있기는 있었으나 관객의 보고자하는 수^ㄴ이 ^ㄴ만 큼 그네의 꾀하는 일은 영착불족(營着不足)의 비경(悲境)에 신음케 되어 하나 또 영^ㄴ할일은 얻지 못하고 만 것은 지난날의 극단사가 말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까지의 조선의 극단을 길러준 사람 즉 관객은 대개 도시에서도 유한생계급이었으며 특별손님으로 화류계를 빼놓지 못해 왔던 것이다 그럼으로 극단은 항상 구경꾼들에게 끌려서 움직였는가 싶은 감(感)이 자못 큰바가 있다. 무론 천하태평한 때는 그래도 좋았고 그럼으로써 미치는 악영향도 그리 크게는 생각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요새같이 시국이 급박해지고 국민은 총력을 모아서 나라에 바치는 때 오직 극단인만이 자유주의 향락주의 하에 놓여있어 마음없는 구경꾼들의 노리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위선(爲先) 일어날 문제는 극단인의 재출발과 병행하여 관객에 대한 문제가 놓여있으니 관객 없이는 연극은 존재치 못하느니 만큼 국민극의 난관도 여기 있으리라고 본다.

오늘까지의 관객은 그저 심심파숙(破叔)으로 돈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놀러갈 데가 없으니까 물려드는 노름놀이꾼에게 지나지 않았다. ^ㄴ한말노하면 무위도식하여 시국과는 딴 길을 걷는 구경꾼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극단은 그런 손님을 상대하여 그네가 즐기려는 연극은 보일 수 없이 되었다. 어디서든지 당신네가 즐기려는 연극은 다시는 보일 수가 없소이다 소리가 높아지기에 이른 것이다.

〈출전 : 牧山瑞求, 「今後的 國民劇」, 『매일신보』, 1941년 10월 21일〉

(2) 국어극의 현상

목산서구(牧山瑞求)

‘국어는 국민의 사상, 신화와 일체불리(一體不離)이다. 국어를 떠난 일본문화는 없다. 반도인의 진정한 황국신민화는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전부가 국어를 깨우쳐 국어를 상용하는 것이다. 국어의 보급이 야말로 내선일체의 절대적 요건이다.’

이것은 전 총독인 미나미 각하가 ‘국어’⁴⁸⁾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의 때라고 소리치신 귀한 말씀이나, 이제 다시 국어전해, 국어상용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우리들은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연극에 있어서도 용어의 국어화는 이제 그 방법의 문제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생각 된다.

물론 지도당국의 명령은 4월부터 부(府) 이상의 도시에서 전체 프로그램의 삼분의 일 이상을 국어극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연극문화협회로부터는 지난 1943년 10월에 국어극연구부를 설치하여 가까운 장래에 연극용어의 국어화를 준비하도록 이미 각 극단에 통달하였다.

48) 일본어.

이처럼 연극 관계자들은 적어도 '반도'⁴⁹⁾에 광영있는 징병제도 실시의 발표가 있었던 날로부터 금일이 있음을 생각하여 연극용어의 국어화는 각오해야 할 것임에, 단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야 할 따름이다.

연극은 보여주는 사람과 보는 사람,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러므로 보여주는 쪽의 배우도 보는 쪽의 관객도 모두 국어를 이해하지 않으면 국어극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 있어서는 당분간 국어극은 부 이상의 도시에서만 상연해야 한다고 명령하여 협회는 배우 자질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통감하며 심사회를 여는 것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단 부의 관객은 국어를 이해하는 자들이라고 보아도 차질이 없고, 자격심사에 합격한 배우는 국어극을 연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우선 국어극은 도시에서부터 행복한 발족을 이루고, 국어전해운동에 따라서 서서히 읍, 면, 邑, 面의 방면으로 나아갈 날도 멀지는 않으며, 삼분의 일 이상의 것을 전부 국어로 해도 좋다는 날도 또한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국어극을 상연하는 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상의 제 문제이다. 제일로 생각나는 것은 지난 제2회 연극경연대회를 했을 때 각 극단은 일막물의 국어극을 내놓았다. 게다가 청춘좌는 국어가 사분의 삼을 접하는 <꽃피는 나무>(임선규 작)를 내놓았다. 그 결과 내 기억에 남는 것은 '내지인'⁵⁰⁾의 풍속습관이었다. 반도인이 갑자기 내지인의 흉내를 낸 것으로 그렇게 쉽게 잘 될 일이 아니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들어맞지만, 막상 몸의 동작, 의상의 배합, 특히 예의(禮儀)작법 등 세세한 것에 이르게 되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보고 있을 때는 눈치 채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지인분에게 듣고서 처음으로 아 그렇구나, 라고 눈치 채 적도 있다. 이것은 물론 연출자가 대반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딘가 이것도 가련한 마음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결국 국어극에 의해 묘사하는 내지인의 생활은 내지 출신의 연출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조선에는 내지 출신의 연출가는 한 명 밖에 없다. 그 한 명도 지금은 와병 중, 정말로 초조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이것을 가지고 국어극의 정체라고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은 일본의 일부이며, 이천오백만은 일억 적자(一億赤字)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의 생활 즉 일본인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동인의 성은 아래서 무한의 감격에 젖는 반도에는 반도가 갖고 있는 민속이 있으며, 생활양식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선 국어로 우리들의 생활을 그려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서서히 중앙에 다가서는 것이다. 지금 이미 우리들의 가정이나 직장, 사교장에 가는 곳마다 자연히 국어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연극화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농촌극이라 하더라도 내지인의 기수(技手)가 온다면 국민학교 출신의 젊은 농촌사람은 훌륭하게 국어로 응대를 할 수 있으며, 공장 등은 물론이다. 일단 가정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있으면, 자연

49) 조선.

50) 일본인.

히 국어를 몰랐던 어머니라도 짧은 정도지만 국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운을 모아서 무대에서 연기해낸다면 훌륭한 국어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초기의 국어극은 어려운 것보다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것, 우리들의 신상과 가까운 생활면에서부터 취재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어극을 처음부터 어려운 것으로 혹은 재미없는 것으로 한다면 어딘가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되든가, 조선어극을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아야만 하는 것 등으로 취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극단 지도자들은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관객은 어찌되었든 재미있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것에 기뻐한다. 국어극 만큼은 꼭 이러한 철칙에 부합하도록 희곡의 선택, 상연 시기, 배역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1. 희곡은 재미있고 알기 쉬운 것

1. 상연시간은 반드시 국어극을 먼저 하여 이를 남겨두고 관객이 돌아가지 않게 할 것

1. 배역은 예를 들어 말은 서틀러도 일좌(一座)의 일류를 배치하여 국어극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작품의 문제이다. 조선어 작품조차도 생산부족을 호소하는 지금 하물며 국어극에 있어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부의 극단은 내지의 작품을 조선화하여 상연하고 있지만, 물론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 반도의 연극에는 반도의 극단을 위한 국어극 대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후의 국어극, 반도 극단 성쇠의 운명은 정말로 극작가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작가 제현의 정려(精勵)분투를 빌어 마지않는 바이다.

(필자·동양극장 지배인)

〈출전 : 牧山瑞求, 「國語劇의 現狀」, 『國民文學』 1944년 5월호, 46~48쪽〉

7) 주영섭(朱永涉)

(1) 국민연극의 수립

1

국민예술의 제창은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국가적인 비약을 우선시할 때는 언제나 일어나는 문제이다.

최근 수년 이래 국민문화가 제창한 국민예술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해 왔다.

국민예술이란 국민의식 아래에 전 국민을 위하여 창조된 예술작품의 총칭일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현실과 운명, 이상을 함께하는 하나의 문화형태일 것이다.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실시된 시대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외래문화의 흡수에 정신이 없어 그것을 등한히 했던 시대도 있었다.

대체로 오늘날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앞에 둔 역사적 비약기에 국민예술의 문제가 또다시 논의되며, 검토되고, 탐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국민연극의 문제도 물론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보다도 음악보다도 미술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힘 센 감명을 주는 연극문제가 더 절실하게 문제시되고, 실천을 수반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 얼마간의 국민연극론이 나타나서 몇 개의 무대전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바로 국민연극의 이론과 실천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단견일 것이다. 혹은 국민예술의 근본 이념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전통 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민의식 하에 국민전체를 위하여 생산된 국민의욕을 강조한 국가의 이상을 구가(謳歌)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육체화 시키고 혼을 불어넣어야 할 문학론, 음악론, 연극론에 이르러서는 작품을 함께 만드는 이론 탐구가 오랫동안 진지하게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연극은 개인을 주제로 한 사회관, 사회의 암흑면을 기뻐하여 그리는 산문정신에서 떨어져서, 국민생활에 뿌리박은 진실을 그리고 국민이 나아갈 길을 지정하여 국민의 고귀한 정신을 시(詩)정신으로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연극은 먼저 연극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거기에 국민연극으로서의 이념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연극의 외형을 갖추고 연극으로서의 인격 - 혼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연극은 먼저 관중에게 미적 쾌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눈에는 색깔과 운동을, 귀에는 운율(韻律)과 음악의 쾌감을 주며 마음에는 살아 있는 기쁨과 내일에 사는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일 것이다.

고전연극에서 극은 하나의 제전이었고 기원이기도 했다. 민족의 통곡이었으며 송가(頌歌)였기도 했다. 인간이 연극 본능을 유지하는 한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특히 나라를 통틀어 국민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극장은 하나의 제단이며 국민의 집회장이다.

연극이 또 한번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요소 - 본연의 모습도 가장 중요한 요소(극장성 劇場性)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근대극 이후에 외국극의 영향으로 자라온 무대의 고립화, 희곡의 산문화, 암흑면의 추구 등에서 떠나 운동과 운율과 색채가 풍부한 무대, 시 정신에 가득 찬 희곡, 인간의 고귀한 정신, 국민생활의 바닥에 맥동하는 건설의지를 그린 무대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중은 무대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관중의 기쁨과 슬픔은 국민정신에 커다란 흐름으로 녹아 들어가서 국민전체의 울동이 되어 합창을 얻게 될 것이다.

2

시대는 더 절실하게 집단예술, 종합예술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현대의 하나의 커다란 감정에 결부되어 국민의 이상은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국가의 발걸음은 건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시대는 힘찬 집단예술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대중은 한 곳에 모여, 하나의 사물에 감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집단예술에는 개인예술과 같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그러나 시대와 함께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 왔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사물을 생각하고 무대와 협동하면서 사물을 생각한다.
행동에 의하여 생각은 환기되고, 행동에 의하여 생각은 전개한다.
무대는 먼저 관중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내일への 희망을 품게 하며 국가의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국가의 일 때문에 국민총력이 총동원된 것과 같이 국민예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능의 총동원 요청을 받는다. 특히 연극 같은 종합예술은 각 분야의 우수한 예술가들의 협력이 바람직하다.
바테레우스키는 영화를 위하여 건반 앞에 섰다. 피카소는 연극을 위하여 배경을 그렸다. 영국의 젊은 시인들은 극장을 위하여 시를 썼다.
오늘날이야말로 예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종합예술을 위하여 서야 하는 때이다.
하나의 예술의 고립성, 고고성(孤高性)을 어디까지나 고집하는 것은 하나의 편집에 지나지 않는다.

젊은 시인이여 시극(詩劇)을 쓰라
젊은 작가여 각본을 쓰라
젊은 미술인이여 무대를 그려라
젊은 음악인이여 극장음악을 만들어라
젊은 무용가여 극장무용을 만들어라

동요, 서정시, 산문시에 만족하는 시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호흡이 큰 문화의 선구자 인 시인은 시극을 쓰라. 오늘날의 연극에서 가장 모자라고 있는 것은 시 정신이며 운율이다. 양양하는 정신을 산문으로 쓸 수는 없다. 위대한 민족의 맥동, 국가이념을 산문으로서는 표현하기 어렵다.

현대의 신화를 만들고, 국가이상을 구가하라, 그것은 스스로 운율을 동반하며, 자연과 극장의 시가 될 것이다.

항간을 맴돌고 뒷거리의 추악함을 기록하는데 바쁜 산문작가에게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상상력이 큰 진실한 작가는 연극대본을 쓰라. 지금까지의 많은 작가는 대부분이 읽기 위한 희곡을 써 왔다. 희곡이 만약에 읽기 위한 것이라면, 희곡을 읽기에는 너무나도 읽는데 불편한 형식이다. 희곡은 무대를 전제로 해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각본은 먼저 무대를 통하여 생산되고 표현되며, 문학(희곡)의 형식을 통하여 기록으로서 남는다. 상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상연에 걸맞지 않는 희곡은 모두가 진짜 희곡(극장대본)을 위한 하나의 갈겨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약동하는 무대의 출현은 생동하고 있는 극장대본을 얻어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미술, 음악 혹은 무용의 고립성, 순수성을 고집하는 세상의 미술가, 음악가, 무용가들에게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미술, 음악, 무용부문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 반면에서 나는 새로운 시대의 젊은 미술인, 음악인에게 외쳐본다, 새로운 시대의 커다란

맥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합예술이 가장 잘 맞는 예술이라고. 희랍의 고전극을 알고 있는 예술가들은 반드시 종합예술에 참가할 것이다. 연극도 자기 본래의 연극성(극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관중의 눈에 색깔과 운동, 귀에 운율과 음악의 미적 쾌감을 주는 것이 연극의 연극성이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연극(주로 19세기 유럽극의 영향을 받은 극)은 문학을 통하여 관객의 마음에 어떤 계시와 문제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이상도 없었다. 단지 회색의 배경과 무기력한 개인 생활이 있을 뿐이었다.

예술은 먼저 무엇인가를 주기 전에, 관객에게 느낌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극장의 조용한 공기가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높게 올리면서 맥동함으로써 비로소 극은 생기를 발휘하게 된다.

국민연극은 국민의 눈을 넉넉하게 하고 귀를 풍부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생활에 의의를 찾아내고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국민의 동경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극은 먼저 그 종합성 안에 미술, 음악, 무용의 여러 요소를 또다시 포용해야 할 것이다.

야심 있는 음악가 중에는 오페라를 꿈꾸는 사람도 있다. 야심 있는 무용가 중에는 발레를 꿈꾸는 사람도 있다. 나는 현실문제로서 먼저 연극예술에 참가하고 협동하며 뛰어난 국민연극을 수립하는 것이 오페라나 발레를 낳기 위한 가장 좋은 토대가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다.

예술의 세계에서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종합예술의 지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여 뛰어난 오페라나 발레 같은 것이 태어날 것인가?

3

이상 설명 해 온 것과 같이 국민연극의 길은 멀고 넓으며, 거기에 도달하는 길은 험하다.

뛰어난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였다고 해서 곧바로 뛰어난 국민연극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연극의 역사가 쌓이고 전통이 태어나서 비로소 종합예술의 개화(開花)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극단원의 협동정신, 희생심, 사람과의 화합이 긴요한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국민극장의 건설이야 말로 바람직하다. 극장을 떠나서는 어떠한 연극운동도 무력한 것이다.

국민극장에는 유능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10년, 20년 동안 노력을 계속해서 극장역사를 낳고 극장의 전통을 만들어, 국민연극의 기초를 공고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연극인은 협동해서 극장건설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연극인은 이론과 실천을 통하여 국민연극의 싹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시에는 그것에 맞추기 위해 연극태세의 정비도 필요한 것이다.

국민예술의 이념은 같은 근원에서 출발하나, 그것을 형상화해야 할 형식문제는 각각 달라진다. 그 이념은 오랜 역사와 고귀한 전통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국민의 의무이며 자격일 것이다.

시대의 선구자인 예술가에게 더 절실하게 국민주의적인 세계관이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연극의 경우 국민연극의 이념은 역시 일반적인 국가이념에 공통하는 것이나, 그것의 무대 위의 형상화가 문제 되면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몇 가지 연극의 형식에서 국가이념을 불어넣고 곧바로 그것만으로써, 국민연극의 전부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민연극의 영역에는 대단히 풍부한 형식과 내용과 장래가 약속되어 있다. 오늘날까지 있었던 몇 개의 형식 - 예를 들면 카부키(歌舞伎), 근대극, 야외극, 이동극, 리포트(현지보고)드라마 같은 것도 새로운 내용과 이념에 뒷받침되어 건전하고 명량한 국민연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부터 탐구해야 할 몇 가지 장르의 연극이 존재할 수 있다.

국민연극은 시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취재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생활은 우리들의 가장 비근한 작품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대륙으로부터 남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배경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국사 및 동양사를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지한 연극학도의 앞길은 수많은 곤란과 새롭고 빛나는 발견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큰길은 언제든지 오랫동안의 탐구 뒤에 개척되는 것이다.

〈출전 : 朱永涉, 「國民演劇の樹立」, 『國民文學』 1942년 4월호, 15~20쪽〉

8) 주요한(朱耀翰, 松村絃一)

(1) '싸우는 연극의 모습' - 제2회 경연대회를 보고

송촌굉일(松村絃一)⁵¹⁾

제2회 연극경연대회가 8단체의 참가에 의해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총독상의 수상자가 없었다는 것은 금후에 있어서 싸우는 연극의 방향에 대해 중대한 시사를 남기는 것이다. 나는 이 대회에 심사원의 한 명으로 소인(素人 :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관극을 하고, 심사회에 참가한 것이지만 개인 입장의 감상을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8단체의 공연을 보았는데 특히 11, 12월 사이에 6단체나 보았기 때문에 전부를 완전하게 관람한다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진 심사원으로서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11월에는 학도지원병과 익찬회의 사무 때문에, 그리고 12월초에는 신경(新京)으로 가는 여행 때문에 고협, 현대극장, 황금좌의 3단체를 제외시켰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단체가 공

51) 주요한(朱耀翰)의 창씨명.

연한 국어극은 언제나 오후 6시 이전에 개막했기 때문에 대부분 놓쳐버린 듯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국어극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원 중 내지 측의 여럿과 또한 참여한 여러 곳에서 다수의 내지 인이 보고 평가할 예정이므로 나로서는 오히려 사양하는 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선어극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심사원 명부를 보았을 때 조선 출신의 심사원의 수가 네 명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연극이 말에 의한 예술인 이상 연기하는 말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원작의 번역문을 읽고 무대를 바라볼 때, 자막 붙은 외국 발성영화정도의 감상은 가능하겠지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어처구니없는 비판을 내릴 위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되도록이면 전 극단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8단체 안에서 3단체를 놓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심사회 석상에서 심사원의 평점이 높았던 단체가 청춘좌와 아랑, 예원좌의 3단체라고 들었을 때 이 3단체를 관람한 나로서는 실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관람하지 못한 다른 단체, 즉 현대, 고협, 황금좌의 3단체 중에 빠진 단체가 없다고 한다면 남은 5단체 중에서 전기의 청춘좌, 아랑, 예원좌를 추천하는 것에 이의가 없고 이 3단체 중에도 안심하고 아랑을 추천하려고 생각했다.

아랑의 〈물새〉는 나의 아마추어적 눈으로 보아 원작, 연출, 연기, 장치, 모두가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원작에 대해 말하자면 불필요한 것 없이 세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대사가 다른 여러 작의 다소 부드럽지 못한 서재적(書齋的)인 회화와 비교해 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황철(黃轍), 박영신(朴永信), 문정복(文貞福) 3인이 빛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2, 3 배우의 진지한 연기로 무리 없는 전체성은 다른 단체가 한명의 우수한 연기자에게 미숙하게 많은 점을 혼합시킨 것에 비해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장치에 있어서는 4막을 하나의 구성으로 밀고나간 점, 게다가 그물과 돛과 새소리와 선창과 선창에 비치는 물그림자 등을 이용하여 상징적 의도를 잘 밀고나간 점 등은 다른 것과 비교해도 확실하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랑의 예술성에 대해 그 이념적 추진성의 박약이 지적되어 나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영신, 문정복이 창출한 예술은 기술로써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 그 전체로서 싸우는 연극이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부정할 방법이 없다. 정말 해군지원병이 안에 들어가 몰래 배격하는 장면이 들어 있지만 슬프다고 할까 그야말로 들어있을 뿐 제대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급생활의 편린이나 어머니의 돈을 차남이 가지고 도망하는 것 등 통속극의 유물과 같은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의 연극지도자가 지향하는 바의 강한 국가 목적에의 봉사라는 의도가 심분 명확하게 현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서도 심분 소화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갖다 붙여놓은 듯한 어색함은 어떠한 원작에도, 어떤 연출에서도 보인다. 연극이 정말 싸우고 있는 국민의 목탁으로써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원작자도, 연출자도 비약적 전진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금회 경연의 결론이다. 총독상이 보류된 것도 이러한 결론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춘좌의 〈꽃피는 나무〉가 문제가 된다. 내선 문제의 생생함에 진정면으로 부딪쳐 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연기의 익숙함이나 서투름이 두 번째밖에 안 돼

이 연극에 총독상을 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애석하게도 이 연극은 그밖에도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전처와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불쾌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점이 중대한 결점이다. 이것은 중론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원작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극 전체의 이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론도 한편으로 성립하지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 연극의 근본적 결함은 1막을 주로 조선어, 2막 이하를 ‘국어’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중이 없는 연극은 성립하지 않는다. 작자는 관중을 상대로 연극을 쓰는 것이 아닐까. 국어와 조선어의 양자를 함께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흥미를 가지고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연극이 조선의 소수 지식층을 관중으로 삼는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일반을 위한 국민극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하는 것으로는 원작자가 결심해서 연극의 4분의 3까지를 국어로 쓰고 또 극단이 용감하게도 국어 연출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만하지만, 나는 냉정한 입장에서 이 평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경연대회가 특별히 일막물의 국어극을 연기하는 것을 지령하고 이것에 대해 별도의 단체상과 개인 연기상을 준다는 것은 이번 경연의 다른 부분(즉 주요한 부분)이 조선어로 연출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이 대회에 근본 주지에 대해서 <꽃피는 나무>는 커다란 잘못을 밟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것에 대해 단연코 대부분을 국어로 쓰고 국어로 연기했다는 것으로 이 극단을 칭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금후 국어의 보급, 상용, 순화의 문제에 관계해서 많은 국어극을 장려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찬성하는 바이다. 제3회의 경연대회는 적어도 주요 부분을 국어극으로 해야 할 것이며 한층 더 결심해서 국어극을 한 점이라도 늘리는 것도 좋다. 단지 이번 회의 청춘좌의 앞지른 공명은 취하지 않는 것이다.

국어로써 그만의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점은 경탄할 만하다. 특히 강노석(姜魯石), 최영선(崔榮善) 등의 말, 연기 등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같은 단체의 다른 연기자의 국어 발음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의 여지가 있다. 다른 단체의 연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고 특히 탁음과 요음(拗音)의 발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극의 기술적 방면에서 볼 때 <물새>는 단연 뛰어나지만 싸우는 연극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꽃피는 나무>는 내선 문제를 취급하고 상당한 깊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살 수 있지만 연기가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작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에서 결국 단체상이 어느 쪽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추측한다. 따라서 금후의 싸우는 연극이 나가야 할 길은 이러한 심사회의 의지를 명심하고 또한 국민연극의 본도를 깊이 헤아리는 데 있다. 단체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금후의 정진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불필요할 것이다. 제3회 경연이야말로 진정 우수한 이념과 연기를 갖춘 극의 출현이 기대된다.

제2회 경연의 성과 중 사견을 말하자면 원작에서 송영(宋影 <역사>), 박영호(朴英鎬 <물새>) 양씨가 도달한 표현과 박영신(물새의 모), 문정복(물새의 매)의 화려한 연기는 조선 극운동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두드러진 여배우가 없던 것에 안타까워하던 우리들로서는 이후 두 명의 훌륭한 연기에 의해 새로운 표준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신곡제(新穀祭)>(성군(星群))의 장치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비판 또한 금후의 장치에 시사를 주는 것이리라. 그 입체적 장치 또는 화려한 연출은 하나의 시험으로서 재미있다고

는 생각하지만, 웬지 모르게 기(奇)를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사에 들려고 산을 깎아낸 것 같기도 보였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소박한 자신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새>와 <역사>의 장치는 주목할 만하다. 고희의 국어극 <한구(寒驅)>는 평판이 좋았던 듯했지만 도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결전하에 있는 연극은 사상전의 중요한 무기임과 동시에 생산전의 보조용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어극의 상대적 가치는 높이 사야만 할 것이다. 문학예술이 국어로 돌진하고, 금일 연극의 국어화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반면 조선어극의 계몽적 역할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7할 이상인 조선에 있어서 연극의 감화는 크나큰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과는 정반대로 연극이 대중과 타협하는 경향에 대항하여 동양예술이 가장 순화되는 방향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며 지도 추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작자도, 연출자도, 연기자도, 또한 소수의 관객도 양심적으로 만족하는 연극을 갖는다는 것이 연극의 진보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락)

〈출전 : 松村紘一, 『戰ふ演劇の姿』-第二回 競演大會を觀る, 『新時代』 1944년 3월호, 56~59, 109쪽〉

9) 함대훈(咸大勳)

(1) 국민연극의 현단계

“국민이란 것이 무엇이나?”

이 한 말을 먼저 정의해 놓고 국민연극이 무엇이고 국민연극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논란하는 것은 어떨까?

먼저 이렇게 서두를 잡고 내가 이야기 하려는 국민연극에 대한 논을 해 보기로 하자.

국민이란 개념은 저 파리에서 객사한 오토·바우엘이 말한 것 같이 ‘운명협동체’라고 정의를 내리우고 나서 거기 설명을 가해서 운명의 협동이란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동일운명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각인 상호간의 불단(不斷) 교통과 계속적 교호작용 가운데 행하여지는 협동적 체험이라”고 다시 말하고 다시 이 견지에서 “운명의 동일성이 아니요 동일운명의 공동적 체험과 수고 즉 운명의 협동만이 국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국민이란 것이 그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 아래 각인이 자유로이 집산이합하는 소위 목적단체가 아니요 비합리적인 것을 기저로 하여 각인의 이성과 의지를 초월하여 운명적으로 결합된 단체인 것과 일정불변하는 주형이 아니요 동일운명의 공동체험에 의해서 각기 역사적 지반 위에서 부단히 재생산되고 따라 발전도 하고 퇴화도 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사변⁵²⁾이란 거대한 역사적 사변 이래 우리는 몇 번이나 이 사변이 장기화, 심각화하게

된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이 중대성을 가진 운명의 시련 앞에 서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 심각한 공동체함에 의해서 국민의 각자는 그 심리 속에 국가적인 굳센 각성을 감득하는 것도 또한 확실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민한 감각과 총명한 지성을 특질로 하는 지식계급은 이 성질 때문에 국민중의 여하한 계층보다도 우월하게 신속히 그 또한 명확하게 이 외면적, 내면적 운동의 의미를 감득파악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부담도 또한 자기의 지성과 총성과의 조정공작을 단념할 수 없는 지식계급의 적극화가 운명적인 것이 진동에 자연적으로 몸을 맞게 두는 대중과 비교해서 시간적으로 늦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러나 일방에 있어서 현대의 전쟁은 전체전 총력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대의 무기전쟁 만에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의 전부면이 더구나 정치, 경제, 사상, 문화의 제부면이 그 수행 때문에 동원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변의 심각화와 장기화가 사상 및 문화에 대한 동원의 범위와 심도는 일단 이 가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에 있어서 시국의 약진이 지성의 협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점차로 확대되어 정치의 담당자는 이런 시국의 요구에 감해서 지적 동원의 각긴(喫緊)을 통감하고서 거기 대응하여 지식계급 자신도 또 시국인식과 대시국 행동에 동원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는 지식계급의 일원으로서 지난 3월 16일 부민관 소강당에서 극단 현대극장을 조직하게 되었고 나아가 국민연극의 봉화를 들게 된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극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국민연극운동을 현재 조선에서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

이에 답하기 전에 나는 먼저 인생생활과 연극은 어떤 관계를 갖었고 연극이 생에게 끼치는 바 힘은 얼마나 한 것인가를 말하련다.

연극이란 것은 결국 인생생활에 특한 예술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의 연극사를 살펴봐도 한 나라의 연극문화가 현란한 꽃을 피웠을 때 그 나라의 국운도 융성한 때이었다. 이와 반대로 국민생활이 위축된 시대는 또한 연극문화도 황금시대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희랍비극전성시대나 지나의 원곡시대나 서반아희곡의 전성시대나 영국의 쉘스피어 시대나 불란서의 모리에르 시대나 내지의 가무기(歌舞伎)와 정류리(淨瑠璃) 등 민중극 발흥시대나 또한 제1차 구주대전 이후의 아미리가 극단이나 또한 금일의 싸베-트연방이나 독일이나 이태리 등의 국민연극을 보드래도 이는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니 일국의 흥망성쇠의 양면엔 반드시 국민의 연극사정과 분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드래도 이 연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직접 인민 대중과 깊은 인연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연극(演劇)이란 원래 인간생활의 가장 본원적인데서 생기는 것이오 또 연극의 원류는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니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봐도 이는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적나라한 그대로를 내놓으려는 사람보담도 무엇을 어떻게 화장하고, 가장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인생은 어느 때나 그 태(態)를 변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변태본능 내지 연극본능의 소산인 것이나 이것이야 말로 목석이 아닌 인간의 참된 나체인 것이다.

52) 중일전쟁.

세계는 모두 연극이다(Toutus Mundus Agit Historionem). 이런 로마(羅馬)의 격언은 런던지구좌(論敦地球座)에 새겨진 것이어니와 인간세계는 모두 무대요, 모든 남녀는 모두가 배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청의 강희제(康熙帝)도 일월등 강해유, 풍뢰고판, 원부지일 요순단, 문무말, 주망정축, 고금래허 대희장, 다각색(日月燈 江海油, 風賴鼓板, 原夫地一 堯舜旦, 文武末, 走莽淨丑, 古今來許 大戲場, 多角色)이란 연구를 썼거니와 이는 또한 천지간이 일대극장으로서 요순문무 이하의 역사상 대인적이다. 다 각기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는 뜻으로 이것만 보드래도 고금동서의 모든 이치가 다 이 연극이란 속에 되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번뇌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결국 이것은 인간본능의 속성을 채이지 못하는 때문이니 이 숙명적인 연극에서 인간은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번뇌에서 해탈하려는 길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종교의 힘에 의한 금욕이요, 그 다른 하나는 인간본능을 자유로이 발산하는 것이다. 즉 이 인간 본능의 욕구를 분방하게 자기 생각대로 해방하여 중심의 울화를 없애려는 즉 예술의 세계 더구나 연극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자유무한한 천지에서 소요케 하는 것이다. 그러기 이 연극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웃고 울고 노하고 무서워하고 쟁투하고 속이고 연애도 하고 제왕도 되고 군신도 되고 효도하고 충도 하고 역적도 되고 먹고 마시고 쓰고 이렇게 본능적인 일 말하자면 이 불도덕 불품행한 일도 공공연히 공개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것이 도학자류(道學者流)의 인간들로부터 혹은 천시도 되고 부랑당의 소굴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본능의 해방소인 극장은 결국 인간의 본능을 해방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단련하고 인간의 문화를 향상케 하는 도장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연극본능이란 것이 대단히 열렬한 것이니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거역(去擊)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연극을 연하는 배우가 무대 위에 생명을 바치려는 열정이나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드는 정열이 굉장한 것은 결국 거기서 인간의 본능적인 생명력이 풍부히 종합조화(綜合調和)되고 훈련강화(訓練強化)되어 찬미파취(讚美破吹)되는 까닭이다. 극장은 자못 연극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변태본능, 인생의 실상인 모순독립에 대한 인간의 쟁투본능(爭鬪本能), 아름답고도 추한 성애본능(性愛本能), 집단사교본능(集團社交本能), 희노애락의 감정의 해방류로(解放流露) 등 인간의 모든 번뇌가 극장에서는 일시 긍정되는 것이다. 거기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문화적 생활력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고대의 희랍극에서는 이 연극이란 것이 일종의 축제였다. 2만 내지 5만의 많은 민중이 한데 모여서 퇴발형(擗鉢形)으로 된 반원극장 속에서 행하여지는 연극을 배우와 관중이 다 같이 신성한 정서 속에 도취되었었다. 말하자면 연극의 주인공과 부인물 이외에 합창무대이란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직접민중을 대신하여 연기의 진행 중에 영탄하고 비평하고 때때로 민중에 향해서 이야기의 즐거리를 말하고 거기 대한 감상을 이야기도 했다.

그러기에 희랍극은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같이 보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예를 들면 쉐스피어극이 되면 '같이 보는' 연극에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연극으로 전향을 했다. 물론 원시적인 에리자베스 시대의 무대에서는 무대와 객석과의 구별이 명백하지 않고 관객의 일부는 배우와 같이 무대 위에서 보고 있든 말하자면 '최신식'이었던 것이나, 연극의 내용은

벌써 시인의 독창이었고 민중의 공유물은 아니었다.

근세 이후의 연극은 배우가 '액연(額緣)'으로 테를 둘는 무대의 좁은 상자 속에 들어가 무대와 객석과의 최후의 테도 떼어가지고 이 좁은 상자 속에서 연출되는 배우를 민중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여다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여다보는' 연극이 되었으니 이는 결국 개인주의가 발달된 근대사회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형식이 입센과 스트린드베르히의 근대극의 창시어니와 이 근대극이란 형식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달라졌으니 이는 민중이란 것을 위해서 희곡을 썼고 또 민중 그 속에서 제재를 취했다. 즉 민중생활을 그 제재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일은 무한히 있었고 융통자재하게 되었고 민중생활의 이즘은 그대로 희곡의 이즘이 되어 평속하면서도 힘찬,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절조를 탄조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극은 무엇이나 국민연극이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국민연극이란

1. 근대극에서 일보를 진하여 국가이념을 굳세게 무대에 표현할 것
2. 근대극의 민중이란 너무나 막연한 대중을 여기서는 국민정신을 참으로 이해하는 민중으로 고쳐야 할 것
3. 후의 민중 속에서 구하되 총후의 민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4. 구체제와 신체제에 대한 변모를 명확히 할 것
5. 개인보다 공익우선이란 것을 이해할 것

이런 조목의 관념을 연극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예술적으로 조화되고 정비되어 구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극장이란 오늘날 새로이 만든 것은 물론 아니다. 고대희랍의 '스포크레스'나 '유리피케스'는 희랍인의 국민극이 있고 쉐스피어는 또한 영국의 훌륭한 국민연극이었다. 모리에르의 극이 불란서인의 국민연극인 것은 다시 내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극(劇) 국민연극이란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니 우리가 오늘날 국민연극이라는 것은 과거의 국민연극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정신을 연극 속에 넣어가자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첫째로 국민연극은 건전한 국민정신 또는 국민도덕이 정당화하게 된 연극이어야 할 것이다. 어떤 연극이든 '모랄'이라는 것이 있으나 금일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도덕이란 것은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한 전체주의의 국민도덕인 것이다. 즉 국민전체를 한 개의 국민정신으로 결합하는 연극이다.

둘째로 우리는 예술지상주의 연극이 아니오 국민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목적달성이란 정신만이 무슨 표어나 포스타 처럼 드러내놓고 예술 속에 용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연극이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첫째 연극은 연극으로서 고도의 연극이 구성이 되고 여기 국가정신이 용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극단 현대극장은 어떻게 국민연극을 공연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이미 매일신보(3월 30일 부 조판부터)에 연 3회에 공하여 논술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거니와 첫

째 이 '극장'은 연극문화인들의 집단으로서 연극의 국민화를 그 첫 목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연극이 연극으로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 관중이 우리의 연극 속에 도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거기서 첫째 문제되는 것이 희곡이니 이 희곡은 이미 현실적인 만주를 무대로 한 조선인의 금후 진로를 보여준 것이며 또 조선인의 국가를 위한 충을 다한 인물을 골라 사극으로도 꾸밀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으니 이 개화의 날을 기다려 우리의 성과는 나타날 것이어나와 또한 현대극장은 기획위원회와 국민연극연구소와의 긴밀한 연락으로서 국민연극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동시에 희곡생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나 연기, 무대, 장식 등에 있어서는 재래의 우수한 능력을 더욱 연마 발전시켜 국민연극 확립에 있어서 그 내용의 변화에서 오는 형식미를 더욱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한 가지는 국민연극을 상연할 극장문제이다. 연극이 연극다운 형태를 갖추려면 연극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상연하는 극장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극장은 그 연극의 분위기를 잘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니 국민연극을 상연할 전문극장의 필요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부민관 하나에서 지금 별별 종류의 것이 다 등장을 하는 형편이니 여기서 연극만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양성할 수도 없고 씨즌적으로 연극을 장기 공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모 좌람회에서 역설한 바 있지만 현재의 일류 영화관 중의 그 하나를 국민극을 상연할 국민극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영화가 오늘날 관중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으나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공익우선, 국가목적 달성이 커다란 목표이니만치 이 영화관 하나를 국민극장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은 그리 난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화관 하나를 국민극장으로 변모한다면 그 관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되는데 이는 1일 4회의 상영으로서 넉넉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오전중의 관람이 자속에 벗어난다는 의미로 오전 중의 상영을 금지한 오늘 이를 부활 내지 일중 강화한다는 것이 부당한듯하다 그러나 결국 정오부터의 관람자는 무직자 혹은 가정부인 혹은 지방에서 온 자 공휴일에 노는 자 등 일 것이니만큼 오히려 오전부터 상영하는 것이 일반에게는 더한 편리할 것이라고 보면 1일 4회의 상영은 결코 시선에 부적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연극운동과 함께 극장획득문제가 당면한 중요 과제의 하나인 것이다.

〈출전 : 咸大勳, 「國民演劇의 現段階」, 『朝光』 제67호, 1941년 5월, 74~79쪽〉

(2) 국민연극의 방향

지난 3월 16일 국민연극을 수립할 목표 밑에 '현대극장'의 결성을 보게 되고 따라 부설기관 '국민연극연구소'의 설치를 결단하게 되었다.

국민연극의 기치를 내걸고 우리가 연극행동에 다시 나가려 할 때 생각되는 것은 10년 전 1931년 7월 8일의 그 날이었다. 이 날은 열정에 타는 극문학도들이 폐허와 같은 조선연극계에 새로운 봉화를 들고 극문학을 수립해 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의 연극사는 실로 여기서 재출발하게 되었으니만큼 토월회(土月會)의 뜻은 있어도 생명이 길지 못해 실로 못한 현상을 극예술연구회의 손으로 재출

발시켰던 때문도 있는 것이다.

구주(歐洲)의 근대극운동이 발전하여 신극이 생기고 이것이 세계 각국의 극단을 통미시키다가 이 신극이 조선에 새로 도입된 것은 토월회 동인들의 노력이었으나 20여 회의 공연도 연극사를 빛나게 꾸민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한 1931년 경인 극계에 신극은 그 형체도 없었다. 극 다운 극은 없고 극은 문자 그대로 저속한 관중의 촉매와 상업주의 그대로였다.

나는 지금 국민연극론을 쓰면서 왜 이 지나간 일을 새삼스러이 여기 기록하느냐 하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과거를 추억하고 동시에 이를 비판하므로 출발에 건전성,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때문이다.

조선의 신극운동은 다른 나라 그것과 같이 상업주의와 비속한 취미에 영합하려는 무대예술에 통봉(痛棒)을 내리우고 우선 연극문화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에는 연극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극운동은 하나의 연극혁신운동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조선의 신극운동은 □□□연극 유산이 있는 극계에 새로운 연극 극다운 극을 건설해 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극예술연구회는 연극이란 것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래의 창작희곡이 너무나 빈약함을 통탄한 나머지 비록 우리의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머나 내용과 형식이 연극다워야 할 것이란 의도 밑에서 고골리의 희극 「검열관」을 상연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조선극장무대에서 상연했거니와 이 연극을 사실 그 무대장치나 연기나 그 희곡이 높여준 수준과 병행은 못되었더라도 회자층에 상당한 인기를 박(博)하게 되었다.

제1회 공연이 성공리에 끝났으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대 실천에도 더욱 노력했지만 연극강습회와 강연회 등으로 우리의 연극열을 세상에 고취하는 동시에 연극인의 교양에 힘썼다.

그러나 흥행극계는 여전히 저속일로를 걸어 막간 여흥이란 것은 참아볼 수 없는 추태를 그대로 연출하고 있었다. 물론 연극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연극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화향상시키고 저 극평을 쓰기로 했으니 이리하여 동인들이 관극(觀劇)을 한 후엔 일당(一堂)에 모여서 제각기 합평을 한 뒤는 그 어느 누구던 그것을 총괄하여 1회씩 집필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권위있는 비평으로 물의도 분분하였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공연은 점차로 수준이 높아갔다. 동시 흥행극계도 점차 정화되고 진보되었다. 희곡 하나 없이 연극을 하던 그들이 각본도 만들고 연습도 하고 제법 연극의 형태를 갖추어갔으나 그러나 연극은 여전히 저속한 취미에서 이탈하지 못했다.

연극 10년간 20여회의 공연을 하는 동안 우리는 거의 번역극을 상연했지만 여기서 영양을 섭취해 유치진(柳致眞) 군 같은 훌륭한 극작가를 위시해서 김진수(金鎭壽), 함세덕(咸世德), 김영수(金永壽), 이광래(李光來), 이석훈(李石薰), 이무영(李無影), 한상직(韓相稷) 등의 극작가를 배출시켰다.

유치진 군은 극작과 연출 두 곳에 다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으니와 조선의 연극은 이제 바야흐로 번역극에서 이제 창작극으로 전환한 시기에 이르른 때 극연좌(극예술연구회 후신)의 해산과 아울러 연극행동은 중단이 되었다. 사실 극예술연구회가 번역극을 상연한 것은 첫째 희극난의 타개책이었다. 조선에 우수한 희곡이 없기 때문에 영양을 동서고금의 세계연극에서 섭취하자는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내용과 형식을 배워 우리의 창작진의 수준을 높이려던 것이었다. 이러한 공이 있어 극작가도 상당히 나오게

되었다. 이제 극작가들이 노력만 한다면 창작극으로 조선의 생활을 그린 좋은 연극을 보게끔 되었다. 이런 이때 연극 운동을 할 극연이 침묵을 지키게 됐다. 해산을 했다. 이 해산 이유는 자체 내의 부득이한 사정과 객관적 정세의 여파도 있는 것이지만 이랬던 신극운동은 이것으로서 1938년 그 종막을 단치 극계는 끝없는 적막이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고희극단이 소위 흥행극에서 중간극으로 기치를 내걸고 신극과 흥행극의 중간을 걷는다고 하더니 다시 신극의 방향으로 간다고는 했으나 그 싹은 보이면서 개화는 못하고 있고 기타 극단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는 졌으나 연극사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비속한 세계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방 연극은 수준 높은 창작극의 요망이 날로 높아갔다. 또 극작가들은 이 요망에 답하려고 희곡생산에 머리를 싸매고 좋은 창작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연극행동이 실천되지 못했다. 이것은 연극단체가 없는 때문이었다. 이때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생겼다. 문화단체는 그 행동한 바를 모르고 혹은 소극적으로 은퇴하려 했다. 4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조선의 문화 각 방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신체제에 참여했다. 국민정신총연맹에서 국민총력연맹으로 고쳐치는 신체제에 문화인은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했다. 여기 문화인의 또한 연극인들이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 '현대극장'은 여기서 국가이념을 무대를 통해 실천화하려 했다. 이리하여 국민연극운동에 첫 봉화를 들게 된 것이다.

첫째 국민연극은 외국의 번역극에서 조선창작극으로 전황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이런 준비는 이미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극운동이 이렇게 쉽게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국민연극의 출발에 있어서 거둬거둬 연구와 실천에 자중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다.

국민연극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성일보에 1차 매일신보에 수차, 기타 잡지에 1, 2차 쓴바 있으므로 여기 장황히 또 중복을 피하려 하지만은 어쨌든 국민연극운동은 국가이념을 무대를 통해서 예술의 힘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것이나 그러나 이 국민연극에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일본국민으로도 내지와 조선은 그 특수성이 다를 것이다. 원칙적인 국가목적달성을 위한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하는 그 근본개념은 같을지나 그 목표를 가는 과정이 다른 만큼 연극은 조선적인 특수성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면 그것은 첫째 제재요 언어일 것이다. 현재 조선에 아직도 '국어'⁵³⁾를 이해하는 자가 적고 또 무대에 오르는 연극인이 말은 해도 아름다운 국어를 할 수 없으므로 해서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조선어야 할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재에 있어서도 조선에서의 총력운동이 내지의 대정익찬회 운동과 그 원칙인 근본개념은 같을지라도 그 특수적인 부문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 만치 이 연극 부문에 있어서는 더욱 그 정조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많은 거리가 있을 줄로 믿는다.

내지에 술병제도(術兵制度)가 있으나 여기는 지원병제도(志願兵制度)이라 전장에 나아가는 것도 그 형식이 다른 것이요 총후의 활동에 있어서도 그 제재를 취하는 것이 다를 것이 많으니 사실, 동아공영권 건설에서 취재를 하거나 만주의 이민 간 조선인문제를 취급하거나 어쨌든 제재의 특수성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적인 그 습관, 풍속, 언어 등에서 오는 제재의 차이요, 결코 무슨 차별적인 의미는 아니다.

53) 일본어.

그런데 이것은 현대에서 그 제재를 취하는데 대한 것이어니와 역사상에서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또한 여기는 조선적인 특수성이 내지의 국민연극의 소재와 상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역사상의 인물을 취급해서 거기 개척정신이나 영웅적인 행동 등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 직접관중에게 이 동아공영권 확립에 직접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은 못 준다 해도 이 영웅적인 역사상 인물의 행동으로서 넉넉히 조선인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쇠약하지 않았으니 옛사람의 피를 본받아 우리도 영웅적인 개척적인 정신으로의 이 동아를 한 일선(一線)안에 들도록 하자는 그런 영웅심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극에 있어서 역사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극에서는 역사적인 행동, 개척정신 등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일본의 동아공영권 확립이란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관중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상의 낭만성, 다시 말하면 그 한번 세운 뜻을 이루려는 그런 영웅적인 낭만성, 이것을 길러준 사극이야말로 국민연극의 한 가지 중대한 과정이니 이 역사극에 대한 금후(今後) 우리의 갈 방향은 또한 연구할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더구나 내선교류관계의 역사를 극으로 만든다는 것도 여기서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니 이미 함세덕군이 발표한 백제의 사실(史實)을 엮은 「낙화암」에도 이런 내선교류의 관계가 짜있으니만큼 이것을 좀 더 개작한다면 훌륭히 국민연극으로서의 좋은 연극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연극의 기치를 내건 아직 일천할 만큼 금후에 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결국 그 제재를 현대에서나 역사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 구하든 국가이념을 잊지 않는 동시에 예술로서 연극이 잘 되어진다면 우리의 연극실천엔 더한 바랄 것이 없는 것임은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민중이여! 우리를 끌어 지지할지어다. 이리하여 국민연극의 개화를 쌍수를 들어 맞아달라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치노라

4월 4일 야반(夜半)

봄밤의 정조가 새록새록 새 생명을 잇트게 하는 청운장(淸雲莊)에서

〈출전 : 咸大勳 「國民演劇의 方向」, 『春秋』 제2권 5호, 1941년 6월 232~235쪽〉

3. '음악보국' · '화필보국' 선전

1) 싸우는 반도문화 소식 - 무용, 음악

무용

반도에서 무용의 빈곤은 서술할 것도 없다. 다만 조택원의 선천전인 미모가 오직 반도에서 양무(洋舞)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만한 시사해주는 듯한 신작이 나오지도 않았다. 조는 정직

하면서 열심히 조택원무용단의 춘향전 등은 그 해석에 있어서 유연하고 종래 춘향전의 근저에 흐르는 정숙한 여인의 길이, 조금도 운율적 세계관 위에서 잘려지지 않았고, 편곡 등에서도 무척 신선함은 없었다. 의상은 연극적인 색채를 띠었는데 조명의 저열함 때문인지 그 색채의 울동은 무척 부자연스러웠다. 다만 마지막 장면에 진수방의 춘향과 조택원과의 춤만이 인상에 남을 정도이다.

최승희는 오랫동안 예술무용공연으로 선배들 신인 조용자 무용 발표회를 열었던 것은 그 성과는 어땠는지 하나의 수확임에 틀림없다.

나는 그녀가 걸어 온 길을 모르지만 타고난 체격은 새로운 반도의 무용계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곡목의 지원, 의상에 대한 해석과 근본적인 안무의 미숙함이 처음 발표회로서는 관객 동원이 뛰어난 기획에 비해 두드러지지 못한 감.

오직 제봉체조무용, 동양의 기도에서 아름다운 무용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조용자 자신이 반도인으로 반도인 자신의 생활 전통을 봄에 익숙하지 않은 듯한 슬픈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녀의 이후의 분기를 기대함이 크다.

음악

반도 악단에서 활발한 활약을 거듭해온 후생악단이 지난 번 일만(日滿)음악교류를 목적으로 그 단체의 이유성, 김생려 등 신예 제군이 용약 신경을 향해 출발했다. 언제라도 그들의 열렬한 노력에는 경의를 표한다. 그들의 공백은 현재명씨가 인수해 새로운 후생악단의 전통을 유지할 것이라 한다.

여류시인을 주제로 한 김명수가 조선희망음악연구소를 만들어 4월 3일 진부천황제를 예정하고 백의용사유가족위안회를 개최했다. 취지는 물론 가상하지만 묵묵하게 충후를 지키는 유가족에게 어떠한 희망의 노래를 보낸다는 것인가? 잡지 『여류시인』과 같은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변함없이 악극은 진부하고 라미라, 반도악극단 등의 저조함은 어떻게 예능결전비상조치에 적응시킬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분기해야 할 것이다.

윤기선군의 피아노 독주회가 있었는데, 그 공부는 부족한 감. 곡목에 대한 태도도 한편 탈피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전 : 『戰ふ半島文化消息- 音樂』, 『文化朝鮮』 1944년 12월호, 43쪽〉

2) 계정식(桂貞植)

(1) 신동아음악의 건설, 대동양적 이상을 표현하여

동아신질서 건설의 날로 진행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신동아건설의 기초가 견고하여 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바이다. 서양의 세계는 서양인이 지배하고 동양의 세계는 동양인이 지배해야 할 것은 당연

한 일이다. 음악예술 방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초 위에서 신동아의 창조력이 점점 나올 시기가 왔다고 느껴진다. 신음악을 건설함에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감정, 새로운 논리적 견지에서 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난 과거에 모든 것을 매진하여 일편으로는 정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일편으로는 신동아건설에 어떤 것이 참고가 되겠으며 어떤 음이 실천적으로 응용되려는가 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로부터 중국 음악은 우리 극동국에 기초가 되어서 이론 및 실제 음악의 대다수가 지나에서 건너온 것만은 누구나 조선음악에 관심한 분은 잘 알 것이다.

지나의 악기와 이론은 우리가 받아들이었지만은 음악 자체에 있어서는 천 여 년 동안 우리 감정에 소홀하여 흘러나온 까닭에 결국 조선음악이 되었고 내지음악은 그곳 정서의 산물이 됨에 틀림없다. 동일한 음악이론 및 음악관을 가지고도 각각 그 감정 표출에 있어서는 상이한 점을 곡의 선법과 연주 자체로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들이 역시 각각 다른 것을 느끼는 바이다.

(중략)

이런 의미에서 신동아건설이 날로 가까워 오고 교통이 번잡하여지고 문화적 교섭이 전보다 가속도로 진행되는 이때에 불원간에 신동아정신을 발휘하는 음악이 나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감지하고 있을 줄로 생각한다. 이 음악이야말로 내지인이나 반도인이나 중국민족에게가 구별 없이 느껴질 음악이라야 할 것이다.

구주의 음악에 있어서는 독일 사람이 이태리 음악을 아무 큰 노력 없이 고심하고 느끼는 것과 같이 신동아음악에 있어서도 동양인으로 누구나 대동아의 음악을 음미할 수 있게 되는 음악예술이 장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음악예술이라 생각한다. 이 신음악이 출현하려면 순 동양음악 이론만으로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 서양 각국의 음악을 연구하는 동시에 동양음악 즉 인도음악, 페르시아 음악, 아라비아 음악, 남양제도의 제국의 고유한 음악을 참고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음악학으로 유명한 에리히 폰 호른보스텔씨는 우리 연구에 한 암시를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양인으로 서양인이 동양에 나와서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로 배척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겠다. 가급적 다방면에 유의하여 많이 배워가지고 새것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상에 있다. 그럼으로 맹목적 배타주의가 아니고 지적 지배하에 모든 것을 처리함이 가장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동아음악으로 세계 수준에 올려놓으려면 체코의 대표적 작가인 안톤 드보르작과 같은 유명한 음악가가 나와야 하겠다. 이 작가의 모든 작품 중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독특한 선율 및 절주가 나오지 않는 곳이 별로 없다. 여기에는 범위 좁게 자기의 지방색채에만 한하지 않고 전 슬라브 민족의 음악을 대표하여 자기 작품으로 전 세계에 소개한 것이다. 1878년에 드보르작은 네 손을 위한 피아노곡 즉 슬라브 무곡으로 슬라브 민족의 큰 이상적 건설을 암시하였다. 금일에 와서도 슬라브 민족의 기질 및 정신의 대표작임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작가가 조선에서 갈망되며 또 이 시기가 요구하고 있다. 즉 신동아를 건설하고 있는 동양민족의 독특한 선율과 절주를 동양의 정신으로 짜내려고 빚어낸 작품을 우리는 요구하며 또는 우리 자체에 느끼고 있다. 물론 동양적이라고 해서 동양악기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서양음악이론 기초 위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적으로 된 서양음악을 사용하되 동양의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기 위하여서는 동양악기를 쓸 수 있도록 작곡하면 미래에 발전성 있는 동양적

음악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프란츠 리스트의 명작 헝가리랩소디는 순 헝가리 음악으로 작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공하였다. 독일사람 브람스가 헝가리 무곡 작곡으로 맨 날 헝가리 고유 선율을 시대화하고 예술화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일층 더 높이 평가되었다. 오늘 현시대에서도 대동양적인 이 시대의 정신과 이 환경의 산물 이라야 현대인이 요구하는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며 신동아를 한데 뭉치는 예술적 건설의 완성이라야 튼튼한 것을 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출전 : 桂貞植, 「新東亞音樂의 建設, 大東洋의 理想을 表現하여」, 『매일신보』, 1940년 7월 7일〉

(2) 음악보국의 의의

신체제 하에서 문화영역의 제 운동은 바야흐로 그 조직이 착착 진행되어 조선음악협회도 당국 지도 하에서 벌써 결성된 지가 수월이 되었다. 우리 음악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종래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예술지상주의의 껍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직능을 발휘하므로 말미암아 고도 국민문화 수립에 공헌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 자각이야말로 이 협회에 결성을 촉진함에 이른 소이이다. 구체제에 있어서는 음악가는 음악가, 민중은 민중, 정치가는 정치로써 각각 방만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나 고도국방국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 신질서에 의한 공영권 건설을 위한 국가로서는 보다 높은 문화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알리어졌다. 즉 나치독일과 같은 정치와 문화의 융합일치라는 사실이 고도국방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국민생활에서 떠난 문화는 참된 문화가 아니며 국민문화와 관계없이 정치는 또한 정치로서 기능이 활발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 시대의 소리요, 세계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가는 정치와 문화에 대하여 요청하는 바에 응하여 국민 문화의 향상을 이념으로 하고서 그 사명을 다하는 곳에서 비로소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게끔 되었다. 과거와 같이 순수한 예술을 즐긴다든지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은 제 아무리 좋다고 하나 하등의 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체제에서의 조선음악협회의 음악보국운동은 연주회의 외양은 비록 종래와 별반 다름이 없을지언정 그 이념과 목표에 있어서 스스로 상이 되는 점이 내재하여 있다는 것을 나는 언명한다.

금번에 음악보국주간을 설정하고 3일을 통하여 조선음악과 방악과 양악을 연주하되 양악에 있어서는 주간과 야간을 각각 작곡발표회와 명곡 연주의 2부로 나누어 종래에 보기 드문 대 연주를 준비 중이다.

물론 음악문화라는 것은 음악을 일로 삼는 작곡가나 연주가 혹은 어느 특정한 인간이 전유할 것이 아니고 작곡가나 연주자나 자기의 소화, 흡수하는 음악을 국민 일반에게 보급, 감상시킴으로써 일어나고 문화운동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그 직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민중은 □□□하 감상자가 되어서 음악을 수용하여 자기의 양식을 만들고 자기의 정신적 가열을 일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도의 국민 일반이 총력연맹운동에 참가하여 지지자가 된 것과 같이 이 문화운동에도 참가하여 고도의 문화소유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의무야말로 고도 국방국가의 일원으로

서의 의무이다. 요약하면 음악실천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가의 지도정신에 입각하여서의 국민에게 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조선음악이라든지 방악이라든지 양악이라든지가 모두 우리의 감정에 호소되는 바의 음악이다. 특히 국민음악의 수립이 □□□되는 급일에 있어서 양악은 외형은 양악이나 실제에 있어서 현대인의 감정생활에서 떠나지 못할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 악단에 있어서는 이미 작곡의 세계에서 연구 정진을 거듭하고 있는 이가 손을 꼽고 남음에 이르렀다. 이 작곡가의 존재야말로 명일의 국민음악 수립을 위한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금번 작곡연주회는 국민음악수립운동의 제1보의 의의가 내재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일 주간의 연주는 비록 외국 유명한 작가들의 명곡이나 이것은 외국작가라 하며 배척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보다 높은 고□한 음악, 가장 우위의 음악의 이해와 감상이 있고서야 음악문화의 향상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야말로 □□□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과거의 우수한 음악의 감상이 없이 돌발하는 동작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베토벤 음악이라든지 하이든의 음악이라든지 혹은 바그너류의 음악이라든지 비록 누구의 음악이라도 우수한 음악은 우리에게 많은 음악적 인상과 예술적 감명을 주어 따라서 위대한 교훈과 자극을 받음으로써 도의적인 국민적인 도야도 있으리라 믿는다.

주간의 연주라든지 야간의 작곡발표회의 곡목이나 출연자들이 모두 협회원인 사계의 권위 제씨의 명창 역연임은 물론하고 300여 명에 가까운 대합창단의 출연이야말로 대경성의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일 것이다.

경성음악전문, 이화여전, 세전여자사범의 작 전문 중등학교 학생과 음악협회 합창단을 총 망라한 음악 총동원의 대연장이 양악부장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씨의 지휘 하에서 있을 것이다.

젊음이들의 우렁차고 씩씩한 노래가 경성 창공에 높이 울릴 그 정황은 이 문화운동의 참된 지지자가 되기를 기하고 총동원하여서 참가하여 새로운 출발이 힘차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출전 : 桂貞植 「音樂報國의 意義」, 『매일신보』, 1941년 6월 5일〉

(3) 국민학교의 음감교육 문제

얼마 전에 문부성 안으로 결정 발표되어서 국민학교에서 현재 채용하려고 하는 음명(音名)창법은 음악교육자간에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된 문제요 식자간에는 이미 음명창법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오랜 과제이다. 때마침 신체제의 새 옷을 입고 일어나는 국민학교에서 창가교육을 청각훈련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음명창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자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음명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다.

종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학습한 방법과 같이 이동식 계명을 사용하여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각조성(各調性)에 이동시켜가면서 노래 불렀다. 이와 같이 하기를 서양음악학습 초창기부터 변

함없이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악기의 음을 들을 때에 그 음으로 무슨 음인지 지적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동식 계명으로 음과 음과의 거리를 추정하여 가면서 음악을 배우기 때문이다. 즉 일정한 악기로서 고정된 한 음을 안 후에라야 해당 음과 다른음과의 관계를 미루어서 알게 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음악가로서는 일정한 음 하나를 자유자재로 낼 수도 없으며 음에 대한 절대음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어떤 한 음이 들릴 때 이것이 무슨 음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을 이것을 절대음감이라고 한다. 이 절대음감 교육은 독일서는 음악교육이 있을 때부터 실행되고 있었다. 현금에 이르러 시행하는 음명창법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절대음감을 교육하지는 것이다. 반도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으나 아직도 유명한 작곡가 연주가 지휘가가 배출하지 못한 것이 이 음감교육에 결함이 있는 까닭이라고 본다.

음감 교육이니 음명창법이니 청각훈련이니 하며 음악교육에 신체제로서 창도되는 바는 음악 자체에 미치는 바 영향도 물론 다대하거니와 국방상 산업상으로 볼 때에 음의 고저의 기억이라든지 음의 강약의 판단, 음색의 분별 등은 황국신민으로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 같은 데서는 벌써 어릴 때부터의 음감교육에 의한 청각훈련이 국민 전체에게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거개가 절대음감 관심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리적으로 음에 대한 감각이 둔한 사람도 없지 않으나 다수가 음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라든지 전차라든지의 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음의 차이가 있으면 사전에 고장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알면 이 음감 교육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우리는 예술의 창조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국방상으로도 산업 상으로 더욱 필요하다.

그런 고로 아동은 물론 생도 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점에 유의하여 교육자는 아동생도의 중대한 이 사명을 맡은 이 만큼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서교육에만 유의할 뿐 아니라 불가결한 국민 청각훈련을 위한 음명창법을 연구하여 하루 바빠 시행함이 급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실행방법의 대략을 소개하여 두겠다.

음의 고저를 자유자재로 듣고 알아낼 수 있으면 이것을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한다. 이것은 어린애 5, 6세부터 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장성하여서는 소유하기가 어린애보다는 힘들다. 그 방법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벌써부터 악기의 음명으로는 '아베체데'가 있고, 성악의 음명으로는 아이츠 박사의 명발명인 합리적인 '비토구수라휘니비'가 있다. 일본에서는 '하니호헤토이로'로 벌써부터 정해져 있지만 이동식 '도레미' 창법을 쓰기 때문에 이 음명의 존재가 지금까지 박약했고, 교육 상 많은 결함을 가진 한 이동식 '도레미'에 너무도 짝 박혀져서 나올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동식 도레미를 버리고 부동식 '하니호헤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도레미의 시원이 이태리에 있느니 만치 그 명칭을 그대로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학교를 위시하여 각 중학 전문까지 부동식 '하니호헤토'로 배우게 하여서 생도에게 절대음감을 교육치 않으면 음악 발표에도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 및 b은 영변(嬰變)이 있으므로 D장조 음계를 노래할 때에는 '니호에이헤토이로에이하니'와 같이 부를 수가 있다. 헤(F) 장조 음계 시는 '헤토이헤소로하니호헤'로 노래할 수가 있다. 이것은 독일서 악기명 쓰는 # '치쓰', '피쓰', '에이쓰'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어렵지 않다. 영어 음명에는 #(샵), b(플렛)이라는 단어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로하니'

보다 딱 어렵고 조금이라도 속도가 빨라지면 단어 흉내도 낼 수 없다. ‘하니호헤토’는 외국 음명보다 실제적으로 보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 확정한 인명이 있어서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의 용모를 그리지 않고도 생각해 보지 않고도 즉시로 아는 것과 같이 음명에 있어서도 한 번 정한 다음 그 음의 고저는 음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라는 음은 악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고 1859년 파리국제음률협정회에서 정한 1초의 435진동수 표준의 조율된 악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는 피아노를 정확하게 조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절대음감의 연습은 음악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말을 배우는 것 같이 어린애에게 ‘하’음을 내주면서 이 음은 ‘하’음이다. 이 ‘하’음을 매일, 여러 번씩 들려주면서 이것을 몇 달 동안 계속할 것이다. 악기로서는 피아노나 오르간이 가장 유리하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5, 6세 된 아해에게 ‘하’음을 들려주면 애기가 ‘아버지하고’ 부르며 기억하는 것과 같이 제일 처음 ‘하’음을 따로 외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점점 다른 음표를 기억하게 하여 우선 피아노의 백건반을 다 외게 하고 다음으로 흑건반을 훈련시킨 후에는 주(主) 3화음, 부(副) 3화음을 연습시키면 유효하다. 피아노 건반상의 음이 전부 자기의 소유가 된 후에는 다른 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취주악기 호른과 같은 악기도 들을 수가 있다. 학습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완성된 후에라도 무슨 음에 대하여서나 주의를 시켜야 된다. 즉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에 그 음이 음악상으로 어떤 음에 해당할지 생각해 보고 실험해 보아야 하겠다. 자동차의 경적이나 정오의 사이렌 음 같은 것이 어떤 음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독일의 후기 로만악파(낭만파) 음악가 슈만은 이와 같이 말했다. 컵을 쳐서 울려나오는 소리까지 무슨 음인지 알려고 노력하라고 했다.

음악가로서 절대음감을 소유하고 자유자재로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 악성 베토벤이 관현악에 ‘팔리루어르’이나 합창의 ‘팔리루어르’만 보아도 곡 전체가 귀에 들린다든가 작곡하면서 악기 없이 완전히 들린다고 한 것이 절대음감으로써 의식한다는 말이다. 절대음감이 없는 지휘자는 불구자적 지휘자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없는 지휘자가 수많은 멤버 중에서 약간의 음이 맞지 않을 때 정당한 음으로 여하히 교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동식 계명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 되겠다. 음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그 음의 고저를 잘 기억하여 버렸다. 또 그들의 음악 교수자들은 생도들에게 음에 대한 자극과 지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준 까닭으로 어린 생도들이 속히 습득하고 말았다. 유능한 음악가가 많이 나오고 아니 나오는 것은 창가 교수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게 음악 소질이 있더라도 이것을 깨워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실력 있는 음악가가 현출할 이유가 만무하다. 절대음감을 가진 음악가는 무슨 곡이든지 미리 연습 없이 한번 보고도 연창할 수가 있다. 왜 그런고 하면 음의 거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악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점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음을 하등의 곤란이 없이 자신 있게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피아노나 다른 기악 하는 사람들이라도 절대음감이 있으면 곡을 암기하기가 딱 쉽다. 시간적으로 보든지 노력적으로 보든지 능률을 낼 수가 많다. 선천적으로 음악의 소질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재질과 병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어린애들만 배울 것이 아니고 성장한 사람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남독일 뵐츠부르크에 있는 국립음악학교 교수 한스 쇠들러씨의 부인은 음악가가 아니었고 여의사이다. 쇠들러 교수는 매일과 같이

자기 아내에게 피아노 화음을 들려주었다. 화음을 치고는 묻는 말이 이 화음이 무슨 조성이나 물어 보았다. 물론 처음에는 음악가 아닌 여의사가 맞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몇 해를 거듭하여 계속한 결과 그 부인은 모든 화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경적까지 무슨 음인지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를 실례로 보면 성장한 사람도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들러 교수는 자기가 피아노에 앉아서 화음을 치고는 무슨 조성이나 물어본다. 그 뿐만 아니라 적은 멜로디를 여러 차례 들려주는 생도들에게 전부 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연습은 각음의 식별뿐만 아니라 한 묶임성 있는 곡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키는 좋은 훈련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음악교수법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음악의 천년지계를 세우려면 구식창법이나 청음법을 완전히 버리고 유명한 음악가를 수없이 낸 선진국과 같이 절대음감교육을 하루바삐 시행하여 건실하고 유능한 세계적 음악가를 내는 한편, 일석이조로 청각훈련의 결함이 없는 황국신민을 양성함에 착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출전 : 桂貞植 「國民學校의 音感教育問題」, 『朝光』 1941년 7월호, 85~88쪽〉

(4) 대중의 건전오락 희구, 다채한 11~12월 중의 음악회

지난 가을과 같이 음악적 활동이 왕성하였음은 반도 악단으로서는 미증유의 일이었다. 또한 그만큼 일반이 지지하여 항상 만원의 불평을 사게 한 때도 처음일 것이다. 좀 더 오락적인 해석하기 쉬운 모임에는 항상 부민관 앞이 장사진을 이루었으나 언제나 음악회에는 그만하지는 못하였는데 이즈음의 음악회에는 광화문동 네거리까지 장사진을 쳤다가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이 수백 명인 때가 많았다.

물론 여기에는 어디까지 원인이 내재하여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총후의 국민이 얼마나 건전한 오락을 가지려고 요구하고 있는가, 씩씩하고 청신한 그리고 또 평화하며 때로는 사기를 돋우어주는 음악이 총후의 멸사봉공에서 하루의 위로를 주는데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음악 하는 사람들도 직역봉공의 대강령 앞에서 총후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기를 보여준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모임이 한 번, 두 번 거듭하여 한 번 두 번 청중이 음악 가운데서 참으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두 말 없이 그 건전한 음악을 청중이 수용하였으며 이 쪽에서 말하면 보급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가을의 음악회 내용을 일별하면 대체로 별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으나 그 의의에 있어서 특수한 것이 수회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한다. 악성을 추억하는 모차르트의 기념음악인 '소나타의 밤'이라든가 대화숙(大和塾) 주최의 국민음악의 밤이라든가 반도 악단 건설의 공로자에게 바치는 사은음악회 등은 올 가을의 성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태현(朴泰鉉) 씨 지휘의 경성취주악단의 탄생은 실로 시국을 인식한 쾌사이다. 그러나 벌써부터라도 이러한 단체가 있어야 하였을 것이며 또한 한 번 울림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앞으로 애국의 행진을 할 의기를 돋우어 사기를 배양하며 군국정신을 진흥케 할 대관현악이 필요한 중에서도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국이다. 그러나

병참기지만 대경성이지만 그런 음악을 일반에게 들려 줄 기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참괴를 느끼는 바이다. 유감스러우나마 작추에 열린 음악회는 보다 더 시국적인 색채는 못 띠었으나 건전한 음악의 향상 보급이라는 의의에서는 벗어남이 없으리라고 하는 자신이 일종의 자위를 준다. 11월 5일 필자와 김원복(金元福) 여사 공연인 '주명곡(奏鳴曲)의 밤'은 맹방 독일이 낳은 위대한 악성 모차르트 사후 백오십년제를 기념키 위하여 모차르트 소나타만 연주하였다. 물론 소나타 곡만을 순서로 한 음악회는 첫 시험인 만큼 좀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모차르트곡이니만큼 명랑성이 청중을 그다지 지루하게 하지는 않았을 터이나 소나타라는 곡 자체의 형식이 결코 듣기 쉬운 곡 즉 이해하기 쉬운 곡도 아니며 소곡들과 같이 달콤한 효과적인 매력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연주에, 모험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순서의 편성된 음악회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건전한 음악향상의 걸음을 게을리 말 것과 청중의 이해에 일종의 희망과 환희를 느끼게 된다.

〈출전 : 桂貞植 「大衆의 健全娛樂希求, 多彩한 11, 12月中의 音樂會」, 『朝光』 1942년 2월호, 78~79쪽〉

(5) 가정과 음악

가정이라는 곳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집합된 형식 내에서 살고 있으니만치 그곳에는 가정인들의 조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서로 서로가 양보하며 이해해 주어야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다. 부부생활이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일층 더 친근해지고 결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생활에 있어서 드문 가족을 조화시키고 융화시키는 데는 가정음악이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의 가정 내에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서로서로 주고 받고 하는 정서생활에 가장 중요성을 띤 가정음악이 성(盛)치 못함을 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대저 음악이라면 우리들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기악가나 성악가만이 하는 줄로 인정하는 영향이 많지 않은 모양이다. 음악은 누구나 다 학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구속이 없는 예술이다. 전문가에게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음악을 못하니까 축음기와 레코드를 많이 사서 세계적 명곡이나 유행가를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위로를 받고 있다. 물론 기계를 통하여 나오는 레코드 음악으로도 재미를 많이 보며 음악적 상식을 넓힐 수도 있지만 레코드 음악은 언제나 기계음악에서 지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기계가 앞으로 발달되더라도 실연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축음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색은 불완전한 음색이요, 우리의 청각을 속인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가령 간단한 실례를 들어 말한다면 피아노 음악을 축음기에서 들을 때에 피아노 본질적 음이 나오지 못하고 고장 난 피아노처럼 웅양웅양하는 각(各)음을 듣게 된다. 귀가 어느 정도로 예민한 사람은 저것이 피아노 소리인가 하고 의심한다. 할 수 없는 형편시에는 부득불 듣는 것이 기계음악의 목적이 되겠으나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레코드 음악만으로 만족한다면 음악 감상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구라파 각국을 조영(祖寧)해보면 가정음악이라는 것이 매우 보급발전이 되어서 집집마다 밤이나 일요일 휴일 시에는 가정적

안락과 하모니를 음악으로 꾸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은 우리나라와 같이 레코드 음악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음악을 하기 때문이다. 레코드 연주자 제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잘하고 재미나게 한다고밖에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반면 자신이 음악을 실연할 때에 그 얼마나 미적 감정을 배양시키며 심정을 강장케 하는가! 예를 들면 애국 행진곡을 자기가 부르지 않고 타인들이 연창하는 것을 들을 때와 자기가 열심히 부를 때의 느끼는 바는 전혀 다를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부를 때에는 도취와 감격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옛날 스파르타인들은 벌써 음악의 효과를 잘 알고 많이 장려했다. 조국을 사랑하는 정열은 음악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물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실제로 각각 개인의 실연으로 힘 있는 국민을 양성했다고 한다. 건실한 음악을 각 개인이 항상 실연하면 고상한 자존심이 발달될 것이고 비겁하고 노예적인 생각이 없어질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도 센터멘털한 연약한 음악을 금지하려고 건전오락 음악을 장려시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가정 음악을 실시할 수가 있는가 하면 먼저 가정의 주인이 되는 이가 굳은 의지의 소유자라야만 될 것이다. 자식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소 음악을 알아야만 격려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다. 음악에 취미가진 부모는 연령여하를 불문하고 개인교수를 받아서 음악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연습해 놓아야 할 것이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음악 전문가 아닌 아마추어가 개인교수를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전문가 되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다만 자기 자신 취미가 있어서 또는 생활을 좀 더 미화시키기 위하여 연령이 사십 내지 오십 된 사람들까지도 배우고 있다. 독일은 특히 개인 교수가 심히 발달된 나라로 유명하다. 그 민족의 특징의 하나는 무엇이든지 지도자의 지시 하에서 공부하겠다는 정신이 강한 점이다.

그것은 그네들 자기 맘대로 허투로 장난을 하며 배우지 않았던 것보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이상 손해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선생의 말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속히 진보할 사람이니까! 독일 민족의 특수성이 여기 있고 탁월한 인물이 많음도 여기에 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수치가 결코 아니라고 부르짖는 것은 벌써 옛날 독일 문호 쉴레르(슐러?)의 명언이었다. ‘불치불문(不恥不問)’이란 공자의 말씀도 있는 것과 같이 가정악기로 좋은 것은 피아노, 오르간, 기타, 만돌린, 그 외 무슨 악기든지 좋다. 다만 한 개의 목관이나 금관이라도 가정의 유익한 역할이 되겠다. 현악기 외에는 고정된 음정을 낼 수가 있으므로 음의 거리를 측량하는데 불가결한 악기들이다. 음악은 문학이나 미술과 달라서 자습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고 오히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불량한 습관만 남아 있게 되는 수가 많다. 음악을 단기일에 잘 해보려고 하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내에서 음악으로 인한 평화와 안락이 늘 있기를 바란다면 장기건설적으로 음악 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하겠다. 장기건설이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장기건설은 정신적 지구전이다. 이와 같은 정신적 지구전이 계속되어야만 가정 내 아름다운 음악, 창조적 음악, 대동아의 음악이 빛어 나올 것이다. 결국 가정음악이 철저히 보급되어 가정 내가 화기유색하게 지내는 것이 선량한 국민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선량한 국민생활이라는 것이 일본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문화를 광채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다.

백 만 인구가 훨씬 넘는 대 경성에 밤이 되면 이곳저곳 가정에서 합창과 독창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야 될 터인데 듣기가 딱 희귀함을 보아 반도인의 문화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부모 된 사람은 어린 자식들과 같이 노래하며 즐겨 놀 것이고 자식 된 자들은 부모와 같이 음악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락하여야 할 것이다. 음악은 가정 내에 슬픔을 위로하고 쾌락을 같이 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는 필수품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음악 배울 기회를 주어야겠고 자식 된 사람은 음악으로 부모 은혜를 보답하여야 원만할 것이다. 모처럼 배운 자식의 음악을 부모로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하겠고 노력의 가치와 연주의 성과를 칭찬하여 줄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예욕이나 야심을 자식에게 두고 비인도적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인간이 할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음악은 본래 감정의 언어이므로 지적 언어가 그치고 표현 부족을 느낄 때에 음악은 시작되느니 만큼 음악의 시작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서로 감정을 통하는 의미에서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가정생활이 지적 생활보다 기분과 감정의 행동이 많음에 비추어 음악이라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 지극하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겠다.

〈출전 : 桂貞植, 「家庭과 音樂」, 『朝光』 1942년 10월호, 128~130쪽〉

(6) 음악경연회를 앞두고

금 10일 및 11일에 예선이 박도한 조선음악협회 주최인 음악경연회의 존재는 경연자에게나 일반 호악가 제씨의 경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음악협회가 당국의 지령 하에 설립된 이래 가장 중대하고 가장 의미가 깊은 평소 중의 하나이다. 근래에는 종래의 경연회에서 보던 제금, 피아노, 성악 이외에 음감경기라는 것이 있어 이 부분을 합한 4종목의 경연회라는 것은 금년이 처음인 것이다.

대개 음악의 생명이라는 것이 양호한 연주에 있는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아무리 악성 모차르트의 곡이 좋다하더라도 악보만으로는 아직 음악이 아니고 생명이 없다. 기록된 악보가 실연으로서 표현될 때에 그곳에 음악예술성을 느낄 수도 있고 맞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량의 연주는 음악의 최고 청화라고 할 수 있다. 음악경연회의 □□는 연주자의 힘으로 충후 국민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고 가장 힘찬 생명을 부어 넣을 수 있는 힘차고도 고상한 음악가를 만드는데 있고 우수한 음악을 □□하는데 있다고 본다.

금년 지정곡은 전에 보지 못하던 난곡으로 각 부분을 통하여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은 벌써 신문지상이나 과제곡 발표로 알게 될 줄 안다. 그 이유는 조선악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것이고 둘째는 제도와 보조를 같이하여 도쿄 악단에서 인정받을 자격을 양성시키려고 한 것이다. 셋째는 난곡인 지정곡을 마스터하여 입선됨으로써 일반 사회가 인정하고 음악가라고 불릴 자격을 주기 위함이다. 물론 1등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지원자 중 제일 양호한 자에게 수여될 것이 결코 아니고 음악가의 격을 잃지 않고 자격이 충분하다는 자에게 수여될 것이다.

우리 일본서 최초로 실시하는 음감경기는 외국서는 예를 볼 수 없는 음악사업인 만치 국방상으로는 산업 상으로는 청각훈련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은 확실히 인정하여 줄줄 안다. 따라서 그 효과가 막대할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경연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당일엔 신체의 조화가 회복하여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 경연 일에는 연습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을 한마디 알릴 겸 부탁하고자 한다.

〈출전 : 桂貞植 「音樂競演會를 앞두고」, 『매일신보』, 1942년 11월 10일〉

(7) 후생실내악단 제2회 공연평

반도악단에서 유명한 연주거나 성악가는 많은 모양이나 실천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한 점이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 원인의 전부를 연주자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겠지만 여하간 연주 상태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조선악계의 장래를 위하여 섭섭히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 의미에 있어서 후생실내악단의 발생은 쌍수를 들어 경하하는 바이며 특히 금번 제2회 연주회를 듣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리라고 확신한다. 필자가 제일 □□한 것은 후생실내악단의 연주가 합주로서 완전히 마스터한 점과 열과 애정을 경주하여 휘연히 음악적 분위기 속에서 음악을 끌어내어 준 점 등이다. 여러 사람이 공연할 때에 1인이 연주하는 것 같고 한 사람이 호흡하는 느낌을 얻은 것은 처음으로 체험하였다. 이와 같은 □□□한 앙상블 연주의 효과는 우연지사가 아니고 동악단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음악예술을 위하여 불타는 젊은이들의 꾸준한 열의의 결정품이라고 본다.

당야 곡목 중 실내악 반주의 효과는 미증유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혼을 담백 실은 매력 있는 현과 피아노가 융화되어 독창자들의 고운 음색을 일층 더 광채 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훌륭한 실내악 반주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독창자는 참으로 행복을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이만한 단원의 실력과 연주로서 만약 후생실내악단이 구라파에서 연주회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손색없으리라고 단언한다.

그럼으로써 이 후생실내악단은 조선의 자부요,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연주 프로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와 박력으로 일관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시간 이상 긴 연주였으나 조금도 권태로 느끼지 않게 하고 끝까지 긴장리에 종연하게 된 것은 전례 없는 특기할 만큼 사실이었다. 편곡에 있어서도 능란한 수법으로 수적은 악기로 충분한 효과를 내게 하였으며 특히 민요접속곡은 깊은 인상을 주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편곡의 곡이 많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악단 행적의 통계를 보면 금년 5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주 회수가 112회라 하며 그 중 일반 야간 연주 공연이 36회, 학교 학생음악회가 46회, 산업전사위안연주회가 19회, 육연□□연주회가 4회, 기타 7회에 총 청중이 7만 8천 7백 50명이라 한다.

조선 방방곡곡에 다니며 이와 같은 많은 연주회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청중에게 좋고 건실한 음악회를 들려주었다는 것은 명일의 조선악단을 위하여 큰 업적을 남겨 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다니는 동안에 가장 곤란과 싸우며 □□노력한 눈물겨운 일화도 많거니와 이들의 연주에 감탄한 청중이 이들

을 둘러싸고 음악예술의 굵주림을 토로하며 비□한 악수로 다시 올 기회를 갈망한 장면도 많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조선 문화운동의 일선에 나서서 노력하며 공헌한 바가 많은 후생실내악단에 대하여 일반사회 유지의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이 악단은 조선교향악운동에 봉화를 들고 정신하여 나오는 단체이다. 그들의 각오와 □□성은 방관하지 못할 뜻 깊은 것인 줄로 안다. 하루바삐 노력과 희생이 결실되어 조선악단의 큰 지주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듣건대 1943년 상반기 경성 중앙공연 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3월 초순 국민음악의 밤(제3회), 3월 중순 김천애 독창회, 4월 초순 실내교향악의 밤(제4회), 5월 중순 작곡 발표회, 6월 상순 이인형 피아노 독주회, 6월 하순 김생려 바이올린 독주회, 7월 초순 제5회 발표회 명년도에 이와 같은 종래에 없던 풍부한 음악회를 제공하는 등 악단에 감사하는 바이며 음악애호가 제씨의 기대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桂貞植 「厚生室內樂團 第2回公演評」, 『매일신보』, 1942년 12월 31일〉

(8) 개병의 노래 모집, 참된 사랑의 노래, 계정식 씨 담, 길이 빛날 군국의 노래로

반도에는 아직껏 송엄하고 사랑이 가득 찬 어머니를 찬미하는 노래가 없었고 내 귀한 아들 국가의 용사인 청년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애에 가득찬 국가의 초석이 될 아들을 위하여 마음속 깊이 기원을 올리고 계신 분들이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삼가 노래를 드려야 할 것이며 우리 국군의 청년은 국가를 위해 한 생명을 받칠 결의를 드는 노래를 다같이 불러야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드시 불러주셔야 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매일신보에서는 1944년도부터 실시될 징병제를 앞두고 반도개병의 노래를 널리 모집하게 된 것은 실로 경의와 찬하를 받치는 바이다. 이 감격과 이 광영을 어찌 필설로 다하리오마는 오직 이 사무친 정성을 노래로 읊어야 할 것이니 누구나 그 뜻이 높고 경건한 구상으로 2천 5백만이 다 같이 부를 노래를 지어 국민 된 적성을 다할 것이다. 좋은 가사에는 좋은 곡을 붙여 국민의 감격을 자아내고 영원히 이름난 노래로 전해져야 할 것이다. 가사의 내용으로는 우수한 가사가 많이 응모될 것을 나는 믿으며 또 이 가사가 악곡화 될 때 우수한 작곡가가 나와 주기를 나는 기대한다.

〈출전 : 桂貞植 「皆兵의 노래 모집, 참된 '사랑'의 노래, 桂貞植 氏 談 길이 빛날 軍國의 노래로」, 『매일신보』, 1943년 2월 27일〉

(9) 후생실내악단을 듣고(음악월평)

총후 국민생활을 위안하며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건전 음악이 영미 재즈 음악으로 인하여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 음악적 사정을 분개하여 음악가 유지 몇 사람이 합심해 가지고 후생실내악단을 조직한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다. 그들의 음악 운동이야말로 최후의 이념 하에서 모든 물질적 곤란을

돌보지 않고 현신적으로 돌파해 왔다. 혹은 공장에 가서 직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함으로써 능률 증진시키고, 혹은 학교에 가서 음악 감상회를 열어 생도들에게 음악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 외에는 일반 시민에게 고상한 곡목을 선택하여 열과 애정이 많은 실연으로 정신적 양식을 주었다.

이와 같이 다방면적 활약은 다른 음악 단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도에 유일한 순수 음악단체로 지금까지 단시일 내에 음악회 회수에 있어서나 질적 연주로 보아서나 전례가 없는 단체이다. 그리고 단체 행동에 있어서는 부족이 없이 진행된다니 단원들이 수양이 있고 인격이 고매함을 자연히 알게 되었다.

제1회 공연은 사정으로 듣지 못했지만 제2회 공연을 듣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근래 드문희유한 음악회였다. 음악회다운 음악회였으므로 2천여의 청중을 감격시키고 도취시켰다. 그만한 실력으로 구라파에 가서 연주해도 과히 손색없겠다고 단언한다. 물론 완전무결하다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다면 소소한데 그치고 일반적으로 보아서 예술적으로 완벽에 가깝다고 본다. 각 단원이 솔리스트의 실력과 자격으로 완전히 합주의 호흡을 맞추면서 열연하는 것은 다른 음악회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

먼저 국민요리 및 국민가요 연곡(聯曲)이 있는 후에 제1부 순서로 들어갔다.

제1번 후생실내악단의 합주, 칼마리아, 본, 베버작인 무도회의 권유가 연주되었다. 이 곡은 연주상 난곡으로 유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난히 종연한 것이 벌써 그들의 진실한 태도의 연습이 있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다만 피아노 반주가 적은 감이 있었다.

제2번 용궁천애(龍宮天愛) 여성독창 산전경작(山田耕筰)인 탕자꽃과 베버곡의 아가페의 독창이었다. 두 곡 다 현악사중주 및 피아노 반주로 연창되었다. 용궁양은 필자와 연주여행을 많이 같이 한 일이 있어서 그의 해석이나 창법을 많이 감상할 기회를 가졌었다. 인간적으로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며 그 위에 종교적이어서 음악예술에 대한 태도는 양심적이며 책임적이었다. 악곡을 언제나 연구적 태도로 취급하고 파악하여 자기가 완전히 소화하여 청중에게 전달하는 성악가이다. 첫째로 음량이 가장 풍부하며 표현력이 강하여 사람 심중에까지 충동을 준다. 어떤 다른 성악가와 가히 청각만 자극시키는 악인과는 다른 가수이다. 아직 연령이 어려서 장래의 기대가 많이 보인다. 자기의 천부적인 성악사명을 잘 아는 용궁양은 조선 악단의 보석과 같은 존재를 영원히 보전해 줄 줄로 믿는다. 도쿄 악단에서도 이런 존재는 들어보지 못했다.

제3번 양금독주 의본인형(義本仁亨) 브람스 곡인 2번의 사시(史詩)곡이었다. 수년 전 신인음악회 시에 리스트 곡인 헝가리 랩소디가 아직도 필자의 귀에 쟁쟁하고 있다. 당시에 우수한 연주엔 일반의 환영이 컸었다.

의본 군은 육체적으로 피아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체격이 크고 피아노 악기의 적당한 수완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피아니스트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럼으로 브람스 곡과 같은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을 손쉽게 연주할 수 있었다. 곡 해석에 있어서도 만족을 느꼈다.

제4번 실내악 금성성태(金城聖泰) 편곡 민요 접속곡은 일반이 다 잘 아는 멜로디로서 편곡자의 우수한 작곡기교로 연락시켜놓은 곡이다. 금성 군은 반도 작곡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창작가로 여러 번 자기의 실력을 작곡 발표회시에 발휘하였다. 필자가 제일 애호하는 작곡가이다. 후생실내악단은 금성군과 협력하여 수많은 작곡이 발표될 줄 믿는다. 소산유성(小山有聖)군의 트럼본 독주, 비제곡인 신의 소양(小羊) 부드러운 트럼본의 발음과 아름다운 가요적인 레가토 연주는 청중을 황홀케 했다.

제5번은 의본인범(義本仁範)군의 남성독창, 연전 재학시부터 미성의 소유자로서 유명했었다. 도쿄 가서 미숙한 부분을 전부 원숙시켜버렸다. 음성에 탄력이 있고 맺힌 소리가 났다. 강약의 조절이 명확하였고 음악 감정이 충만하였다.

제6번 제금(提琴) 이중주 바흐곡인 두 개의 제금을 위한 콘체르트. 이 곡은 필자와 김생려 군, 처음으로 실연한 것인데 본래 일반 취미를 느껴줄 곡이 아님으로 좀 주저했으나 음악예술의 최고 양식인 대위법 음악곡을 들려 줄 의무감이 강해져서 계몽적 의미에서 시연했다. 우리 조선 음악계에서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곡을 음악사상으로만 유명하다는 것을 알 뿐이고 실제 음악생활과는 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도쿄 수준과 떨어진 점이 바흐를 연주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도 호모 후오니 음악에만 잠겨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음악을 자주 들려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주 용궁천애, 의본인범 양 연창은 청중을 극도로 흥분시켰다. 베르디 곡 '수도를 떠나서' 및 '축하의 노래'는 일반이 같이 느낄 수 있었다.

경성후생실내악단이 장래 음악적으로 무난히 발전하려면 정신적 후원자들도 필요하겠거니와 물질적 도움도 급선무로 필요하다. 그 젊은이들이 심혈을 경주하여 음악예술을 위하여 또는 총후 국민 위안을 위하여 열연을 들려줄 때에 음악인의 일인으로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 그날 밤 그 단원의 연주를 듣고 아무 자극이나 감동이 없었다면 무감각적 인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다. 우리 음악인들이나 비음악인들을 막론하고 사회인으로서 이와 같은 건실한 연주를 위하여 내외적으로 원조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된다. 후생실내악단을 경제적으로 반석 위에 튼튼히 기초 세워놓아 주어 그 귀한 예술의 생명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는다. 사회유지 제씨들이여 하루 속히 이 악단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는 인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신성한 음악예술을 위하여. (1942년 12월 27일)

〈출전 : 桂貞植 「厚生室内樂團을 듣고(音樂月評)」, 『朝光』, 1943년 2월호, 136~137쪽〉

3) 김관(金管)

(1) 동아의 신정세와 음악문화의 재출발

사변하 세 번째 오는 기념일을 맞이하고 우리는 현전의 세계적 정세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일이겠지만 사변처리를 위한 신동아건설로 출발한 것이 이제 신동아건설을 위한 사변처리로서 급진하고 있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미를 요청하는 일,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감각과 감정이 새로운 건전한 생활과 새로운 사상적 지반 위에서 싹 돋는 것은 여하한 시대를 불문하고 있어온 일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들의 템포에 대한 감각이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에 대한 감각도 변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문화라든지 새로운 미란 것은 비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엄연한 객관적 정세가 준비하여 놓은 당연한 무브먼트(movement)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옛 정조와 전통 가운데만 부동의 미의 형식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는 물론 반면의 진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신생활 신사상체제의 건설기에 봉착한 새로운 예술관계의 구축에는 당연히 새로운 국민적 심정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일체의 문화적인 것에서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에 변용은 우선

무의식 가운데서 사람들의 감정을 변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라파에 있어서 꺾이고 있는 신흥문화의 발전 -그것의 정치적인 대응점에서 생기는 몇 가지의 방식에 좇아서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대답하고 치밀한 매소드로 진행되는 것과 병행되어 우리들의 주변에는 또한 새로운 문화와 예술이 심도를 깊이하고 있는 것이다.

대저 전쟁이 국가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손자』 첫머리에 쓰여 있는 명구대로 병자국지대변, 생사지지, 존망지도다. 그런 이상 정신문화의 하나인 음악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취해지기 쉽다. 그렇지만 전쟁에 의한 음악적 활동의 위축이 문화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 -음악창조의 출발점으로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된다.

전쟁에 있어서 교향악단보담도 한 대의 비행기가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정신문화를 경시한다거나 추락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사변 처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신동아건설 -신문화건설이란 일대 이념에 도달한 이상, 장차 새로운 음악에의 여 명을 우리는 기대하게까지 되었다. 전쟁에 따르는 군가는 전혀 일궈공리적인 소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겠지만 사변 이래 무수의 군가가 풍성했고, 따라서 그것으로서 다분히 정신 고무의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변에 따른 군가가 대두한 것은 저널리즘 현상적이고, 그것이 정작 예술적인 또는 우리가 논의하는 새로운 문화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보다도 사변 이래 예술로서의 음악이 오락으로서의 음악으로 전위된 것에 도리어 중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지난번 문부성에 설립된 국민오락개선위원회의 취지라든가, 또는 작금 음악후생운동에서 제창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그러한 음악의 추락을 저지하고 국민생활 위에 높은 음악적 교훈을 세우려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경하해 마지않는다. 더욱 음악후생운동은 한 사람의 우수한 음악가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의 힘을 만들기 위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수한 사람을 나오게 하고 또는 국한된 범위를 떠나서 노동자 국민전체에 이르기까지 음악을 보급시킴으로써 탄력성을 가진 정신을 꺾게 하고 이어서 문화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음악단체에의 길은 우선 국민생활 가운데 만연된 음악의 농도 여하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과거의 전쟁이 음악문화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했고, 기실 그렇기는 했지만 우리가 당면한 신동아건설을 위한 사변처리와 병행되면서 영위되는 새로운 음악건설에의 의욕과 운동은 도리어 사변 전에 꿈도 못 꾸었던 광대한 음악보급과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즉 음악문화의 발달을 촉진케 하고 있음을 본다. 과거의 우리들의 음악적 근거는 서구음악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음악을 해갈 수 없을 만큼 빈약도 했었다. 그러나 맹목적인 추종과 무의미한 모방에서 떠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론 아직도 전도가 요원하다고 하겠지만 새로운 지경에 들어선 것만은 사실이다. 사변 이래 전시 경제상 불가피한 요구에서 제기된 모든 꺾고에 좇아서 이를테면 악기꺾제의 가공판매 폐지라든지 수입제한 등에 의하여 음악활동이 받는 영향도 다분히 있다 하겠지만 요컨대 이 문제는 패시브(passive)의 형태로 취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국민생활의 체제를 구축하는 한 조건으로 취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출전 : 金管, 「東亞의 新情勢와 “音樂文化의 再出發”」, 『매일신보』, 1940년 7월 7일〉

(2) 국가의 신체제와 신음악의 건설(1~3)

1

신체제란 말은 오늘에 있어 하나의 시대적인 용어다. 근래 내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신체제의 이념을 쉽게 말하자면 쇼와유신(昭和維新)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치의 성격에 새로운 개화를 시도하려는 곳에 신체제 이상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이고, 새로운 성격이란 것이 본래의 정치가 휴머니티의 표현인 점에 있어서는 모든 다른 인간활동과 관련되고 철학이나 과학 혹은 예술의 원리와 한 가지의 생성 발전을 하는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는 신정치체제 밑에서는 첫째, 새로운 도덕과 결합된 일에 따라 그 원리가 철학 과학 예술 등의 원리로서도 공통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우리가 꾀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신체제에 응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와 개혁이 당연히 검토 논구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근거가 있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음악의 각 부문에 걸쳐 그 구성의 정리 통합이 수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한 전체주의적인 견지에서 노력의 경제, 일의 분담도 개편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우선 먼저 음악자의 시대적인 각성과 정신문제가 중대하다고 생각된다.

신체제의 근원적인 이면은 개인주의적 사고의 배경에 있는 것이지만 전체주의적인 입각점에서 국가의 모든 부문이 처리되어 가려는 오늘날 과거의 음악가가 탄식하고 있는 악단의 체제를 국가의 신체제에 적응키 위하여 정리통합하고, 다시 이것을 조직화하는 일은 당면한 긴급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래로 음악가의 최대결점은 협동정신의 결여,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종래 여러 많은 음악적 사업이나 회합을 궤멸 분열시켰고, 따라서 음악의 발전에 방해케 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어서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직악자(職樂者)가 그 직능에 있어서 봉임(奉任)할 상대가 항상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른바 예술지상주의를 내걸고 생활에서 유리(遊離)한 예술 삼매 교양의 고만(高慢)을 긍지하려는 것에 파탄은 있었다. 예술은 결코 자기목적이지 아니다. 예술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따라 행동적인 것이다. 음악이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식에 뿌리를 박고 국민에 의해서 지지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행해지는 예술적 음악이 아니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를 위한 음악인가? 국민을 위한 음악이 아니냐는 상식적인 이념에서부터 우리는 신체제의 방향으로 출발해야 한다. 음악문화가 국민의 문화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선 음악은 공공성을 수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개인주의적인 행동과 허세가 단연 배제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를 들쳐 낼 수가 있게 된다.

간혹 개인주의와 개성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예술가(음악가)의 개성이 존중시킬 것은 체인을 요치 않으나 개인적 자유 - 사리사욕에 빠져버린 개인주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자유주의적인 인생관, 예술관은 모두가 배격되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음악과 악단의 체제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전체주의적인 독일 같은데 있어서는 정부가 통제정책으로 행하고 있어 착착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오늘날 주지의 사실이다. 저번 영화령(영화법)의 실시 같은 통제는 앞으로 다른 예술방면에 대한 통제의 시급적으로 볼 수 있으나 요컨대 신정치체제의 확립과 아울러 추진력이 강한 음악통제책이 행해질 것을 요망하고 있다.

신체제와 음악재건 문제는 물론 정치와 관련되고 있지만 그것이 금일과 같은 시대의 대전환기에 당면하여 음악가에게 과제된 하나의 시련으로서 본다면 음악가 각개의 생활태도와 윤리의 문제로서도 막대한 것이 있다. 시대에 추종한다든가 국가에 순종한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예술가의 의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능동적인 기백과 정열 -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시대를 지도한다는 의욕만이 창조정신을 낳게 하는 것이다. 음악의 신체제는 요컨대 음악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취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퇴폐적인 말초적인 음악 같은 것은 자연 소멸할 것이겠고, 음악가의 생활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방종은 허용되지 않을 것인 줄 믿는다. 새로운 윤리 위에서 탄생할 음악만이 우리가 요청하는 새로운 방향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 새로운 음악가의 행태가 생길 것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관념론적 비시대적인 음악관의 시정부부터가 신체제하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출발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음악문화의 재구성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대단 곤란한 일이므로 일일이 예를 들지는 못하나 작곡, 연주, 국민일반 관중의 연쇄 관련에 있어서 포함된 제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우선 음악 그것의 철학적인 미감을 비판하여야 될 줄 안다. 어떠한 것이 좋은 음악이고, 어떠한 것이 좋은 연주인가를 묻는 것은 한 때 독일서 멘델스존을 말할 때 비추어 보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로 되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사변 이래로 향간에 유포된 유행가가 일견 시국영합적인 체제를 갖추기는 했어도 곡조에 있어서는 에로티시즘과 센터멘탈리즘을 포함한 것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작곡자의 비시대적인 정신과 산만한 시국적 불비(不備)가 노출된 것을 지적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종래의 순수음악 작곡가 제군 역시 외국작품을 가위와 풀로 개편하다시피 한우충동(汗牛充棟)한 비예술적인 비사회적 자기도취 취미는 또한 유행가 작곡가 제군의 태도에 비해서 나올 것이 없는 것이다.

신체제하의 작품은 일본정신에 입각한 독창적인 것, 따라서 사회성과 예술적 의욕의 고도한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일부의 의견으로 양악말살론 같은 무의미한 의논이 있지만 음악의 신체제화라고 해서 국민전체에게 척팔(尺八)이나 가야금을 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서양의존과 모방을 배제하지는 데 있는 것이다. 작곡문제는 필경은 국민음악 수립을 목표로 하고 매진해야 될 것이다. 이밖에 모든 음악전문 부문 즉 연주에 있어서나 교육의 분야에 있어서도 모두가 자기비판에 출발한 창조적인 방법이 고구(考究)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제하의 작곡 기준이 일본정신에 입각한 독창적인 것이어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다시 국민음악의 수립을 목표로 한 창조정신의 □□를 가져야 할 일이다. 그리고 또 국민음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입장과 관련되는 일이지만 금시와 같은 신체제하의 생활 위에서 요망되는 건전한 오락의 하나로서 음악이 등장할 경우 음악은 음악이 가진 모든 면을 활발하게 전개시켜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합창운동이라든가 교향악단 운동 혹은 브라스밴드 등 집단적인 음악운동과 그것의 연장으로서 이른바 음악후생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음악이 국민 전원에 침투토록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하여 민

중 -국민 가운데 뿌리를 박고 국민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음악만이 오늘날 우리가 요망하고 기획하는
 똑바른 길이라고 사유한다. 그리고 보면 음악의 연주와 음악의 형식도 종래의 그것에 비하여 개혁될
 것은 필연 된 일이고 연주회가 일종의 기업적인 것이었던 데서부터 실질적인 순수성을 가지게 될 줄로
 상정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음악의 연주는 단순한 감상이라든가 연구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생생한 음악을 체험토록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연주회 형식의 제 검토문제가 제출되는
 것이다. 다음은 라디오 음악의 재검토 긴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음악으로
 서 재조직되어야 할 마당에 있는 것이다. 라디오가 가진 위대한 계몽 -후생에의 힘은 그것을 공교하게
 이용하는데서 백, 천의 연주회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음악이나 악단이 앞으로 통제될 것은 음악가 자신의 자각과 협동에 의해서 수행
 될 일이므로 악단을 진행해 나아갈 새로운 조직을 확립하는 일이 말하자면 악단의 재조직 개조라는 현
 실문제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아무런 주의신념도 없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날뛰는 공리주의자나 성의
 없는 거짓말로 명사 연(然)하려는 이른바 음악명사는 이미 소용이 없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악단의 중
 심기관의 조직을 수립함으로써 음악운동의 이원화는 오늘날의 신체제에 적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 이상 종래의 구락부 풍의 모임은 단연 개편하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요컨대 악단혁신 -신체
 제의 추진력이 될 수 있는 혁신그룹 구성이 오늘날의 우리가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가져온 음악의 이념은 모든 음악 사업에 크나큰 통제를 가져올 것이겠지만 그 통제는
 표면적인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모럴과 통합된 데서 출발한 새로운 것의 창조정신과 정열이
 아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출전 : 金管, 『國家의 新體制와 新音樂의 建設(1~3)』, 『매일신보』, 1940년 9월 21·23·24일〉

(3) 음악획기의 년(1~5)

1

1개년간의 음악을 회고하고 비판함으로써 총결산을 하게 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하필 1년이란 시
 간적 구간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라든가 풍조를, 또는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이나
 연주를 평가하는 일로서는 그리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매너리즘의 관례로 되어 있을 뿐더러 특히 올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의미로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역사상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때를 당면했을 경우에 금년 1년 동안에 걸어진
 음악에 대한 관찰과 비판을 행한다면 어찌 의의가 크다 하지 않을 것이라!

정치나 경제 부문은 물론 문화부문에 있어서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볼 때 격단의 차이가 있다. 작
 년이나 금년이나 하는 먼 시간의 거리를 두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7·7금지령 이후의 음악에 대해서
 비추어 생각하여 족하다. 거기에 끌려서 7·7금지령과 때를 같이하여 일반에는 새로운 지도정신이 확
 립된 것이다. 즉 정치상의 형태로 대대공□□□를 생각게 한 신체제의 운동이다. 그리하여 이 신체제의

실천이 국민운동이라고 해도 가령 빈번한 국민적 관심과 아울러 상하에 향한 국민 재조직으로서의 코스를 밟게 된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예술 각 분야도 발밑에 불이 붙듯이 방향전환을 기획하고 재출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사태에 당면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각반에 향하여 신체제 확립에 의한 신지도정신의 절규가 들려져 있는 오늘날 조선의 음악계도 역시 그것이 걸어갈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정성적으로 틈에 지냈던 구체제적인 잔해를 깨끗이 벗어버리지 아니 하면 아니 될 필연적인 영광스러운 운명을 맞이한 것이다. 사실상 늦어진 감이 있는 것은 큰 유감이지만 음악가가 대동단결해서 새로운 일원적인 음악단체를 피하고 신체제하에 있어 음악을 통하여 신도 실천의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국민 총력운동에 매진하기로 한 것은 비단 금년 1년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역사상의 위대한 빅 포인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널리 국민생활에 대해서 비할 때도 그렇지만 음악가의 생활 악단 사회에 있어서도 위에 말한 바와 같은 큰 전환기에 그 합리화를 피하고 따라 문화계의 향상을 가지게 하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테면 장래할 국민음악의 창조라고 하더라도 악단사회가 생활의 존재양식에 뒤쳐져 있고 음악가의 생활이 언제까지든지 구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새로운 국민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일일이 여기서 과거의 결함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요컨대 음악가 자신들의 연대책임 연대감정의 부족이 모든 회무를 유명무실화로 만든 중요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크게는 고도국방국가의 신체제 밑에 있어서의 음악가의 임무와 의무를 자각하게 된 것은 1년 설계에 앞서서 가장 중대한 의미 깊은 반향이라고 할 것이겠다.

이상으로 개론적인 것을 마치고 다음 회부터 구체적인 비평으로 들어갈 작정이다.

2

사변 이후 음악은 그런 문화부문에 비하여 자기 비판에 대한 열의가 특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악단사회의 지반 위에서 있어 국책이라든가 정치에서 초연 고립하였고 국가나 정치면에서도 음악은 무용의 한 가지 일로서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현재와 같은 시국에 도달하면서부터 국가의 이상 달성에 대해서 모든 직역에서의 노력이 요망되자 음악도 직능으로 하는 바 그 사명과 역할에 있어서 국민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큰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사변 이후 일시적인 시국영합권의 음악생활에 비해서 자각 밑에서 의식적으로 정치와의 접근을 가지게 된 자태는 금년 음악계의 주요한 경향의 하나로서 손꼽을 수 있는 일이다.

이상에 의해서 간단하지만 1943년도 음악계의 주된 특징과 또는 현재가 어떠한 시대이고 이 시대에 놓여진 음악의 가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셈이다.

그러면 그런 전환기에 당해서 구체적으로 음악가는 여하한 활동을 보였고 또 어떠한 작품이 나타났느냐는 문제가 당면 논점으로 되겠지만 유감한 일이라서 음악 작품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 한해서 작품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도 음악 작품의 빈곤은 조선음악계의 파행적 결함을 말하는 하나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는 노릇이지만 -작품활동의 빈약은 작곡가

의 영성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음악적 수준과 그 밑에 흐르는 전통(양악)의 성식에 다름없으므로 암만 작품이 나오라고 떠든다 해도 그것이 도로에 그칠 것이다. 요컨대 현 악단의 위치에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훌륭한 작품, 우리가 이상하는 국민음악의 지점에 다다르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한 꿈에 속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작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수요가 불과 수 명, 그것도 그들 자신은 대개 장담을 하는 모양이나 첫째, 기술부족 - 음악문법을 마스터하지 못한 데다가 세계의 정세와 자기의 율동과 호흡 등을 융화시켜가면서 창작하기까지는 여태도 일반의 내성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동일 대매(大賣) 주최 콩쿠르에 입상한 임동혁 군과 이진우 군이 신진이라고 하겠으되 일시적인 공명이나 허실적 □□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과거 조선의 이른바 음악 명사의 소위 무책임한 저널리즘의 상책과 음악가 자신들의 우수양에서 생겨진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결코 그러한 포스적인 음악가를 허용할 시대가 아닐 줄 믿는다. 특히 임, 이양군에게 고언을 또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작곡이란 조선서는 가장 드문 음악분야를 개척할 선발된 전사인 때문에 있다.

물론 어떠한 시대 정세 가운데 있어서라도 비평가는 자기의 천직에 대해서 충실해서야 되겠지만 금일과 같은 위대한 전환기에 당면해서는 특히 비평가의 새로운 지도적 임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저널한 연주회 비평을 가지고 평론의 전부라고 오식하기 쉬운 악단 제군에게 자기 변호도 앞으로의 비평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요망하기를 말해 둔다.

3

금년 1년 동안 열린 음악회는 예년과 다름없는 대등수였지만 대체 연주자의 활동이라는 것이 우선 현재까지 해 내려오고 있는 연주회의 개최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연주가로서의 유일한 연주형식인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지세를 볼 때 국민의 문화적 무기의 견지에서 우리들의 음악활동의 형식을 재음미할 것 같으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주회와 같은 한정된 좋은 모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당연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라디오나 레코드도 광범한 음악을 흡수하는 한 강력 수단이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하다. 즉 기계를 통하지 않은 생생한 음악을 정신을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부여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건전한 국민음악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후생운동의 일익으로서도 연주가의 자각과 활동은 요망되는 것이다.

연주회적인 제한된 팬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도 특히 필요하지만 한편 대중적인 광범한 계몽적 육성 없이서는 진실된 음악활동이라고 하기 어렵게까지 이르게 된 금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금 일년 동안에 열린 각종의 음악회는 모두가 협소한 콘서트에 지나지 않았고 종래의 구체제적인 예술지상주의 예술 삼매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 단지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본부 사회교육과 후원으로 부민음악회가 매일신보사 주최로 26일 개최기로 된 것인데, 이 모임은 종래의 상업주의적 음악연주형식을 벗어나서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우

선 일종의 특정계급의 전용물이라고까지 보게 되던 음악회장을 국민적인 □신재로서 제고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진의는 앞서 말한 계몽적 육성의 일조로서 획기적 출발을 꾀한 것이다.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마치 바다 마이야 시대가 시민적인 중간 계급에 있어 예술이 큰 역할을 하듯이 우리들의 예술이 바야흐로 국민주의적인 소유로 되려는 새로운 코스를 투시하는 마당에 있어 한 개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연주가 자신의 각성과 역할 시대에 대한 감격과 열정만이 오직 음악하는 정신의 적절한 표현인 것은 물론 조선문화의 새로운 열매를 복돋우는 한 개의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부기할 것은 음악문화운동이 취할 건전한 수단은 □□주의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 □□주의의 음악운동만이 근로자 교육의 제일선에 음악이고 크게는 국민을 위한 음악, 거기에 건전한 오락과 새로운 건설적 의기를 배양시키는 원동력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운동의 실천으로서 취주악, 관현악, 합창 같은 집단 음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일이다.

연주 부진의 한 원인은 연주가 자신의 매너리즘에 기인되지만 그것은 시대적 센스에 대한 미급과 관념적으로 접근되어버린 속물로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부 부족에서 오는 파경이 다른 하나의 원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3, 4년이 가도 현신작 위하듯이 동일한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무진보는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 새로운 걸음을 밟으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깨끗이 청산할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4

연주회 부진에 비하면 라디오는 그 본래의 특수한 기구를 가진 관계도 있지만 가장 풍부한 음악방송을 가져왔다. 그러나 방송국의 음악 편성에는 가지가지의 불만이 있다. 이를테면 방송인의 인선이라든지 레퍼토리 등에 만전을 기했던 것이냐고 묻게 될 때도 천편일률적인 매너리즘이 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디오 음악은 당연 음악문화 신체제 위에서만 국민문화 예술을 비춰보아 절대로 필요한 것은 재연할 바도 아니지만 더구나 조선과 같이 미약한 현악단에 있어서 라디오의 사명은 중대한 음악계발의 일획으로서 중요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방송국 간행 『조선의 방송』 지상에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른바 밤마다 방송되는 가정가요 같은 것만 하더라도 그 기획과 음악의 거리가 너무나 심한 것을 결국 방송국의 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이 된다.

즉 시국적인 가요음악을 보급시키려는 취지는 시의에 적절한 기획이었을지 모르나 기실 가정가요가 자미가 적고 불려지지를 않아서야 문제는 간단치 않아진다. 새로운 기획도 좋고 방송수효를 늘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확실한 방송 플랜이 없이는 국민적인 음악으로서 재조직을 요망하는 음악방송의 사명을 금으로 들리는 것이나 다름없이 된다. 이 기회에 부연할 것은 비단 음악에 의한 문제가 아니고 연주방송 일원에 대해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방송당국이 종래와 같은 철온적인 이지고잉(easy going)을 고집할 리도 만무하겠고 당연 방송신체제의 중요한 이 부문으로서 음악 연주에 대하여 개혁안을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방송국과 악단이 원활하게 제휴해 나가지 못해 온 원인이 일방적

인 것은 아니라 해도 음악방송의 무질서는 방송국의 멘트(comment?)에 관련될 문제인 줄 안다.

사변 이래 조선 레코드계를 볼 것 같으면 그 무정견 또 무질서는 두 말할 것도 없고 창도하는 기염? 과 실제의 상위가 심한 것은 결국 악자(음악가)의 일시적 도모에서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태도에 역연한 것이 있다. 시국영합권이라든가 혹은 시국하란 미명 아래서 태연자약하게 모모적 곡조를 연가조로 만들어 유포시킴을 볼 때 이른바 대중음악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오락음악 - 일개 이윤을 탐내는 음악에만 일임해 왔다는 종래의 방법에 큰 실책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레코드 사업이 문화사업인 것은 물론이다. 한 때의 레코드 자모문제 같은 것은 무정견한 사람들에게 레코드 사업을 일임해 온 사회가 요구하는 특히 미소한 사죄에 불과한 일이다. 음악생산기구의 개혁(개선)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든 생산기구가 신체제로 재조직되는 오늘날 레코드만이 구태의연이어서는 우스운 노릇이다.

그리고 레코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악극류가 금년 들어서서 우후죽순처럼 속출하는 것을 보더라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사업이란 미명하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격이다. 앞으로 남겨진 문제는 레코드 일본 경음악의 신체제에의 구체책이다. 우선 악자의 자각만이 오락음악 전면에서 데카탄(Decadent : 퇴폐주의적 사조)한 망국조를 일소하고 나아가 건전한 경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노릇이겠지만 현재의 레코드 기구 하에서는 도리어 악자의 안전지대인 피난처가 되어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혁을 바라지 않고서는 하등 효과가 없을 줄로 보여진다. 생산기구의 조정쇄신이 그러고 나서 기구체적 실천행동을 음악문화 지도자와 당국이 지도해 나가는 길만이 우선 소극적이기는 하나마 경음악 전 반을 구해낼 길인 줄 안다.

5

축음기의 제작 금지, 레코드의 재료 배급 금지, 악기제조의 최소 제한 등 음악기업의 전면적 후퇴는 전시하 경제의 조치인 만큼 이익을 내세울 여지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의 문화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비상시에 대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최상의 건강한 오락을 조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구할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국민정신진흥을 위주로 해서 음악을 장려하고 있고, 더구나 예술과의 시간을 추가시켜 창가회를 중요시하고 있고, 추천 레코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이상 그러한 음악보급에는 반드시 피아노나 축음기가 필요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계획과 실천이 모모하고 있는 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텔레케이트한 문제를 타개할 방법을 고구하는 것만이 앞으로 남겨진 길이다. 일반적으로 예술 - 더욱 음악을 사치시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없다할 수는 없다. 예부터 음악을 일종의 신비주의로서 존중시해 온 기록도 있다시피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망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십수 년 이래로 라디오나 레코드의 보급과 거기 따라서 생긴 청중층의 확대와 연주의 중앙표준화는 오늘 목격할 수 있다시피 음악의 사회화 국민화의 경지로까지 만들게 된 것이다. 악기제조 금지가 가져온 영향은 환경적인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악기가 없이 음악은 성립되지 못한다 할 만큼 중대

한 문제로까지 되어버렸다. 목하 음악이 사치품이나 아니냐는 명제를 내걸고 운운할 시기는 아니겠지 만 결국 그 물질 조건에 대한 위정당국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는 다른 도리는 없을 것 같다.

이상으로 금년도 음악계의 주요한 口세를 일견한 셈이고 나머지 지면도 없고 해서 개개의 음악적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치를 못할 것 같지만 전후를 가리지 않고 이상에 남은 몇 개의 기억을 적음으로 이 고를 끝맺으려 한다.

이인범 독창회 - 이군은 콩쿠르 입상자란 호 레테르인 선전재를 가진 만큼 일반의 기대는 컸던 것 같지만 단색조로 된 이군의 독창은 아직도 곡조를 자기의 것으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표현해 갈 만한 경지에서 본다면 거리가 먼 가수인데 실망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직 자신이 독립할 만큼 성장된 성악가는 되지 못한다. 이군의 보체는 기실 아름답지만 그 아름답다는 것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천부를 가진 미성을 연마해서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하지를 못하고 단지 아름답다는데 만족하려는 이지한 태도가 역력하다.

노래마다가 마치 죽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듯이 맥이 없고 물론 뉘앙스가 없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 앞으로의 정진을 위하여 고언을 올리는 바다.

학교음악회는 몇 개 줄었지만 성은 음악부문인 학교거나 아니거나 간에 학교음악회에서 첫째 느끼는 것이 학교마다의 훈련과 교풍이다. 이 점에서 제일 감복한 것은 여자사범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타 이시카나이한 것은 여기다가 열거치는 않겠으나 요컨대 기량의 교졸이라든가.

예술의 양부를 묻지 않고 단지 노래(음악)하는 일에 환희를 가질 것만이 학원 음악의 극치인 만큼 이 기회에 학교당국자의 숙고를 구하는 바다.

(출전 : 金管, 「音樂劃期の年(1~5)」, 『매일신보』, 1940년 12월 19~21·23~24일)

(4) 국민·문화·음악(1~4)

1

문화정책의 확립은 하루바삐 시급을 요하는 과제로 되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아직까지 상업주의적인 아나키가 완전히 일소되지 않고 있는 한 문화 활동에 의식적인 지도 관리에 이르기까지는 허다한 곤란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정책은 문화적 부면에 대해서는 정책인 이상 본래적으로 국가적 정치성을 구유(具有)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가 높은 의미의 문화성을 가질 것, 즉 정치 플러스 문화에 발을 버티고 행해지는 문화정책만이 정(正)한 것도 무론(無論)이다. 그러므로 문화정책은 그 대상면에 한해서 언제나 문화적일 것으로 정책 자체가 정치적 범위를 초월한다거나 □□할 바 아니므로 항상 문화정책은 국가적인 것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구라과풍인 정치가 퇴조되고 새로운 일본풍인 정치개념을 가지게까지 된 이상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국가적 공동생활체 가운데 있는 문화적 부면에 대한 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의 확립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최근 대체의 윤곽만을 가지게 된 일반문화 부문의 재편성을 원칙적으로 고증한다면 과거의 문화기구가 주로 개인 개인의 재능을 높이는 데 일관했고, 혹은 각각의 전문 부문의 발전향상만을 꾀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메커니즘이었는데 결점이 있으나 금일의 문화의 현상에 비취볼 때 거기에는 목적에 추종할 수 있는 영역이 각각 전문 부문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하는데 심히 불편한 것, 또한 가지는 국민생활을 직접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 거기서 발휘할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결함일 걸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능을 향상시키고 한 개의 전문적인 부문에 있어서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목적에 결부시키거나 또는 국민생활에 결부시키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단체기구로서는 전연 무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전체적인 기구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요망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문화재의 보급을 비롯해서 문화의 지역적인 편재의 광정(匡正) 등이 실행될 때 문화정책의 적극화와 병행되어서 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체로 문화라는 개념은 첫째, 인간 일체의 가치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경제·산업·교통까지를 포괄하는 것과, 둘째로는 과학·도덕·예술·종교 등 인간의 정신적 노작에 의해서 현현되는 진·선·미·성(聖)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문화라는 용어가 다종잡다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의 관념의 혼효는 문화자체가 가진 건전한 발달까지를 조상하는 데까지 영향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2

문화라는 말이 씌어지기 전에는 문명이라는 말이 주로 서양의 물질문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현금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면 금시 물질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하려는 넓은 망(亡)을 회상하는 관념이 없지 않지만, 또한 문화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딘가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기실 문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일은 결코 그릇된 노릇이 아닐 뿐더러 완전한 종합체를 이룬 일체의 사회가 그 자신의 생활을 상점(相點)에 가져다 놓았을 때는 문명의 각도는 주로 생활의 물질적인 면에 투영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명관은 한 시대 전의 이른바 문명관보다는 넓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는 국한된 서구문명에 대하여 다른 새로운 문명을 의식하는 가운데 가미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현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화라는 말에는 그러한 문명의 물질적 형태의 훌륭한 부분을 가미시킴으로써 단순한 특수적 국(國)건에 멎어 있지 않고 새로운 ㅁㅁ의 철저케 하려는 데 있어서 새로운 ㅁㅁ의 관념에 비교케 하려는 데 있어 새로운 문화의 의의가 명백해진 것인 줄 안다. 그런즉 이른바 문화세계라고 해서 전 세계를 한 개의 종합체로 보려는 그것은 현실로서는 정당한 인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같이 문명과 문화가 서로 상대되어서 씌어지는 것이 정당하지만 다만 편의상 문명을 인류의 사회화와 ㅁㅁ화를 포괄한 것으로, 그리고 문화를 그 위에 다시 창조적 ㅁㅁ의 경험을 플러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으로 현금 우리가 문화의 요소로서 윤리성과 과학성, 그리고 예술성의 세 가지를 들게 되는 것에 문화개념으로서의 새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조선문화가 전반적으로 봐서 결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세 가지 요소의 어느 것인가가 희박한 데서 원인을 찾게 되는 것으로, 이를테면 윤리성이라는 것이 민족이거나 국가를 떠나서는 추상론에 흐르고 말 것인지만 예술에 있어서도 윤리 자체의 목적인 개인의 완성과 동시에 국민으

로서의 개인의 완성이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겠다. 이제 새로운 예술, 새로운 예술가의 이념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 단순한 윤리적 모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적인 지향이 각 국민을 통해서 모호적인 사상 고취로 되었고, 각 국민사회가 자애적으로 자기의 생존권을 주장하게 된 때문에 의식적인 심화가 있던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건설과 병행되면서 나타난 국민정신에의 그것은 결코 금차 모호에 대해서 나타난 우연적 지향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금일의 국민예술의 치열한 지향은 현대문화의 새로운 형태로 달리는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국민생활의 진실을 파악하고 민족발전의 역사적 필연의 과정과 일치되어야 국민정신을 진흥시키고 따라서 최고의 문화국을 꾀하기 위하여 예술 - 음악은 또한 민족정신을 모호케 하고, 아름다운 국민음악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음악가가 민족의 성격을 그린다든가 국민정신을 표현한다든가 하는데 있어서 의식적인 지향과 노력만으로는 모호히 민족의 성격이나 국민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요컨대 한 사람이 민족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체험하고 국민정신을 심신에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술가라면 그가 제작한 작품이야말로 틀림없는 국민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

음악적으로 국민음악을 만들려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낳기 쉽다. 이를테면 국민적이 되려고 민속적인 선율을 사용하는 실례가 음악에 있어서 왕왕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한 민요 같은 민속적 선율은 그 자체가 이미 독자적인 선을 가진 완성된 예술작품이므로 그러한 선율적인 운용은 마치 커다란 모터 가운데 모호로서 작은 모터를 쓰려는 무모한 짓에 비할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바흐의 음악이 당시 튜른적인 음악이기는 했어도 결코 의식적인 독일음악은 아니었다. 도리어 국제적인 음악에 의식을 두고 있었다. 음악사상에서 의식적인 국민음악의 제작은 19세기에 시작된 일이고, 이른바 러시아 국민음악파의 거장 글링카의 작품에서 엿보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러시아 국민음악파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존재다. 당시의 러시아 음악의 진보에 형식상의 진보가 극히 유치했던 탓으로 그러한 결점은 국민음악의 생래(生來)로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기성의 형식과 화성을 구사해가면서 그 가운데 전혀 민요 같은 선율을 쓰지 않고 감정과 정신에 있어서 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국민적인 작품(교향곡)을 제작할 부문의 시벨리우스 같은 작곡가는 러시아 국민음악파의 의식적 태도에 비해서 우리들이 당면한 국민음악에의 문제인 다대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외국적인 분위기와 음악형식을 습득한 작곡가라손 치더라도 그가 모호되고 있는 민족의 성격이라든가 생활감정을 그리려고 할 때에는 족히 그것으로써 국민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본의 교향곡이 아니라 일본인이 제작한 교향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을 쓸 때 비로소 정작 국민음악의 구체적 모호이 맺어지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이 점에 즉 민족의 피의 숙명이라든가 국민성의 각양이 모호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후천적인 학문이나 교양보다도 첫째로 피(血)고, 그 피의 모호이다. 국민이라는 말은 외국의 예를 들면 분명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 음악에 역사적 개념이 따르고 있음을 본다. 국가관념이나 국민의식이 참된 모호을 가진 것은 독일 같은 나라에 있어서

도 근세(낭만주의 시대)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한 국가관념이나 국민의식은 일본인에 있어서는 역사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4

다시 말하면 역사의 추이 상에 있어서 국민의식이 비상이 높아지는 시대와 심히 침잠하는 시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나 기타 외국과 달리 우리에게서는 국가의 통일성이 강고한 근원인 황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기회만 있다면 이를테면 메이지유신, 일·전쟁 당시 - 곧바로 강력한 국가관념과 국민의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국민문학들 가운데서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지만 어떠한 국가,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든 문화가 그 다원성을 파악하고 일원적인 자기통일을 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복고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사실로서 무시되어 온 역사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일까지 불통일한 문화의 존재에 대해서 황홀했을 뿐이었지만 거기서 자립적인 문화형태의 자기통일이 요구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선 국가의 통일이 되지 않아서는 아니 될 마당에 고전이 문제에 오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음악에 한해서도 보더라도 얼마 전까지 고전으로 숭배되고 있는 바흐나 베토벤 같은 이른바 고전의 국제성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일과 같이 인터내셔널리즘의 정치와 함께 민족의 운영에 의해서 그 자주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견 무색해질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금시로 자기의 고전음악에 미친 고전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금일의 우리들의 음악이 우리들의 고전의 전통보다도 더 많이 서구의 고전의 전통을 지배적인 것으로 배워 온 일과 거기 미쳐서 우리들의 음악의 정통에 대한 바른 눈을 갖지 못한 두 개의 불행과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할 수는 없다.

문화의 창조가 개성적인 때 비로소 구체적이 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역사적 자의에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닐 될 일이다. 고전의 국제성에 관한 문제가 자국의 문화 성장에 큰 기여가 있어 온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국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또는 고전의 전통에 대한 무지가 비판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면 확실히 무모한 짓이었다고 뉘우쳐지는 것이었다.

〈출전 : 金管, 『國民·文化·音樂(1~4)』, 『매일신보』, 1941년 7월 23~26일〉

(5) 음악시평 여러 가지(1~3)

1. 음악비평에 대해서

자주 말해지는 것처럼 비평은 창작과 대응적인 작용이 아니라 비평은 제작 활동의 전 과정을 통해서 관여하는 것이고 오히려 제작의 상반신이다. 스스로 제작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비평의 영위의 계속과 긴장이 의식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작에 접해서 작용하는 비평에 있어서도 다만 그 내측을 비취춤에 따라 이른바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아름다움을 향해서 그 작용과 가치를 추구할 뿐 아니

라 제작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세계를 발견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제작에 있어서 더욱 어떤 경우는 제작 자체마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와 세계를 건립하려는 것이다. 그때 비평은 어떤 기성 제작을 꺾는 제작의 작용인 것이다. 고전작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우리들 앞에 소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비평적 제작이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통에는 음악비평은 영감에 기초한 아름다움의 창조물인 작품과 그 재현(연주)에 대해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이라고 말해진다. 대체로 발생적으로는 음악비평이 그러한 효용성에 편승해 작품과 연주에 추수하는 듯한 형태로 발달하고 처음으로 그 제□특 형태로 기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로 저널리즘의 발달과 함께 확고한 성격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음악적인 의미에 있어 비평이 현대 작곡가와 연주가의 활동상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대의 여러 문화 활동을 통해 현저한 지적 작업의 분화적 경향에 기초하는 비평의 종합적 역할인 것이다.

예를 들면 한사람의 작곡가, 한 사람의 연주가와 같이 한 작품, 혹은 한 작가의 전체를 이끄는 것이고 따라서 비평가는 그 주관의 의미지움과 가치지움 등의 이론적 역할에 의해 작곡자, 연주자의 음악상의 작업에 협력하고 보좌하는 것이 된다. 즉 작곡자와 연주자에 있어서 일어나기 쉬운 자의식상의 결합과 작품 혹은 연주상에서 나타나는 의도의 오류를 방지하고 그 길의 전문가에 의해 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개의 총명한 음악비평은 항상 엄밀하게 음악표현의 내부에 육친이 되어 침투하는 것이다. 이른바 음악의 현인이 되려는 몸에 어디까지나 음악 이전의, 음악 이상의 세계로 멀리 멀리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음악의 아마추어인 사람에게도 그 두개의 사이에 미묘한 알모니를 가지고 서게 된다.

어쨌든 비평의 본래적인 성격과 반성에서 음악비평의 실체에 있어 그 세대의 여하와 민족적인 마음의 태도 여하에 따라 비평적 태도가 두 가지 가운데 어딘가로 기울어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에 음악비평은 단순하게 음악문화에 대한 좁은 시야만으로는 완수될 수 없다. 적어도 비평인은 한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등과의 긴밀한 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직면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 익찬해야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때 음악비평의 정치성과 모럴리티는 단지 한편의 이론으로서만 말해질 수 없는 것이다. 널리 정치, 경제, 문화로 시야를 넓히고 그들과의 관련에서 비평의 근거를 구해야 할 태도야말로 절대 필요하다.

2. 국민음악에 대해서

국민예술론이 요즘 무척 성행한다. 예술작품의 창작에 종사하고 있는 자 혹은 지도적 입장에 있는 당국자에게, 또는 국민 자신들 사이에 국민예술에 대한 열의와 요망 등이 어느 정도로 찬연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무엇에 의하지 않고 국민적으로 혹은 국민 중심으로 판정하는 것이 □□하고 진면목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사변에서 민족 발전의 역사적인 필연의 과정과 일치된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민사회의 운영을 방향 짓는 때이기 때문에 국민예술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기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태세에 제약된 특수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국민적 예술로의 불꽃은 전번의 세계대전 이후 각 국민을 통해 보편적이 된 사상 동기였고, 세계의 각 국민 사회가 자각적으로 우리 생존권을 주장하는데 이른 이래 심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음악에 대해 생각한다면 음악이라는 형식에 의해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친숙한 것을 만들어 내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제약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 음악이 특수한 계급의 전용물에 머무른 이유의 하나로서는 당연히 외국 음악재(財)의 수입의 방법과 그 소화의 방법 등으로부터 온 제약을 들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용에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국민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도 그것을 감상할 수 없는 것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음악을 국민의 모든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평이화와 음악의 청취에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면 음악가가 국민음악 제창에 힘을 기울일 이유의 일부분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음악은 표현형식으로 보아도, 감상형식으로 보아도 문학이 가지는 제약은 하나도 없다. 인텔리도 농민도 하나의 음악에 감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영화와 함께 음악이 갖는 문화면의 톱을 달릴 수 있는 넓은 가능성을 가진 것이다.

에누리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조선에서 음악은 목욕탕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레코드 회사의 소비자를 기다리는 듯한 것이었다. 그들은 동경되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진 것뿐이고 그 때문에 그들의 제작적 미숙함과 공상적 이념의 과잉으로 초치된 비극적 고립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우연으로 개방되어 현실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높은 리얼리티로 이른바 현실을 일정 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그 존재함과 고귀한 빛 등을 문화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적으로 돌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에는 우선 음악가 한 명 한 명이 국민으로서의 공고한 자각과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유행가와 같이 자본가가 구하는 대로 대중의 약함에 비위를 맞춘 작품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온 것도 돌이켜 보면 과연 국민성을 가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의 가능성이 국민문화 위에 차지하는 사명의 중대함을 생각한다면 음악에 이르는 모든 것은 다 국민음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출발

무릇 음악에 종사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전문가가 혼합되어 하나의 악단을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그들 인간과 인간의 언어가 좀처럼 통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음악을 위해서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데 작자와 연주자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평론가와 연주자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10년을 하루같이 외치거나 투덜거리는 사이에 서로 무기력해져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실로 일본적인 예술이 나올 리 없다. 어떠한 음악상의 문제를 들어보자, 우선 음악의 일본적 현실(조선적 현실)이 정당한 이해를 결여할 때에는 바르게 구체적인 발전을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자주 지적해왔지만 조선 악단은 실로 어수선하다. 연주가의 대부분은 무계통한 레파토리로 오직 쉽게 희희거리는 한편 작곡가는 낮은 예술적 의욕과 자기의 제작력의 약점을 알지 못한다. 게다가 가장 나쁜 것은 이런 상태가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늘까지도 묵과되어 온 것이다. 게다가 사변하의 오늘, 아무런 음악적 반성도 갖지 않은 채 다만 시국편승형의 모모로 전락해서 우쭐거리는 무리가 득실득실한 것이다.

우리들 음악가는 스스로 음악적 창의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여서 단순한 시국 추수나 영합은 진정한 음악가의 태도로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뭐라고 해도 오늘날의 음악 상태는 음악문화사적으로 보아 심히 낮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하에서 전체의 수준을 끌어 올러가는 일은 여러 가지 곤란을 수반한다. 음악가가 시대의식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음악을 통해 음악상에서 음악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의미의 인식으로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엉거주춤 분절형 음악가의 경우에는 음악과 떨어진 자기로의 적합성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으로 실재는 시국에 편승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른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역시 조선 음악의 상태는 문화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인식의 부족, 문화적 낮은 수준 등이 오늘날 조선 음악가의 약점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확실히 자각하지 않으면 음악가 자체가 문화의 전체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음악 부문, 특히 예술 부문과 밀접하게 관련, 교류하는 것에서부터 음악의 독자성이 강력하게 발휘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언한다.

〈출전 : 金管, 「音樂時感いろいろ(1~3)」, 『京城日報』, 1941년 7월 4~6일〉

(6) 예술은 격려되어야 한다(1~3)

1

건강한 시대에는 예술과 오락은 숭고한 이상에 매진하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민족의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밝고 광영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음악문화 건설의 지도 원리인 대동아전쟁이 가지는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고 이로써 우리들의 음악에 모모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일본이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수립과 세계 신질서의 건설 등에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음악적 지반의 구축이 이루어진 듯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음악으로의 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선 생활적 지반에서 유리되었던 관념적 음악적 토양을 버리고 국민대중 위에 개방해야만 한다.

예술에 있어서 인기와 프로페셔널리즘은 운동 경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인데 대중은 가수이든 연기자이든 혹은 마라톤 선수이든 무릎 꿇다발을 좋아한다. 단지 실제적 비평의 초점이 적극적으로 있을 경우에만,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로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단순히 볼거리라고 하는 현상 속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출 것인가를 문제로 하는 이른바 명인주의는 개개의 것이 개개의 존재이어서 그 모습을 보인 19세기 이후의 개별주의적인 사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 음악의 생활적 기반이라면 극장음악회장, 객간(客間), 거기에 어두운 사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공동적인 생활이 영위되어가는 가정, 직장, 읍내, 마을 등은 별도로 남겨졌고 문화권 외의 음악 지대였던 것이다. 게다가 얼마 전에 모적 기업가에 의해 비속한 음악이 유행하게 된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2

이들 형식만의 음악으로 한 때 기쁨에 넘치고 있던 극장과 음악회장의 팝(포크스?)은 환상적인 동물원에 지나지 않고, 철책을 둘러싼 정원에 지나지 않는, 라스킨의 유명한 말 '도둑은 밤, 혹은 광인은 안'이라는 것을 떠올린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음악은 이들의 옛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맹으로 이동해 가는 역사의 필연이 모든 음악적 행위를 모호하는 것이다.

국민생활을 비롯한 산업 생활의 새로운 상태에 대응해 모호해 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음악이라는 것의 의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결국 음악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푸는 공통분모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진정으로 좋은 음악이라는 것의 기초가 우리들의 학문 세계나 생활상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종래 우리들 음악분야는 정치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모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제부터 모호 가야할 길은 다른 예술 부문과 비교하여 아득하지만 크다고 생각한다.

음악정책을 통일적, 종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적정한 지도목표와 그것의 지도기관이 요망되는 것이지만 이 적정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악단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종래의 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추구된 자기목적의 지양하고 이른바 음악군수품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념적으로 새로운 지도관념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 보다 중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3

물론 오늘날의 음악 방향은 결정되어 있다. 음악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모든 문화 기능의 목표는 하나이고 그것은 불과 같이 명료하다. 다만 음악의 실천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해야 할 현실의 변화에 눈을 돌리지 않아서 낮고 미미할 뿐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음악문화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은 정치의 문화성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원래 모든 문화활동은 그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는 해도 항상 그것은 정치의 원리상에서 성장 발전

하는 것으로서 가장 정상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을 단순한 하나의 수단으로 한 음악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즉 음악의 효용성의 이용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들의 음악으로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능한 기반을 정비해야만 한다.

대동아전쟁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는 이미 서술한 대로 우리들의 음악문화 건설의 지도 원리인데 첫째로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 세계적 규모를 가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지역적 문화에 머무르지 말고 세계문화로 넓혀가야만 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세계를 감득시켜 주는 음악양식으로의 회구가 우리들에게 제출된 문제라고 한다면 그 확고한 음악관을 기반으로 한 음악문화정책의 수립은 나아가서는 대동아공영권내의 모든 음악적 문제를 일본의 국가 의사에 기초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출전 : 金管, 「藝術は鞭たれる(1~3)」, 『京城日報』, 1942년 7월 25·28·30일〉

4) 김생려(金生麗, 金山生麗)

(1) 반도에서 후생음악의 문제

결전 하 생산 확충의 필요는 국민의 노동력 향상과 보강을 요청하는데 따라서 후생시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문화생활도 역시 당연히 생발화(生發化)시켜야만 하는 발전적 인과율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국민후생문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음악활동도 전시에 그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고 국가총력전에 있어서 문화의 사명을 직재여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시에 편성된 유기적 결합을 다시 확충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선에 있어 후생음악활동의 현상을 볼 때 유감스럽게도 많은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다. 어떻게 이들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운동의 적극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인가? 진지하고 정밀한 태도로 연구하고 그 실현에 노력하는 것은 음악문화운동에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근로자는 국가총력의 근원이다. 문화 발전의 모태이다. 이 근로대중에게 생명 넘치는 예술의 양식을 주어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생활 예술의 순수성을 침투시켜 예술에 대한 보편 향수적인 애정을 가지게 할 때 여기서 비로소 우리들이 요망하는 흔들림 없는 문화세계의 실천적 발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생음악은 “국민의 사기의 고무와 노동력의 위안을 위한 음악”이다. 즉 민중에게 건전 명량한 정신의 함양을 주어 사기를 고무하고 노동자의 위안이 되는 음악을 일반적으로 후생음악이라고 한다. 또 이 후생음악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음악가에 의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와, 근로자 자신이 취주악단이 되거나 합창단이 되는 아마추어 단체를 조직해 연주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필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이다.

우선 어떠한 음악을 후생음악으로서 근로 대중에게 줄 것인가? 건전한 내용을 가지고 또 근로자의 위안을 제공하는 음악은 어떠한 것인가? 그 질적 내용의 규정은 연구를 요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사변 발발 이래 일세를 풍미한 감상적인 유행가는 거의 그림자를 감추고, 그것을 대신한 군가 시국에 기인한 속악이 거리에 범람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구만을 바꾼 편승적인 음악이면서 유행가의 대체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소수를 제외하면 건전한 음악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것을 후생음악으로서 그들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그 건전성이 결여된 가장 현저한 징후는 선율의 빈약에서 나타난다. 무엇인가 부를 수 있는 곡조만 있어 그것이 단일한 리듬(울동)에만 익숙하고, 상투적인 화음의 카덴스(종지)에 짓눌려 끄끙거리거나 외치거나 할 뿐이다. 선율은 노래의 생명이다. 명랑하고 조성이 좋은 선율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음악 전체의 생명력이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악성 베토벤의 주명곡, 교향곡의 주제를 이루는 선율은 겨우 2, 3 소절, 수개의 음만으로 이루어졌지만, 영롱한 구슬과 같이 혼연한 자극을 보인다. 이 두 세 소절의 선율이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어 울창한 큰 나무의 위대한 건축이 되는 것이다. 음악은 추상적, 입체적 구성감 위에 성립된 것으로 그것이 전체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빠질 수 없는데, 아무리 부분적인 미감이 있다고 해도 음악으로서의 가치는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다. 음악은 하나의 건축이다. 그러나 음악은 실제 건축과 다른 무형적인 존재가 공중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불균형인 것이 있어도 묵묵하게 그대로 통용된다. 조잡한 음악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에 넘쳐흐르는 것은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가? 그들 유행가(속악)에 비할 때 독일, 이탈리아의 사소한 군가나 행진곡은 얼마나 풍부하고 웅혼한 음조를 띠고 있는가? 청년이 행진할 수 있는 간단한 선율 속에 위대한 베토벤과 바그너와 베르디의 영혼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속악(俗樂)을 듣지 마라”고 말했다. 것처럼 인간의 천성에 기초하는 재능과 정열의 육성에 민감했던 사람은 왜곡된 음악이 얼마나 약한 귀를 가진 민중과 젊은이의 감수성을 해치는지, 그 생활을 타락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순간 베토벤의 주명곡과 바그너의 음악을 후생음악으로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다 그것은 건전, 오히려 교육적인 입장에서 수공할 수 있지만 위안성에 있어서는 박약하다. 한번 그들의 귀를 빼앗은 선정적인 유행가의 선율은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그들의 말초신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고상한 음악의 세계는 현재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너무 거리가 먼 세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속한 유행가를 듣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일시적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 대한 영원한 모독이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한 아편 주사인 것이다. 여기에 고심이 있다. 즉 이 건전성과 위안성의 차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 □□해서 위안이라는 재래의 관념을 정정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지금까지 위안이라면 위안을 위한 위안이었고 그로 인해 생활리듬과 사회 규율과 윤리 등과 유리되지 않았던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관으로 위안은 생활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위안이 약해짐에 따라 생활의 윤리규율을 파괴시키는 것은 아니어야만 한다. 따라서 금후 가능한 한 위안음악은 반드시 재미 있으면 좋다, 웃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거기서 일종의 지도성을 가진 것이어야만 한다. 즉 어떠한 음악일까 혹은 작곡가가 누구일까에 관계없이 그것은 지도적이고 건전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제1요건으로 하고 그들이 재미있다,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은 둘째 요건으로 선풍해야만 한다. 그러한 점에 입각해 생각할 때 다수의 악곡 가운데 이상이 요건에 적용될 수 있는 약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곡목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방면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연구와 애정 충만한 노력으로 적합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1년여 동안 필자는 경성후생실내악단과 함께 벽촌산지에서 음악을 할 기회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부를 위해 혹은 노무자를 위해 많은 연주회를 가졌다. 전원 모두 곤란과 싸우며 작은 곳에까지 마음을 다해 헌신적인 연주를 했다. 그 연주 곡목은 물론 위와 같은 제1요건을 중요시해 선곡되었다. 처음에는 재래의 통속적인 유행가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품었지만 그러한 곡 두 곡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완미(頑迷)한 그들로서도 이윽고 호기심에 이끌려 다소라도 음악의 분위기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야 있지만 천부적으로 자연의 법칙에서 나오는 음의 움직임에 대한 감동력을 갖추고 있다. 한 번도 악극단의 유행가를 접할 기회가 없어 순수한 귀를 가지고 있는 무교육한 노무자들이 유행가나 재즈에 물들어 가던 중 어느 정도의 노무자들이 아주 기쁘게 음악을 들으며 즐거워하지 않았던가? 지금 민중은 조잡한 음악에 의해 자연스런 감수력을 왜곡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름답고 균형이 잡힌 건전한 음악에 자주 접함으로써 그 음악이 가지는 자연스러움은 그들의 왜곡된 감수성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이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면 저 낮간지러운 거리의 유행가는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정교한 교향곡도 그 정수는 간단한 주제를 이룬 선율에 있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선율에 익숙해지고, 철저해짐에 따라 그들도 고상한 음악을 이해할 열쇠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다시 연주단체의 문제에 대해 서술해보자. 아무리 좋은 음악과 지도 원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연주단체가 없다면 그것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도쿄 악단의 현상을 볼 때 그 활동의 활발함과 적극성에는 정말 놀라울 뿐이다. 70여 명의 전속악단을 가진 교향악단이 3개, 그 외에 크고 작은 관현악단이 10여 개나 있고, 특히 일류 음악인들로 최근 새롭게 조직된 연주단체가 후생음악운동을 위해 공장에서, 극장에서 혹은 지방에서 대중들에게 기쁨을 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 약진하는 일본문화의 찬연한 장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만주국에도 국영 교향악단이 3개나 있고 매년 4~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민중교화를 위해 씬 없이 활동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조선의 현상을 볼 때 교향악다운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이 대규모 교향악단의 존재가 순수음악예술의 표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연주가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 가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근래 경성후생실내악단이 장래 반도 교향악기성운동의 봉화를 들고 공장에서는 후생음악운동을 위해 학원에서는 음악교육을 위해, 일반 민중을 위해서는 국민정신자흥을 위해 헌신적인 맹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독립무원의 상태이다. 눈물 없이는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처참한 정세에서 어떻게 후생음악운동의 적극성을 말하고, 반도 음악문화의 향상을 운운할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당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회 유력인사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단인의 자각이고, 새로운 세계관의 파악이다. 지금 음악가답다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서재의 창을 버리고 널리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생활을 몸에 익혀, 그 몸에 익힌 생활이 스미어 나오는 음악을 생산하고 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세계관은 개개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해 전체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 정신의 우위의 기초 위에서 성립하는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인간성을 소극적으로 해방시키고 적극적으로 건설시켜 전체에 대한 헌신은 그것에 의해 비로

소 윤리적 가치를 완전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의 음악은 정신의 우위에 기초를 두고, 그 근저에서 우리들의 정신적 가능성을 만들어 냈으므로 널리 또 깊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음악가답다는 것은 지금까지 틀어박혀 있던 자기만족의 아성을 탈피해 가두로 나와야만 한다. 극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각설하고 민중에게 좋은 음악을 준다는 신념하에 펼쳐지는 연출이라면 그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나와 싸워야만 한다. 지금 일반 민중은 음악에 배고파하고 있다. 한 달에 1회나 2회밖에 열리지 않는 부민관 음악회에 운집하는 청중을 보라. 그에 반해 매일 밤 거의 빠지지 않는 2, 3개의 음악회가 열리는 도쿄 악단의 활약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반도 음악인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실로서 대조된다.

이상에서 반도 후생음악의 문제에 관해 모든 것을 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후생음악운동의 적극화는 지금 서술한 불리한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충실하게 함에 의해 비로소 철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음악문화의 집단적 결합체의 실질적인 기능이 발휘되는 사회, 풍성한 음악활동이 펼쳐지는 사회야말로 후생음악운동의 여러 문제도 병행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출전 : 金生麗, 「半島に於ける厚生音樂の問題」, 『文化朝鮮』 1943년 10월호, 66쪽〉

5) 박경호(朴慶浩)

(1) 사은음악회의 의의

금월 27일 조선음악협회 주최 사은음악회는 그 개최의 동기와 내용으로 보아 의미심장한 호화판의 모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30년에 걸쳐 조선평악단의 수립 성장에 공로자인 이상준, 오바 유노스케, 김형준, 김인식 4씨의 공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현 악단의 악인 총동원으로 각원의 일기(一技)를 봉공하기로 된 것이다. (중략) 이상은 4 선생의 과거 공적의 한두 가지 예에 불과하나 실로 그들의 과거사를 자세히 고찰함에는 흥미 있는 사실이 무한한 것이다. 당시에 민족주의를 줄여 1억 국민의 혈을 용솟음치게 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때 제국의 군함행진곡, 보국행진곡 만큼 주효한 자가 없었을 것이다. 아국군의 은인들 일본동지이라 할 것이면 국민정조의식의 은인은 위 2곡의 작자인 순호옹을 제1인자로 들 것이다. (중략) 지은(知恩)의 정은 일본대국의 자원이다. 지은의 도가 없이 황도의 정신과 우국의 정신을 탐지할 수 없다. 요컨대 금일 모임에 입각한 범백의 문화음악은 반드시 지은논공의 정신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모대변하는 악인은 흔히 선배를 무시하기 쉬운 경향이 없지 아니 구석기시 과거 모단에서도 선배의 신임은 상호 병립상태가 되어 일시 모연을 시하였으나 모금일에 음악협회운동으로 전기 4씨의 사은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적이 만족한 행사인 동시당야 음악회의 내용도 음악협회 탄생 이후로 모적인 대연주라 하니 일반 문화인의 기대가 절대한 바 있다. 끝으로 이 음악회를 기하여 선배의 모노력을 빌며 이미 고인이 된 백우, 김강, 홍난파 선배를 삼가 흠모한다.

〈출전 : 朴慶浩, 「謝恩音樂會의 意義」, 『매일신보』, 1941년 11월 27일〉

(2) 후생음악의 실제

후생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본 즉 '생활의 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룩 하였고, 이용후생이라는 속어가 있어 인민의 물질적 생계를 풍부히 만든다는 의미의 말로 사용된다 하였다. 그러나 금일 전시 하 우리나라에서 성히 운위하는 바 후생운동이라 함은 물질적인 뜻 이외에 심신의 보건 향상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니 스포츠, 문학, 예술, 오락 등에 속하는 모든 부문이 이 후생운동의 제1선이 전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모든 부문은 국가초비상시에 임한 금일에 반드시 국민 후생을 최고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활에는 개인이나 단체를 물론하고 긴장과 이완의 두 가지 상태가 있다. 특히 총동원령 하에 있는 전시 국민의 생활은 최대한도의 긴장을 요구한다. 국민 노무는 정신적 육체적임을 물론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대한도까지 증대함에 따라서 이완을 요구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축소된 이완은 양적으로 증대된 긴장을 지지하기 위하여는 질적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이것이 후생운동의 근본적 사명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호미를 들고 땅을 파는 사업전사나 바이올린을 들고 건전한 1곡을 켜는 음악가이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어시평 후생음악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음악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주는 위안의 정도를 다른 부문의 오락이 뒤따르지 못한다. 위안뿐 아니라 긴장을 촉진시킴에도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고로 음악은 무리기는 명언이 있다. 특히 전시하의 음악은 국민의 호흡이다. 음악이 없이 총후 국민을 이끌고 나아갈 수 없다. 불행히도 구시대의 음악운동이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예술지상주의에 입각하였었기 때문에 국민생활과는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것 이었다. 그러나 금일의 음악운동은 180도의 경향으로 오로지 국민의 정신 함양 위안 내지 국민의 음악교육을 목표로하는 후생 ㅁㅁ의 일종이어야 한다. 국민의 오락 ㅁㅁ의 왕좌를 점하는 영상상설관에서는 필름의 부족으로 소위 악극단이라는 대용품을 등장시켜 일시는 악극단 범람시대를 생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단시일의 연습으로 서투른 재즈풍의 가요 발장단 등 무늬 그대로 껌 ㅁ ㅁ한 땅국색을 발로하였으나(물론 악극단 전부가 그랬었다는 말은 아니다) 금일에는 이들도 국책의 산하에 들어왔다. 그러나 기실 실연 ㅁ이라는 것을 보면 아직 전도요원한 감이 불무하다. 이따금 국민가요를 부른다고 일부의 의장을 국민복으로 하였다고 이것을 건전하다고 할 수 없음은 흙탕물에 꿀을 한 술 떠 넣었다고 그것이 꿀물이 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흙탕물을 전부 쏟아버리고 그 용기를 깨끗이 씻은 후에 꿀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악극단 뿐 아니라 일전의 라디오 순서 중에 조선어로 하는 재담이라는 것을 들어 보았다. 중간체 크레히돌, 황군 등의 단어가 당치도 않은 대목에 한두 번 나오고 다른 수작은 전부가 구태의연한 익살 익담에 불과함에 실로 적면을 불금하였다. 크레히돌이니 싱가포르란 단어삽입 한다고 반드시 시국의 띄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건전한 오락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싱가포르, 황군의 단어는 오락의 재재로는 적이 부적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경조부박, 야비 저열한 노래 대사 몸짓을 보일 필요는 더욱이 없는 것이다. 즉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꿀물을 새로 담지 않으면 안 된다. 후생운동은 언제나 대중을 상대로 한다. 일전 국민정신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서 현상 모집한 가곡에 응모한 작품이 백여 편 되었으나 모두가 대중성이 결핍함에 심사상 무쌍한 곤상을 ㅁ하였다. 언제나 이 대중성을 무시

하여서는 불가하다. 조선의 대중이란 현실상 그 취미의 정도가 매우 저급하다 하여 많은 □□페가 없을 줄 안다. 아직 그들은 □□하나 베토벤을 음미하지 못한다. 아니 이 보다도 한층 떨어져서 모루히네와 같은 재즈식 오락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정세가 이런 시라 가장 고급의 수완과 기□□을 가진 모든 예술가가 총동원할 절호의 기회일 것이니 과거에 고급의 음악회가 아니면 연주를 않던 음악가도 지금은 가두로 공장으로 농촌으로 극장 진출하지 않으면 음악의 후생운동은 실현될 수 없다. 금번 김성태, 김생려씨의 몇 분으로 조직된 후생음악단은 비로소 금야의 제1회의 공연이 있다하니 아직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명칭과 주지만으로도 많은 기대를 갖게 된다. 입장료를 받은 공연회뿐 아니라 명실공이 후생□□에 정신하여 음악의 최고이상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朴慶浩, 「厚生音樂의 實際」, 『매일신보』, 1942년 6월 11일〉

(3) 후생실내악단의 공연 후감

전시 하 후생음악을 목적하는 음악 행사라면 구체제식의 그것에 비하여 적어도 아래와 같은 대조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1. 예술지상주의에서 국가지상주의로 2. 연주자 본위에서 대중 본위로 3. 개인중심주의에서 전체공영주의로 4. □명영리주의에서 멸사봉공주의로, 등인 바 물론 이 네 가지 조건에서 합당하지 못하는 음악행사는 전시 하에서는 용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행에 있어서 결코 □□구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단원의 생계 문제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악단의 경비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 우리 음악인 등은 여하한 □□을 돌파하면서 용아□□진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금번 후생실내악단의 공연회를 통하여 나는 무엇보다도 악단의 행적을 □□감하는 동시에 아직도 전도에 보르네오 밀림지대 이상의 음지가 놓여 있다는 것을 동 악단의 상대방이 되는 일반 민중에게 알리고 싶다. 동 악단은 우선 5인조의 실내악으로 발족을 했다. 앞으로 적어도 수십 명의 소관현악단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후생이라는 대사업을 충분히 수행키 어려울 것이다. 현악이란 것은 예술적으로 보아 극히 고상한 종류의 음악이나 그 음악이 너무 융연하기 때문에 대중에 주효하는 힘이 부족하다. 장소가 실내가 아니고 □명 이상이 군집한 야외인 경우에 도저히 그 능력을 실현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관악기를 보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믿어마지 않는다. 관악기는 전시 음악인 동시에 행사용 악기이다. 관악기 없이 전시국민의 인식을 고취키 어렵다. 동 악단의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이런 점을 더 잘 알 터이나 특히 사회유지의 일□□하는 바이다. 사오십 명의 악극단, 연희단을 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하필 후생악단만이 불령이라는 법이 어디 있으랴! 이렇다고 하여 그날 밤 공연에서 손색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아노를 가한 4중주는 아무리 음악을 이해 못하는 아마추어라도 진□□한 흥미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특히 방아타령과 같은 것은 민중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료일 것이라고 믿는다. 김성태 군의 편곡의 수법이 대단히 묘하고 때로는 능란하다.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를 편곡할 시는 좀 더 풍토적 일본민속적 감흥을 주는 리듬을 주로 사용하기 바라고 곡목도 양곡보다 일본 조선 지방의 민요를 많이 취급하기 바란다. 솔로리스트의 김생려, 이인범 양씨는 이미

정평이 있는 일대의 악인으로서 다시 사족을 가하지 않거니와 □□ 김천애, 이인형 두 분의 솔로는 실로 근래에 들어보지 못한 쾌연이었다. 김천애양의 □□한 천재는 선일 독4창회 시에 알리어 진 바 있었으나 실로 선배 어느 악단에서라도 일류에 참가할 만한 실력을 가진 소프라노라고 단언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 □□□□한 음량과 음색, 그리고 특히 정확한 음정과 꺾이나 극적인 해석에는 무한히 감탄하였다. 당야 내 옆에 앉아계신 모 여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참 잘도 합니다. 제발 결혼만은 하지 말았으면’ 나는 ‘무슨 비상식적인 말씀이냐고 나무래 놓고 한 번 생각하니 그 말씀에 일리가 있음을 발견했다.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 하지만 조선 여성 음악가의 결혼은 ‘□□의 화□장’인 듯한 감이 있다. 그렇듯이 성량이 풍부하던 이도 한번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만사가 휴안인 것이다. 이리므로 해서 김천애양과 같은 여성의 천재를 대할 □□는 일종의 비애를 느끼게 된다. 김양만은 이후에 반드시 결혼은 □□ 그대로 꾸준하기를 빌고 또 빈다. 난파의 곡 「봉선화」 때는 많은 사람이 울었다. 우리 악단에는 언제나 피아니스트의 반주가 있다. 많으면서도 없는 것이 피아니스트다. 더구나 남자로서는 전선을 통하여 5명 이내 들 것이다. 이때에 이인형씨의 □□와 같은 출연은 □반을 들어마져 하는 바이다. 그의 힘 있는 터치와 명□한 톤 더욱이 깨끗한 테크닉이 좋다. 들을수록 자극하여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대체로 장편의 난곡보다 대중에게 쉽게 호흡할 만한 산뜻한 소곡에 많이 유의하시라고 특히 주문하고 싶다. 김생려, 이인범 씨의 앙코르 곡을 □□일반이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었다.

〈출전 : 朴慶浩, 「厚生室内樂團의 公演後感」, 『매일신보』, 1942년 6월 16일〉

(4) 악단의 행적(상·중·하)

— 음악은 무기라는 명구가 있거니와 음악은 양식이라는 구절을 만들고 싶다. 무기와 식량은 전쟁 태세에 가장 위대한 요소가 되듯이 □□ 국민의 □□가 □대한도 없는 것이다. 국민의 정신통일 시킴에는 음악에서 더한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쟁 문화에 연연히 국가가 특히 □□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문화 운동일 것이고 과거에 흔히 보고 느끼던 □□의 공리, 허영, 자아 등의 사욕적 행위 같은 것은 허용할 □□지로 발전치 못한다. 대동아전쟁 이후 즉 작년 1년의 악단은 어떠하였는가? 지난 1년간의 악단의 상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일반이 악단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나 하면 대강 아래와 같은 주문을 하여 무리가 아닌 듯 하다. 1. 국가의식·시국의식 고취 2. 제 방면의 영역에서 봉공하는 총후의 전사에게 가장 건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정신적 아스피린(정화제)과 비타민(영양제)의 제공 3. 국민음악의 수립과 발전 4. 국민음악의 훈련과 향상 이렇거늘 조선음악의 1년간 행적은 실로 전도요원한 감이 불무하다. 당국의 오락□□으로 재즈가 초연되고 음악예술의 자유주의적 색채와 구미 숭배 사상이 일소된 감이 유하고 그밖에 다소의 □□적 운동의 형세도 없는 바 아니다. 대체적으로 보아 악단의 운동은 문단, 연극, 연예 가터 부문의 활동에 비하여 가장 □□하다고 봄이 가(可)할 것이다. 악단의 □□는 의례히 □□□의 연주회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조선 악단의 태도이다. 과거 1년간의 약간의 연주회 발표회 등이 있었으나 이것 역시 그 의의와 성과에 있어서 □□연한 □□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밖에는 하등의 활동이 없었다. 1억의 □□을 □□□□하게 할 만한 한 □□□의 노래가 조선에서 나온

일이 있는가 훌륭한 음악가와 연주가가 제각기 제일이라고 재는 일이 있으나 일본의 □□□에라도 견줄 만한 □□□이라도 있는가? 음악 출판물이라도 또 한 가지가 있는가? 전선을 통일할 만한 권위 있는 음악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고 하기 전에 눈을 감고 깊이 깊이 반성해 볼 필요를 □□□하지 않으면 비양심적일 것이다. 조선은 일종의 풍토적 구□□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도□합하지는 못한다. 조선인 음악가는 독주와 독창을 잘하여도 합주와 합창을 못한다는 것은 조선의 스포츠계를 외인이 평하여 왈 조선인의 축구단이 농구단은 개인 개인의 기술은 우월한 자가 많으나 팀워크가 부족한 고로 전체적 실력이 □□하다는 것과 꼭 같은 말이다. 팀워크의 부족 이것은 악단에 있어서도 큰 치명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고로 금년에 고맙게도 발표된 징병제는 우리 악단에도 일대 개혁을 가져올 줄로 나는 확신한다. 조선의 악인은 근본적으로 무교육하고 따라서 무질서하다. 어떠한 큰 노력에 있어 인습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일본제국 국민으로서의 받아야 할 모든 교육과 훈련의 발휘를 하루바삐 조선인 모조리 받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상 상〉

관현악 취주악 합창 등과 □□을 생명으로 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개 관현악단이 관현악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훈련)하는 그 과정이란 군대의 훈련 그것과 흡사한 바가 있으니 절대 복종하는 정신 전체적인 성과를 위하여 질서적인 있는 □□□을 □□□에서의 조선 악단들이 □□□에 성공치 못하는 원인이 보다도 □□□의 결핍이라 단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조선인의 □□□에는 언제나 이 제일□□ 정신방면의 □□□에 부족한다. 복종할 줄도 모른다. 전향할 생각이 없다. 언제나 나는 일개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 일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단체의 □□도 불원한다. 행동의 질서가 없다. □□□을 □□일줄 모른다. □□히 기반하다. 자기 눈의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시비를 한다. 이런 현상은 10인이 1인의 자리에 가보아도 이후로 무수한 음악단체가 생겼었다. 그 중에는 안일한 □□□으로 창립을 운영하고 제1회 일본2회의 □□연주회를 남기고도 으레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상태는 단체 뿐 아니라 개인도 그러하니 □□□간에 독창회 독주회를 대서특필 발표한 이가 40명이나 되지만 2회 이상의 발표를 준비한 이는 4, 5인에 불과하다. 이렇듯이 조선악단에 유아사망율이 높은 것은 조선악단의 미□성을 여전히 노출하는 것으로 실로 부끄러운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은 그 단체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와 그 개인이 상대로 하는 대중에게도 반분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예술가는 대체로 □□□하다. 그 중에도 음악가는 더욱이 그러한 듯하다. 그들에게 전유물이 있다면 이상에 말한 □□□과 □□□ 그것뿐일 게다. 그러나 이 양자만으로 □□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금전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대개의 □□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대중은 이 □□□에 대하여 □□인 냉정하고 무관심하다. 사회는 일하는 예술가를 먹여 살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를 책임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음악가가 먹을 수 없고 음악가가 유지해 질 수가 없다. 이렇거늘 음악인만을 나무라는 것은 실로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일본의 활동을 보라, 년□□ 경비를 쓰는 교향악단의 □□는 어떠한가. 다양한 음악출연을 음악□□□은 얼마나 씩씩하고 훌륭한가. □□에는 작년에 교향악단 같은 □□의 합창단이 생겨났다가 유아무야 중에 단일개만 있던 경성음악전문학원이 폐교되어 버리고 말았다. 언제까지나 이런 현상이 조선에 □□될

것이냐 모름지기 조선의 악단과 조선의 대중은 이때에 맹성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상 중〉

지난 1년 중에 토막토막으로 개최된 연주회 중에는 연주회로서의 불만한 것이 불무하였고 단체로서의 □□한 이가 또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경성음악학교의 내방 연주, 조선음악협회의 음악보국연주행사, 후생실내악단 연주회, 음악경연회 등이 있었는데, 단체로는 경성실내악단이 문자 그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창립 반년여에 전체 50여개 소의 직장, 병원, 학교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명실상부의 성과를 거둔다 함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군의 노력을 빌어마지 않는 바이다. 음악협회의 음악으로는 작년 중에 수회에 음악연주회 보국 주간 행사로 연주회·창작발표회, 계정식, 김원복 양씨의 모차르트의 밤, 김천애양의 독창회·음악 연주회 등의 주최물이 있었다. 음악협회 역시 □□한 봄 □□진행의 □□태인바 동회 자체의 배전 노력과 사회로부터의 다대한 이해와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지난 여름 도쿄음악학교 지방 연주회에서 베토벤 협주곡을 동수의 □□과 함께 □□한 윤기선씨는 실로 조선악단의 희망의 □□이 될 만하다. 그의 황홀한 □□과 원숙한 □□은 조선이 낳은 양금가로 실로 일찍이 보지 못한 천재라 하여 여러 가지 호조건을 구비해 가진 악인임으로 그가 충분히 □□해가지고 조선에 □죽하는 날에는 반도악단에 큰 지주가 될 줄 믿는 바이다. 그 밖에 한 분 □□한 재질이 있으니 금번 음악협회 주최의 경연회에 입상된 소프라노의 유은경 여사이다. 아직 유에 있어서 다소 □□한 음색 □□한 기교와 아울러 극히 정확한 음정은 순조선산의 자랑이라 할 만하다. 이미 없어진 음악전문학원의 명예는 유 여사를 통하여 영구히 남아 있게 됨은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전시하의 예술은 어디까지나 건전함을 한다 함은 향용하는 말이나 이 건전이라는 형용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시 정신 기교의 양 방면의 우수성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출연하는 기술이 열등하면 예술로서의 효과를 완전히 상실함은 물론이고 긴장되어 있는 비상시 국민의 정서생활에 해되는 바 적지 않은 것이다. 발표욕이란 인간의 본능이라 하되 이 본능은 노력의 결과가 없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발표부터 하겠다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허영적 행위 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재래에 흔히 보던 데뷔식의 연주회 즉 학교 음악회, 제자 발표회와 같은 □□물 중에 왕왕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바 지금에 그 예를 □하거니와 □□중에는 한심한 것도 불무하다. 주최자 측과 연주자 측의 □□□유감은 하는 바이다. 또 전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되는 순사가 조선에는 호랑이가 많다는데 대구에는 호랑이가 없었느냐 근심스레 한 일이 있단 것을 신문지에서 읽은 일이 있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연주 방문을 오는 이 중에도 이와 같이 반도의 인식이 제대로 □인문이 더러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조선악단의 수준을 덮어놓고 알계만 보고 허잘 데 없이 저급의 작품을 무책임하게 팽개치고 가버리는 일이 지난 수년 내에도 수삼 차 있었음을 기억한다. 물론 그들이 무책임한 소이라 하겠으나 기실은 반도악단의 책임이라 할 것이니 모름지기 반도의 악인은 □□□에 분기하여 문화 일원 위에 손색이 없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이상 하〉

〈출전 : 朴慶浩, 『樂團의 行蹟(上·中·下)』, 『매일신보』, 1942년 12월 25~27일〉

(5) 송(送)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히라마 분주(平間文壽) 씨가 학무국의 촉탁으로 조선에 온 이후 조선음악협회의 탄생을 비롯하여 종종의 음악사업으로 결전체제 하 조선악단의 생색을 내일 뿐 아니라 악단 자체에 있어서도 실로 미증유의 진보와 향상이 있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러한지 이미 3년, 비교적 단시일이지만 다채색각(多彩色角)한 활동상으로 음악□연회, 음악감상회, 음악강습회, 합창제, 작곡제, 신인소개음악회, 국민개창운동, 학생음악운동, 사은음악회 등을 때때로 개최하여 공전의 대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악단 제원의 노력도 노력이었지만 이들 음악대중의 솔선 지도 실천의 대장인 히라마 씨의 눈물겨운 분투를 인정치 않을 수 없다.

히라마 씨는 일본에서도 성악가로서 일류일 뿐 안라 동작의 범위가 심히 넓은 □□가 이었고 겸하여 그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조선을 잘 이해하는 악인 중에 제일인자였음으로 조선의 악단을 일본의 그것과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맺어 문자 그대로 악단적 '내선일체'를 실현함에 최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렇거늘 지금에 그를 보내지 아니치 못하게 된 반도의 악단은 명장을 보내는 군대와도 같이 실로 딱한 느낌을 준다.

일본 민족 중에 특히 조선인은 성악적 자질이 풍부하여 조선에서 다수한 제일류 성악가가 배출된 것도 사실이다. 성전 하의 음악은 어시호(御是乎) 그 사회적 효용을 □칙하게 되었다. 건전한 가요는 국민의 사기를 고양하고 국□일치의 정신을 함양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케 된 것임으로 그 지도자의 역을 담당할 우수한 성악가의 배출은 현 조선악단의 급무이다. 실로 히라마씨 내조(來朝)의 때에는 조선의 젊은 음악가들 중에 이와 같은 대역의 장래를 꿈꾸는 자 허다하였거늘 아직 그 음악이 완□되기에 씨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됨은 참으로 유감천만이다.(후략)

〈출전 : 朴慶浩, 「送 平間文壽」, 『매일신보』, 1943년 7월 12일〉

6) 심형구(沈亨求)

(1) 시국과 미술

사람의 생활에 있어 미술이 필요하나 안 하나는 말에는 설명이 불필요할 줄 아는 바이며, 대체 미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가 문제일 줄 생각한다.

미술을 동양화나 유화나 사진틀에 넣어 있는 것만이 미술일 것인가 의문되는 점이며, 여기에 주제의 중점도 있을 줄 안다.

미술이란 본래의 원리란 여하한 것인가. 한 말로 하면 인간생활 전체를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 의복에 있어서나 요리에 있어서나 주택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수되는 제반사물이 하나라도 미술의 혜택을 받지 않음이 없으며 이 점에서 떠나서는 인간생활에 대하여 무가치한 것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의복이 만약 그 형태와 색채에 균형과 조화가 없다면 속말로 ‘꼭두각시’가 되고야 말 것이다. 인간의 개성과 체질을 따라 그에 적합한 의복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그의 품성과 또한 민족성까지도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 혹은 한 국가의 문화의 고저도 알 수 있으며 강약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미술심이라고 할까 미적 감상심이라는 것이 근본적 선에서 높게 될 때에는 그 국민은 반드시 우수한 국민이며 또한 강한 국민이라 할 수 있다.

금일과 같은 각반문화의 전환기에 있어서는 화가된 자로서나 일반 민중으로서나 충분한 반성이 없을 수 없다. 즉 반성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예술이 목적을 갖는다는 것인데 작가는 오로지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활화되어서 인간생활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여야 되겠으며 생활과 결합하는 것이 높은 미술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종래 동서를 막론하고 미술가는 미술에 목적이 있게 된다는 것을 싫어하였다. 미술이 목적을 갖게 된다면 대단히 열등한 물건이 된다는 관념이 있다. 이것은 구체제적 생각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하겠으나 현금 독일의 예를 볼 때, 국민제전의 상징으로서 고도 목적 예술을 생각하고 있다. 목적이라고 하면 대단히 협소하며 비예술적이라고 생각하나 좀 더 생각을 크고 높은 데 두어서 독일인은 국민적, 민족적 기쁨을 전체에 표현하는 데에 현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금 우리 미술계의 동향이라고 할까 혁신운동이 미미하나마 있게 되지만은 그 움직임이 역시 협소한 미술계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작가에 있어서나 국민에 있어서나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배처럼 그의 진로가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미술이 국민의 생활에 결합한다는 문제, 국민의 생활이 미술 중에 침입한다는 이 두 점이 방금 당면한 중대문제인 줄 생각한다. 금일은 문학이나 예술이나 무엇이나 좀 더 국민생활이라 하는 것과 직접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을 위한 문학, 미술을 위한 미술은 벌써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사람은 일본사람으로서의 국민생활을 좀 더 향상시키자는 점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당연 협소한 경지에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반문화인은 각자 각자가 자신의 순수한 목적 만으로만 생각하여왔다. 이는 예술가만을 책할 수 없겠으며 모든 사람이 국가에 봉사한다는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벌써 민족의 근본적 요청이라는 것이 예술을 위한 예술은 허용치 않게 되었다. 하등의 목적이 없이 민족이상도 국가의식도 가지지 않은 예술이요, 미술이라면 무가치한 물건이다. 한 민족의 예술이라는 것은 그 민족을 강대하게 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에서는 불행중다행이라 할까 우금 당초부터 전문적 화가로서의 생활보증이 없었으며 차후로는 이 정도가 물론 더 심할 줄 생각되지만은 오히려 예술가의 황금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화의 전환기에 처하여 가기가 용이하게도 생각된다. 즉 유용한 일을 한다면 자연 그의 생활보증도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 도쿄에서는 고(故) 고무라 셋타이(小村雪堡) 씨나 마에다 세이손(前田靑邸) 씨 같은 사람이나 서양화에서 미야모토 사부로(宮本三郎), 고이소 료헤이(小磯良平) 씨 같은 일류 작가가 신문 삽화나 무대장치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무대장치나 삽화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 정도가 높아졌다 한다. 즉 훌륭한 회화를 제작하는 동시에 그와 동일한 기백으로서 삽화나 무대나 자기의 기능을 충분 발휘한다는 일이 미술을 생활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즉 화실에서 조용히 앉아서 제작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겠다. 물론 예술지상주의도 혹시 연구적 입장에서는 또한 좋겠으나

필요하다면 포스터나 책의 장정이나 극단으로 성냥과 레텔이라도 소위 대가가 그러도 좋겠으며 또한 그러야 될 줄 생각한다. 좁은 문에서 나와서 독선고립주의는 청산해야 될 줄 안다. 결국 화가 자신들의 일층의 자각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출전 : 沈亨求 「時局과 美術」, 『新時代』 제1권 제10호, 1941년 10월, 130~132쪽)

(2) 현대미술문화정책과 그 이념

문화정책이란 문제가 점차 급일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인 듯하다. 그러면 여하한 이유로 현실의 긴급문제로 제기되었을까.

이는 그 성질에 있어서 과거의 그것과 현대적 문화의 이념에 차이가 유(有)함을 알 수 있다. 객년(客年) 본지에 미술의 현대적 실천성이라는 의미로 기록한 줄 기억한다마는 과거의 그것은 문예부흥 이래 보편성과 타당성의 가치판단에 의한 세계주의적 문화 일반과 불란서 혁명 이래 자유 평등을 목표로 둔 바 무국적성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적 문화관이 소위 지식계급의 머릿속 깊이 박혀 있던 것이며, 현대도 우금 이와 같은 생각에서 전연 이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 변혁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화적 이념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화의 본질은 민족의 감정, 사상, 생활 중에서 직접 발생되어서 국가의 이념과 활력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신활동이다. 이것이 현대문화에 신개념이며 해석이라 하겠다.

그러면 현대에 실행되고 있는 사계(斯界)의 정책은 어떠한가 하면 독일이 1932년 나치스 정권의 탄생 이래, 이탈리아에서도 1922년 로마의 '파시스트'가 성공을 한 이래 민족통일의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이 착착 실행되고 있으니 독일에서는 문화를 국가 목적에 집중 동원하는 전체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국민교화성(國民敎化省), 선정성(宣傳省)과 같은 문화와 직접 결합하는 기관이 정비되어 이에 속하여 문화부관 총칭을 갖는 바, 저작국, 라디오국, 연극국, 음악국, 미술국, 영화국 등 7국이 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대개 비슷한 것이 있으며 우리 일본에서는 물론 독(獨), 이(伊)와 그 국체에 근본적 차이가 있겠으나, 고도국방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일체의 문화가 예술까지가 국가 목적에 봉사 협력하는 데 있으니 곧 황국익찬(皇國翼贊)의 종합적 동원체제이다. 이와 같은 문화이념 위에서 조직과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바이며 행정기관으로서의 종래의 문부성이 있으며 새로이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 내에 문화부가 있고 다시 정보국 내에 문화부가 있다. 다만 정책의 일원적 계통만이 우금 서 있지 못하다.

반도에서는 과거에 학무국에서 선전(鮮展. 조선미술전람회-역자)을 개최해왔고 최근에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작년말에 선전부로 개명함)가 설치되었고 그 외에 총독부 내에 정보과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작년 11월초에는 미쓰코시(三越)홀에서 정보과의 적극적 후원을 얻어 국민총력조선미술가협회 주최로 총후생활미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람회는 과거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성전(聖戰) 완수를 위하여 강력한 국민정신을 작흥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회화의 교화적 효능을 통일된 사상으로서 표현하여 대중의 사상을 지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은 방면으로 미술문화 부문에 활동 면이 존재하여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술계에 부여된 금일의 과제는 국민 전체가 감상하고 소유할 수 있는 국민미술의 재건이라는데 끝일 것이며 미술문화정책의 생활화란 말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술의 생활화란 문제는 필히 생활에만 미술이 역할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과거에 등한시하였던바 일층 정신생활과 관련하여 민족의 정신을 고매하게 하며 웅대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여 미술본래의 공공적, 교화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미술의 재건은 소위 미술적이라는 것보다도 전국민생활적 미술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은 현대문화가 국가와 그 민족을 토대로 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예술 그 자체 보편성과 국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에 있어서나 근대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 상호적 문화교류가 있는 것이며, 교류가 있으므로 자국문화가 번영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미술의 대중화라는 것인데 이는 결코 미술이 저속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문학이나 미술이 항상 높은 정신을 관철할 것이며 높은 정신이 있는 고로 국민대중을 지도교화할 능력을 갖는 것이다. 만약 저열한 예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중에 대하여 아첨하는 것이요, 대중의 미술적 교양을 저하시키는 일은 있을망정 결코 높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는 미술이 얼마나 고아(高雅)할지라도 관계없을 것이다마는 높은 지위와 사명이 일반 국민생활과 유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괴테'가 말한바 예술의 범속화(凡俗化)가 진정한 국민예술 창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단문은 생각한 바를 충분히 말하지 못하였으니 제현의 판口을 비는 바이며 국방국가와 국민의 심미감(審美感)에 대한 관계라든가 선전이외에 연구기관의 필요성 또는 미술가의 생활보장문제 공중이 집합하는 공공적 건축물 등에 (학교 회사 은행 우편국 정거장 등) 벽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출전 : 沈亨求 「現代美術文化政策과 그 理念」, 『春秋』 제4권 3호, 1943년 3월, 77~78쪽)

7) 임동혁(任東赫)

(1) 결전문화의 1년 - 음악의 1년

이번 가을 음악계의 감격을 혼자서 빼앗아간 사람은 뭐라해도 구산관씨이다. 그는 오랜 가뭄 뒤의 비였다. 그는 어쩌면 실력 이상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무척 뛰어난 직인(職人)이며 또한 예술가이다. 그는 고전파도 낭만파도 현대파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예술가이다. 이것이 그의 장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이다.

음악 콩쿨 이래 나는 그를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한마디 충고하겠다. "이제 무대 위에서 학생복만은 그만 두게, 자네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성인이야"라고.

열과 힘 그 자체처럼 노력과 활약을 하고 있는 김생려씨 이하의 후생실내악단의 생기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상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김생려씨 제금독주회 때 느꼈던 것인데, 함부로 대곡을 연

주하는 것은 지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전 대곡에서는 두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즉 하나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하나의 골동품으로서 박물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전자의 의미에서 김생려씨는 그저 사상의 공백을 드러냈을 뿐이며, 후자의 의미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학구적이지 못했다. 요컨대 그들의 대곡 연주가 독주회라는 프로파간다를 위해 행해진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김생려씨의 다음 독주회를 위해 남겨두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김생려씨 이하 후생실내악단 모두의 건투를 빈다.

음악은 군수품이다

대동아전쟁 개시 이후 세계 전사(戰史)상 유례 없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저 하늘의 용감한 파일럿들은 몇 시간씩이나 치열한 연습 후에 착륙하고서는 목마름을 죽이기 위한 한 잔의 물보다도 먼저 축음기로 달려간다고 한다. 게다가 그것은 화려한 재즈가 아니라 조용한 모차르트라고 한다. 일본 국민 누구라도 알고 있는 2년 전 저 감격의 날, 아침 방송 특별보도 후 들려온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은 실로 그때 그 경우 국민의 감격을 한층 드높혔고 우리들을 분기(奮起)하게 만들었다. 요즈음에도 가끔 들려오는 방송 특별 보도 전의 「군함행진곡」과 「적은 몇만」은 그뒤로 이어지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전과를 우리들 눈앞에 전개시켜 쾌재를 부르게 한다.

“음악은 군수품이다”라고 부르짖는 히라데 히데오(平出英夫) 해군 대좌는 “음악 그 자체가 국민의 지도력이 된다. 또한 국민의 사상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 무척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말이 필요 없는 사상의 지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앞에 외국인이 와서 무척 힘 있는 열변을 토한다고 해도 외국어를 모르는 대중은 아무런 감명을 받을 수 없다. 번역 후 비로소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은 말을 이해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지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음악은 의도하는 그대로 듣는 사람이 따라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을 지도할 때에,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이 아니어도 듣는 사람에게 무척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대동아전쟁의 한복판이다. 우리들은 건전한 음악만을 만들어야 한다. 건전한 음악만을 연주해야 한다. 또 건전한 음악만을 들어야 한다. 이기기 위하여 전시국민생활을 하는 국민의 기분을 밝게 하고, 사기를 고무하는데 있어서도 음악은 무척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락)

〈출전 : 任東焄 「결전문화의 1년 -音樂の一年」, 『新時代』 1943년 12월호, 72쪽〉

(2) 시국과 음악

나는 최근 어느 신문지상에서 문부성 촉탁 곤다 야스노스케(權田保之助) 씨의 다음과 같은 논술을 읽었다. “이제부터로의 전쟁은 반드시 직접 포화의 교환으로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그 형태도 장기전형(長期戰型)을 취하게 되므로 그 결과는 국민의 신경을 초려(焦慮) 번뇌케 하는 소위 신경전이 계속되게 될 터인데 이 신경전에 대항하게 하기 위하여는 아모래도 건전한 오락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비로소 오락의 전시 하에 있어서의 중대한 직능을 발휘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평시의 2배, 3배 더욱 긴장하여 일을 하기에는 휴양과 영양을 부여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고무는 느릴 때에는 3배도 5배도 늘어지지만은 느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줄어든다. 어느 때든지 늘려지만 있다면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러한 비상시국 하의 오락으로서 첫 손구락으로 꼽을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음악이 휴양도 되고 영양도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은 좋은 음악을 치열히 희망하고 있으나, 여기에 응할 만한 음악이 없다. 이것은 음악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나는 음악가들에게 더욱 대담하고 더욱 친절하게 국민생활을 발자(潑刺)케 하고 명랑하게 하는 음악의 창작을 희망하여 마지않는다.

〈출전 : 任東燦, 「時局과 音樂」, 『新時代』 1941년 10월호, 132쪽〉

8) 현제명(玄濟明)

(1) 악단 1년, 경성후생악단의 연주활동 및 국민개창운동을 중심으로

현산제명(玄山濟明)⁵⁴⁾

오늘날만큼 음악이 동의(動議)되고 바라는 바 되고, 중요시된 때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생각한다. 히라데(平出) 해군 대좌가 “음악은 군수품이다”라고 갈파한 명언 하나만을 봐도 전시 하에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양, 취미, 사치품으로 생각되었던 음악은 그 순수성과 예술성을 잃지 않고 총후(銃後)국민의 전의양양, 근로전사의 능력증진을 위해 전쟁생활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문화재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동아전은 어떻게 해서라도 승리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은 첩승(捷勝) 일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감동성과 침투성이 강한 음악은 전쟁 목적의 관철을 위해 당당한 무기로서 모든 기능을 다해 발휘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악이 가진 국가적 사명은 크다. 따라서 이에 관계되어 있는 음악가의 책무가 오늘날만큼 가중되었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지금이야말로 음악가가 충분히 그 직능을 발휘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들은 대동아전 완수를 위한 전투 구역을 담당하는 문화전의 전사로서 끝까지 철저하게 돌진해야 한다. 그럼 우리 악단의 1년은 어떠했는가를 회고해보기로 하자. 올해는 예전에 비해 다수의 음악회 특히 개인연구발표회가 많았다. 평년보다 그 양에 있어서는 뛰어났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르지 않은 이른바 현상유지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개의 뛰어난 음악단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사실을 중심으로 써보려고 한다. 하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주최한 국민개창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악단 유일무이의 존재인 경성후생악단의 활발한 연주활동이다. 주지하는 대로 경성후생악단은 국민의 자각을 기초로 하여 조직·발족되었고 발족한 후 햇수로 2년 동안 국민음악 및 후생음악을 위해 몰아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왔다. 최근 1년 동안은 국민음악의 수립을 목

54) 현제명(玄濟明)의 창씨명.

적으로 ‘국민음악의 밤’을, 폭루무쌍(暴淚無雙)의 적 미영격쇄를 위한 건함자금헌납대연주회로서 ‘실내 교향악의 밤’을 추축국 독일음악의 소개를 위해 ‘베토벤의 밤’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음악의 문화전사로서 의기를 토해낸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임과 동시에 악단적으로 일대 성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화숙(大和塾) 주최 하에 여러 장소에서 국민이 음악을 연창(演唱)하고 국민정신의 양양에 이바지했던 것 등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연주는 악단 중견만으로 조직되어 실이 있다. 성악진. 소프라노 용궁천애(龍宮天愛)⁵⁵⁾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 극적 박력. 테너 의본인범(義元仁範)⁵⁶⁾의 서정적인 절대미의 음성, 오묘한 해석에 의한 쾌창. 기악진. 바이올린 금산생려(金山生麗)⁵⁷⁾는 매력있는 음색과 섬세한 기교를 가진 연주자이고 실내악의 수석으로 명확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으며 피아노 의본인형(義元仁亨)⁵⁸⁾은 명쾌한 타건법, 선명한 페타린 명쾌한 절주, 숨막힐 듯한 박력이 있고, 소산유성(小山有聖)의 완벽한 기교에 의한 유연성 있는 트럼본의 취주법. 편곡의 금성성태(金城聖泰)⁵⁹⁾는 견실한 작곡기법의 소유자로 꽤나 재미있는 편곡을 보여 주는 등 잘 갖추어져 있다. 국민개창운동은 전국에 즉응해 작년 11월 말부터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발언, 주도에 의해 중앙악단인이 총동원하여 지도를 맡게 되었는데, 현재 이 운동은 전국도처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총후국민의 사기를 작흥하고 강인한 투지를 양양하며, 생산력을 증강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전국민에게 주는 것을 의도한 총후의 일대 국민운동이다. 반도에서의 국민개창운동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주도에 의해 다수의 악단인이 동원되어 서서히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랑청신 창달을 통해 탄력성 있는 총후국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수불가결한 이 운동을 위해 전악단인의 분기를 요망한다. 이상 악단의 2대 성사 외에 마금희, 계정식, 이영선, 정영재, 강장일, 송직혁 씨의 독창독주회 등이 있었다.(성악가, 연희전문 교수)

〈출전 : 玄山濟明, 「樂壇一年, 京城厚生樂團の演奏活動及び國民皆唱運動を中心(二), 『綠旗』 1943년 12월호, 41~42쪽〉

9) 홍난파(洪蘭波)

(1) 사변 3주년과 반도문화의 여명, 지나사변과 음악

성전 제3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있어서 이번 지나사변이 우리나라 음악계나 또는 음악 예술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 주었는가를 악인(樂人)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그러나 비록 예술적으로 대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어서

55) 김천애(金天愛)의 창씨명.

56) 이인범(李仁範)의 창씨명.

57) 김생려(金生麗)의 창씨명.

58) 이인형(李仁亨)의 창씨명.

59) 김성태(金聖泰)의 창씨명.

국민가(國民歌)다운 국민가를 가지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애국행진곡(愛國行進曲) 같은 신국민가(新國民歌)를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이번 사변이 일억(一億) 국민에게 보내준 선물로 우리는 영원토록 언제나 이 노래를 고창함으로써 새로운 감격과 불타는 애국열을 고조시킬 것이 아닌가. 때는 바야흐로 기원 2600년! 성전도 이제는 제3계단에 들어가서 신동아 건설의 대업이 일부일(日復日) 더욱 견실하게 실현되어가는 이때에 총후(銃後)에 있는 여러 음악가와 종군(從軍)했던 악인들의 口에는 의당히 넘쳐흐르는 감격과 예술적 감흥이 성숙해 갈 것인즉 이번의 성업(聖業)이 성취되어 국위를 천하에 선양할 때에 그 서곡으로 그 전주적(前奏的) 교향악으로 음악 일본의 존재를 뚜렷이 나타낼 날이 일일(一日)이라도 속히 오기를 충심(衷心)으로 비는 바이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기량(技倆)을 기울여서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음악보국운동(音樂報國運動)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할 것을 자기(自期)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了)

〈출전 : 洪藹波 「事變3週年과 半島文化의 黎明, 支那事變과 音樂」, 『매일신보』, 1940년 7월 7일〉

4. ‘내선일체론’과 ‘황민화론’ 지지

1) 김문집(金文輯)

(1) 조선 문단인에게 —현실과 조선민족의 문제(1~5)

1

전혀 이유가 안 되는 사소한 인상기를 표면상의 구실로, 사실은 민족주의 내지 유물사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조선 문단인으로서 용서하기 어려운 언설(言說)을 굳이 토해 내었다고 하는 이유로, 주로 좌익적인 경향의 일부 문단인으로부터 내가 직업상, 혹은 조직적인 배격을 받은 것은 작년 말의 일이었다.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謀) 지(紙)에 발표한 평론 가운데 ‘내선일체’의 정치적인 이상을 조선민족의 현실적인 복리의 길로서, 역사적으로 나는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한 마디를 흘린 것에 불과하다. 이 한 마디가 도화선이 되어, 문단사상 전례가 없는 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데 대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책임을 느끼나, 그렇다고 해도 소신을 굽힐 수는 없으므로, 은인자중한 끝에, 드디어 여기에 그 언설의 근거를 밝혀서 여러분의 재비판을 청하기로 한다.

‘내선일체’라고 하는 정치적인 표어, 아니 역사적인 새 숙어가 미나미(南) 총독의 입으로부터 폭발한 그 순간부터, 나는 문단인이면서 앞에도 뒤에도 없는 긴장을 한 몸에 집중해서 그 말의 진위여하를 검찰하기 시작했다. 시국적인 일시적인 기만인가, 다른 무슨 야심이 있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으로 조선인의 행복을 대변해서의 이데올로기인가, 그러한 진위를 캐보지 않고는 한 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이 시의심(猜疑心)은 사실은 우리의 슬픔이지만)

한편, 또 나는 사실상 내선일체의 실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나 혼자서 만의 정열과 번민에 파묻혀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미치는 한 광범한 영역에 걸쳐서 연구를 해 보았다.

결국 '내선일체'의 의미한계와 그 해석여하에 따라서, 천태만상으로 그 결론이 달라져 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몇 천 몇 만 년 앞의 공상적인 어떤 경우를 상정(想定)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 표어를 어떤 특수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도 인정한 것이다.

당장에, 우리 조선백성이 내지인⁶⁰⁾과 동등한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으로써, 이 표어의 당면적인 한계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정의한 곳에서 별도의 불만은 없었던 것이다.

객관은 주관을 규정한다.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이 내지인과 동일하다고 하면, 우리의 주관적인 조건도 그들과 동일화 할 것이겠지. 즉 우리도 내지인과 같은 정도의 행복을 정신적으로까지 향유할 수 있는 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형의 아우인 동시에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조선민족인 동시에 일본국민인 것이다. 일본국민 혹은 신민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체면을 세우는 것과 추호의 모순도 없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강하며 또한 부유한 민족이 (과거는 어떻든, 현재는 약하고 또한 가난한 민족을 향하여) 너,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와 감정이 있어서 그 제의를 배격해야 하는 것인가?

'내선일체'가 정책상의 기만적인 주문(呪文)이 아니며, 진심으로부터의 정치적인 모토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인으로서 이 위에 더할 나위 없는 고마운 말이 아니겠는가? 굶주린 자가 빵을 주고자 하는 자의 빵을 때려서 갠 도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요는 그 빵이 먹을 수 있는 빵인지, 먹을 수 없는 빵인지, 혹은 그 빵에 독이 들어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글자그대로 내선일체가 구현되는 날, 조선민족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인가 살아서 영원한 영광을 즐길 것인가?

이러한 설문에 대해서, 단연 나는 후자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영원한 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으나, 거기다가 말할 것도 없이 동아의 맹주로서의 일본국가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데에 당장은 좋은 것이다.

2

그러면 일본이 국가적으로 파탄을 하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날을 가정한다면, 그 파탄의 양식과 그때의 내적 외적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것이겠지. 하지만 민족적으로까지 내선이 일체화한 경우라면, 그때는 물론 이런 문제마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순 이론적으로 내선일체 시대에는, 내선일체라는 말마저 뜻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일본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민족을 주류로 하는 외에 민족의 대량적인 귀화를 계산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천하의 상식이지만, 그런 만큼, 또 가령 조선민족을 해소시키고 야마토(大和)민족에 합류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조선민족의 절멸은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조선민족의 집대(集大)강화라고 마저—아니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60) 일본인.

궁극적인 내선일체를 체현(體現)하기에는 양 민족의 혈액적인 일원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나, 이 일원화는 백년이나 2백년의 짧은 시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도 전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나의 자손이 야마토(大和)민족화 했다고 해도, 앞에 적은 것과 같이 학문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판단 아래에서, 추호의 애수도 민족적인 불명예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도 아직 속단을 하면 곤란하다)

조선민족의 행복의 길은 이제는 두 가지 밖에 남아있지 않다.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위협과 침해와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 그중 하나이며, 민족의 일원화를 마지막 단계로 하는 내선일체제의 길이 또 다른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합병의 근본정신에서 말해도, 그 역사적 현실(과거 반세기를 포함하여)적으로 말해도 이제는 꿈에서라도 공상 해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공상 밖에 되지 않게 되는데 대하여, 후자는 예를 들면 이제는 어찌해도 결혼할 희망이 없는, 그래도 옛날에는 대단히 미인이었던 올드미스가, 자신에게 그러한 기분이 있다면 자신보다 훌륭한 남성과 결혼할 수가 있다는 경우—물론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현상적인 원리만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 민족이 성의를 가지고 손을 잡기만 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장래는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이정표인 것이다. 이러한 것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정정당당하게 이론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국은 이 문제에 한하는 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에 대하여 기탄없는 이론적인 투쟁의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어찌면 우리 지식인은 이 문제의 근본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깊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은 그것을 가장 고민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허영도 방편도 아닌 것이다.

아무튼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고고학적으로 보아도 또한 해부학, 언어학상에서 논구해 보아도, 일선(日鮮) 양 민족은 유기적인 혈족적인 동기간이라는 것이 증명 된지가 오래된 오늘날, 적어도 현재는 절대적인 선배인 일본이 고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었던 현재 후배인 조선을 향하여— 그것도 서로의 필요에 쫓겨서, 이제부터는 정말 한 몸이 되어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뜨거운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눈물겹도록 까지 한 절실한 면도 놀랄 만큼 두터운 정의(情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음으로써 그 손에 주저하는 눈동자가 지우 지며, 상대방 의사는 무시하고 증오(憎惡)의 침을 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3

이쪽에서 원해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일인 것이다. 그 부탁을 상대방으로부터 부탁해 왔다는 슬픈 사실—어떻게 되었던 그 남성적인 태도에 공명하고, 그 인간적인 도량에 우리는 목표를 설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혼자서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적어도 나에게만은 이 심적인 세계에까지 부딪힐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미나미(南) 총독 일대(一代)의 선언이기도 한 그 “내선일체”의 참 뜻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런 데로의 고심을 했었다.

내가 보고 확인한 한은, 미나미 총독은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서 그러한 선언을 내린 것은 아니며, 거의 맹목적이라고도 해야 할 정도로 과학 이상의 신념과 자신을 가짐으로써

또한 그것을 알고 남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매우 평범한 얼굴을 하고 발표한 선언이었다고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관찰은, 혹시 나의 억측이라고 비웃음을 살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한 관찰을 함으로서 비로소 나에게 미나미 총독의 정치가로서의 위대함을 재인식하도록 되었다. 정치는 힘이라기보다는 보다 큰 신념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이미 긴장을 한 나는 보다 주의 깊게 미나미 총독의 그 신념을 실현하는 방법론, 즉 정치적인 실천공작을 바라보는 당연한 단계에서 있는 자기 자신을 찾아 낸 것이나, 과연, 미나미 총독은 시일을 두지 않고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고, 육군지원병령을 창설하는 등의 역사적인 신극을 활달하게 멋지게 연출 해 내는 것이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정치에 관한 일이다. 먼 미래의 일은 짐 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먼저 이 만큼의 사실로써 나는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가 어떤 종류의 불순한 선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미나미 씨를 역사 선상의 조선총독으로 추대해도 좋은 것과, 인간 지로우(次郎)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이때 비로소 내 자신에게 말해서 듣게 할 수가 있었다.

몸에 밴 이 역사적인 현실 하에서, 조선민족이 데리고 온 자식의 비애와 울분과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서의 3대 의무를 다 하는 날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시대부터의 나의 정견(定見)인 것이었다. 납세의무, 병역의무, 그리고 교육의무,— 이 3가지 의무를 나라에 바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이론과 경우를 설정해도 국민으로서 내지인과 동등한 정신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향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항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3등 차표의 손님이 더 많이 낸 1등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기분 상으로 우월을 느껴서도, 느끼는 것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 수 없었다고는 해도, 불행하게도 또한 사정이 맞지 않아서 3대 의무 가운데 겨우 납세의무 하나 밖에 다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그 전부를 다 하고 있는 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가령 그것도 인정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비인정인 것이다.

4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자립으로의 가망이 보인다고 하면 또 이야기는 다르다. 가령 백보를 공상적으로 양보하고, 백년 뒤에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그 백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이에는 오히려 불행한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론적이고, 현실적 내지 철학적인 근거라도 있다고 하는 것인가? 두 번 다시 태어나지 못할 이 세상 이 생명이라면 왜 고생하며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하루라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우리들 예술가에 있어서, 이론만큼 무력한 것도 무가치한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론의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싫은 것이다.

대체로 민족주의에는 이론이 없는 것이 특색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에게는 친숙하기 쉬운 애교가 있는 주의지만, 아마도 또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의 가운데서 현재의 조선 민족주의만큼

난센스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상(事象)을 효과적으로 들어보고 싶지만, 여기에서는 그만두기로 한다. 그 무의미한 주의가 영원한 우리 문단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문단은 저주받고 저런! 축하 받을 것도 저런! 하는 것처럼 축하할 민족주의로부터 참으로 축하하는 민족주의로의 질적인 지양(止揚)이 현재의 우리 문단의 유일한 것으로 최고의 테제이며, 전취(戰取)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축하받는 민족주의란 어떤 주의인 것인가? 현실적으로 조선민족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길이 있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그것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길은 이미 밝힌 대로의 길이라는 것도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어보기로 한다. 신장(腎臟), 간장(肝臟)의 생리는 어떤 사유로 전신의 생리에 반항하지 않으면면 목이 서지 않을 것인가? 모체에 독약이 흘러 나왔을 때, 비로소 그 태아는 모체생리에 반작용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태아는 그 모체와 생사를 함께 해야 할 숙명에 처해졌을 경우에 있어서일까! 조선이 이미 기계적이 아니고, 생리적으로 유기적으로 일본의 한 국부(局部)로 되어버린 이상, 일본 그 자체를 살리는 이외에 조선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론도 이상도 아닌 생생한 현실이다. 눈앞의 상식인 것이다. 손이나 발이 소속하는 체구를 떠나서 또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별개다.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일본국가에 충실한 것이 역시 대의명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혈액 적으로 그 근원을 같이 하는 두 민족 간의 특수 현실 하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말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이 윤리적, 이론적 또는 감정적 이해 하에, 나는 국민으로서 같은 객관적인 조건, 즉 권리적인 사실을 향유할 우선 징병령과 의무교육령이 조선에 깔릴 것을 하루라도 빨리하고 절실히 바랐던 것이다.

때가 때인지라, 마침 그 사이에 갑자기 통치자가 '내선일체'를 폭탄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첫째 공사로써, 전기한 두 개의 법안 칙령을 세상에 전달한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조선교육령의 개정은 의무교육의 전제이며, 지원병제는 징병에의 시험적이고 암시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적어도 나는 해석하는 것이다.

5

세금은 이미 납부하고 있는 바, 뒤에 남은 두 가지의 국민적인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날에는, 그때는 내선일체라는 용어마저도 이상하게 될 만큼 우리는 동등한 국민적인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자명한 전망인 것이다. 적어도 그때는 조선이기 때문의 손해-속되게 말해서 바보취급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잠자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성을 기루며 이 국민적인 의무를 다 하는 그날을 그야말로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외는 길조차 없는 것이다.

만약에 그날이 와도, 아직도 무슨 민족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다행히, 나는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 준비 없이 어리석은 일본 위정자가 없다는 것을 간취(看取)했다. 즉 나는 국민으로서의 전적으로 권리를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향유할 장래가,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역사상에 설계되는 것에 부자연스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로 볼 때, 나는 내선일체주의가 조선민족의 역사적으로 밝고 나가야 할 현실적인 행복으로의 길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배격한 이유는 그 외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일본문의 창작집을 조선문단의 한 복판에서 내고자 했던 것과 또 하나는 작년 경성일보사 주최의 내선문단 좌담회에서 “우리도 종군해도 좋으냐”고 신청 했던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로 근본은 역시 그 일체(一體)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되돌아 보건데, 조선에 돌아 온 이래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조선문학을 위하여 싸우고 왔다. 그 흔적과 나의 일체주의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사이에 무슨 모순이 있을 것인가?

이상 나는 직접적으로는 조선문단 간접적으로는 그 영향 하에 있는 일반 지식층을 향하여 “의혹의 사람”으로서의 내 소신 일반을 피력한 것이나, 이러한 견해에 서서, 당연히 나는 또 보다 엄밀한 내지인 측에의 주문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정도의 자기 비하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민족사적인 현 단계에 있어서 내지인의 인식문제, 특히 나가서 번다는 정신 아래에 있는 재래의 이주자에의 정치적인 근본교육문제 등, 등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순 이론적으로 시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나, 다행히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논하여 왔던 우리 조선인 자신의 문제의 배경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문제이며,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연역(演繹)상의 여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으로써 그것을 해결해야 할 이후의 내지인은 충분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추측에 틀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자네 안에서 자네는 자네 모습을 찾아내는, 이러한 최애(最愛)의 윤리관계가 어느 팬가는 성과를 이루어야 할 민족 일원화에의 현 단계에서 호흡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바라건대 양 민족은 서로 함께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다, 존재로서 당위(當爲) 당위하고 또한 존재— 궁극의 철학적인 경지야 말로, 이상과 현실의 피안(彼岸)인 “내선일체”의 실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멈춰!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는가! (끝)

〈출전 : 金文輯, 「朝鮮文壇人へ—現實と朝鮮民族の問題(1~5)」,
『京城日報』, 1939년 3월 30일~4월 7일〉

(2) 『총동원』 권두언

막대한 비용을 들여—예를 들어 가뭄 대책의 하나인 이 총동원 식량문제 특집호이다. 세간에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는 부모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누구도 아니다. 입에 담는 일조차 황송하기 그지없다. 한 분(御一方)이 저 신이시기 때문이다.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큰 이 은혜를 우리는 몇 대에 걸쳐 그 1만분의 1을 갚는다 말인가?

내선일체는 이상도 이론도 아닌, 생생한 자기 현실이다. 문화적으로 혈액적으로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국체에 융합(溶合)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가상(假想) 하에서도 우리 조선은 존재할 수 없다.

위대하도다! 영광이로다. 미천한 이 몸으로 하여금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세계 지배자이게끔 하신 능

위(稜威) 또한 위대하도다. 성스럽도다! 그저 멀리서 앞드려 감읍낙루(感泣落淚)할 따름이다.

쌀 기근 따위가 어쨌단 말이냐! 국체는 무진장하다. 천하(六合)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고사기(古事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1집은 우리 고전의 한 구절을 여러 각도로 바꾸어 부연한 데 지나지 않는다. 고마운 미즈호노쿠니(瑞惠の國)⁶¹⁾여! 또 다시 흐르는 이 눈물을 어찌할꼬?

〈출전 : 金文輯, 「卷頭の言葉」, 『總動員』 1939년 11월호, 1쪽〉

(3) 합리적 발전적 귀환을 논하는 말, 씨 설정을 주제로, 반도풍습의 그 조국에로의 것

이것은 조선말(朝鮮語)로 행해진 민중 강화(講話)를 시간관계상 매우 조잡하게 번역한 것이다.⁶²⁾

1

개벽 이래 조선이 오늘날만큼 행복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하나 든다면, 그것은 조선이 원래의 조선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겠지요.

대체로 “조선”, “일본”이라는 것은 후세에 생긴 말로, 몇 천 년 전에는 그런 두 종류의 명칭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년 전까지는 충청도라고 하는 도가 하나 있어서, 충청감사가 이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충북 충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욱이 우리나라는 반도와 내지가 일신동체(一身同體)였던 것이 그 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해탄의 이쪽의 반도만이 따로 떨어져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본국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나라를 만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낡아 준 아버이를 떨어져 남의 집—아니 의붓아버지 집에서 “행랑방”살이를 해 온 그 자식의 비참함은 듣는 것만으로도 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지나(支那)라고 하는 나라를 의붓아버지로 받아들여, 고집스럽고 탐욕스런 의붓아버지를 섬기듯 섬겨 왔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도 편안하게 발을 뻗고 쉬고 있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30년이나 전에, 영명(英名)하고 자애로우신 우리 메이지(明治) 천황폐하는 친히 당신의 양 팔을 벌리시고 고생 끝에 병을 얻어 거의 주검에 가까웠던 조선이라는 자식을 끌어안아서, 곧바로 당신의 집에 데리고 돌아와서는 친자식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키워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2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데리고 와서 보고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입니다.

61) 일본.

62) 조선어를 일본어로 번역했다는 뜻.

몸에는 병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옷차림은 몹시 불쌍하고, 거기에다가 기상(氣象)은 완전히 바뀌어 조금도 손을 댈 수 없고 그 풍속이나 말하는 말조차, 모든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확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아버님이신 천황폐하께서는 이를 몹시 불쌍히 여기시고,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병든 우리 2천 3백만의 “조선”이라는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약과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지에서 다정하게 키워진 7천만의 자식들과 똑같이 복스럽고 행복한 형제로 키워 뛰어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을 다하셨습니다.

보십시오. 3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조선은 얼마나 밝고 청결하며 그리고 건전하고 풍요로워졌는지를! 구(舊) 한국 시절의 조선과 오늘날의 폐하 치하의 조선이 실제로 저승과 이승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리 바보라도 알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러한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30년 전에는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에는 반드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년 전까지는 마을에서도 유력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면 서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농사꾼의 자식이든 인력거꾼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서당보다 백배 천배나 훌륭한 학교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집으로 돌아와서, 만세일계(萬歲一系), 대대로 그 자리를 이어 받아 온 ‘종가의 자애를 내지동포와 다름없이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황실은 우리나라의 종가이며, 천황폐하는 우리나라의 아버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천3백만의 조선 동포는, 원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7천만 내지동포와는 친형제였습니다. 나중에 서로 헤어져 남처럼 지내왔으나 지금부터 30년 쯤 전에 다시 원래대로 우리 종가에 돌아가,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사실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적상으로 보아도 내지동포와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형제가 된 것입니다.

3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지와 반도가 한 지붕의 종가 아래에 사는 일가(一家)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인정, 풍속, 습관, 행사 같은 것이 서로 닮았거나 같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랜 옛날에는 내지와 조선이 완전히 하나의 집이었으므로 서로 말도 같았고 먹는 것도 같았으며, 풍속이나 복장, 집을 짓는 방법, 논을 만드는 방법, 관리가 되는 의식, 이름을 붙이는 방식…… 무엇이든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름 높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 확실하다고 한결같이 증명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와 미국은 일가(一家)가 아니므로 말이나 풍속, 모든 것이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태고 때의 내지와 조선은 한 집이었으므로 무엇이든지 같았다고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 조선이 내지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서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말이나 음식, 옷, 사람 이름을 붙이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지나를 너무나 숭배한 탓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이름을 붙이는 방법까지 지나 흉내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천년 정도 전까지는 내지와 조선이 사람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

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시대의 조선인의 이름은 예를 들면 ‘이마로’라거나 ‘사타마로’라고 하는 식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내지의 오래된 이름인 무슨 무슨 마로(磨呂)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지에서도 상고(上古)시대에는 성이라는 것 없이 오직 이름만 있었는데(조선도 그랬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오늘날 아직도 북한산에 남아 있는 신라 진흥왕이 세운 비석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나, ‘성’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지나의 문화가 상당히 진보하여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내지의 어떤 일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나 흉내를 내어 성을 붙이는 것이 유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근본을 따져보면 세상에서 이 지나의 성이라고 하는 것만큼 황당무계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이 조상의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에 성은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가령 인종별로 그 조상이 같다고 한다면 백인종에 성 하나, 황, 흑, 홍 …… 인종에 각각 하나씩의 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성은 하나씩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나에는 현재 여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 한(漢)민족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 성은 몇 천 몇 만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4

그러므로 지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우선 일본 내지의 우지(氏)와 비슷한 것(물론 그 적용법이나 구성법은 전혀 다릅니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혈통이 동일하다거나 조상이 같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원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있었다. 형은 왕골에 살고 있어서 왕 씨가 되고 아우는 점(占)을 치고 있어서 점(占)이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몇 백년이 지나 점이의 자손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다른 나라로 달아났다. 이 나라의 태수가 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 혈족인 척하려고 진이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왕, 점, 진, 빈 등 대체로 성이라는 라벨이 붙은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엉터리 같은 신원표시(身元章)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식입니다.(호적법이 없는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것은 말하는 쪽이 잘못일지도 모르지만.)

조선의 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에 어쩌서 예를 들어 ‘xxx 씨’(씨는 이 경우 성을 가리킨다)가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xx의 xx가 xxx 씨이니까 나는 xxx 씨이다 나도 xxx 씨이다 하는 식으로 신분에 자신이 없는 자들은 어중이떠중이 모두 xxx 씨로 둔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 예로 만약에 xxx 씨가 화를 낸다면 성이 있는 조선사람은 모두 화를 내야 할 테니 오해가 없으시길)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저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 즉 경주 김 씨라고 족보에 쓰여 있으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재 조선에 경주 김 씨가 백만 명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천 2백년 전 경순왕 시대의 모든 조선의 남자 수를 아주 적게 잡아 백만 명이라고 해 볼까요. 그러면 경순왕만 아이를 낳는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때의 백만의 조선남자는 천2백년 후인 오늘날은 각각 평균 백만 명씩의 자손을 낳았을